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8

국역 입학도설

入學圖說

양촌 권근 저

조우진·정영수 역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입학도설(入學圖說)

1. 『입학도설』 번역의 필요성

이 책은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입학도설』을 번역한 것이다. 『입학도설』은 성리학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을 위해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자연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조선 유학의 대표적인 철학 논쟁은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사단칠정 논쟁이다. 사단칠정 논쟁은 추만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의 「천명도(天命圖)」에 보이는 사단과 칠정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천명도」 작성에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입학도설』이다. 『입학도설』은 조선 유학이 인간 내면의 심성인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에 대한 논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 책이다.¹ 그러므로 『입학도설』에 대한 이해는 조선 유학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한국사상연구회 지음,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예문서원, 2000), 16쪽 참조. 장숙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조 성리학의 이론 체계는 인간의 내면적인 심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인심도심(人心道心),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논변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 유학의 특성의 단초가 바로 이 『입학도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입학도설』의 번역본으로는 1974년에 을유문화사에서 출판하고 권덕주 선생이 번역한 것이 있다.² 하지만 이 책은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되어 있는 『입학도설』의 전집 부분만을 번역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입학도설』에 대한 연구논문 또한 전집에서 다루고 있는 천(天)·인(人)·심(心)·성(性)을 주제로 하는 심성론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³ 『입학도설』의 후집 부분은 역학적 세계관과 자연관을 다루고 있다. 후집 부분의 역학에 기초한 성리학적 자연관과 세계관의 이해는 조선 유학자들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입학도설』의 전집과 후집 전체가 번역될 때, 성리학의 심성론과 세계관 그리고 자연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성리학자들의 문집을 단순히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삶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입학도설』 번역은 한국 성리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 후

2 『입학도설』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권덕주, 『입학도설』(을유문화사, 1974)” 이 책은 현재 절판 상태이다.

3 『입학도설』과 관련된 연구로는 석사학위 논문 1편(정민정, 『양촌 권근의 심성론 연구-『입학도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6)이 있고, 연구논문으로 대략 10편이 있다. “전병용, 『『입학도설』의 심성론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 『퇴계학보』 148권, 퇴계학연구원, 2020, 113~148쪽.”, “조희영, 『조선 도서학(圖書學)의 효시-권근의 『입학도설』』, 『민족문화연구』 72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03~234쪽.”,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권, 2017, 251~276쪽.”, “장숙필, 『사칠논쟁의 연원과 문제의식-『입학도설』과 『천명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2권, 동양고전학회, 2008, 129~158쪽.”, “이상곤, 『『입학도설』 전집(前集) 도상(圖像) 복원과 디지털화』,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2권,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149~180쪽.”, “김평원, 『전통 교과서의 시각화 전략에 대한 연구-『입학도설』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35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35~160쪽.”, “강문식, 『『입학도설』의 편간(編刊) 경위와 경학론』, 『장서각』 제2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02~127쪽.”, “정대환, 『『입학도설』을 통해 본 권근의 성리학』, 『범한철학』 제26집, 범한철학회, 2002, 85~108쪽.”, “유권중,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철학탐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5~39쪽.”, “이종상, 『입학도설 후집을 통해 본 양촌의 사상』, 『한국철학논집』 3집, 1993.”

속 세대를 위한 교재로 이용될 것이다. 즉, 성리학을 연구하려는 학문 후속 세대들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학도설』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성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재로 가장 알맞은 책이다.

2. 『입학도설』의 저술 배경 및 판본

양촌 권근은 고려 시대 말엽 공민왕 원년 1352년에 태어났으며, 17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18세에 관시(館試)에 합격하여 춘추검열(春秋檢閱)에 제수되어 관직에 진출한다. 권근은 1389년 이전까지 관리로서 탄탄대로를 걷는다. 하지만 1389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명나라 예부(禮部)에서 작성한 고려의 왕권 진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왕씨(王氏)가 아닌 우(禡)·창(昌)을 국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 힐책하는 글을 가져오면서 불행은 시작된다. 권근은 이 글을 몰래 뜯어보고 도당(都堂) 회의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문인 이승인(李崇仁)⁴이 대간(臺諫)에게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해 탄원 상소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황해도 우봉(牛峯)과 전라북도 익주(益州: 익산)로 유배된다. 『입학도설』은 그가 39세에 익주에 유배되어 있던 시절에 만든 책이다. 이에 대해 권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홍무(洪武) 경오년(庚午年, 1390) 가을 금마군(金馬郡: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에 귀양 와 있는데, 한두 명의 초학자들이 와서 『중용』과 『대학』 두 책을 읽었다. 그들에게 말로 반복해서 설명해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주돈

4 이승인(李崇仁): 이승인(1347~1392)은 자가 자안(子安)이고, 호는 도은(陶隱)이며,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이 선생의 「태극도」를 근본으로 하고, 주희 선생의 『장구』 설을 참고해 그림을 만들어 보여주었으며, 또 선현들의 격언을 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주었다. 학생들이 묻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에 맞게 대답해주고 그 묻고 답한 말을 기록해서 그 뒤에 붙여넣었고 그것을 이름하여 『입학도설』이라고 했다.⁵

권근이 활동하던 시대는 성리학이 한반도에 도입되어 전파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한반도에 최초로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은 고려 말 안향(安珦)⁶이다. 안향은 1288년에 고려 충렬왕(忠烈王)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연경(燕京)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보고 필사하여 귀국한다. 이후 안향은 평생을 주자학 연구에 바친다. 그가 죽은 이후 백이정(白頤正)⁷, 우탁(禹倬)⁸, 권부(權溥)⁹ 등이 안향을 이어 주자학을 보급하였다. 권부는 이제현(李齊賢)¹⁰, 이곡(李穀)¹¹에게 학문을 전했다. 이제현과 이곡은 이색(李穡)¹²에게 학문을 전하고, 이색은 권근에게 학문을 전했다. 즉 권근은 이색의 제자로서 성리학의 도통 계보를 계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권근은 유배를 당한 몸이었지만 그는 고려 성리학 도통을 계승한 사

5 『入學圖說』, 「序」.

6 안향(安珦): 안향(1243~1306)은 자가 사운(士蘊)이고, 호는 회현(晦軒)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7 백이정(白頤正): 백이정(1247~1323)은 자가 약현(若軒)이고, 호는 이재(彝齋)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본관은 남포(藍浦)이다.

8 우탁(禹倬): 우탁(1263~1343)은 자가 천장(天章)·탁보(卓甫)이고, 호는 역동(易東)이며,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9 권부(權溥): 권부(1262~1346)는 자가 제만(齊滿), 호는 국재(菊齋),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0 이제현(李齊賢): 이제현(1287~1367)은 자가 중사(仲思)이고, 호는 익재(益齋)·역옹(櫟翁)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1 이곡(李穀): 이곡(1298~1351)은 자가 중보(仲父)이고, 호 가정(稼亭)이며, 시호 문효(文孝)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12 이색(李穡): 이색(1328~1396)은 자가 영숙(穎叔)이고, 호는 목은(牧隱)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람으로 그의 학문적 위상이 매우 높았다. 그 지역 유지들은 그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보내 성리학을 배우게 하였다. 하지만 권근 당시에는 성리학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선진유학과는 달리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태극(太極), 리(理), 기(氣), 심(心), 성(性) 등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권근은 학생들이 성리학 이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도입하였다. 오늘날 복잡한 이론을 쉽게 소개할 때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듯이 권근 또한 그림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다. 『입학도설』은 학생 교육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권근이 인용문에서 언급하듯이, 『입학도설』은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입학도설』은 성리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돈이의 「태극도(太極圖)」와 이에 대한 주희의 해설 및 성리(性理) 이론의 정수를 『사서장구(四書章句)』에서 발췌하여 보충하고, 또 부족한 것은 여러 기타 성리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입학도설』의 내용은 권근이 임의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리학자의 핵심 이론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권근은 단순히 성리학의 기초 이론을 이미지화 한 것을 넘어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덧붙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

『입학도설』의 전집 초간본의 「서(序)」는 1390년에 권근이 작성했지만, 전집의 끝부분에는 김이음(金爾音)¹³이 1397년에 쓴 발(跋)이 있다. 「서」와 「발」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입학도설』 전집의 초고가 완성

13 김이음(金爾音): 김이음(?~1409)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창(咸昌), 자는 백옥(伯玉), 호는 삼로(三路)이다.

된 것은 대략 1390년이거나 그 이후이며, 최초로 간행된 것은 1397년(晉陽 초간본)이다. 또한 『입학도설』의 전집과 후집을 통합하여 간행한 것은 정도전(鄭道傳)¹⁴의 지(識)와 권근의 제자인 변계량(卞季良)¹⁵의 발(跋)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즉, 『입학도설』 후집 끝부분에 붙어 있는 정도전의 지(識)는 1399년(洪武 戊寅)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변계량의 발(跋)은 1425년(洪熙 乙巳)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추론해보면, 『입학도설』의 후집이 완성된 것은 대략 1399년이고, 전집과 후집을 통합하여 간행한 것은 권근 사후(死後)인 1425년(晉陽 통합본)이다.¹⁶

이후에도 『입학도설』은 여러 차례 간행된다. 1545년(인종 2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간행한 낭주본(浪州本)이 있으며, 이 판본은 진양 초간본을 간행한 것이다. 1547년(명종 2년)에 경상북도 영주에서 간행한 영천본(榮川本)이 있으며, 이 판본은 전집과 후집을 통합한 것이다. 끝으로 『입학도설』은 일본에도 전해지게 되었으며 1633년에 간행된 경안본(慶安本)이 존재한다.¹⁷

『입학도설』은 권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책이다. 권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이후 조선 유학의 성격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입학도설』은 조선 유학의 발전뿐만 아

14 정도전(鄭道傳): 정도전(1342~1398)은 자가 종지(宗之)이고, 호는 삼봉(三峯)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본관은 봉화(奉化)이다.

15 변계량(卞季良): 변계량(1369~1430)은 자가 거경(巨卿)이고, 호 춘정(春亭)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6 『입학도설』의 판본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유권중,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도설』, 『철학탐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5~39쪽.”

17 유권중은 일본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입학도설』에는 1633년(寬永 癸酉, 仁祖 11년)에 지은 里村遇菴자의 발문이 실려 있다. 이 발문에는 자세한 판각과 인출 과정이나 사정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발문의 지은이가 1632년 처음으로 『입학도설』과 말미에 붙은 삼봉의 5편의 글을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내용이 있다.”(유권중,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도설』, 『철학탐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13쪽.)

나라 일본의 유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3. 『입학도설』의 구성 및 내용

『입학도설』은 전집과 후집을 합해서 총 39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번째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와 9번째 「어·맹대지(語·孟大旨)」 부분은 그림 없이 설명만 붙어 있으며, 나머지 37개는 그림과 설명이 붙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근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성리학의 핵심 이론과 세계관, 그리고 역학적 자연관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입학도설』을 저술했다. 『입학도설』 전집과 후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전집 목차	후집 목차
1. 天人心性合一之圖	25. 十二月卦之圖
2. 天人心性分釋之圖	26. 周天三辰之圖
3. 大學指掌之圖	27. 一卦生閏之圖
4. 中庸首章分釋之圖	28. 天地豎看之圖
5. 中庸分節辨議	29. 天地橫看之圖
6.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30. 望前生明之圖
7. 時裕之圖	31. 望後生魄之圖
8. 一室之圖	32. 土圭測影之圖
9. 語·孟大旨	33. 土旺四季之圖
10. 五經體用合一之圖	34. 律呂隔八相生之圖
11. 五經各分體用之圖	35. 五聲八音之圖
12. 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36. 周南篇次之圖
13. 河圖五行相生之圖	37. 變風十三國之圖
14. 洛書五行相剋之圖	38. 公族及太宗之圖
15. 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39. (附)掛拗過揲之法
16. 先天方位圖	
17. 先天方位方圖	
18. 伏羲先天八卦·文王後天方位圖	
19. 陰陽六九爲老之圖	
20. 天地生成之數	
21. 河圖中宮之數	
22.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23.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24. 無逸之圖	

1) 전집의 구성

전집의 내용은 총 24개로 구성되었는데, 천인심성과 사서오경의 구조, 음양오행의 원리인 하도·낙서, 선천·후천 등을 다루었다. 즉 전집은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다루고, 역학의 기본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는 주돈이의 「태극도」와 주희의 『중용장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천(天), 인(人), 심(心), 성(性) 그리고 이기(理氣)와 선악(善惡)의 차이를 분석하여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밝혔다.

제2 「천인심성분석지도(天人心性分釋之圖)」는 ‘천(天)’, ‘인(人)’, ‘심(心)’, ‘성(性)’의 네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는 『대학』의 전문(傳文)을 지(知)와 행(行)으로 나누고 본(本)과 말(末)을 구분하여 후(厚)와 박(薄)을 밝히기 위해 경문의 문장을 변화시킨 것이라 주장한다. 뒷부분에 「대학입전변문이분지행본말후박삼절변의(大學立傳變文以分知行本末厚薄三節辨議)」가 있다.

제4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는 『중용』 첫 장의 천명(天命), 성(性), 도(道), 교(教)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제5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는 『중용』 경문의 분절(分節) 문제에 있어서 주희와 요로(饒魯: 황간의 문인)의 주장을 절충하여 총론을 3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5개의 절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6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는 제후가 조상의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시는 법도를 그린 것이다. 중앙에 시조(始祖)를 모시고, 왼쪽을 소(昭)라고 하고, 오른쪽을 목(穆)이라고 한다.

제7 「시협지도(時裕之圖)」는 6세조와 7세조의 군주를 태묘에 합제할 때 신주의 위치를 그린 것이다.

제8 「일실지도(一室之圖)」는 사당의 예법에 있어서 묘(廟)는 남쪽을 향하고 신주는 동쪽을 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9 「어·맹대지(語·孟大旨)」는 『논어』와 『맹자』의 핵심적 의미가 인(仁)과 의(義)임을 밝히고 있다.

제10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圖)」는 오경(五經)의 체계를 체용(體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11 「오경각분체용지도(五經各分體用之圖)」는 오경의 내용을 체용(體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12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는 성인이 『춘추』를 쓸 때 천시(天時)와 왕월(王月)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13 「하도오행상생지도(河圖五行相生之圖)」는 「하도」의 수 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행인 목화토금수의 상생 원리와 동서남북 사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14 「낙서오행상극지도(洛書五行相剋之圖)」는 「낙서」의 수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행인 수화금목토의 상극 원리와 팔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15 「태극생양의사상팔괘지도(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는 태극으로부터 음양, 4상, 8괘, 64괘의 생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6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는 끝이 없는 하늘의 모습을 그린 원도로 방위를 함께 설명한 것이며, 태극을 중심으로 팔괘를 겹쳐서 64괘를 둥근 하늘에 펼친 그림이다.

제17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는 끝이 있는 땅의 모습을 네 모로 그려 설명한 것이며, 팔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제18 「복희선천팔괘·문왕후천방위도(伏羲先天八卦圖·文王後天方位圖)」는 방위와 8괘의 배열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19 「음양육구위노지도(陰陽六九爲老之圖)」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통해서 기수(奇數)에 해당하는 양과 우수(偶數)의 해당하는 음을 설명하여 변화하는 노음과 노양의 수가 6과 9임을 말하고 있다.

제20 「천지생성지수(天地生成之數)」는 생성의 수로 노양(老陽)·소음(少陰)·소양(少陽)·노음(老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제21 「하도중궁지수(河圖中宮之數)」는 음양이 수에 있어서 9와 6이 노양과 노음이 되는 것을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원리로 설명하고, 또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머지의 수를 통해 노양과 노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22 「홍범구주천인합일도상(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과 제23 「홍범구주천인합일도하(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는 『서경』 「홍범」의 구주(九疇)에 천도와 인도가 다 갖추어져 있으며, 오행(五行)·오사(五事)·황극(皇極) 세 가지가 핵심이라 주장한다.

제24 「무일지도(無逸之圖)」는 『서경』 「무일」편을 요약한 것으로 왕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다.

2) 후집의 구성

후집의 그림은 총 15개로 역학의 원리, 천문, 율려, 역법, 그리고 『시경』과 실시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후집의 내용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자연관을 이루는 역학(易學)과 역법(曆法)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25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는 1년 24절기의 변화를 12벽괘와 음양의 소장(消長)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26 「주천삼신지도(周天三辰之圖)」는 별자리 28수(宿)와 12진

(辰), 해와 달의 운행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27 「일기생운지도(一基生閏之圖)」는 천체의 일주와 해와 달의 운행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제28 「천지수간지도(天地豎看之圖)」는 하늘과 땅, 사계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29 「천지횡간지도(天地橫看之圖)」는 하지와 동지에 해 그림자의 길이와 밤낮의 길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제30 「망전생명지도(望前生明之圖)」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달의 크기 변화를 설명하고, 해가 질 때의 달의 위치와 달이 지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다.

제31 「망후생백지도(望後生魄之圖)」는 보름 이후 16일부터 30일까지 달의 크기 변화와 해가 뜰 무렵의 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제32 「토규측영지도(土圭測影之圖)」는 『주례』 「대사도」에 나오는 해의 그림자 측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3 「토왕사계지도(土旺四季之圖)」는 사계절의 변화와 목화토금수 오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34 「울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는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을 통해 12울을 얻는 방법과 오성(五聲)과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35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는 오성(五聲)과 팔음(八音) 및 오기(五氣)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제36 「주남편차지도(周南篇次之圖)」는 『시경』 「주남」편의 시 11편을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의 연관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37 「변풍십삼국지도(變風十三國之圖)」는 『시경』의 정풍(正風)과 변풍(變風)이 나누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38 「공족급태종지도(公族及太宗之圖)」는 조종(祖宗) 개념을 통해 적자(嫡子)와 별자(別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9 〈부록〉 「괘극과설지법(掛劫過揲之法)」은 설시법을 통해 어떻게 『주역』의 괘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4. 『입학도설』의 학문적 의미

『입학도설』은 조선 성리학의 기초개념들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입학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간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주가 어떤 원리로 운행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입학도설』 가운데 조선조 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천인심성합일지도」일 것이다.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천, 인, 심,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주돈이의 「태극도」와 주희의 『중용장구』에 근거해 인간 심성의 이기(理氣)·선악(善惡)의 차이를 밝혀 학생들에게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변화하여 생성되는 형상에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인간과 사물이 생겨남에 리(理)는 같지만, 기(氣)는 통함과 막힘·치우침과 바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바름과 통함을 얻은 것은 사람이 되고, 치우침과 막힘을 얻은 것은 사물이 된다. 이 「천인심성합일지도」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성(誠)자’ 부분은 가장 바른 것과 가장 잘 통한 것을 얻어 성인이 되고, ‘경(敬)자’ 부분은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 일반 사람이 되고, ‘욕(欲)자’ 부분은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 사물이 되고, 그 아래 금수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더욱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으면 초목이 된다.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우주에서 인간이 리와 기의 결합으로 탄생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만물도 인간처럼 리와 기의 결합으로 탄생하며,

리(理)의 측면에서는 인간과 만물은 같은 리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기(氣)의 측면에서는 인간과 만물에 차이가 있다. 즉,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인간이 사물과 같은 점은 리, 다른 점은 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인간의 심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성(誠)’으로 가장 바른 것을 타고나서 타고난 선함을 잘 발휘하여 성인이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경(敬)’으로 기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선을 행하는 군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욕(欲)’으로 욕망만을 따를 때 불선을 행하여 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욕’의 영역에서도 노력을 통해 선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처럼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같은 인간 안에서도 어떻게 차이가 생겨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어떤 인간은 선하고 어떤 인간은 왜 불선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성(性)과 정(情) 그리고 사단과 칠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불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조선 유학의 중요한 논쟁인 사단칠정, 인심도심 등에 영향을 미쳤다.

『입학도설』은 천, 인, 심, 성 개념을 넘어 『사서』와 『오경』의 대의를 요약하여 논하고 있다. 나아가 성리학적 세계관과 자연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역학적 자연관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12벽괘, 오행의 상생과 상극, 천문, 역법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런 자연철학적인 내용들은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대체로 통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찰해야 할 기초 지

식이다. 나아가 『입학도설』은 성리학 귀신론에 기초하여 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효와 관련하여 논하기도 한다. 즉 『입학도설』은 조선 유학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입학도설』 번역의 필요성 및 전·후집의 구성, 그리고 그 철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입학도설』은 조선 성리학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설을 통해 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삶의 태도를 이해할 개념적 지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입학도설』은 성리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기초 교재로서 기능할 것이다.

차례

해제(解題) • 3

일러두기 • 20

『입학도설』 서(序) • 21

발(跋) • 23

제1부 | 전집(前集) • 25

1.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 26
2. 천인심성분석지도(天人心性分釋之圖) • 29
3.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 • 56
4.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 • 70
5.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 • 74
6.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 89
7. 시협지도(時裕之圖) • 90
8. 일실지도(一室之圖) • 91
9. 어·맹대지(語·孟大旨) • 98
10.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圖) • 100
11. 오경각분체용지도(五經各分體用之圖) • 102
12.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 103
13. 하도오행상생지도(河圖五行相生之圖) • 106
14. 낙서오행상극지도(洛書五行相剋之圖) • 108
15. 태극생양의사상팔괘지도(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 110
16.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 • 112
17.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 • 114

- 18. 복희선천팔괘·문왕후천방위도 (伏羲先天八卦·文王後天方位圖) • 117
- 19. 음양육구위노지도(陰陽六九爲老之圖) • 121
- 20. 천지생성지수(天地生成之數) • 123
- 21. 하도중궁지수(河圖中宮之數) • 125
- 22. 홍범구주천인합일도상(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 128
- 23. 홍범구주천인합일도하(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 129
- 24. 무일지도(無逸之圖) • 133

제2부 | 후집(後集) • 137

- 25.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 138
- 26. 주천삼신지도(周天三辰之圖) • 141
- 27. 일기생운지도(一葦生閏之圖) • 149
- 28. 천지수간지도(天地豎看之圖) • 151
- 29. 천지횡간지도(天地橫看之圖) • 155
- 30. 망전생명지도(望前生明之圖) • 159
- 31. 망후생백지도(望後生魄之圖) • 161
- 32. 토규측영지도(土圭測影之圖) • 165
- 33. 토왕사계지도(土旺四季之圖) • 168
- 34. 율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 • 171
- 35.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 • 174
- 36. 주남편차지도(周南篇次之圖) • 179
- 37. 변풍십삼국지도(變風十三國之圖) • 184
- 38. 공족급태종지도(公族及太宗之圖) • 194

부록 | 괘특과설지법(掛拂過揲之法) · 197

以五十之蓄虛一分二掛一揲四 · 198

『전집』 발(跋) · 209

지(識) · 213

『입학도설』 발(跋) · 215

『입학도설』 중간(重刊) 발(跋) · 219

양촌 선생 『입학도설』 후제(後題) · 221

양촌 권근 연보(年譜) · 223

『조선왕조실록』 권근 관련 기사(記事) · 233

찾아보기 · 239

일러두기

- 이 책은 1929년 4월 충남 논산에서 권오철(權五哲)이 추진하고 권태협(權泰奭)이 중간(重刊)한 『양촌입학도설』을 번역한 책으로 『입학도설』이라 칭한다.
- 『입학도설』의 원문은 진양본(晉陽本)과 낭주(浪州)본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 번역문의 구성은 먼저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해제, 그림, 번역문, 원문 순서로 배치하였다.
- 각주는 13경과 성리학 관련 저서를 중심으로 달았다.
- 번역은 한글 전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역주에서는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 인명은 각주에서 생몰연대, 자, 호, 시호, 본관만 표기하였다.
- 번역문 끝에는 『입학도설』과 관련된 전집(全集) 발(跋), 지(識)를 포함하여 연대별로 모두 수록하였다.
- 번역서 뒤에는 양촌 권근의 「연보」를 정리하고 『조선왕조실록』에서 권근 관련 기사를 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다.

『입학도설』 서(序)

흥무 경오년(1390) 가을 금마군(金馬郡)¹⁸에 귀양 와 있는데, 한두 명의 초학자들이 찾아와 『중용』과 『대학』 두 권을 읽었다. 그들에게 말로 반복해서 설명해도 오히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를 근본으로 하고, 주희 선생의 『장구』 설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으며, 또 선현들의 격언을 취하여 그 의미를 해석했다. 학생들이 묻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에 맞게 대답해주었으며, 그 묻고 답한 말을 기록하여 그 뒤에 붙여 넣고서 그것을 이름하여 『입학도설』이라고 했다. 두루 다른 경전에서도 취하여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림으로 그렸다. 때로는 그림마다 나의 견해를 붙여 놓고서 스승과 어르신들께 나아가 교정하고 싶었지만, 이 지역에 선배 학자들이 없었고 몸이 귀양살이로 얽매여 있어서 우선 후일을 기다릴 뿐이다. 보는 사람은 잘못된 말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가르침을 주면 다행이겠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해(1390) 10월 초하루 영가(永嘉)¹⁹의 후학 권근은 삼가 쓰다.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謫在金馬郡，有一二初學輩來讀『庸』·『學』二書者。語之諄復，尚不能通曉。乃本周子之「圖」，參『章句』之說，作圖以示，又取先賢格言以釋其意。學者因有所問，又隨而答之，仍記其問答之言，以附其後，名之曰『入學圖說』。旁取他經，凡可作圖者，皆圖之。往往各附臆見之說，欲就正於先生長者，鄉無先進，身拘謫籍，姑待後日而已。觀者幸恕其妄

18 금마군(金馬郡):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시의 통일신라시대 이름이다.

19 영가(永嘉): 경상북도 안동군의 옛 이름이다.

言而教之. 是所望也.

是歲良月初吉, 永嘉後學權近謹題.

발(跋)

이것은 선유인 양촌 권근이 지은 것이다. 선생은 천백 년 뒤에 태어나 배우는 자가 지향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함을 개탄하고, 마침내 여러 현인의 말을 두루 고찰하여 『입학도설』을 만들어 지침으로 삼았다. 천 인심성의 구분과 성현이 지은 경전의 본지는 조리가 다 갖추어져 빛나고 흥미하지 않았다. 비록 몽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힘써 가르침을 주지 않더라도 직접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흰하계 막힘이 없으니 초학자에게 보탬이 있을 것이다. 어찌 알다고 하겠는가? 우리 감사 상국 심광언(沈光彦)²⁰은 배움과 가르치는 일에 독실한데, 부임한 곳에서 처음으로 진양 판본 한 질을 얻어 살펴보니 자획이 지나치게 작고 잔결된 것이 많아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에게 책을 개수하여 읍에서 간행하고 반포할 것을 부탁했다. 나는 곧 교정하고 그릇되고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고, 현리(縣吏)로 하여금 옛 판본보다 조금 크게 글을 써서 상공께서 사문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뜻에 부응하게 했다. 오호라 앞선 성현의 도를 열어 후학들에게 개시한 사람이 양촌 선생이다. 양촌의 뜻을 계승하여 성인의 학문을 무궁하게 발휘한 사람은 우리 상공이다. 후학들은 이 그림을 공경스럽게 받아들여 도에 들어가는 문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실마리를 찾는다면 머지않아 나아가는 바가 원대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을사년(1545) 1월에 인천의 후에 채무일(蔡無逸)²¹이 낭주 근민당에서 삼가 쓰다.

20 심광언(沈光彦): 심광언(1490~1568)은 자가 언지(彦之)이고, 호는 둔암(鈍庵)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21 채무일(蔡無逸): 채무일(1496~1556)은 자가 거경(居敬)이고, 호는 일계(逸溪)·휴암(休巖)이며, 본관은 인천(仁川)이다.

跋

此迺先儒，陽村權近所撰也。先生生於千百載之後，慨念學者怵於所向，遂歷考諸賢之語，作為圖說，用以指南也。天人心性之分，聖經賢傳之旨，條理畢舉，燦然不迷。雖蒙愚不勞提耳之示，而便能目擊心悟，豁然無礙，其有補於初學也，豈淺淺乎哉？吾監司相國沈公光彥，篤於學教之事，下界之初得晉陽刊本一帙以覽，則字畫過細且多殘缺，難於考閱。故屬予改書，仍欲邑刊以布。予卽謹加考正，訛舛指畫，縣吏使稍大於舊本以書，仰副相公眷眷於斯文之美意也。於戲啓先聖之鑰，而開示後學者陽村也。繼陽村之志而發摛聖學於無窮者，吾相公也。後之學者敬受此圖，尋究戶牖紬繹不已，則他日所造之遠，其可量也。

嘉靖旃蒙大荒落臯攝提，仁川後裔 蔡無逸謹跋于浪州近民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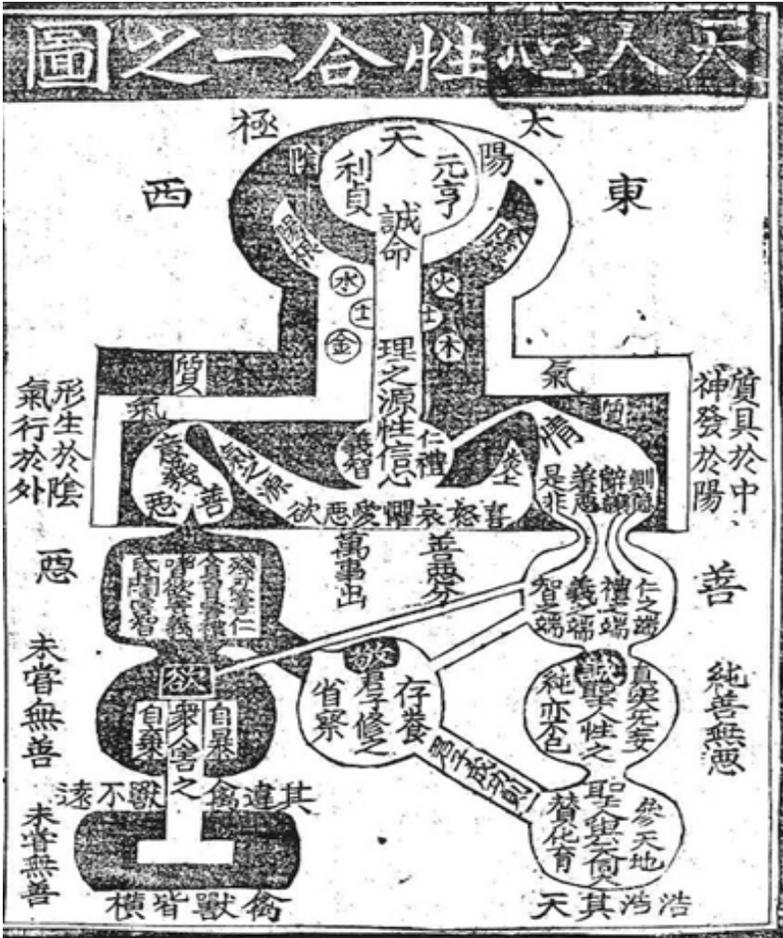
제 1 부

전집(前集)

전집은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다루고,
역학의 기본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해제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우주론·존재론·수양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돈이의 「태극도」와 주희의 『중용장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천(天), 인(人), 심(心), 성(性) 그리고 이기(理氣)와 선악(善惡)의 차이를 분석하여 성리학의 근본을 밝힌 것이다. 이 그림은 조선 유학사에서 16세기 이후에 발생한 사단칠정 논쟁을 비롯한 여러 논쟁과도 관련되어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할 적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한다.”²²라고 하였다. 지금 이것에 근거하여 이 「천인심성합일지도」²³를 그렸다.

朱子曰：“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氣以成形，而理亦賦焉。”今本之，作此「圖」.

앞의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와 주희 선생의 『중용장구』의 설에 따라 인간 심성의 측면에서 이기·선악의 차이를 밝혀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이 변화 생성하는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과 사물이 생겨날 때 리는 같지만, 기는 통합과 막힘, 치우침과 바름의 차이가 있으니, 그 바르고 통한 것을 얻은 것은 사람이 되고 그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은 것은 사물이 된다. 이 「천인심성합일지도」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성’자 부분은 가장 바르고 가장 잘 통한 것을 얻어 성인이 되고, ‘경’자 부분은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 보통 사람이 되고, ‘육’자 부분은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 사물이 되고, 그 아래 금수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더욱 치우치고 막히

22 하늘은...부여된다: 주희가 『中庸』 1장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을 해석한 부분이다.

23 「천인심성합일지도」: 徐居正, 『筆苑雜記』 권1. “문충공(文忠公) 양촌 권근은 일찍이 『입학도설』을 지었는데,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설」과 주희 선생의 『중용장구』의 설에 의거하여 「천인심성합일지도」를 만들었다. (이 그림 내용이) 광대하고 모든 이치를 포괄하며, 정미하고 심오하여 이전 성현이 계발하지 못한 것을 확충하여 후학들에게 무궁한 이치를 열어주었다. ‘군자는 중정과 인의를 닦으므로 길하고 소인은 중정과 인의를 거스르므로 흉(凶)하다’라고 한 말은 큰 강령만을 들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인 것인데 그 뜻이 깊다. 그 조카인 권채(權採) 선생은 또 『입학도설』과 주희 선생의 『중용장구』와 『대학장구』와 『혹문』의 설에 의거하여 천리가 유행하고 발육하는 현상과 배우는 사람이 기질을 변화시켜 성인이 되는 방법을 저작하였다. 그 덕으로 나아가는 선후의 조목은 공자·증자·자사·맹자 등의 설을 인용했고, 그 공부할 때 얕고 깊은 의미는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이론으로써 판단하였다. 그가 논한 천인심성의 설에는 양촌의 뜻을 발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에 「작성도(作聖圖)」를 만들었다.”

게 되면 초목이 된다. 이것은 만물이 변화 생성하는 현상 또한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천지의 변화는 생겨나고 생겨나서 다함이 없으니 가는 것은 사라지고 오는 것은 잇는다.²⁴ 인간과 짐승과 초목의 온갖 형태와 형상이 각각 성명을 바르게 부여받는 것은²⁵ 모두 하나의 태극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각각 하나의 리를 갖추고 있고 온갖 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니²⁶, 하나의 풀과 하나의 나무가 각각 하나의 태극이며, 천하에는 성 밖에 사물이 없다.²⁷ 그러므로 『중용』에서 “그 성을 다 할 수 있으면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며, 천지의 변화와 발육을 도울 수 있다.”²⁸라고 말한 것이다. 아! 얼마나 지극한 말인가!

右「圖」，謹依周子「太極圖」及朱子『中庸章句』之說，就人心性上以明理氣·善惡之殊，以示學者。故不及萬物化生之象。然人物之生，其理則同，而氣有通塞·偏正之異，得其正且通者爲人，得其偏且塞者爲物。卽此「圖」而觀，則“誠”字一圈，得最正最通，而爲聖人，“敬”字一圈，得正且通者，而爲衆人，“欲”字一圈，得偏且塞者，而爲物，其下禽獸橫者，得其尤偏塞，而爲草木者也。是則萬物化生之象，亦具於其中矣。夫天地之化，生生不窮，往者息而來者繼。人獸草木，千形萬狀，各正性命者，皆自一太極中流出。故萬物各具一理，萬理同出一源，一草一木各一太極，而天下無性外之物。故『中庸』言“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物之性，而可以贊天地之化育。”嗚呼至哉!

24 천지의…잇는다: 『論語集註』, 「子罕」. “천지의 조화란 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이어져 잠시 멈추지 않으니, 이것이 도체의 본래 모습이다.”

25 각각…것은: 『周易』, 乾卦, 「象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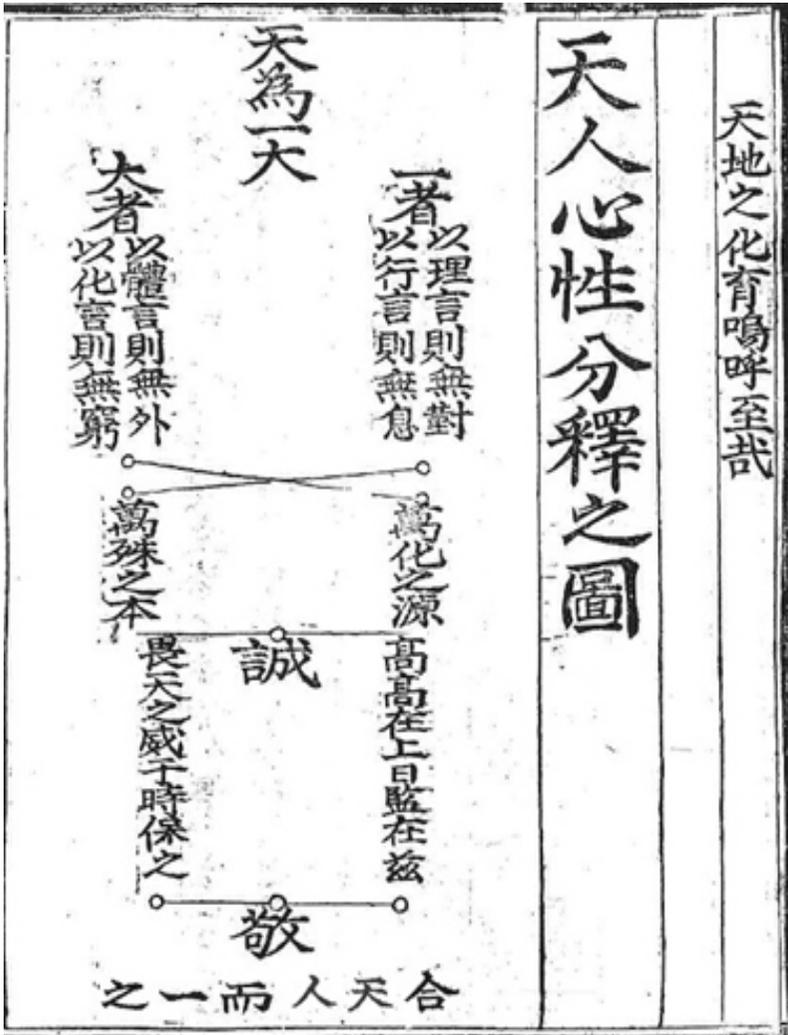
26 만물은…나오니: 『性理大全』 권34. 『朱子語類』 권18, 28·29·30조목 참조.

27 천하에는…없다: 『河南程氏遺書』 권18, 89조목에 나온다.

28 그 성을…있다: 『中庸』 22장.

2. 천인심성분석지도(天人心性分釋之圖)

해제 「천인심성분석지도」는 ‘천(天)’, ‘인(人)’, ‘심(心)’, ‘성(性)’의 네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性)’ 개념을 설명하는 뒷부분에는 보충하는 내용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붙어 있다.





해제 인(仁)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이치이며, 모든 인간은 마음 안에 인(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같은 리(理)를 부여받아 태어나지만, 기질(氣質)이 다르므로 ‘인(人)’자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듯이 선과 악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고난 리(理)를 잘 보존해야 선한 인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

‘인(人)’이란 인(仁)이다.²⁹ 인(仁)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이치이니 인간은 그것을 얻어 태어나고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인(仁)은 못 선함의 으뜸이 되니, 합하여 말하면 도이다. 성인은 지극히 성실하여 그 도가 하늘과 같고, 군자는 경으로써 그 도를 닦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은 욕심때문에 미혹되어 오직 악을 쫓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이치는 하나이지만 부여받은 기질과 행하는 일은 선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그 글자[人] 됨이 갈라져 두 개

29 ‘인(人)’이란 인(仁)이다: 『孟子』, 「盡心下」, 『中庸』 20장.

30 인(仁)은…것이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77, 『朱子全書』 제2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克齋記」, 3709쪽. “인(仁)이라는 것은 천지가 사물을 낳는 마음이며, 사람과 사물이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오직 천지가 사물을 낳는 그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마음으로 삼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아직 감정으로 발생하기 전에 네 가지 덕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인·의·예·지라고 하며 인이 나머지를 총괄한다.”

[善·惡]가 되는 것으로써 경계함을 보였다.³¹ 사람이 인(仁)을 체득하여 마음의 덕을 온전히 해서 그 태어날 때 얻은 이치를 항상 보존하여 잃지 않게 한 후에야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되고 그 효과는 반드시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 얻은 이치를 잃어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장수한다.”³²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직함 때문이며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人者，仁也。仁則天地所以生物之理，而人得以生而爲心者也。故人爲萬物之靈，仁爲衆善之長，合而言之道也。聖人至誠，道與天同；君子能敬以修其道；衆人以欲而迷，惟惡之從。故人者，其理一，而所稟之質·所行之事，有善惡之不同。故其爲字，岐而二之，以示戒焉。人能體仁，以全心德，使其生理常存而不失，然後可無愧於爲人之名，而其效必能得壽。不然則生理喪而非人矣。故孔子曰：“仁者壽”，又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

31 ‘인(人)’이란…보였다: 高汝興, 『闇隱集』 권1, 「天人理氣圖」에서는 이 글 뒤에 “사람이 되는 도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다.

32 인자는 장수한다: 『論語』, 「雍也」.

33 사람이…것이다: 『論語』, 「雍也」.



해제 이 그림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글자의 형태를 통해서 마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경』의 천리와 인육의 문제로 연결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인육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심(心)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몸을 주관하고 리와 기가 신묘하게 결합하여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고 막힘없이 통하니 정신이 깃드는 집이 되고 성과 정을 통섭한다. 이것이 이른바 밝은 덕으로써 모든 이치를 갖추고 온갖 일에 응한다는 것이다. 기품에 구애받고 물욕에 가려서 그 작용이 일어날 때, 때때로 혼미함이 있게 되니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경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여 혼미함을 제거하고 그 밝음을 회복해야 한다.³⁴

34 심(心)이란...한다: 주희, 『大學章句』 경1장. “밝은 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서 온갖 이치를 갖추고 온갖 일에 응한다. 다만 기품에 구애되고 인육에 가려지게 되면 때때로 어두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본체(本體)의 밝음은 일찍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명덕이 발하는 곳으로 인해서 마침내 명덕을 밝혀 그 처음을 회복하여야 한다.”

心者, 人所得乎天而主乎身, 理氣妙合, 虛靈洞徹, 以爲神明之舍而統性情, 所謂明德而具衆理·應萬事者也. 氣稟所拘, 物欲所蔽, 其用之發, 有時而昏, 學者要當敬以直內, 去其昏而復其明也.

그 글자 모양이 네모진 것은 몸 안에 마음이 거처하는 곳을 본뜬 것이요, 그 중앙의 한 점은 성리(性理)의 근원을 본뜬 것이다. 지극히 둥글고 지극히 바르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운 바가 없으니 마음의 본체를 나타낸다. 그 밑에 오목 파인 것은 그 속이 텅 빈 것을 본뜬 것이니 오직 텅 비어 있으므로 모든 이치를 갖출 수 있다. 그 머리끝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것은 기의 근원을 본뜬 것인데, 신묘하게 합쳐져서 마음을 이루는 까닭이다. 그 꼬리의 날카로움이 밑에서 위로 빠진 것은 마음이 오행에서 불에 속하니³⁵ 그 불꽃이 치솟아 올라감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밝음이 발동하여 모든 일에 응할 수 있다. 그 오른쪽의 한 점은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됨을 본뜬 것이니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고, 그 왼쪽의 한 점은 마음이 발하여 의(意)가 됨을 본뜬 것이니 또한 마음의 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본체는 하나이지만, 작용은 둘이다.

其字形, 方者象居中方寸之地也, 其中一點象性理之源也, 至圓至正, 無所偏倚, 心之體也; 其下凹者象其中虛, 惟虛故具衆理也; 其首之尖自上而下者象氣之源, 所以妙合而成心者也; 其尾之銳自下而上者, 心於五行屬火, 象火之炎上也. 故能光明發動, 以應萬事也; 其右一點象性發爲情, 心之用也; 其左一點象心發爲意, 亦心之用也. 其體則一, 而用則有二.

35 마음이...속하니: 朱熹, 『朱子語類』 권68,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易四」, 30조목, 2363쪽. “건괘(乾卦)의 사덕(四德) 가운데, 원(元)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머리와 같고, 손발의 운동에는 형(亨)의 의미가 있고, 이(利)는 가슴과 내장에 해당하고, 정(貞)은 원기가 갖추어진 것이다. 또 오장에 배당하면 더욱 분명하다. 간장은 목(木)에 속하니 목은 원이고, 심장은 화(火)에 속하니 화는 형이고, 허파는 금(金)에 속하니 금은 이이고, 신장은 수(水)에 속하니 수는 정이다.”

그 성명에 근원하여 발하는 것을 도심이라 말하고 정에 속한다. 도심은 애초에 불선함이 없지만, 그 실마리가 미미하여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³⁶라고 말했으니 마땅히 경(敬)을 위주로 하여 넓혀가야 한다. 그 형기에서 생겨나는 것을 인심이라 말하고 의(意)에 속한다. 그 기미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서 그 형세가 위태롭고 욕(欲)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³⁷라고 말했으니 마땅히 경을 위주로 하여 위태로움을 극복하여 다스리고, 인욕의 싹을 제거하여 천리의 바름을 확충해야 한다. 항상 도심이 주인이 되게 하여 인욕이(도심의) 명령을 듣게 한 후에 위태로움이 안정되고(도심의) 은미함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동정과 언행이 저절로 어그러짐이 없게 되어 성현의 경지로 함께 돌아가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게 되니, (이러한 경지는) 또한 점차로 도달³⁸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욕이 날로 자라나고 천리가 날로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은 정(情)과 욕(欲), 이(利)와 해(害)의 일에 불과하니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짐승과 차이가 크지 않다. 경(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其發原於性命者，謂之道心，而屬乎情，其初無有不善，其端微而難見。故曰“道心惟微”，必當主敬以擴充之；其生於形氣者，謂之人心，而屬乎意，其幾有善有惡，其勢危而欲墜。故曰“人心惟危”，尤必當主敬以克治之。遏人欲之萌，充天理之正。常使道心爲主而人心聽命，然後危者安，微者著，動靜云爲，自無差謬，而聖賢同歸，參贊天地，亦可以馴致矣。不然則人欲日長，天理日消。此心之用不過情欲利害之事，雖有人形，其違禽獸不遠矣，可不敬哉!

36 도심은 은미하다: 『書經』, 「大禹謨」.

37 인심은 위태롭다: 『書經』, 「大禹謨」.

38 점차로 도달: 『周易』, 坤卦, 「象傳」에서 나온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이 처음 응결한 것이니, 그 도를 점차로 도달하여 단단한 얼음에 이른 것이다[履霜堅冰,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冰也.]”라고 하였다.



해제 성(性)을 리(理)로 보는 성리학과 달리 성을 기(氣)로 보는 고자·한유·부처를 비판하는데, 그 근거는 『중용』과 『맹자』의 구절이다. 그리고 「천인심성합일지도」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나눈 것과 빠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 뒤로는 『입학도설』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하여 붙여넣었다. 내용은 주로 「천인심성합일지도」에 대해 「태극도」를 비롯하여 『주역』·『중용』·『시경』을 바탕으로 문답한 것이다.

성(性)³⁹은 하늘이 명하여 인간이 부여받은 것으로, 그 생하는 이치가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자 모양은 ‘심(心)’자와 ‘생(生)’자가 합해진 것이다. 사람과 만물의 이치는 동일하지만, 그 부여 받은 기질에는 같지 않음이 있다. 고자가 말하기를 “생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⁴⁰라고 했으며, 한유가 말하기를 “(성이란) 태어남과 더불어 같이 생겨난다”⁴¹라고 했고, 부처가 말하기를 “작용이 성이다.”라고 했는데, 모두 기로써 말했을 뿐 리를 빠뜨린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기를

39 성(性): 『中庸章句』 1장. “성(性)은 곧 리(理)이다.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생성할 때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理) 또한 부여하니 명령함과 같다. 이에 사람과 물건이 태어날 때 각기 부여받은 리(理)를 얻어서 건순오상(健順五常)의 덕(德)으로 삼으니, 이른바 성(性)이라는 것이다.”

40 생을…한다: 『孟子』, 「告子上」. 주자는 『맹자집주』에서 “생(生)은 인간과 사물이 지각하고 운동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41 태어남과…것: 『昌黎文集』, 「原性」.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⁴²라고 하고, 『맹자』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을 알게 되고 그 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안다.”⁴³라고 하였다.

性者, 天所命而人所受, 其生之理, 具於吾心者也. 故其爲字, 從心從生. 人與萬物, 其理則同, 而氣質之稟有不同者焉. 告子曰: “生之謂性”, 韓子曰: “與生俱生”, 釋氏曰: “作用是性”, 皆以氣言而遺其理者也. 『中庸』曰: “天命之謂性.”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앞의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초학자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천·인·심·성의 의미를 풀이했지만, (글자의) 점과 획을 나누고 해석한 것이 지나치게 쪼개졌으니 스승과 어르신들께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초학자들이 한번 보면 그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글자의) 의미를 풀이한 것은 모두 정자와 주자의 격언에 근거한 것이지 나의 억측된 설이 아니다. 공경하는 마음에 이르러 존양(存養)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처음 배우는 선비들이 행동하는 곳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존양이 어찌 경 밖에 있는 것이겠는가? 친구들과 선생들께서 더욱 법도⁴⁴에 맞게 바로잡아서 배우는 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천만다행이겠다.

右「圖」, 爲初學者設, 故其訓天·人·心·性之意, 分釋點畫, 至爲破碎, 自當得罪於先生長者, 然初學觀之一見, 可知其大旨也. 若其義意, 皆本程·朱格言, 非愚臆說也. 至於敬心不言存養者, 初學之士要令於動處下工夫也. 然存養豈在敬之外乎? 同志·君子詳加繩墨以惠學者, 幸甚幸甚!

42 하늘이…한다: 『中庸』 1장.

43 그 마음을…안다: 『孟子』, 「盡心上」.

44 법도: 『孟子』, 「盡心上」. “큰 목수가 졸공을 위하여 먹줄을 고치거나 폐하지 않으며, 예(羿)가 활사를 위하여 활 당기는 법도를 바꾸지 않는다. [大匠不爲拙工, 改廢繩墨, 羿不爲拙射, 變其轂率.]”

배우는 자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천인심성합일지도」를 만들고 스스로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에는 ‘무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림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學者問曰：“子爲「合一圖」，自謂謹依周子之「圖」，然周「圖」有所謂‘無極’者，而此則無之，何也?”

대답했다. “무극이라는 것은 태극 가운데 있는 이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지, 태극 위에 별도로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천’이라는 글자 부분이 무극이다.”

曰：“無極者，指言太極居中之理，非太極之上，別有所謂無極也，則此「圖」之中‘天’字一圏，是也。”

물었다. “『역』에서는 건괘의 네 가지 덕인 원·형·리·정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성’이라는 글자를 그것에 더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易』言乾之四德，元·亨·利·貞而已，子乃益之以誠，何也?”

대답했다. “(『시경』에서) ‘아! 하늘의 명은 그윽하여 그침이 없도다.’⁴⁵ 라고 말했다. 네 가지 덕의 유행이 시종일관 순환하여 일찍이 한순간도 멈춤이 있지 않은 것은 이 이치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성(誠)은 하늘의 도이다.’⁴⁶라고 했다. 네 가지 덕이 순환하는 실재를 말한 것일 뿐이지, 네 가지 덕 외에 또다시 ‘성(誠)’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돈이 선생이 이미 합해서 말하여 오상(五常)의

45 아!...없도다: 『詩經』, 「周頌」.

46 성(誠)은...도이다: 『中庸』 20장.

신(信)을 배치했으니,⁴⁷ 내가 감히 망령된 뜻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다.”

曰：“維天之命，於穆不已”，四德流行，循環終始，而未嘗有一息之停者，以其有此理之實而已。故『中庸』曰：“誠者天之道也”，蓋言四德循環之實爾，非四德之外又有所謂誠也。故周子已嘗合而言之，以配五常之信，非愚敢以妄意而益之也。

물었다. “그 명을 리의 근원으로 삼아 성(性) 위에 놓은 것은 무엇 때 문입니까?”

曰：“其以命爲理之源，而加於性上，何也?”

대답했다. “『중용』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⁴⁸라고 하고, 주자가 이것을 해석하여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할 적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하니 명령함과 같다.’⁴⁹라고 했다. 이른바 ‘명’이란 사람과 사물이 처음 생겨날 때 하늘이 부여한 리가 음양 가운데 있으나 음양과 섞이지 않아 성리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성탕(成湯)이 말한 ‘하늘이 내려준’⁵⁰ 성이며, 이윤⁵¹이 말한 ‘하늘의 밝은 명’⁵²이며, 유자(劉子)⁵³가 말한 ‘하늘과 땅의 중’⁵⁴이며,

47 그러므로…배치했으니: 周敦頤, 『周敦頤集』, 「誠下」 제2. “성(誠)이라는 것은 오상의 근본이고 백행의 근원이다. 오상은 인의예지신으로 오행의 성(性)이다. 백행은 효제충신의 부류로 만물의 형상이다. 실질적인 이치가 온전하게 되면 오상 어그러지지 않고 백행이 닦여진다.”

48 하늘이…한다: 『中庸』 1장.

49 하늘이…같다: 『中庸章句』 1장.

50 하늘이 내려준: 『書經』, 「湯誥」.

51 이윤(伊尹): 이윤은 은나라 때 탕왕에게 불러가서 재상이 되었다. 그는 하의 걸왕을 토벌하고 은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훗날 태갑의 재상이 되었다.

52 하늘과…중 『서경』, 「상서」.

53 유자(劉子): 유나라 군주로 자작(子爵)이다.

54 하늘과…중: 『春秋左氏傳』, 「成公」 13년.

공자가 말한 ‘있는 것이 선이고, 이룬 것이 성이다.’⁵⁵라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중용』의 말은 대개 이것에 근본 한다.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여, 온갖 리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하늘이 애초에 사람이 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사람이 하늘이 되지 않은 적이 없다.’⁵⁶

曰: “『中庸』曰: ‘天命之謂性’, 朱子釋之以爲: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猶命令也’, 則所謂命者, 人物始生之初, 天所賦與之理, 在乎陰陽之中而不雜乎陰陽, 以爲性理之源者也. 成湯所謂‘降衷’之性, 伊尹所謂‘天之明命’, 劉子所謂‘天地之中’, 孔子所謂繼善成性者, 皆是也. 『中庸』之言, 蓋本於此. 純粹至善, 萬理咸備, 天未始不爲人, 人未始不爲天者也.”

물었다. (“『중용』에서)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⁵⁷라고 했으므로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는 하늘의 형상을 원으로 하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두었으며, 또 무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미 ‘천’이라는 글자를 썼으니 충분한데, 또 ‘네 가지 덕’을 쓰고 ‘성’과 ‘명’의 명칭을 더했습니다. 어찌 그 명칭과 의미를 많이 써서 근본이 하나인 오묘함⁵⁸을 다하지 못하십니까?”

曰: “上天之載, 無聲無臭, 故周「圖」圓其象而虛其中, 而又以無極名之矣. 今子既書‘天’字足矣, 又書‘四德’, 而益以‘誠’與‘命’之名焉, 何其名義之多而不能極其一本之妙乎?”

55 있는...성이다: 『周易』, 「繫辭傳上」.

56 하늘이...없다: 『大學或問』.

57 하늘이...없다: 『中庸』 33장.

58 근본이...오묘함: 『서경집전』에 “선(善)은 하나에 근원하니 하나에 합하지 않으면 만 가지로 다르지만 근본이 하나인 오묘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답했다. “하늘이 하늘 됨은 막연하여 비록 말로 표현할 만한 소리와 냄새가 없을지라도 그 조화의 지도리와 만물의 뿌리⁵⁹가 되는 까닭은 어찌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혼연한 하나의 이치가 쉽없이 유행하여 이기오행(二氣五行)과 사시백물(四時百物)⁶⁰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元)의 이치는 봄에 만물을 생하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이 되며, 형(亨)의 이치는 여름에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가 되며, 이(利)의 이치는 가을에 만물을 완성되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가 되며, 정(貞)의 이치는 겨울에 만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가 된다. 이 네 가지 덕은 모두 하나의 원이 유행한 것이기 때문에 원은 네 가지 덕을 포괄하고, 인은 오상을 통괄한다. 그 순환하는 실상으로 말하자면 ‘성(誠)’이라 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信)’이 된다. 그 만물에 부여된 것으로 말하자면 ‘명’이라 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性)’이 된다. 이것은 그 명칭과 의미가 비록 많지만,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니 모두 그 혼연한 이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어찌 한 근본의 오묘함을 헤치겠는가? 하물며 이 「천인심성합일지도」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다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데, 만약 이처럼 하지 않고 곧바로 천이라고만 말하면 혹 아득하고 공허해서 전혀 주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니 온갖 이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모를 것이다. 혹은 캄캄하게 뒤덮어 기화를 행하는 데에 구애될 것이니 그 한 근본의 묘함이 있는 것을 모를 것이다. 또는 내가 성으로 삼은 것이 그 근원은 모두 하늘에서 나왔고 그 이치는 모두

59 그 조화의…뿌리: 『近思錄』 권1, 「道體」. “주자가 말했다.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진실로 조화의 지도리이고 만물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무극이태극’이라고 말했으니 태극 밖에 다시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

60 사시백물(四時百物): 사계절의 온갖 사물을 의미한다.

나에게 갖추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혹 불교의 공(空)과 양옹의 선악혼합설에 빠질 것이다.”

曰：“天之爲天漠然，雖無聲臭之可言，然其所以爲造化之樞紐·萬物之根柢者，豈無所自而然者乎？渾然一理，流行不息，二氣五行·四時百物，莫不於是而出焉。故元之理，爲春之生物，而於人爲仁；亨之理，爲夏之長物，而於人爲禮；利之理，爲秋之成物，而於人爲義；貞之理，爲冬之固物，而於人爲智。而此四德，皆是一元之流行，故元包四德，而仁統五常者也。語其循環之實者，則曰‘誠’，而爲人之‘信’；語其賦與於物者，則曰‘命’，而爲人之‘性’。是其名義雖多，而各有攸當，皆自其渾然者而流出。亦何害其一本之妙哉？況此「圖」也？但爲初學者設，若不如是而直謂之天，則或意其冥漠空虛都無主宰，而不知其爲萬理之源；或拘於蒼茫遍覆以行氣化，而不知其有一本之妙；且又不知吾之所以爲性者，其源皆出於天，其理皆備於我，而或溺於佛氏之空·楊氏之混矣。”

물었다.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에는 양의(陽儀)가 왼쪽에 놓여 있고, 음의(陰儀)가 오른쪽에 놓여 있어서 음양의 방위가 각각 그 바름을 얻었는데, 지금 선생님의 이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양을 오른쪽에 놓고 음을 왼쪽에 놓아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曰：“周「圖」，陽儀居左，陰儀居右，陰陽方位各得其正，今子此「圖」，陽居於右，陰居於左，以右爲東，以左爲西，何也？”

대답했다.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 「태극도」를 마주하면 나는 북쪽에 있고 「태극도」는 남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왼쪽은 동쪽이 되어 양의가 자리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어 음의가 자리한다. 이 「천인심성합일지도」는 그림이 주체가 되어 내가 보는 것이니 그

림이 북쪽에 있고 내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 오른쪽이 되고 서쪽이 왼쪽이 된다. 다만 주빈(主賓)과 대대(待對)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음양의 방위가 바뀐 것이 아니다.”⁶¹

61 주돈이…아니다: 朴世采, 『南溪集』 제19권, 「太極圖陰靜陽動位置說」, 박세채는 이 문체와 관련하여 주자, 퇴계, 권근 주장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주자가 말했다. “수는 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자리하고, 화는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왼쪽에 자리한다.” 또 물었다. “음이 왕성한 것은 왜 오른쪽에 있고, 양이 왕성한 것은 왜 왼쪽에 있습니까?” 대답했다. “왼쪽과 오른쪽은 다만 음양의 구분일 뿐이다.” 권근이 말했다. “주돈이의 「태극도」는 양의가 왼쪽에 자리하고, 음의가 오른쪽에 자리한다. 내가 주체가 되고 「태극도」를 마주하면 나는 북쪽에 있고, 「태극도」는 남쪽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왼쪽은 동쪽이 되어 양의가 자리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어 음의가 자리한다. 음양의 방위는 각각 바름을 얻었다.” 퇴계 이황이 말했다. “(이하는 천명도설이다.) 저 도서(圖書)는 대체로 음양 소장을 위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양을 중요하게 여기면 북쪽으로 말미암아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본래 그러하다. 「태극도」에 이르러서는 이것과 다르다. 리기에 근원하여 변화의 기틀이 드러나니, 상천이 만물에 명한 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다한다. 그러한 까닭은 하늘의 자리는 진실로 위에 있고, 본성을 내려준 천명은 아래로 말미암아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말하길 “「태극도」는 만물에게 명한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그 「태극도」의 위쪽은 상제가 본성을 내려주는 최초의 근원으로 만물의 뿌리의 지극함이 되어, 하도와 낙서 등의 그림이 소멸과 생성을 위주로 하는 것과는 절로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그림의 체는 다만 한가운데 세워져 곧장 보아 내려가는 것이지, 치우쳐서 남방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다.” 또 말했다. “김이정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태극도」는 만물에 명을 내리는 도를 위주로 하였으니 왼쪽의 양과 오른쪽의 음이 서로 운행함이 있다. 남과 북, 위와 아래에 열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방위를 나누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박세채가 말했다.) “『역』의 여러 그림 가운데 「하도」와 「낙서」, 「선천방위도」와 「후천방위도」는 모두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다. 8괘로부터 64괘에 이르는 순서는 모두 왼쪽이 음이고 오른쪽이 양이다. 이 「태극도」의 본래 자리는 왼쪽이 음이고 오른쪽이 양이 되니 「복희팔괘차서도」와 더불어 서로 같다. 증명할 수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역』의 여러 그림은 모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니 그림과 사람이 또한 모두 북쪽을 위주로 해서 본 것이다. 유독 이 그림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음등과 양정의 위치는 비록 「팔괘차서지도」와 더불어 다르지만, 주자가 수화좌우(水火左右)를 논한 것은 마침내 음을 오른쪽으로 삼고 양을 왼쪽으로 삼았으니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그 의미의 통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도가 남쪽에 있고 사람이 북쪽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대략 권근의 설과 같다면 그 음이 왼쪽이고 양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 사람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 비록 다시 이황의 설은 한가운데 세워져 곧장 보아 내려가서 음은 왼쪽이 되고 양 오른쪽이 되니 또한 여기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태극음양은 그 천도가 되어 『역』과 더불어 똑같으니 아마도 사람을 위주로 하는 이치는 아닌 것 같다. 대개 주자의 ‘음은 오른쪽이고 양은 왼쪽’이라는 설을 미루어 가면 이와

曰: “周「圖」, 我爲主而對「圖」, 則我在北而「圖」在南, 故左爲東而陽儀居之, 右爲西而陰儀居之. 此則「圖」爲主而我觀之, 則「圖」在北而我在南, 故東爲右而西爲左. 但有賓主·待對之異而已, 陰陽方位未嘗易也.”

물었다.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에서는 수, 화, 금, 목이 모두 음양의 아래에 있고 토가 그 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이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는 수는 음 속의 양의 뿌리에 들어있고, 화는 양 속의 음의 뿌리에 있고, 또 토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서 사행(四行)의 사이에 끼어놓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曰: “周「圖」, 以水·火·金·木皆在二儀之下, 而土居其中. 今子此「圖」, 水入陰中之陽根, 火在陽中之陰根, 而又分土爲二, 夾於四行之間, 何也?”

대답했다.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는 비록 오행을 음양에 아래에 펼쳐놓았으나, ‘오행이 하나의 음양이다.’⁶²라고 했으니 음양이 오행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보는 사람들이 혹 살피지 못한 것이다. 수가 자(子)의 자리에 놓여 있고 양은 자에서 나온다. 수라는 것은 음이 지극한 것이고 또한 양이 생겨나니 곧 음 가운데의 양이다. 그러므로 음 가운데에 들어

같다. 지금 태극 음양오행의 순서가 되는 것은 단지 천도가 위로부터 곧바로 아래로 내려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주해서 보게 하는 뜻이 있다. 마땅히 이와 같다면 『역』의 여러 그림이 아래로부터 곧바로 위로 올라가는 뜻과는 같지 않을 뿐이다. 그 실제로 지금 보는 것은 그림의 뒷면이고, 보지 못하는 곳은 그림의 앞면이니 더욱 마주해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후에 이 그림의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며, 앞이 남이고 뒤가 북이 되는 방위는 천지의 「하도」·「낙서」의 정해진 자리와 더불어서 딱 맞아서 의심할 것이 없다. 결단코 권근이 말한 ‘내가 주체가 되어 그림을 마주한다면 나는 남쪽에 있고 그림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된다.’고 하는 이론은 틀린 것이다. 다만 질문하지 않겠다.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증명해서 바로잡음을 더해준다면 다행이겠다. 이것이 크게 바람일 뿐이다.”

62 주돈이…음양이다: 周敦頤, 『太極圖說』.

서 양의 뿌리에 있다. 화가 오(午)의 자리에 놓여있고 음은 오에서 나온다. 화라는 것은 양의 성대한 것이고 음이 이에 싹트니 곧 양 가운데의 음이다. 그러므로 양 가운데에 있으면서 음의 뿌리에 있다. 목의 양은 어리지만 순수하게 양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고, 금의 음은 어리지만 순수하게 음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다. 토의 경우는 정한 자리가 없이 사행에 붙어서 왕성하기⁶³ 때문에 둘로 나뉘어 그 사이에 끼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토의 부분을 작게 하여 사행(四行)과 같은 크기로 하지 않은 것은 그 가운데에 놓여있는 본체가 은연중에 사행과 더불어 같은 크기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사행에 붙어 왕성한 것은 그 단서가 여기저기에 섞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할 수 없다. 하물며 천명의 이치가 그 가운데에 부여된 것은 이미 안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또한 어찌 토로써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 형세가 또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없다.”

曰: “周「圖」, 雖列五行於二儀之下, 然其言曰‘五行一陰陽也’, 則陰陽不在五行之外, 觀者或不察焉. 夫水居子位而陽生於子, 則水者, 陰之極, 亦陽已生, 卽陰中之陽也, 故入陰中而居陽根. 火居午位而陰生於午, 則火者, 陽之盛而陰已萌, 卽陽中之陰也, 故在陽中而居陰根. 木陽釋而純乎陽, 故居東, 金陰釋而純乎陰, 故居西. 若夫土, 則無定位而寄旺於四行, 故可分而二之以夾於其間也. 然小其圈, 不與四行同大者, 亦以見其居中之體, 隱然自與四行同大, 而寄旺於他者, 其端交見於彼此, 故不得與之相竝也. 而況天命之理賦於其中者, 既主於內, 則又安得以土而奪之哉? 故其勢亦不得不分也.”

63 붙어서 왕성하기: 왕(旺)은 일정한 자리가 없이 계절에 따라 붙여서 왕성한 것을 말한다. 주자는 『맹자집주』에서 기왕(寄旺)을 기왕(寄王)으로 표현했는데, 왕(旺)과 왕(王)은 같은 의미이다.

물었다. “사람과 사물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음양이라는 두 기가 모여서 그 형질을 이룹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기와 질을 좌우로 나누니 이것은 기질을 나누어서 두 개로 만든 것입니다. 기질이 모여서 형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曰: “人物之生, 必得二氣之聚, 以成其形質, 今子以氣與質分於左右, 則是氣質判爲二物, 若無以見其聚而成形者, 何也?”

대답했다. “사물이 형상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음양이라는 두 기의 모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진실로 나눌 수 없다. 그 처음을 헤아려보면 형상은 음에서 생기고 정신은 양에서 발하니⁶⁴ 또한, 분별이 없을 수 없다. 지금 좌우로 나눈 것은 진실로 그것을 쪼개어 두 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그 유래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질이 그 가운데에 갖춰져 있고, 질이 비록 왼쪽에 있으나 기가 그 안에 행하는 것이니, 또한 일찍이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또 이미 나누고 다시 합한 뒤에 모두 기를 밖으로 여긴 것 또한 그 기가 질에 머물면서 밖으로 드러남을 보인 것이다.”

曰: “物之成形, 良由二氣之聚, 固不可以分也. 然揆厥初元, 則形生於陰, 神發於陽, 亦不容無辨矣. 今分左右, 固非以是判爲二物也, 要使學者分陰分陽, 曉然知其所由來爾. 故氣雖居右而質具於中, 質雖居左而氣行於內, 則亦未嘗不合而爲一也. 且其既分而復合之後, 又皆以氣爲外者, 亦以見其氣寓於質而發揚於外也.”

64 형상은…발하니: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94, 『朱子全書』 제17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74조목, 3134쪽. “형체가 이미 생겼다.’라고 했는데, 형체는 음(陰)이 하는 것이고, ‘신(神)이 지각을 발한다.’라고 했는데, 신의 지각은 양(陽)이 하는 것이다.”

물었다. “마음의 허령함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서 온갖 일에 응한다.’⁶⁵라고 했는데, (마음을) 리와 기의 합이라 여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曰: “心之虛靈, 具衆理而應萬事, 其以爲理與氣合者, 何也?”

대답했다. “리는 본래 하는 것이 없고, 비어 있으면서도 작용하는 것은 기이다. 순임금이 우왕에게 명하여 ‘인심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은 오직 미미하다.’⁶⁶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진실 리와 기로 나누어 말한 것이다. 마음의 발현은 그 기미에 선악의 다름이 있으니,⁶⁷ 만일 순수한 리이면서 기가 섞이지 않으면 그 발현하는 것이 어찌 착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또 (마음은) 오장의 하나로서 화에 속하니 또한 기를 받아서 형상을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曰: “理本無爲, 其所以能虛而用之者, 氣也. 舜之命禹曰‘人心惟危, 道心惟微’, 則固以理氣而分言之矣. 夫心之發, 其幾有善惡之殊, 若純乎理, 而不雜乎氣, 則其發安有不善哉? 又爲五臟之一而屬火, 則其亦稟氣而成形者可知矣.”

물었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 텅 비어 있지만, 그 지각하는 것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발현하지 않았을 때는 지극히 고요하고 허하여 말할 만한 이름과 형상이 없지만, 이미 발현에 이르게 되면 사물의 이치에 있어서 감축되는 것을 따라 하나로 관통하여 통하지 않음이

65 마음의…응한다: 『大學章句』 1장. “명덕(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온갖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66 인심은…미미하다: 『서경』, 「대우모」.

67 마음의…있으니: 權近, 『東文選』 98권, 「崔子固說後(關)」. “마음이 발현함에 선과 악의 다름이 있으니 경을 주로 하여 그 선을 힘쓰고 그 악은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선배 유학자들은 성의를 선과 악의 관문으로 삼았으니 이 관문을 통과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다면 그 지킴이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이미 성·심·정·의를 점과 획으로 나누고, 또 오상·사단·칠정·선악을 각각 그 아래에 배속했으니 명칭과 의미가 지나치게 번잡합니다. 지각이 일관되지 않아서 어지럽고 잡다하여 고요하고 텅 빈 본체가 서지 못하고 치우치고 막혀서 관통하는 작용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曰: “心體本虛, 而其爲知覺者, 一而已矣. 故其未發也, 至靜而虛, 無有名狀之可言, 及其既發, 則於事物之理, 隨所感觸, 一以貫之而無所不通. 今子既以性·心·情·意, 分其點畫, 又以五常·四端·七情·二幾, 各屬其下, 則名義繁多. 知覺不一, 紛擾雜錯, 而靜虛之體, 有所不立, 偏屬固滯, 而貫通之用, 有所不周者, 何也?”

대답했다. “마음의 허령 지각은 하나일 뿐이다.⁶⁸ 그러나 허령이 본체가 되는 까닭으로 말하면 오상의 성(性)에 불과하지만, 모든 일과 사물의 이치를 통괄하지 않음이 없다. 지각이 작용하는 까닭으로 말하면 사단과 칠정의 감정에 불과하지만 모든 일과 사물의 변화를 주관하지 않음이 없다. 고요하고 텅 빈 것만을 알고서 오상의 성이 본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마음 뒀이 막연하게 아무 형체가 없어서 노자의 허무와 불씨의 공적에 빠져서 큰 근본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지각이 있는 것만 알고 사단과 칠정이 발현할 때 그 기미에 선악의 다름이 있는 것을 모르고서 살핀다면 마음이 사물에 부림을 당해 욕망이 움직이고 감정이 이기니⁶⁹ 달도(達道)가 행해지지 못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본체가 있는 것을 알게 해서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보존해서 그 본연의 바름을 지키고, 이 작용이 있는 것을

68 마음의…뿐이다: 『中庸章句』, 「序」.

69 욕망이…이기니: 『大學章句』 전7장.

알게 하고 사물에 응할 때를 살피서 그 하려고 하는 욕심을 막은 연후에야 본체와 작용이 함께 온전하고 안과 밖이 서로 길러져서 학문하는 길을 얻을 것이다.”

曰: “心之虛靈知覺則一而已矣. 然語其虛靈之所以爲體, 則不過五常之性, 而萬事萬物之理無不統; 語其知覺之所以爲用, 則不過四端·七情之感, 而萬事萬物之變無不管. 徒知其爲靜虛, 而不知五常之性爲之體, 則其爲心也, 漠然無物, 淪於老氏之虛無·佛氏之空寂, 而大本有所不立矣. 徒知其有知覺, 而不知四端·七情之發, 其幾有善惡之殊而致察焉, 則心爲物役, 欲動情勝, 而達道有所不行矣. 故必使學者, 知有是體, 而存之於至靜之中, 以守其本然之正, 知有是用, 而察之於應物之際, 以遏其將然之欲, 然後體用兼全, 內外交養, 而學之爲道, 得矣.”

물었다. “옛날에 성을 말한 것은 반드시 인·의·예·지로 말했는데, 지금 인·예·의·지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曰: “古之言性者, 必曰仁·義·禮·智, 今則以爲仁·禮·義·智者, 何也?”

대답했다. “옛날에 말한 자는 대대하는 위치를 함께 거론한 것이니, 마치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건순의 속성으로나 누어서 말한 것이니 춘·하·추·동이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曰: “古之言者, 以待對之位而互舉之, 猶曰東西南北也, 今以健順之屬而分言之, 猶曰春夏秋冬也.”

물었다. “예전에 당나라 한유가 성(性)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예기』에 근본 하여 희·노·애·락·애·오·욕 일곱 가지를 성이 발현하는 정이라 했는데 정자 또한 취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사단을 성이 발현한 것에 귀속시키고 칠정을 마음 아래에 배열해 놓은 것은 무슨 까

답입니까?”

曰: “昔唐韓子原性而本於『禮書』, 以喜怒哀樂愛惡欲七者爲性發之情, 程子亦取而言之. 今子以四端屬乎性發, 而七情列于心下者, 何也?”

대답했다. “칠정의 작용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당연한 법칙이다. 만일 그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으면 『중용』에서 말한 달도의 화(和)가 되니⁷⁰ 어찌 성(性)이 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발현하는 것이 혹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성이 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사단과 더불어 정 가운데에 가지런하게 펼쳐놓았다. 그러므로 마음의 아래에 펼쳐놓음으로써 그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는 것도 있고 절도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보여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살피게 한 것이다. 또 하물며 정자의 말에 ‘외부 사물에 접촉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면 칠정이 나오는데, 정이 솟구치면 그 성(性)이 깎인다.’⁷¹라고 했으니 그 성의 발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曰: “七者之用, 在人本有當然之則. 如其發而中節, 則『中庸』所謂達道之和, 豈非性之發者哉? 然其所發, 或有不中節者, 不可直謂之性發, 而得與四端并列於情中也. 故列于心下, 以見其發之有中節·不中節者, 使學者致察焉. 又况程子之言, 以爲‘外物觸而動於中, 其中動而七情出, 情既熾而其性斲’, 則其不以爲性發也, 審矣.”

물었다. “측은·사순·수오·시비가 곧 인·예·의·지의 실마리니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미 네 가지를 정(情)의 아래에 나

70 만일...되니: 『中庸』1장.

71 외부...깎인다: 『二程文集』 권9, 「顏子所好何學論」.

열하고, 또 밖에 그 실마리를 써서 별도로 한 부분으로 만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曰: “惻隱·辭遜·羞惡·是非, 卽仁·義·禮·智之端, 非有二也. 今子既以四者, 列於情下, 又書其端於外, 別作一圈, 何也?”

대답했다. “네 가지 성이 혼연하게 마음속에 있고 그 작용의 운행은 감촉된 것을 따라 움직여 측은·사손·수오·시비의 마음이 되니 이 마음이 곧 네 가지 성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지 참으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가운데에서 발현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을 실마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맹자가 이것을 두 번 말했는데, 혹 실마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 실마리라고 말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자가 실마리라고 말한 것은 ‘마치 물건이 가운데에 있어서 그 실마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⁷²라고 했으니 그 뜻이 더욱 분명하여 변별하지 않을 수 없다.”

曰: “四者之性也, 渾然在中, 而其用之行, 隨感站而動, 以爲惻隱·辭遜·羞惡·是非之心, 則是心卽爲四者之端, 誠非二也. 然發於中者謂之心, 現於外者謂之端, 故孟子於此, 凡兩言之, 或言端, 或不言端, 而朱子於言端, 以爲‘猶物在中, 其端緒見於外’, 則其義愈明而不容無辨矣.”

물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기로서 형체를 이루는 것은 성인과 우매한 자, 현인과 불초한 자의 다름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이 형상이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최고의

72 마치...같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74, 『朱子全書』 제2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雜著」, 「玉山講義」, 3589쪽. “실마리[端]”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물이 가운데 있지만 볼 수 없다가, 반드시 그 실마리가 밖으로 발현함으로 인한 연후에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다.⁷³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성’자 한 부분에 있어서 오직 리를 말하고 기를 언급하지 않으니 성인에게 형기가 있지 않아서 본래부터 인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曰: “人之有身, 氣以成形者, 不以聖愚賢否而有異, 故朱子曰: ‘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今子乃於‘誠’字一圍, 專以理而不及乎氣, 則是聖人無有形氣而本無人心者歟?”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사람과 사물이 태어날 때, 똑같이 이 기를 얻어 형상을 이루고, 또한 똑같이 이 리를 얻어서 성이 된다.⁷⁴ 그러므로 태극 아래에 이미 기질로 밖에서 형상을 완성하고, 또 리기로 안에서 마음이 되는 것은 성인과 우매한 자, 현인과 불초한 자가 모두 같은 것이다. 성·경·육의 세 부분과 같은 것은 다만 마음에서 생기고 일에서만 들어지는 것으로서 그 선과 악, 높음과 낮음에 세 등급이 있는 것이지, 성인의 몸에 인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인심이라는 것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인심이 바른 것을 얻으면 도심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마음은 순수한 천리이니 조그마한 인육의 사사로움도 없다.”⁷⁵

曰: “不然也. 人物之生, 同得是氣以成形, 亦同得是理以爲性, 故於太

73 사람에게…없다: 『中庸章句』, 「序」.

74 사람과…된다: 『孟子集註』, 「離婁下」에 “사람과 동물이 생겨날 때 똑같이 천지의 리(理)를 얻어 본성을 삼았고, 똑같이 천지의 기(氣)를 얻어 형체를 삼았다. 그 같지 않은 것은 오직 사람만이 그사이에 형기의 올바름을 얻어 본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으니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비록 조금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구분되는 것이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75 성인의…없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61,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孟子十一」, 1991쪽. “성인의 마음은 순수하게 천리(天理)이니 하나의 생각이 발동함에도 지극한 선이 아님이 없다.”

極之下，既以氣質而成形於外，又以理氣而爲心於內者，是聖愚賢否之所同也。若其‘誠’·‘敬’·‘欲’之三圈者，但以其生於心·作於事者，其善惡高下有此三等，非以聖人之身無有人心也。又其所謂人心者，亦未便是不好，人心之得其正，卽道心之流行也。故聖人之心，純乎天理，而無一毫人欲之私者也。”

물었다. “오경과 『논어』, 『맹자』 등 여러 서적은 그 성인의 덕을 찬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성(誠)’⁷⁶자 부분에서 성인의 덕을 말하였는데, 다른 것은 취하지 않고 다만 ‘진실무망(眞實無妄)’⁷⁷만을 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 “五經·『語』·『孟』諸書，其讚聖人之德多矣。子於‘誠’字圈內，言聖人之德，他無所取，但書‘眞實無妄’，何也?”

대답했다. “성인의 덕은 광대하여 하늘과 같고,⁷⁸ 갖추지 않은 바가 없으므로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이 각각 성대함을 다했다. 그러나 하늘과 같은 실제에서 구한다면 지극히 성실하여 섭이 없을⁷⁹ 따름이다. 그러므로 ‘성’자를 크게 써서 드러냈다. 그 아래에 만약 다른 설을 취한다면 비록 지극히 잘 말했더라도 혹 미비한 점이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추구해 나가는 마음이 나태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무망’만을 사용하여 ‘성’자를 풀이했다. 말은 비록 지극히

76 성(誠): 『中庸章句』 16장. 운봉호씨가 말했다. “성(誠)은 중용이라는 책의 핵심인데 이장에서 처음 보인다. 한나라 유학자들은 모두 성(誠)자를 알지 못했다. 송나라 이방직이 처음으로 불기(不欺)라고 했고, 서증거가 불식(不息)을 성이라고 했고, 정자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무망(無妄)이라고 했고, 주희가 진실(眞實)이라는 말을 더해서 성의 뜻을 다했다.”

77 진실무망(眞實無妄): 『中庸章句』 16장.

78 광대하여…같고: 『中庸』 31장.

79 지극히…없음: 『中庸』 13장.

평범하지만 광대함은 하늘의 덕과 같아서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다. 또한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찰하게 하면 매우 높고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지 않아서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하는’⁸⁰ 학문과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⁸¹ 공부를 스스로 힘쓸 것이다.”

曰: “聖人之德, 廣大如天, 無所不備, 故稱美之辭, 各極其盛. 然要其所以如天之實, 則至誠無息而已. 故將‘誠’字大書以表之. 其下若取他說, 則雖極稱美之辭, 或有所未備, 學者又以爲不可幾及而趨向之心怠矣. 故但用‘眞實無妄’以釋‘誠’字, 言雖至近, 而廣大如天之德, 無所不在其中, 且使學者觀之, 亦不以爲甚高難行, 而思誠之學·希聖之功, 庶可以自勉矣.”

물었다. “주돈이 선생의 『태극도설』에서 ‘군자는 그것을 닦아 길하고 소인은 그것을 어겨서 흉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것에 근본하여 ‘경’자 부분에서 군자는 그것을 닦는다고 말하고 ‘욕’자 부분에서는 ‘소인’이라 말하지 않고 ‘중인(衆人)’이라 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 “周子『圖書』云: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今子本之, 既於‘敬’字言‘君子修之矣’, 其於‘欲’字, 不曰‘小人’而曰‘衆人’, 何也?”

대답했다. “사람들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스스로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행위로 소인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만약 ‘소인’이라고 말하면, 관찰하는 자는 자포자기를 다른 사람의 일로 여겨서 스스로 성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중인’이라고 쓴 후

80 성실히…생각하는: 『孟子』, 「離婁下」.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81 성인이…바라는: 周敦頤, 『通書』, 「志學」.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이 되기를 바란다.”

에 보는 사람마다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고 감응하고 분발하는 것이 있게 된다.”

曰：“人雖不肖，皆自以爲賢智，而不自知其所行之爲小人。若曰‘小人’，則觀者以自暴自棄爲他人之事，而不自省矣。故直書曰‘衆人’，然後人人觀者，各自省勵而有所感發矣。”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 「천인심성합일지도」를 감히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와 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曰：“子爲此「圖」，敢欲竊比於濂溪周子歟?”

대답했다.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는 정미하고 심오하며 넓고 크고 갖춘 것이 지극하여 견줄만한 것이 없으니, 처음 배우는 선비가 알기 어렵다. 주자 『중용장구』의 설은 명백하고 간절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능히 살피지 못하는 것은 의리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모두 구차해져서 그 잘못이 매우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에 근본하고 주자의 설을 참고하여 이 그림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학문에 들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한 것일 뿐, 어찌 감히 선배 철학자들과 (동등하게 여겨지기를) 바라겠는가?”

曰：“惡! 是何言也! 濂溪之「圖」，精深廣大，備極無與，初學之士所不及知; 朱子「中庸章句」之說，明白簡切，學者又不能察此乃義理之根本。於此有所不知，則所學皆苟，而其失甚遠矣。故本之以濂溪之「圖」，參之以朱子之說，作爲此「圖」以示學者，使其入學知所向方而已，何敢望於先哲哉?”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천·인·심·성의 뜻을 풀이하면서 점과 획으

로 나누고 쪼갠는데, 이와 같이 천착한 것은 무엇에 의거한 것입니까?”

曰: “其訓天人心性之意, 分破點畫, 若是其穿鑿者, 何所据乎?”

대답했다. “이러한 쪼개고 천착한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만 초학자들이 즐겁게 관찰하고 쉽게 그 뜻을 알게 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글자를 제작하면서⁸² 또한 회의자가 있으니 ‘일(一)과 대(大)’는 ‘천(天)’이 되고, ‘토(土)와 ‘야(也)’는 ‘지(地)’가 되는 종류가 이것이다. 상형자가 있으니, ‘산(山)’과 ‘정(鼎)’과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 뜻으로 글자를 분석한 것이 있으니, 예를 들어 ‘중심(中心)’이 ‘충(忠)’이 된다는 것과 ‘여심(如心)’이 ‘서(恕)’가 된다는 종류가 이것이다. 만약 대의에 매우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曰: “是其破碎穿鑿之罪, 自知其無所逃避. 但使初學樂觀而易知其意爾. 然古人製字, 亦有會意者, 如所謂‘一大爲天’·‘土也爲地’之類, 是也; 有象形者, 如‘山’·如‘鼎’之類, 是也; 訓意有分字者, 如所謂‘中心爲忠’·‘如心爲恕’之類, 是也. 苟於大義, 無甚悖謬, 則取其大而恕其小, 可也.”

82 옛사람들이…제작하면서: 安鼎福, 『順菴集』 권16, 「壬辰桂坊日記」. “만약 글자만을 좇아서 설명한다면 실제로 천착하는 우완이 있어서 왕안석의 『자설』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자에게 ‘중심(中心)이 충(忠)이고 여심(如心)이 서(恕)이다’라고 풀이한 것이 있고, 주자에게 또한 ‘심생(心生)이 성(性)이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 또 ‘사(思)’라는 글자는 전(田) 아래에 심(心)이 있는데, 대개 밭을 가는 방법이 가로로 갈기도 하고 세로로 갈기도 하니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글자를 만든 뜻이 범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3. 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

해제 「대학지장지도」는 처음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책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다. 『대학』은 3강령과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간결하고 상세하지만, 초학자들이 그 체용(體用)·본말(本末)·지행(知行)·공효(功效)를 제대로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두고 살필 것을 강조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대학』은 강령이 갖추어졌고 조목이 상세하다. 문장이 간결하여 쉽게 알 수 있고 이치가 절실하여 쉽게 밝힐 수 있으며 배움의 순서와 힘을 쓰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니 초학자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힘써야 할 급선무이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선비는 그 체용·본말·지행·공효에 대해 잘 살피지 못하니 말해주면 비록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알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 「대학지도(大學之圖)」를 그려서 초학자들로 하여금 먼저 경전 전체를 명확하게 눈앞에 보게 한 후에 이 『대학』을 읽게 한다면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절차를 알 것이다. 만약 항상 「대학지도」를 눈앞에 두고서 깊이 생각하여 익숙하게 할 수 있다면 한 권의 『대학』이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이다.

愚按, 『大學』一書, 綱領備而節目詳. 文簡而易知, 理切而易明, 爲學之序·用力之方, 至爲精密, 在初學者尤爲當務之急. 然初學之士, 其於體用·本末·知行·功效多不能察, 語之雖勤, 識之不易. 今爲此「圖」, 使之先觀一經全體瞭然在目, 然後卽是書而讀之, 則不煩指誨而自知其節次矣. 苟能常目在之, 潛心熟玩, 則一部『大學』在胸中矣.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선현인 동중서(董仲舒)⁸³는 일찍이 『대학』 경전 중에 ‘그침을 안 이후에 정해짐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도에 가깝다’에 이르기까지 두 절은 격물치지의 전(傳)이 된다고 생각했고, 황간(黃幹)⁸⁴ 또한 그것을 취했으니 이것은 과연 주자가 아직 알지 못한 것을 터

83 동중서(董仲舒): 동중서(B.C.170~B.C.120)는 중국 전한 시대의 유학자이며 무제(武帝)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많은 인재를 구하였는데, 그 당시 동중서는 현량대책(賢良對策)을 올려서 전한의 새로운 문교정책에 참여했다. 이 당시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었고, 국가를 유가를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84 황간(黃幹): 황간(1152~1221)은 복주 민현(閩縣) 사람으로 자는 직경(直卿)이고 면재선생(勉齋先生)으로 불렸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저술로는 『논어통석(論語通釋)』, 『논어원의(論語原意)』, 『면재집』 등이 있다. 『주자대전』에는 이곳에 한 통, 권46에 7통,

득한 것입니까?”

學者問曰：“先賢董公，嘗以『大學』經中自‘知止而後有定’至‘則近道矣’兩節爲格物致知之傳，黃氏亦取之矣。是果能得朱子之所未得者歟?”

대답했다. “내가 일찍이 이것을 살펴보니, 그 뜻의 깊음과 견해의 탁월함에 탄복하여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은 지 또한 몇 년이 되었다. 지금 살펴보니 좋지 않은 것이 있다. 무릇 ‘그침을 안다’는 것은 ‘물격’과 ‘치지’ 이후의 효과이며, ‘격물’과 ‘치지’는 『대학』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곳이다. 여러 전(傳)은 「성의」장 이하로부터 모두 공부로써 말한 것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효과로써 말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능득(能得)’이라는 것은 ‘명명덕’과 ‘신민’으로 모두 그쳐야 할 바의 일을 터득하는 것인데, 갑자기 ‘치지’의 전에서 언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또 이 구절을 치지의 전으로 여긴다면 「청송」장은 또한 귀착될 곳이 없을 것이다. 주자가 이것에 대해 살피지 않았겠는가?⁸⁵ 다만 ‘격물’은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지 외부 사물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다른 책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구절의 문장 형세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며, 선후를 아는 것이 곧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앞에 이르는 것은 사물을 궁리하는 데 있다.’라고 했으니 사물은 외부 사물이 아니고, 격은 배격하는 것이 아니니 ‘치지’와 더불어 두 가지 일이 되지 않는 것

『속집』 권1 전체 및 『별집』 권11에 한 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주자어류』에는 그가 기록한 조목이 150여 조목 정도 실려 있고, 그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도 100여 조목이 실려 있다. 『주자문인』, 261~262쪽 참조.

85 내가...않았겠는가: 金榦, 『厚齋集』 권21, 「筭記·大學」. “살펴보건대 ‘그칠 것을 안다’는 것은 ‘정(定)·정(靜)·안(安)·려(慮)·득(得)’의 앞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에 지극한 덕이 마땅히 그쳐야 할 바를 아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것은 공효에는 미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권근이 말한 것은 어떤지를 알지 못하겠다.”

은 생각해 보면 매우 명백한 것이다. 그 전에 비록 빠져 있지만, 경문에 서 위 문장이 나올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曰: “愚嘗觀此, 服其用意之深而所見之卓, 服膺不忘, 蓋亦有年. 以今考之, 有未安者. 夫所謂‘知止’者, ‘物格’·‘知至’以後之效, 而‘格物’·‘致知’者, 『大學』最初用力之地也. 諸傳自「誠意」章而下, 皆以工夫而言, 不應於此遽先以效言之也. 所謂‘能得’者, ‘明明德’·‘新民’皆得所止之事, 不應遽及於‘致知’之傳也. 且以此節爲致知之傳, 則「聽訟」章又無所着落矣. 朱子於此豈不處之審哉? 但所謂‘格物’, 爲窮理之事, 而非扞註格外物者, 則不必證以他書, 而於此節文勢, 可尋而知之矣. 既曰‘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又曰‘致知在格物’, 則物非外物, 格非捍格, 而與‘致知’非爲兩事者, 意甚明白. 其傳雖闕, 而於經文自有上文語緒之可尋者矣.”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지(知止)’를 ‘물격(物格)’과 ‘지지(知至)’ 이후의 효과로 생각하시고, 응당 힘써야 할 처음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전의 결어를 살펴보면, ‘이것을 일컬어 앎의 지극함이다.’⁸⁶라고 했으니 그 위의 빠진 문장은 반드시 지지(知止)의 효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은 경전에서 또한 팔조목 공부 앞에 있으니 그 순서가 어긋난 것 아닙니까?”

曰: “子以‘知止’爲‘物格’·‘知至’以後之效, 不應先言於用力之初者, 似矣. 然以傳之結語考之, 則曰“此謂知之至也”, 則其上闕文, 必以‘知至’之效言者也. 此節於經亦在八目工夫之前, 其序不亦舛乎?”

대답했다. “전(傳)의 마지막 문구는 효과로써 말한 것이니 그 위에 빠

86 이것을…지극함이다: 『大學』 전5장.

진 문장은 반드시 ‘지지(知至)’의 효과이다. 그러나 반드시 공부를 먼저 말한 이후에 그 효과를 언급한 것은 『보전』의 뜻과 같다. 그 공을 말하지 않고서 갑자기 그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이 구절을 전(傳)으로 삼을지라도, ‘지지(知止)’의 위에 또 별도로 빠진 문장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은 경문에서 비록 팔조목 앞에 있지만 이것은 장의 첫 부분의 강령 공부를 계승해서 ‘지지(知止)’의 효과를 말한 것이니, ‘명명덕’과 ‘신민’으로 ‘지어지선’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 1장은 공부와 공효가 서로 관련되도록 말한 것이다. 삼강령은 공으로써 말한 것이고, 이 구절은 효과로써 말한 것이다. ‘물유본말’ 한 구절은 공과 효과를 겸하여 결말이었다. 팔조목 앞 한 구절은 공으로써 말했고, 이후 한 구절은 효과로써 말했다. ‘자천자(自天子)’ 한 구절은 공으로써 매듭지었고, ‘본란(本亂)’ 한 구절은 효과로써 돌이켜 끝맺었다. 이것으로써 살펴보면 ‘지지(知止)’ 한 구절은 비록 팔조목 공부 앞에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에는 본래 순서가 있다. 또 삼강령 중 ‘명덕’은 비록 중요하지만, ‘지지선’ 또한 그 핵심이 되니, 팔조목에 ‘명덕’과 ‘신민’을 해석하면서 이 한 구절이 없다면, ‘지선’이 비록 두 가지를 겸하여 없는 곳이 없을지라도 또한 한마디 말로 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강령 세 마디의 말 순서를 따라서 ‘지선’이라는 말을 팔조목 뒤에 두고서 해석한다면 이 ‘지지선’이 ‘평천하’ 뒤에 있어서 별도의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강령을 계승해서 팔조목 앞에 말해야 한다. 무릇 그 공으로 말하면 먼저 본말을 나눈 이후에 그 핵심을 언급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말하면 전적으로 핵심을 제시하고 겸하여 그 본말을 통괄해야 그 말한 것이 또한 원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曰: “傳之結語. 以效而言, 則其上闕文, 必是‘知至’之效. 然必先言其功, 而後及其效, 有如『補傳』之意矣, 不應不言其功而遽及其效, 故雖將

此節爲傳，‘知止’之上又當別有關文也。此節於經雖在八日之前，是乃承章首綱領之工夫，而言‘知止’之效，以言‘明明德’·‘新民’得‘止於至善’也。故「經一」章以工夫·功效相間言之。三綱領以功言，而此節以效言。‘物有本末’一節兼功效而結之。八目前一節以功言，而後一節以效言。‘自天子’一節以功結之，而‘本亂’一節以效而反結之。以是而觀，則‘知止’一節雖在八目工夫之前，其立言自有序矣。且三綱領，‘明德’雖重，而‘止至善’亦其體要也，八目釋‘明德’·‘新民’而無此一節，則‘至善’雖兼二者無所不在，亦不容無一言以釋之也。若循綱領三言之序，置釋‘至善’之語於八目之後，則是‘止至善’若在‘平天下’之後而別爲一事也。故宜繼綱領而言之於八日之前。夫言其功，則先分本末，而後及其體要。言其效則專提體要而兼統其本末，其立言亦可謂有法矣。”

대학입전변문이분지행·본말·후박삼절변의 (大學立傳變文以分知行·本末·厚薄三節辨議)

해제 권근은 『대학』의 전문(傳文)을 지(知)와 행(行)으로 나누고 본(本)과 말(末)을 구분하여 후(厚)와 박(薄)을 밝히기 위해 경문의 문장을 변화시킨 것이라 주장한다. 또 격물(格物), 지행(知行), 지어지선(止於至善)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성의」장은 유독 하나의 전으로 만들었다.

「誠意」章獨作一傳.

위로 ‘치지’에 연결하지 않은 것은 지와 행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래로 ‘정심’에 이어지지 않은 것은 스스로 닦는 처음으로⁸⁷ 그 공이 정심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현들이 이미 명확하게 분별한 것이다.⁸⁸

上不連‘致知’者，所以分知行；下不接‘正心’者，以其自修之首，其功不止於正心。先賢已有明辨矣。

「수신·제가」장의 끝맺는 말에 “집을 다스리는 것은 그 몸을 닦는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장을 바꿔서 “몸을 닦지 않으면 그 집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⁸⁹

87 스스로…처음으로: 『大學』 전6장.

88 위로…것이다: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89 「수신·제가」장의…말했다: 鄭經世, 『愚伏集』 권14, 「金沙溪經書疑問辨論」.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문장은 긍정문으로 결론을 맺은 것이고, ‘없다’라는 것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정문으로 결론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문장의 형세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傳文) 7장의 경우 ‘이것을 일러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9장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修身·齊家」章之結語，不曰“齊其家在修其身”，而變文曰，“身不修，不可以齊其家”。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경문의 끝맺는 말을 이어서 본과 말을 나누는 것이다. 경문에서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에서 이것을 이어 “이것이 이른바 몸이 닦여지지 않으면 그 집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⁹⁰

愚按，此承經文結語而分本末也。經曰：“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本。其本亂而未治者，否矣。”故傳承之曰：“此謂身不修，不可以齊其家”。

「제가·치국」장의 첫 부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장을 변화시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니 그 집안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

「齊家·治國」章之發端，不曰“治國在齊其家”，而變文曰“治國必先齊其家者，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無之。”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또한 경문의 끝맺는 말을 이어서 후함과 박함을 나누는 것이다. 경문에서 “그 후하게 해야 할 것에 박하게 하고서, 박하게 해야 할 것에 후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전문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문으로 결론을 맺은 것이고, 8장의 '이것을 일러 몸이 닦이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부정문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90 이것은...말했다: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은 이어서 “이른바 치국은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고, 그 집안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두 구절은 반드시 경문의 끝맺는 말을 이어서 보아야 곧 전을 지은 사람이 문장을 쓴 의도를 알 수 있다.⁹¹

愚按, 此亦承經文結語, 而分厚薄也. 經曰: “其所厚者薄, 而所薄者厚, 未之有也.” 故傳承之曰: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無之.” 此兩節, 必承經文結語而觀之, 則傳者立文之意, 可見矣.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성의」장은 본래 하나의 전을 만들어 지와 행을 나누었는데, 그 본말과 후박에 있어서는 별도로 전을 만들지 않고 문장을 바꾸어 뜻을 드러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學者問曰: “「誠意」章自作一傳, 以分知行, 其於本末·厚薄, 不別爲傳, 而變文見意, 何也?”

대답했다. “지와 행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그 힘을 동시에 써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두 가지 공부이다. 만약 본말에 비록 체용의 다름이 있을지라도 실행하면 실제로는 하나의 물이다. 후박에 비록 친함과 소원함의 차이가 있더라도 미루어 가면 실제로는 하나의 일이다.”⁹²

曰: “知行二者, 如車兩輪, 學者所當交致其力而并進者也. 分明是兩件工夫也. 若夫本末雖有體用之殊, 而舉而措之, 實一物也. 厚薄雖有親疎之別, 而推以及之, 實一事也.”

물었다. “「제가·치국」장은 효(孝)·제(悌)·자(慈)를 말하고, 그 아래에

91 이것은…있다: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92 지와…일이다: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서 『서경』 「강고」편의 문장을 인용하여 다만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⁹³으로 끝맺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 “『齊家·治國』章言孝·悌·慈, 而其下引『康誥』之文, 但以慈幼而結之, 何也?”

대답했다. “이것은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 집으로 말하면 효제에 혹 신중하지 못함이 있더라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실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선현들이 먼저 말한 것이다. 나라로 말하면 군주를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것이 모두 삼가야 할 것임을 알지만, 백성들을 부리는 도는 소홀한 것이 많다. 만약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제를 촉발시키면 효제가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백성을 부린다면 백성을 부림에 삼가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이다.”⁹⁴

曰: “此以最切而要者言之也. 以家言之, 則孝弟或有不謹, 而慈幼之心無不切, 先賢已嘗言之矣. 以國言之, 則事君事長, 皆知所謹, 而使衆之道多所忽. 苟能以慈幼之心而觸孝弟, 則孝弟無不至, 以慈幼之心而推使衆, 則使衆知所謹矣.”

물었다. “선생님께서서는 경문을 인용하여 전 8장과 9장의 변문의 의미를 증명하여 본과 말, 후와 박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한 것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전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8장 위 문장에서 ‘친애’ 등의 편벽됨을 말하고,⁹⁵ 또 ‘자식의 나쁜 점은 알지 못한다’라는

93 어린이를…것: 『禮記』, 『祭義』 제24 참조.

94 이것은…것이다: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95 8장…말하고: 『大學』 전8장.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고 말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친하고 사랑하는 것에 치우치고 그가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에

속담⁹⁶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맺는 말에서 ‘이것이 이른바 몸이 닦여지지 않으면 그 집을 가지런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전문 윗부분의 말을 이어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멀리 경문에서 이어 전의 끝맺는 말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9장의 시작하는 말 또한 8장을 이어서 끝맺는 말이지, 또한 멀리 경문을 이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의 말씀은 건강부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⁹⁷

曰：“子引經文，以證傳「八」·「九」章變文之意，以爲分本末·厚簿者，似矣。然卽本傳觀之，則「八章」上文旣言‘親愛’等之辭，又引諺‘莫知子惡’之言。故其結語曰‘此謂身不修，不可以齊其家’者，是承其傳上文語緒而然，不必遠承經文以爲傳之結語也。「九章」發端之言，亦承「八章」結語，亦不是遠承經文也。今子之言，無乃附會之甚耶？”

대답했다. “그대가 본전의 문장 형세에 나아가 말한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장은 ‘정심수신’을 말하고, 또 ‘분치’ 등의 ‘그 바름을 얻지 못했다’와 ‘마음이 없다’의 병폐를 말하고, 그 끝맺는 말에서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몸을 닦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 두 장은 문장을 쓰고 뜻을 말한 것이 대개 비슷하지만 유독 그 끝맺는 말이 같지 않은 것이 어찌 의미가 없겠는가? 무릇 경에 이미 팔조목을 말하고 또 수신과 제가를 제시하여 끝맺은 것은 수신이 덕을 밝히는 지극함과 천하의 근본이 되며, 제가가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시작과 천하의 법칙이 되기 때문이다. 전을 쓴 자가 여기에서 어찌 뜻을 다하지 않았겠

치우치고, 그가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치우치고, 그가 오만하게 대하고 게을리하는 것에 치우친다는 것이다.”

96 자식의…속담: 『大學』 전8장.

97 선생님께서는…아닙니까: 權近, 『禮記淺見錄』, 「大學」.

는가?”

曰: “子卽本傳文勢而言者, 可謂切矣. 然第「七章」言‘正心修身’, 亦言‘忿懣’等之‘不得其正’及‘心不在焉’之病, 而其結語不曰‘心不正, 不可以修其身’, 直曰‘修身在正心’, 蓋此二章立文命意, 大抵相似, 而獨其結語不同, 豈無意乎? 夫經既陳八目, 而又提身與家以結之者, 身爲明德之極而天下之本, 家爲新民之始而天下之則故也. 傳者於此, 豈不致意哉?”

물었다. “이 책을 쓴 것은 주자가 서문에서 ‘공자가 암송하여 전하고’⁹⁸ ‘증자가 그 뜻을 전으로 만들었다.’⁹⁹”라고 여겼으나, 경의 뒤에 ‘개(蓋: 아마도)’라고 말하여 공자의 말씀이라고 감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 전에서 ‘증자의 뜻을 제자들이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선후가 같지 않은데 무엇 때문입니까?”

曰: “此書之作, 朱子於序以爲‘孔子誦而傳之’, ‘曾子作爲傳義, 於經之後, 言蓋不敢質爲夫子之言, 其傳則‘曾子之意而門人記之’, 其言先後不同, 何也?”

대답했다. “주자 선생님께서 경의 말은 성인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의 말로 생각했고, 또 증거가 없어 고대 선현의 말일 수도 있으므로 의심스럽지만,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¹⁰⁰ 내

98 공자가…전하고: 『大學章句』, 「序」. “공자 같은 성인이 있었을지라도 임금과 스승의 지위를 얻어 정사와 가르침을 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홀로 선왕의 법도를 취하여, 외워서 전하고 후세를 가르쳤다.”

99 증자가…만들었다: 『大學章句』, 「序」. “삼천 명의 제자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증자의 전함이 홀로 그 종(宗)을 얻었다. 이에 전하는 뜻을 지어 그 뜻을 드러내었는데 맹자가 죽음에 이르자 그 전함이 끊어졌다. 그 책이 비록 남아있지만 아는 자가 적었다.”

100 주자…못했다: 『大學或問』 경1장. “물었다. ‘선생님께서 『대학』의 경문은 공자의 말을 증자가 기술하였고, 전문(傳文)은 증자의 뜻을 증자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

가 생각해 보건대, 공자께서 시대의 혼란함을 상심하고 탄식하면서,¹⁰¹ 자주 고대를 일컬어 말했다. 예를 들어, ‘옛 학자들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했다’¹⁰², ‘옛 어리석은 자는 정직했다’¹⁰³,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¹⁰⁴의 종류가 이것이다. 이 경 또한 ‘옛날 천하에 명덕을 밝히려는 자들’이라 말한 것은 옛것으로써 오늘날 그러하지 못함을 탄식하여 말한 것이다. 공자 이전에는 자리를 얻지 못한 성인이 없었으니 옛것으로써 오늘날을 탄식하여 말한 것은 바로 공자의 일이 여기에서 충분히 증명되어 공자의 말로 생각한 것이다. 그 전 10장에 인용한 『시』와 『서』의 문장 및 전을 세우고 경을 해석한 뜻은 모두 증자가 평상시에 문하의 제자들에게 하던 말들이다. 다만 전의 문장에서 ‘증자왈’이라고 말한 것은 증자가 손수 쓴 것은 아니므로 ‘문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비록 문하의 제자들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제자 자신들의 말이 아니니 이것은 증자가 지은 것 같다. 여러 전은 모두 증자의 말이지만 유독 ‘십목(十目)’ 한 구절에서 특별하게 ‘증자왈’이라고 추가한 것은 여러 전이 모두 경문의 뜻을 직접 해석한 것이다. 오직 여기 한 구절은 증자가 ‘신독’이라는 말로 말미암아 특별히 본장의 말 밖의 뜻을 드러내어 제자들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특별하게 ‘증자왈’이라 일컬어 표현해서, 천 세대·만 세대 학자들을 경계하는

데,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자가 대답했다. ‘경문은 말이 간략하면서도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말이 비근하면서도 뜻이 원대하니 성인이 아니면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증거가 없고, 또 혹 옛날 선현의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스럽지만, 감히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에 이르러서는 증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이 『중용』, 『맹자』와 합치되니, 증씨 문인의 손에서 완성되고 자사(子思)가 이를 맹자에게 전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1 공자께서…탄식하면서: 『論語』, 「八佾」.

102 옛 학자들은…했다: 『論語』, 「憲問」.

103 옛 어리석은…정직했다: 『論語』, 「陽貨」.

104 옛사람들은…않았다: 『論語』, 「里仁」.

계책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지금 읽으면 오싹하게 절로 황송함과 부끄러움이 있다. 『대학』은 『중용』의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¹⁰⁵와 ‘작은 일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¹⁰⁶는 뜻과 더불어 상호 간에 계발하고 밝혀준다. 이것은 곧 자사가 증자에게 얻은 것이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체득하고 생각하여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曰: “朱子以經之言, 非聖人不能及, 故以爲夫子之言, 又無左驗, 或疑古昔先民之言, 故疑之而不敢質. 愚則妄謂, 夫子傷時之嘆, 屢稱古以言之, 如曰‘古之學者爲己’, ‘古之愚也直’, ‘古者言之不出’之類是也. 此經亦曰‘古之明明德於天下’, 言古以嘆今之不然. 夫子之前, 未有聖人不得位者, 則言古嘆今, 正吾夫子之事, 是足爲證以爲孔子之言也. 其「傳十」章所引『詩』·『書』之文及立傳釋經之意, 皆曾子平日嘗以語門人之言. 但其傳文有稱‘曾子曰’者, 則非曾子之手筆也, 故以爲‘門人記之’. 雖門人記之, 非其自言, 則是猶曾子作之也. 諸傳既皆曾子之言, 獨於‘十目’一節, 特加‘曾子曰’者, 諸傳皆是直釋經文之意而已, 惟此一節, 曾子因‘慎獨’之言, 而特發本章言外之意, 以警門人. 故門人亦特稱‘曾子曰’以表之, 以爲千萬世學者之警策. 至今讀之, 竦然自有惶愧處. 其與『中庸』‘莫現’·‘莫顯’之意, 互相發明. 此乃子思有得於曾子者, 學者所當體念而深省者也.”

105 숨겨진…없다: 『中庸』 제1장.

106 작은…없다: 『中庸』 제1장.

4.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

해제 「중용수장분석지도」는 『중용』 「수(首)」 장에 나오는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용』은 도를 전하는 책으로 이 장은 도(道)가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가르침은 이 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배움이란 이 도를 배우는 것이다. 뒷부분은 초학자와 문답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중용』은 도를 전하는 책이고 가르치는 자의 일이니 배움이 그 가운데 있다. 도는 하늘에 근본하고, 내가 받은 것에 갓 추어져 있다. 가르침은 도를 닦는 것이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장의 첫 부분¹⁰⁷에 명(命)·성(性)·도(道)·교(教)를 거론해서 하나하나 말하고, 그런 후에 단독으로 ‘도’자를 제시하여 도의 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밝혔다. 비록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잠깐 사이에도 그윽하고 은미하며 세세하고 미미하여,¹⁰⁸ 자기만 아는 곳에도 모두 이 도가 존재하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존양성찰(存養省察)¹⁰⁹하는 공부를 배우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천리를 보존함으로써 그 중을 지극히 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며 인욕을 막음으로써 그 화를 지극히 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니 잠시도 혹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장의 큰 뜻은 도가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가르침이 그 사이에서 행해지니 가르침이 행해지는 것이 곧 배움이 있는 곳이다. 배우는 자가 만약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배움의 공을 지극히 할 수 있다면 가르침은 나로 말미암아 천지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길러지는¹¹⁰ 지극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愚按, 『中庸』傳道之書, 教者之事, 而學在其中. 道本乎天, 而備於我之所受. 教修乎道, 而因其我之所有. 故章首備舉命·性·道·教而歷言之, 然後單提道字, 以明道體無所不在. 雖不睹不聞, 暫時之頃, 幽隱細微, 獨知之地, 皆此道之所存而不可忽之意. 而言君子存養省察之學, 所以教學者

107 장의 첫 부분: 『中庸』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108 비록…미미하여: 『中庸』1장.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109 존양성찰(存養省察): 『中庸章句』1장.

110 천지가…길러지는: 『中庸』1장.

戒懼而存天理，以致其中，謹獨而遏人欲，以致其和，不使須臾之或離也。故此章大旨，道無不包，而教行乎其間，教之所行，即學之所在也。學者苟能因是教，而致其爲學之功，則教將由我，而位育之極效，庶可以馴致矣。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주자의 『장구』에 ‘계구(戒懼)’와 ‘신독(愼獨)’¹¹¹ 두 구절은 군자가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말한 것이지, 가르침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중용수장본석도』에서 가르침을 겸하여 말한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學者問曰：“朱子『章句』戒懼·愼獨兩節，但言君子敬謹之心，而不以教言。今子之『圖』，兼以教言者，得無贅乎？”

대답했다. “『장구』에서는 본문만을 해석한 것으로 그 말이 간결하고 좋다. 비록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혹문』 중에서 말하기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그 시작이 이와 같아야 함을 밝혔다.’라고 했다. 배우는 자들이 혹 이것을 살피지 못할까 내가 감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 책은 도를 전한 책이니, 첫 부분에서 가르침을 말했다. 배우는 자의 일은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또한 ‘신독’은 『대학』에서도 말했으니, 배우는 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위에 ‘필(必)’¹¹²을 더하여 경계한 것이다. 『중용』은 다만 군자의 일로써 가르침을 말했다기 때문에 ‘필’을 말하지 않았다. 말을 하고 글 쓰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다.”

曰：“『章句』直釋本文，其言簡切。雖不及言，乃於『或問』中言之曰：‘以明由教而入者，其始當如此，’學者或不之察，故愚敢揭而示之也。此書，

111 ‘계구(戒懼)’와 ‘신독(愼獨)’：『中庸』 1장

112 필(必)：『大學』 6장. “君子必愼其獨也.”

傳道之書，首以教言，故凡言學者之事，無非所以教也。且‘慎獨’，『大學』亦言之，學者事也，故特加‘必’字於上以戒之也。『中庸』直言君子之事以教之，故不言‘必’。立言下字，其不苟也，如此哉。”

물었다. “『중용장구』에서는 중(中)과 화(和)를 성(性)과 정(情)의 덕으로 여겼는데,¹¹³ 선생님께서는 지금 화를 도로 여기고서 정을 말하지 않고, 또 마음의 작용과 기가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曰: “『章句』以中和爲性情之德，今子以和爲道而不言情，又以爲心之用，氣之所行，何也?”

대답했다. “중과 화는 진실로 성과 정의 덕이다. 지금 화를 도로 여긴 것은 그 이른바 ‘달도’라는 것에 근본 하여 말한 것으로, 장 첫 부분의 성·도·교가 내포함을 밝힌 것이다. 그것을 또 마음의 작용과 기의 행함으로 생각한 것은 심을 체와 용으로 나누어, 『장구』의 심정·기순·체립·용행¹¹⁴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실체는 둘이 아니다.”

曰: “中和，固性情之德也。今以和爲道者，本其所謂‘達道’而言，以明章首性·道·教之所包也。其又以爲心之用·氣之行者，所以分心之體用，而明『章句』心正·氣順·體立·用行之意也。名雖異而實非有二也。”

113 중과...여겼는데: 『中庸章句』 1장. “중은 성의 덕이고, 화는 정의 덕이다.”

114 심정...용행: 『中庸章句』 1장.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또한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이 또한 순하다. ...이것은 하나의 체와 하나의 용이 비록 움직임과 고요함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그 체가 세워진 뒤에 용이 행해질 수 있으니, 그 실체는 또한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5. 중용분절변의(中庸分節辨議)

해제 권근은 『중용』 경문의 분절(分節) 문제에 있어서 주희의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요로(饒魯)¹¹⁵의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절충하여, “총론의 큰 뜻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다섯 개의 절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주자는 4개의 큰 절로 나누었다.

○朱子分爲四大節.

1) 「수」장으로부터 「색은」장까지가 첫 번째 절이 된다.

自「首」章至「索隱」章爲第一節.

이상은 모두 ‘중용’을 논함으로써 「수」장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已上皆論‘中庸’以釋「首」章之義.

2) 「비은」장으로부터 「애공문정」장까지 두 번째 절이 된다.

自「費隱」章至「哀公問政」章爲第二節.

이상은 모두 ‘비은’과 ‘소대’를 말한 것이다.

已上皆言費隱小大.

3) 「성명」장으로부터 32장까지가 세 번째 절이 된다.

自「誠明」章至三十二章爲第三節.

이상은 모두 천도와 인도를 말한 것이다.

已上皆言天道人道.

115 요로(饒魯): 요로(1193~1264)는 중국 남송의 학자이다. 자는 백여(伯輿), 호는 쌍봉(雙峰)이며 황간(黃幹)의 문인이다. 저서에 『오경강의(五經講義)』와 『춘추절전(春秋節傳)』, 『논맹기문(論孟紀聞)』, 『태극삼도(太極三圖)』, 『서명도(西銘圖)』, 『근사록주(近思錄注)』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하지 않는다.

4) 「졸」장은 저절로 네 번째 절이 된다.

「卒」章，自爲第四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마음을 세우는 처음으로부터¹¹⁶ 미루어 가서
지극함에 이른다.

復自下學立心之初，推之以至於極。

○요로는 여섯 절로 나누었다.

○饒氏分爲六節。

1) 「수」장은 본래 첫 번째 절이 된다.

「首」章自爲第一節。

2) 「제2」장으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가 두 번째 절이 된다.

自「第二」章至十一章爲第二節。

3) 「비은」장으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가 세 번째 절이 된다.

自「費隱」章至十九章爲第三節。

‘비은’과 ‘소대’를 말하고, 19장의 무왕과 주공에 이르러 그친다.
言費隱小大，至此章武王·周公而住。

4) 「애공문정」장으로부터 「지성무식」장에 이르기까지가 네 번째 절
이 된다.

自「哀公問政」章至「至誠無息」章爲第四節。

천도와 인도를 말하고, 「애공문정」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성무

116 다시...처음으로부터: 『中庸章句』 33장. “이것은 다시 공부할 때 마음을 세우는 처음
로부터 말한 것이다.”

식」장에 이르러 그친다.

言天道·人道, 自「哀公問政」章而始, 至此「至誠無息」章而住.

5) 「대재성인지도」장으로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가 다섯 번째 절이 된다.

自「大哉聖人之道」章至三十二章爲第五節.

「대재성인」장이 대덕과 소덕으로 나누어 말한 것으로부터 32장에 이르러 그친다. 파양 이씨(李氏)¹¹⁷는 「대재성인」장으로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지덕(至德)과 지도(至道)를 나누어 말한 것으로 생각했다.

自「大哉聖人」章分言大德·小德至三十二章而住. 番陽李氏以爲自「大哉聖人」章至三十二章以至德·至道分言之.

6) 「졸」장이 여섯 번째 절이 된다.

「卒」章爲第六節.

○ 내가 생각해 보건대, 총론의 큰 뜻은 세 절이고, 세분하면 다섯 절이 된다.

○ 愚則妄謂, 總論大旨爲三節, 細分爲五節.

1) 「수」장¹¹⁸은 명(命)·성(性)·도(道)·교(教)를 말했고, 그 이하 10장은 모두 증용을 말하여, 지·인·용을 배움의 일로 여기고, “세상에서 은둔하여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¹¹⁹ 성인의 경지에까지 미루어

117 이씨(李氏): 강서(江西) 덕흥(德興) 사람으로 이름이 정용(靖雍)이고 자(字)가 사정(思正)이다. 저서로는 『중용도설』이 있다.

118 「수」장: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119 세상에서…않는: 『中庸』 11장.

나아가니 공자의 일로써 끝맺은 것이 첫 번째 절이 된다.

「首」章言命·性·道·教，其下十章皆言中庸，以智·仁·勇爲學之事，推之極於“遯世不悔”之聖，以孔子之事終之，爲第一節。

2) 「비은」장은 앞 장의 “군자는 중용에 의거한다.”¹²⁰라는 것을 이어서 군자의 도를 말하고 있다. 그 아래는 평상시의 말과 행동을 미루어 나가, 자신과 가족과 국가와 천하로부터 구경(九經)의 명목¹²¹에 이르기까지 공자의 정사(政事)로 끝나는 것이 두 번째 절이 된다.

「費隱」章，承上章「君子依乎中庸」，以言君子之道，其下由庸言·庸行推之，自身而家而國而天下，至於九經之目，以孔子之政終之，爲第二節。

앞의 두 개의 절은 명·성·도·교로 말미암아 도를 미루어 갔으니, 배우는 자들의 공을 말한 것이 많다. 그러나 「수」장에서 말한 중과 화는 체(體)를 말미암아 용(用)에 도달하고 12장에서 말하는 비와 은은 용을 말미암아 체에 도달한다. 앞 절은 군자가 선택하고 지켜야 할 공부를 주로 말한 것이고, 뒤 절은 군자가 시행하고 조치해야 할 일을 주로 말한 것이니 두 절의 첫 부분은 모두 군자를 들어서 말한 것이다. 이 두 절은 모두 군자의 도를 말한 것이므로 그 큰 뜻은 같다.

右二節，由命·性·道·教，而推之以道，言學者之功爲多焉。然「首」章言中和由體而達用，十二章言費隱由用而明體。前節則主言君子擇守之學，後節則主言君子施措之事，兩節之首，皆提起君子言之。是二節皆言君子之道，故其大旨一也。

120 군자는…의거한다: 『中庸』 11장.

121 구경(九經)의 명목: 수신(修身), 존현(尊賢), 친친(親親), 경대신(敬大臣), 체군신(體群臣), 자서민(子庶民), 내백공(來百工), 유연인(柔遠人), 회제후(懷諸侯)를 말한다.

3) 21장¹²²은 성·명·성·교를 말한 것이고, 그 이하는 천도와 인도를 나누어 말했다. 26장에 이르러서는 “순일하여 또한 그치지 않는다.”¹²³라는 하늘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二十一章言誠·明·性·教，而其下分言天道·人道。至二十六章而極於“純亦不已”之天。

4) 27장은 문왕의 덕을 계승하여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¹²⁴라고 말했다. 32장에 이르러서는 “넓고 큰 그 하늘같은 모습”¹²⁵을 한 덕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二十七章承文王之德，而言“大哉聖人之道。”至三十二章而極於“浩浩其天”之德。

앞의 두 개의 절은 성·명·성·교를 말미암아 덕을 미루어 나갔으니, 성인의 일을 말한 것이 많다. 그러나 22장으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는 「천도」장을 말하면서 반드시 ‘지성’을 말하고, 「인도」장을 말하면서 반드시 ‘성’자를 말했다. 그러므로 요로와 이정옹은 모두 천도와 인도를 말한 것이 26장에 이르러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중용』 27장) 「대재성인지도」장으로부터 이하를 요로는 “소덕과 대덕”을 말한 것이

122 21장: 『中庸』 21장. “自誠明謂之性，自明誠謂之教，誠則明矣明則誠矣.”

123 순일하여…않는다: 『中庸』 26장. 이 구절의 이해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공영달(孔穎達)은 ‘문왕덕지순(文王之德之純)’의 ‘순(純)’을 ‘불이(不已)’로 풀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 하늘(의 명(命))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하였다. 이황의 『중용석의(中庸釋義)]와 이이의 『중용을곡언해(中庸栗谷諺解)]는 ‘개왈(蓋曰)’이 ‘순역불이(純亦不已)’까지 말한 것으로 보았다. 김장생은 이황과 이이의 설에 반대하며 ‘개왈(蓋曰)’이 ‘문왕지소이위문야(文王之所以爲文也)’까지만 말한 것으로 주장하여, ‘순역불이(純亦不已)’에서 ‘역(亦)’은 문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이 이미 그치지 않음에 문왕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24 위대하다…도여: 『中庸』 27장.

125 넓고…모습: 『中庸』 32장.

라 생각했고, 이정응은 “대덕과 소덕은 (『중용』 30장) 「중니」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이 장은 지덕과 지도를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다.

右二節, 由誠·明·性·教, 而推之以德, 言聖人之事爲多焉. 然自二十二章至二十六章, 言「天道」章必言“至誠”, 言「人道」章必言“誠”字. 故饒氏·李氏皆以爲言天道·人道至二十六章而住. 自「大哉聖人之道」章以下, 饒氏以爲“言小德·大德”, 李氏以爲“大德·小德始現於「仲尼」章, 不應先言於此, 當以此章至德·至道分言之.”

내가 생각해 보건대, 12장은 비은(費隱)을 말하면서 소대(小大)를 곁했고, 그 아래 3장은 비(費)의 소(小)를 말했다. 「귀신장」은 비은을 곁하면서 소대를 포함했고, 또 그 아래 3장은 비(費)의 대(大)를 말했다.¹²⁶ 이것을 예로 하면, 「대재성인지도」장은 지덕과 지도를 말하면서 그 앞에서 대소를 포함했다. 그러므로 (『중용』 28장) 「우호자용」장¹²⁷과 「삼중」장¹²⁸은 도의 소를 말하면서 덕이 그 가운데 있고, 「중니」장¹²⁹은 도덕의 대소를 아울러 포괄해서 말했다. 그 이하 「지성(至聖)」¹³⁰과 「지성(至誠)」¹³¹ 두 장은 덕의 대를 말하면서 도가 포함되어 그 가운데 있다. 또 이 두 절은 모두 성인의 덕을 말했으므로 앞 절의 첫 부분은 ‘성’을 말하고, 뒤 절의 첫 부분은 ‘성인’을 말했으니, 그 큰 뜻은 같다.

愚則妄謂, 十二章言費隱兼小大, 其下三章言費之小, 「鬼神」章兼費隱

126 12장은…말했다: 이 구절은 『中庸章句』 17장에 “이 한 장(章)은 비은(費隱)을 곁하고, 대소(大小)를 포함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에 근거한다.

127 「우호자용」장: 『중용』 28장을 가리킨다.

128 「삼중」장: 『中庸』 29장을 가리킨다.

129 「중니」장: 『中庸』 30장을 가리킨다.

130 「지성(至聖)」장: 『中庸』 31장을 가리킨다.

131 「지성(至誠)」장: 『中庸』 32장을 가리킨다.

包小大，又其下三章言費之大。以此例之，則「大哉聖人之道」章言至德·至道而包大小於其前。故「愚好自用」章及「三重」章，言道之小而德在其中，「仲尼」章兼包道德大小而言。其下「至聖」、「至誠」二章，言德之大而包道在其中也。又此兩節皆言聖人之德，故前節之首言「誠」，後節之首言「聖人」，其大旨一也。

5) 「마지막」장은 저절로 다섯 번째 절이 된다.

「卒」章自爲第五節.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중용』 한 권을 주자는 나누어 네 개의 절로 만들었고, 요로는 나누어 여섯 개의 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총론의 큰 요지는 세 개의 절이 되지만 세분하면 다섯 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學者問曰：“『中庸』一書，朱子分爲四節，饒氏分爲六節 今子以爲總論大旨則爲三節，而細分爲五，其詳可得聞乎?”

대답했다. “내가 외람되게 다른 설을 만들어 앞선 철학자와 다른 설을 구한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설을 합하여 더욱 좋은 점을 따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장으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는 첫 번째 절이 되고, 「비은」장부터 「애공문정」장에 이르기까지는 두 번째 절이 되고, 「성명」장이 세 번째 절의 첫 부분이 되는 것은 마땅히 주자의 설을 따른 것이다. 그것은 천도와 인도를 논하여 26장에 이르러 그친다. 「대재성인지도」장이 별도로 한 절의 첫 부분이 되는 것은 마땅히 요로의 설을 따른 것이다. 이미 외람되게 앞에서 그 설을 들추어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앞 두 절은 도로써 말한 것으로, 모두 공자의 성(聖)의 경지에 이른 것이니 군자의 실질적인 학문이다. 그러므로 모두 실천해

서 미루어 가는 것으로써 말한 것이니 배우는 자의 공이 많다. 뒤의 두 절은 덕으로 말한 것으로, 반드시 성인이 하늘의 경지까지 이르니 성대한 덕의 극치이다. 그러므로 모두 그 충실히 쌓아서 드러나는 것으로써 말한 것이니 성인의 일이 많다. 도를 말하면 반드시 성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덕을 말하면 반드시 하늘의 경지까지 이른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절에서 ‘중용’을 말하고, 지·인·용으로써 미루어 가서 ‘세상을 등쳐도 후회하지 않는’ 성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니 공자의 일이다.”

曰：“愚非敢僭爲他說，以求異於先哲也，但合二說從其尤長者爾。故自「首」章至十一章爲第一節，自「費隱」章至「哀公問政」章爲第二節，而「誠明章」爲第三節之首者，當從朱子；其論天道·人道至二十六章而住。「大哉聖人之道」章別爲一節之首者，當從饒氏。既已僭著其說於前矣。竊意，前二節以道言，而皆極於孔子之聖，君子之實學也，故皆以其踐履而推行者言之，故學者之功爲多焉。後二節以德言，而必極於聖人之天，盛德之極致也，故皆以其充積而著現者言之，聖人之事爲多焉。言道則必極於聖，言德則必極於天，故第一節言‘中庸’，而以智·仁·勇推之，極於‘邇世不悔’之聖，孔子之事也。”

“두 번째 절은 ‘비은’을 말하고, ‘용인’과 ‘용행’을 미루어 가서 ‘구경’의 조목에까지 이르니 공자의 정사이다. 도가 공자의 경지에 이르르면 군주의 학문은 다시 더할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第二節言‘費隱’，而以庸言·庸行推之，至於‘九經’之目，孔子之政也。言道而至於孔子，則君主之學無以復加矣。”

“세 번째 절은 ‘성명(誠明)’을 말하면서, 천도와 인도를 미루어 가서, ‘순역불이’의 천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성인과 천은 덕이 같다.”

“第三節言‘誠明’，而以天道·人道推之，極於‘純亦不已’之天，聖人與天

同德也.”

“네 번째 절은 ‘지덕’과 ‘지도’로써 말하면서 소대를 미루어 ‘호호기 천’하는 덕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성인과 하늘은 사이가 없다. 덕을 말하면서 하늘의 경지에 이르면 성인의 덕은 다시 더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수」장으로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총론의 큰 뜻은 도를 말하고 덕을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말을 한 순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마땅히 네 개의 절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요로가 ‘성을 말하면서 천도와 인도로 나누고 「애공문정」장으로부터 시작하니, 저절로 성을 논한 여러 장의 첫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중용장구』의 이른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순·문왕·무왕·주공의 실마리를 계승하였으니, 그 전하는 것이 일치함은 분명하다.’¹³²라는 것은 진실로 정확한 이론이다.”

“第四節言‘至德’·‘至道’，而以小大推之，極於‘浩浩其天’之德，聖人與天無間也。言德而至於天，聖人之德無以復加矣。由是而觀，則自「首」章至三十二章總論大旨，則不過言道言德，而細論立言之序，則當分爲四節者甚曉然矣。饒氏以爲‘言誠而分天道·人道，自「哀公問政」章始，自當爲論誠諸章之首’，似亦得矣。然『章句』所謂‘引孔子之言以繼大舜·文·武·周公之緒，明其所傳之一致者’，誠爲確論。”

“『중용』은 하늘과 공자를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시종일관 천을 말하고, 또 시종일관 중니를 말했다. 지금 순·문왕·무왕·주공을 말하면서 공자로 계승하지 않는다면 자사가 시종일관 공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책의 뒷부분 장에 현장을 조술했다는 말과 『논어』

132 공자의…분명하다: 『中庸章句』 20장.

와 『맹자』의 끝부분은 요·순·우·탕왕·문왕·무왕을 일일이 서술한 다음에 반드시 공자로 이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책 각 절의 새로 시작하는 말은 모두 자사의 자기 말이고 그 아래에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니, 중간 한 절에 유독 공자의 말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中庸』以天與孔子作模範，故終始言天，亦終始言仲尼。今言舜·文·武·周公，而不以孔子繼之，則非子思子終始標仲尼之意矣。以此書後章祖述憲章之言及『語』·『孟』之終歷叙堯·舜·禹·湯·文·武而必繼以孔子者觀之，可見矣。況此書每節更端之言，皆是子思子之自言，其下乃引孔子之言，不應中間一節獨用孔子之語以更端也。”

“요로가 말의 뜻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성(誠)을 말하면서 천도와 인도를 나누는 것이 비록 이 장으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성명」장은 곧 이 장의 공자 뜻을 계승하여 말을 세워 새로 시작했다. 그러므로 또 천도와 인도를 겹쳐서 말하고, 그 아래 여러 장은 천도와 인도를 나누어 말했다. 만약 「애공문정」을 새로 시작한 첫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다음 장은 마땅히 천도를 말해야 하고, 또 그 다음 장은 마땅히 인도를 말해야 한다. 다시 함께 거론하고 중첩해서 말한 뒤에 나누어서 말할 필요는 없다.”

“饒氏以爲語意更端者，何哉？且言誠而分天道·人道，雖自此章而始，然「誠明」章乃承此章夫子之意，而立言以更端，故又兼以天道·人道而言，其下諸章始分而言之。若以「哀公問政」爲更端之首，則次章當言天道，又其次章當言人道，不必再兼舉而疊言之，然後分而言之也。”

“이 책은 각각의 절마다 비록 다시 시작하지만, 또한 반드시 앞 장을 이어서 말을 한다. 그러므로 제1절은 ‘군자’로 끝나고, 제2절은 이것을

이어 첫 부분에서 군자의 도를 말했다. 제3절은 ‘문왕’으로 끝나고, 제4절은 이것을 이어 첫 부분에서 성인의 도를 말했다. 그러므로 제2절의 끝은 ‘성(誠)’을 말하면서 천도와 인도로 나누고, 제3절은 이것을 이어 첫 부분에서 ‘성명(誠明)’을 말하면서 천도와 인도를 겸해서 말했으니 또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만약 반드시 구분하여 서로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성(誠)은 비로소 「귀신」장에서 드러나고, 지·인·용은 비로소 제1절에서 드러나 「애공문정」에서 상세할 것이니 또 장차 어떻게 나누어 귀속할 것인가? 다만 이른바 천도와 인도를 말한 것은 26장에 이르러 끝나고, 「대재성인지도」장으로부터는 별도로 한 절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진실로 주자의 학설을 충신처럼 따른 것이다. 대덕과 소덕을 나누어 말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정옹이 이것을 비판하면서 지덕과 지도로 말했다. 그러나 요로는 소대로 말하는 것은 옳고, 소덕과 대덕으로 본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정옹은 지덕과 지도로써 말한 것은 옳지만, 그 소대를 버리면 미비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또 반드시 두 가지 설을 합하여 말한 후에야 그 의미가 비로소 완비될 것이다.”

“大抵此書每節，雖是更端，然亦必承前章而立言。故第一節終以君子，而第二節承之，首言君子之道，第三節終以文王，而第四節承之，首言聖人之道，則第二節之終言誠而分天道·人道，第三節承之，首言誠明而兼天道·人道者，又何疑哉。必若區分，不相交涉，則言誠始見於「鬼神」章，知·仁·勇始見於第一節而詳於「哀公問政」，又將何以分屬歟？但謂言天道·人道至二十六章而住，自「大哉聖人之道」章別爲一節，誠爲朱子忠臣矣。至以大德·小德分言者，李氏非之而以至德·至道言之。然饒氏以小大言者得之，而以爲小德·大德則未安。李氏以至德·至道言者得之，而遺其小大則未備，故又必合二說而言之，然後其意始備矣。”

“후생말학¹³³인 내가 망령되어 선현을 의론했으니 함부로 비판했다는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요로는 일찍이 주자의 학설을 충신처럼 따랐기 때문에 나 또한 요로의 학설을 충신처럼 따르기를 원한다. 여러 동지가 그 죄를 용서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다면 다행일 것이다.”

“後生末學妄議先賢，狂僭之罪，無所逃避。然饒氏嘗爲朱子忠臣，故愚亦願爲饒氏之忠臣。幸諸同志恕其罪，而教其不逮可也。”

물었다. “선생님께서 또 「수」장의 명(命)·성(性)·도(道)·교(教)를 앞 2절의 첫 부분으로 삼고, 21장의 성(誠)·명(明)·성(性)·교(教)를 뒤 2절의 첫 부분으로 삼았는데 비교하여 말한 것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장은 『중용』 전체의 요점이니 그 뜻이 마땅히 제1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로는 별도로 제1 대절로 생각하여 그것이 포함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단지 제1절의 첫 부분이 된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曰: “子以又「首」章命·性·道·教爲前二節之首，二十一章誠·明·性·教爲後二節之首，所言比類可謂似矣。然「首」章一篇之體要，其意當不止於第一節而已也，故饒氏別爲第，以現其無所不包之意。今子不之從，而但爲第一節之首者，何也?”

대답했다. “「수」장의 뜻은 비록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아래 열 개의 장은 모두 중용을 논했으니 「수」장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비은」장에 이르러 새로 시작하니 「수」장이 그 아래 열 개의 장의 첫머

133 후생말학: 자신을 가리키는 겸손한 표현이다. 후생은 후배를 말하고 말학은 학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리가 된다. 만약 「수」장을 나누어 한 절로 삼고, 제2장을 또 한 절의 첫 부분으로 삼으면 곧 매절마다 자사가 말을 새로 시작하는 예(例)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또 「수」장의 뜻을 풀이한 것을 별도의 첫 부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수」장은 비록 이 절의 첫 부분이 되지만, 그 뜻은 또한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학』의 ‘명명덕’이 비록 삼강령과 병렬되어 있지만 통괄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과 같다.”

曰: “「首」章之意雖無所不包, 然其下十章, 皆論中庸, 以釋「首」章之意, 至「費隱」章又別更端, 則不得不以「首」章冠於其下十章也. 若分「首」章以爲一節, 以第二章又爲一節之首, 則非每節子思子自言更端之例也, 又不可以釋「首」章之意者自別爲首也. 且「首」章雖爲此節之首, 其意亦無所不包, 猶『大學』‘明明德’, 雖并列三綱而無所不統也.”

물었다. “제1절은 증용을 말하면서 덕행으로써 말하고, 제2절은 용덕으로 미루어 가니 앞 두 절은 덕으로써 말한 것 같습니다. 제3절은 지성의 도를 말하고, 제4절은 ‘대재성인지도’를 말하니 곧 뒤 두 절은 도로써 말한 것 같습니다. 또 ‘진실로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¹³⁴라는 말로써 살펴보면 덕을 닦은 이후에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내 앞 두 절은 도를 말하고 뒤 두 절은 덕을 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째서입니까?”

曰: “第一節言中庸, 以德行言, 第二節以庸德推之, 則前二節似以德言. 第三節言至誠之道, 第四節言大哉聖人之道, 則後二節似以道言. 且以‘苟不至德, 至道不凝’之言觀之, 則修德而後凝道也. 今子乃謂前二節言道, 後二節言德, 何也?”

대답했다. “덕이라는 것은 본연의 체에서 얻는 것이고, 도는 곧 마땅

134 진실로...않는다: 『中庸』 27장.

히 행해야 하는 용이다. 덕은 실천하는 실제에서 얻고, 도는 곧 실천해야 할 일이다. 앞 두 절은 도를 말하면서 반드시 덕으로써 먼저 한 것이니 이 덕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도가 뒤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뒤 두 절은 덕을 말하면서 반드시 도로써 말한 것이니 이 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덕이 있음을 알게 됨을 밝힌 것이다. 만약 배우는 자로써 말하면 도에 들어간 이후에 덕을 쌓고, 도에 나아간 이후에 덕을 완성할 수 있다. 덕을 완성하는 것으로써 말하면 이 지극한 덕이 있기 때문에 이 지극한 도를 이룰 수 있다. 앞 두 절은 대부분 배움을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도로써 말했고, 뒤 두 구절은 대부분 성인을 위주로 말했기 때문에 덕으로써 말한 것이다. 이 책의 큰 뜻은 처음에는 체를 말미암아 용에 도달하고, 끝에는 용으로 말미암아 체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덕을 말하면서 그 도를 밝혔고, 뒤에는 도를 말하면서 그 덕을 밝혔다. 「줄」장은 또 한편의 큰 뜻을 총괄해서 하나하나 밝혔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덕에 들어감을 말하고, 중간에는 학문하는 도를 말하고, 끝에는 드러나지 않는 덕으로써 했으니, 그 말한 순서를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구』에 ‘지성(至誠)의 도는 지극한 성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고, 지극한 성인의 도는 지성(至誠)이 아니면 할 수 없다.’¹³⁵라는 것으로 두 가지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극진하다고 말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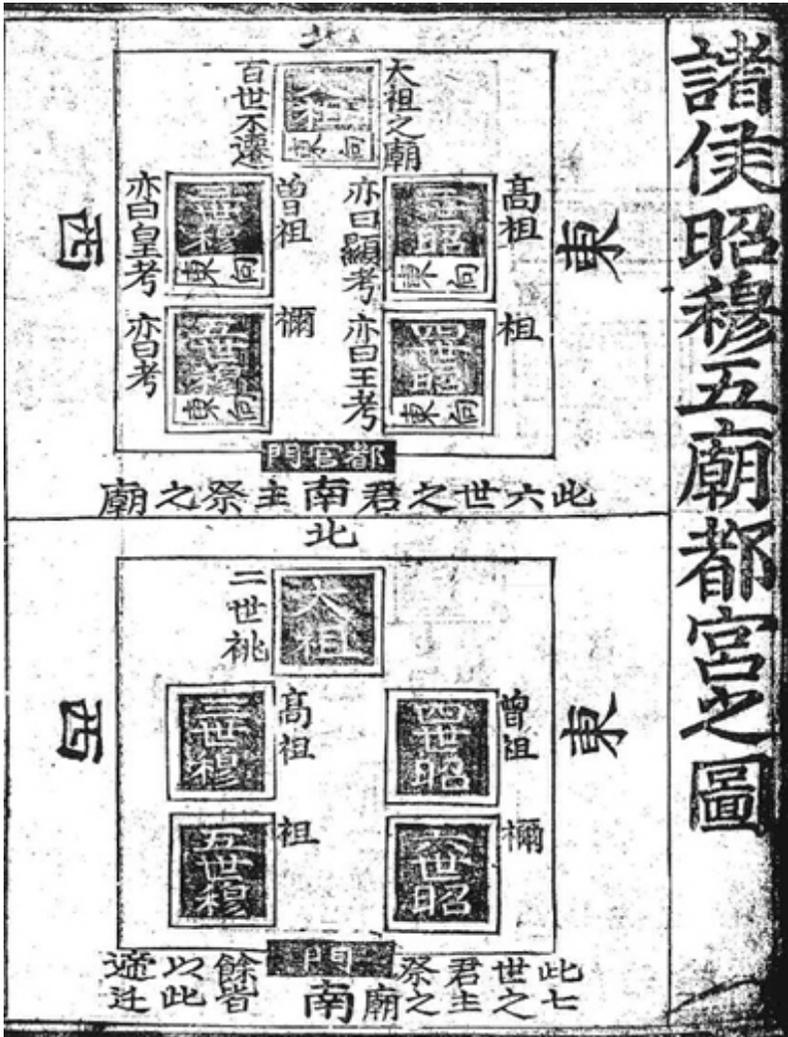
曰：“德者得於本然之體，而道則當行之用。德者得於踐履之實，而道則所履之事也。前二節，言道而必以德先之者，所以明由其有是德而後有是道也；後二節，言德而必以道言之者，明由其有是道而知有是德也。若以學者言之，則入道而後積德，造道而後成德也；以成德言，則有是至德，故能凝是至道也。前二節多主學者言，故以道言，後二節多主聖人言，故以

135 지성(至誠)의…없다: 『中庸章句』 32장. 『장구』에서는 지성지도(至誠之道)가 지성지덕(至聖之德)으로 되었다. “至誠之道，非至聖不能知。至聖之德，非至誠不能爲，則亦非二物矣。”

德言. 此書大旨, 始由體而達用, 終由用而歸體. 故前則言德而明其道, 後則言道而明其德. 「卒」章又總一篇大旨而歷言之. 故始言入德, 中言爲學之道, 終之以不顯之德, 其立言之序, 亦可見矣. 然『章句』以爲‘至誠之道, 非至聖不能知; 至聖之道, 非至誠不能爲’, 實非有二物也, 可謂盡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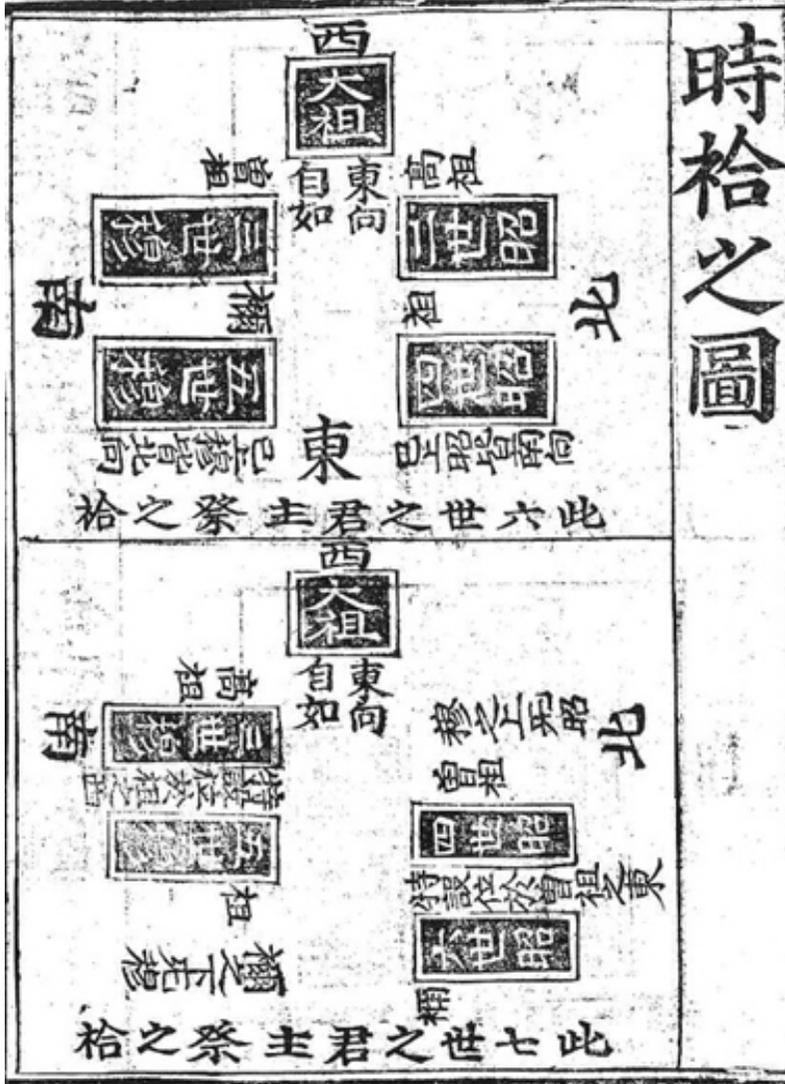
6.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해제 「제후소목오묘도궁지도」는 제후가 조상의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시는 법도를 그린 것이다. 중앙에 시조(始祖)를 모시고, 왼쪽을 소(昭)라고 하고, 오른쪽을 목(穆)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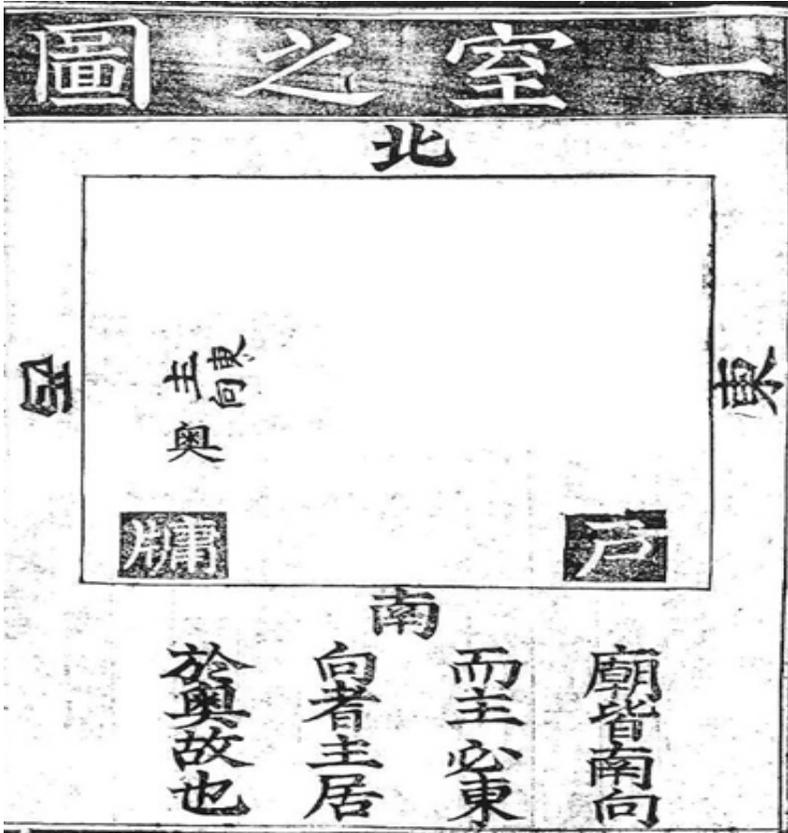
7. 시협지도(時裕之圖)

해제 「시협지도」는 6세조와 7세조의 군주를 태모에 합제할 때 신주의 위치를 그린 것이다.



8. 일실지도(一室之圖)

해제 「일실지도」는 사당의 예법에 있어서 묘(廟)는 남쪽을 향하고 신주는 동쪽을 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근은 주희의 귀신(鬼神) 개념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근거를 밝히고 있다. 사람이 후손이 없는 것을 큰 화(禍)로 여기는 것도 조부의 기운이 여기에서 끊어져 다시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몸의 기운은 곧 조부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제사를 지내면 신기(神氣)가 교감하여 이에 흡향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소목’¹³⁶의 설은 주자가 『혹문』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¹³⁷ 배우는 자들이 오히려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를 그려서 그 대략을 보인 것이다. 묘는 모두 남쪽으로 향하고 신주는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실도」를 만들어 여기에 붙였다.

愚按, ‘昭穆’之說, 朱子於『或問』論之詳矣, 學者猶不能察, 故爲此「圖」以示大略; 若夫廟皆南向而主必東向者, 學者又不能知其義, 故今繕爲「一室圖」以附焉.

2세의 조묘는 마땅히 동쪽 협실에 모셔야 할 것으로 의심되는데 『혹문』에는 서쪽 협실¹³⁸에 모신다고 여겼다. 동쪽이 높는데 태조의 앞에

136 소목: 朱熹, 『中庸或問下』 18·19장, 『朱子全書』 제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582쪽. “남쪽을 향하는 것은 밝은 쪽을 향하기 때문에 ‘소’라고 한다. 북쪽을 향하는 것은 그 심원함을 취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한다.”

137 내가…있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69, 『朱子全書』 제23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雜著·櫛袷議』, 「3332쪽. “『예기』 「왕제」에서는 ‘천자는 묘(廟)가 일곱인데, 소(昭)가 셋이며 목(穆)이 셋이고, 여기에 태조의 묘를 합쳐서 묘가 일곱이다. 제후·대부·사는 각각 둘씩 낫춘다.’라고 했다. 「제법」에서는 ‘적사(適士)는 묘가 둘이고, 관사(官師)는 묘가 하나’라는 글이 있다. 사(士)는 태조가 없으므로 모두 그들의 조고에까지만 (묘제가) 미친 것이다.(정씨(鄭玄)는 ‘하나라는 묘가 다섯이고, 상나라는 여섯이며, 주나라는 묘가 일곱이다’고 했다. 지금 살펴보면 『서경』 「상서」편에서 이미 ‘7세의 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현의 설은 틀린 것 같다. 안사고는 ‘아버지는 소, 아들은 목이 되고, 손자는 다시 소가 된다. 소는 밝다는 뜻이요, 목은 아름답다는 뜻이다. 훗날 진나라(晉) 왕실에서 (사마소(司馬昭)의 이름에 들어있는) 소(昭)자의 사용을 피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소(昭)를 ‘소(韶)’라고 고쳤다.’라고 했다.”

138 협실: 실 가운데 동·서 방(房)과 동·서 당(堂)의 사이에 있는 것이 협실(夾室)이다. 동·서 협실로 부르기도 한다. 협과 방은 동일한 실(室)이 아니다. 실의 측면에 있는 공간을 ‘방’이라고 부르는데, 『의례』 「빙례(聘禮)」에서 “대부(大夫)에게는 동방서실(東房西室)이 있을 뿐이고, 천자와 제후에게는 좌우에 방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천자와 제후는 실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이 있었다. 이에 비해 대부와 사는 동방서실(東房西室), 즉 동쪽이 방이고, 서쪽이 실이어서, 서방(西房)이 없었다. 방의 기능은 의복과 기물을 진열해 놓거나 혹은 부녀자들이 잠시 머물러 있거나 부녀자들의 예를 행하던 곳이었다. 『의례』 「특생饋食禮(特牲饋食禮)」에는 “주인이 내려와 (잔을) 씻고 주부에게 잔을 준다. 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하여 태조의 뒤에 모시는 것 아니겠는가? 비록 서쪽 협실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소목으로써 늘어놓아야 한다.

二世之祧，疑當藏於東夾室，而「或問」以爲藏於西夾室。蓋東尊而在太祖之前，故避而藏於太祖之後歟？雖在西夾，亦當以昭穆陳之。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옛날에 성인이 종묘에 제사하는 예를 만들어 소목으로 순서 지은 것은 흠향할 대상이 없는데도 진실로 이 예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대순(大舜)과 무왕의 효를 말하면서 모두 ‘(사후에는) 종묘에서 제사 지낸다.’라고 말하였으니 또한 흠향할 대상이 없는데도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자는 16장과 17장 두 장의 『혹문』에서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심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유자들이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니다.’¹³⁹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뒤에는 음양의 기가 흩어져 정신과 혼백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 흠향할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學者問曰：“自古聖人制爲宗廟祭祀之禮，以序昭穆，非無饗之者而苟爲是禮也。此書言大舜·武王之孝，皆曰‘宗廟饗之’，亦非無饗之者而苟爲是言也。朱子於十六·十七章『或問』深非‘不亡者存’之語，以爲‘非吾儒之所宜言’。是則既死之後，陰陽氣散，精神魂魄無有存者，然則所謂祭而饗之者，何物也？”

자리를 마련하고 남면하면 주부는 절하고 잔을 받는다.[主人降洗酌 致爵于主婦 席于房中 南面 主婦拜受爵]라는 구절이 있는데, 호배휘(胡培翬)는 『의례정의(儀禮正義)』에서 “방은 부인들이 늘 머무르는 곳이다. 부인들이 묘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는 방에 둔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부에게 잔을 주는 경우 방 가운데 자리를 만들지 실에 만들지는 않는다.[房是婦人常處也，凡婦人入廟位在房。故此致爵主婦，則席于房中，不在室也.]”라고 말하고 있다.

139 없어지지...아니다: 朱熹, 『中庸或問上』 17장, 『朱子全書』 제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582쪽.

대답했다. “말하기 어렵다. 사람이나 사물의 생성은 처음에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끝에 기가 흩어져서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니 사람과 금수 초목이 모두 한결같다. 천지의 조화는 가는 자는 쉬고 오는 자는 계승하는 것이니 이미 돌아간 기운이 다시 기운을 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끝에 이르러서는 음과 양이 나누어져 혼이 올라가고 백이 내려가면 그 기는 모두 흩어져 다시 물체가 없는 것이니, 정신과 형체가 영적되어 조화하지 않고 아득함 가운데 있어서 노자가 말하는 ‘없어지지 않는 것’¹⁴⁰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는 비록 천지에 있을지라도 모두 조부의 몸에 근본 하여 전해져 나에게 있는 것이니 조부는 이미 가고 없지만, 그 기운은 나에 있어 일찍이 그친 적이 없다. 마치 초목의 열매가 온전히 그 기운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 열매의 종자는 각각 종류에 따라 생성되니 그 뿌리로부터 그 열매의 종자를 심어서 생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기는 끊어진 적이 없는 것과 같다. 만약 그 열매가 썩어버리면 기운은 이미 끊어지고 다시 생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후손이 없는 것을 큰 재앙으로 여기는 것도 조부의 기운이 여기에서 끊어져 다시 제사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몸의 기운은 곧 조부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제사를 지내면 신기(神氣)가 교감하여 이에 흠향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기운이 있는 곳에 곧 신이 있고 정성이 지극한 곳에 신도 이르는 것이니 이른바 정성이 있으면 그 신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그 신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옛사람들이 시동(尸童)¹⁴¹을 반

140 없어지지...것: 老子, 『道德經』 33장.

141 시동(尸童): 朱熹, 『朱子語類』 권90, 『朱子全書』 제17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禮七』, 65조목, 3043~3044쪽. “용지가 제사 지낼 때 시동을 사용하는 의미를 물었다. 주자가 대답했다.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시동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조상을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바깥 신을 제사 지낼 때도 시동을 사용하였다.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건대

드시 자손으로서 한 것 또한 그 기운이 있으므로 해서 쉽게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춘추좌전』에 말하기를 ‘신은 그 동류가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¹⁴²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제사하면 저절로 내 몸의 기운과 서로 관계가 없으므로 신이 교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조부의 신은 밖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있는 것이고 ‘(귀신은) 만물의 본체가 되며 버릴 수 없다.’¹⁴³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삼가지 않을 수 없고, 그 근본에 보답하는 것에 대해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근본에 보답함으로써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초목의 근본을 배양함으로써 꽃과 열매가 번성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 몸의 지위에 높고 낮음이 있으니 기운이 미치는 것에 넓고 협소함이 있다. 그러므로 천자가 된 이후에 천지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가 된 이후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대부는 3대에 제사 지내고, 적사는 2묘에 제사 지내고, 서민은 단지 아버지를 제사 지내니, 성인의 제도를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曰：“難言也。人物之生，其始也氣聚而成形，其終也氣散而形潰，人與禽獸草木皆一也。天地之化，往者息，來者繼，非將既反之氣復爲方伸之氣，故及其終也，陰陽既判，魂升魄降，則其氣皆散無復有物，非有精魄滯而不化在於冥漠之中，有如老氏之所謂不亡者也。然是氣也，雖在天地，亦皆本於祖父之身，而傳在於我，則祖父雖已往，而其氣之在我者，未嘗息也。猶草木之實，全得其氣，故雖其根株枯朽漸盡，而其實之種，各以類而生成，自其根株至其實之種而生者，其氣未嘗絕也。若其實之腐敗，則

이것에는 감히 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우(杜佑)의 설은 ‘옛날 사람들이 시동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상고 시기 소박하고 꾸밈없는 예인데 성인의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142 신은…않는다: 『春秋左傳』, 僖公 10년.

143 만물의…없다: 『中庸』 16장.

氣已絶而復不生矣. 故人以無後爲大者, 祖父之氣自是而絶, 不復能祀故也. 吾身之氣, 卽祖父之氣, 故吾致誠敬以祭之, 則神交氣感, 而斯有饗之者也. 氣之所存, 卽神之所存, 誠之所至, 卽神之所至, 所謂有其誠則有其神, 無其誠則無其神者, 此也. 意者, 古人尸必以孫者, 亦以其氣之所存而感之易歟? 傳曰: ‘神不歆非其類’者, 蓋祭他人, 則自與吾身之氣不相干, 故神不感之也. 是則祖父之神不在外而在我之身, 則體物而不可遺者可知, 而所以持其身者, 不容於不謹, 報其本者, 不容於不誠矣. 吾能報本而自能受福者, 亦猶草木培養根本而花果繁茂也. 然吾身之位有高下, 則氣之所及有廣狹, 故天子然後祭天地, 諸侯然後祭山川, 大夫祭三代, 適士祭二廟, 而庶人只祭其父, 聖人之制, 尙何疑乎?”

물었다. “옛날 책의 전에 귀신의 일을 말하는데, 백유와 같은 일이 많이 있다. 자산의 ‘사용한 물건이 정밀하고 많기 때문에 정밀하고 밝음이 있어 신명함에 이른다.’¹⁴⁴라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曰: “古之書傳言鬼怪之事, 有如伯有之爲者多矣. 子產因有‘用物精多, 是以有精爽, 至於神明’之說, 是皆不足信歟?”

대답했다. “이것은 또한 기운이 혹 그렇게 되는 것이다. 기운이 모인 것이 많으면 흩어지는 것이 더디다는 것 또한 이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자산이 ‘사용한 물건은 넓고 정기를 모은 것이 많다.’¹⁴⁵라고 말하고 ‘그 족(族)이 큰 것은 두터움에 의지한 것이다.’¹⁴⁶라고 말하였으

144 사용한…이른다: 『春秋左傳』, 昭公 7년.

145 사용한…많다: 『春秋左傳』, 昭公 7년. “其用物也弘矣, 其取精也多矣.” 『입학도설』에 인용된 문장과 『춘추좌전』의 원문 사이에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다.

146 그 족(族)이…것이다: 『春秋左傳』, 昭公 7년. “其族又大, 所馮厚矣.” 『입학도설』에 인용된 문장과 『춘추좌전』의 원문 사이에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다.

니 그 기가 의지하고 존재하는 곳도 또한 볼 수 있는데, 어찌 기가 아득함 속에 엉켜 있겠는가? 어찌 그 동류가 아닌 곳에 의지해 있겠는가? 만약 변괴가 혹 있다면 모두 그 기가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이니 귀신의 마땅한 이치가 아니며, 끝내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曰：“是亦氣之或然者也。氣之聚者厚，則散之者遲，亦不可謂無是理也。且其言曰：‘用物也弘，聚精也多’，曰：‘其族之大，所憑厚矣’，則其氣所憑而存者亦可見矣，豈徒滯於冥漠，亦豈憑於非類哉？若其變怪之或有者，皆其氣之不得其正者爾，非鬼神之常理也，終亦必無而已矣。”

9. 어·맹대지(語·孟大旨)

해제 「어·맹대지」는 『논어』와 『맹자』의 핵심이 인(仁)과 의(義)임을 밝히고 있다. 인은 동쪽이고 봄이며 원(元)을 의미한다. 의는 서쪽이고 가을이며 리(利)를 뜻한다.

내가 살펴보건대, 『논어』라는 책은 인을 돈독하게 하였으니 혼연하
기가 봄날의 하늘과 같고, 『맹자』라는 책은 의를 엄격하게 하였으니 능
름하기가 가을의 기운과 같다. 예를 들어 공자가 제나라 경공의 말에 대
답하여 말하길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
게, 자식은 자식답게”¹⁴⁷라고 했는데, 오직 이치의 당연함을 말했을 뿐
이지만 그 이치를 따르면 이롭고 이치를 어기면 해롭다는 의미가 은연
중에 말 밖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맹자가 양혜왕에게 고하여 말하길
“인위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라고 했는데,
이로움만을 구하는 해로움을 미루어 “상하가 서로 이로움을 다투어 나
라가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에 이르러 이미 충분한데 또 그 해로움을
미루어 “(임금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¹⁴⁸라는 말에까
지 이른 이후에 끝냈으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점점 깊어지고 남김없
이 다 말했다. (이 책을) 읽을 때 삼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
다. 그 밖에 말을 세운 것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愚按, 『論語』之書, 敦乎仁, 渾然如春天; 『孟子』之書, 嚴於義, 凜然如
秋氣. 蓋如孔子答齊景公之言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但言理之當
然者爾, 然其循理之利·不循理之害, 隱然自現於言外. 孟子之告梁惠王

147 임금은...자식답게: 『論語』, 「顏淵」.

148 인위가...않는다: 『孟子』, 「梁惠王上」 참조.

曰：“亦有仁義而已矣，何必曰利？”，而推其求利之害，至於“上下交征利而國危矣”，則已足矣，又推其害至於“不奪不厭”之言而後已也，一節深一節，盡言無餘，讀之凜然有不可犯者，其他立言，皆倣此云。

10. 오경체용합일지도(五經體用合一之圖)

해제 「오경체용합일지도」는 오경(五經)의 체계를 체용(體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역』은 체(體)로서 『시(詩)』, 『서(書)』, 『예(禮)』를 포괄하고, 『춘추(春秋)』는 용(用)으로서 『시』, 『서』, 『예』의 용(用)을 말하고 있다. 성인은 오경의 전체(全體)이며, 오경은 성인의 대용(大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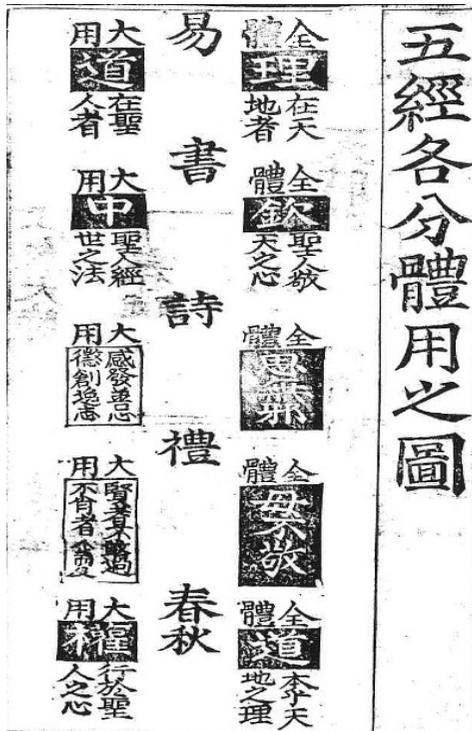
내가 살펴보건대, 『역』은 오경의 전체요, 『춘추』는 오경의 대용이요, 『서』는 정사를 말한 것이요, 『시』는 성정을 말한 것이요, 『예』는 절도와 문식을 삼가는 것이다. 비록 각각 하나의 일만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주역』과 『춘추』는 체와 용이니 또한 각각 어디에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오호라 위대하도다! 성인은 오경의 전체이며, 오경은 성인의 대용이다. 『역』은 도가 천지에 있어서 성인이 그것을 체득한 것이고, 『춘추』는 도가 성인에게 있어서 천지가 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하에서 하도가 나와¹⁴⁹ 『역』의 괘가 그려졌고, 『춘추』가 나오니 기린이 이른 것이다.

愚按, 『易』, 五經之全體也; 『春秋』, 五經之大用也; 『書』, 以道政事; 『詩』, 以言性情; 『禮』, 以謹節文. 雖各專其一事, 而『易』·『春秋』之體用, 亦各無所不備焉. 嗚呼大哉! 聖人, 五經之全體, 而五經, 聖人之大用也. 『易』者, 道在天地, 而聖人體之; 『春秋』者, 道在聖人, 而天地不能違者也. 故河出圖, 而『易』畫; 『春秋』作, 而麟至也.

149 황하에서...나와: 『周易』, 「繫辭傳上」,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낙서가 나와 성인이 이를 법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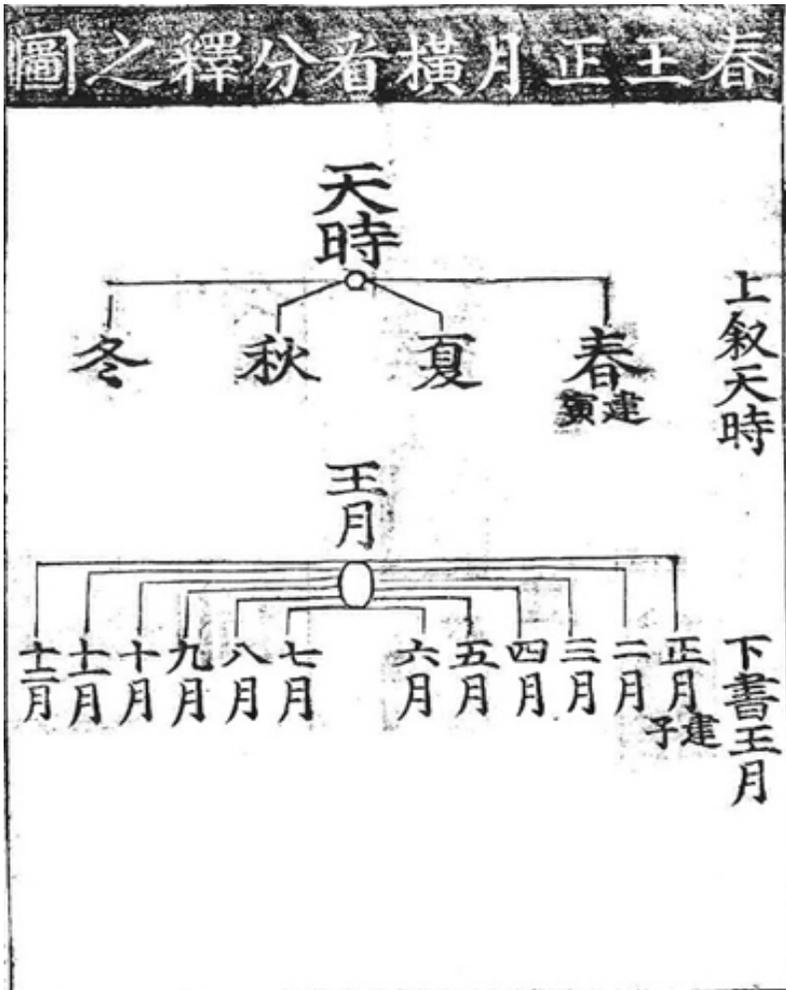
11. 오경각분체용지도(五經各分體用之圖)

해제 「오경각분체용지도」는 오경에 해당하는 『역』, 『서』, 『시』, 『예』, 『춘추』를 각각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으로 나누어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역』의 전체는 리(理)이고, 대용은 도(道)이다. 『서』의 전체는 흠(欽)이고, 대용은 중(中)이다. 『시』의 전체는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고, 대용은 착한 마음을 감동해서 발현하고 나태한 의지를 징계하는 것이다. 『예』의 전체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대용은 어진 사람이 예의와 절도를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노력하여 절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춘추』의 전체는 도(道)이고, 대용은 권(權)이다.



12.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해제 「춘왕정월횡간분석지도」는 성인이 『춘추』를 쓸 때 천시(天時)와 왕월(王月)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한다. 천시는 왕의 제도를 규정하여 만세의 법을 세우려는 것이고, 왕월(王月)은 인간의 법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살펴보건대, 성인이 『춘추』를 지을 때 위로는 천시(天時)¹⁵⁰를 서술하고 아래로는 왕월(王月)¹⁵¹을 썼으니 글로 쓰기를 “춘왕정월(春王正月)”¹⁵²이라 하였다. 전에서는 “하나라의 사시절을 주나라의 달 앞에 둔 것이다.”¹⁵³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살피지 않아 혹은 겨울을 봄으로 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혹은 역법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여 논의하는 이론이 분분하여 정해진 것이 없었다. 이것은 수간하여 봄을 왕정월(王正月)에 합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횡간하면, 위로 천시를 서술하는 것은 하나라의 역법을 행함으로써 후세에 법을 내린 것이고, 아래로 왕월(王月)을 쓴 것은 주나라 정월을 써서 당시의 왕을 높인 것이다. 천시는 왕이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에 기술하였고, 정월은 개인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아래에 쓴 것이다. 한편으로는 천시로써 왕의 제도를 정하여 만세의 법을 세운 것이고, 하나는 정월로써 인간의 법도를 바르게 하여 통일의 큼을 보인 것이니, 두 가지 뜻은 나란히 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정월을 쓰면서 숫자를 바꾼 경우는 「빈풍」시¹⁵⁴에 이미 “일지일”과 “이지일”의 설이 있으니 또한 공자가 처음 바

150 천시(天時): 하늘의 때이다. 춘하추동의 지구상의 계절이다. 『孟子』 「公孫丑下」에 “천시는 지세의 유리함만 못 하고, 땅의 유리함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 하다.”라고 했다.

151 왕월(王月): 정월(正月)이다. 『춘추』 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원년 봄 정월[元年春王正月]”이라 했다.

152 춘왕정월(春王正月):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春秋經」. “춘왕정월(春王正月)에 대한 변증설” 부록 참조.

153 하나라...것이다: 호문정(胡文定)의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에 “하나라의 사시절을 주나라의 달 앞에 둔 것이다. [以夏時冠周月]”라고 하였다.

154 「빈풍」 시: 『詩經集註』. “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觶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 同我婦, 饁彼南畝, 田畯至喜.” 부(賦)이다. 칠월(七月)은 북두성의 자루가 신방(申方)을 가리키는 달이니, 하나라의 칠월(七月)이다. 뒤에 월(月)이라 한 것은 이것을 따른 것이다. 류(流)는 내려감이다. 화(火)는 대화성(大火星)과 심성(心星)이니, 유월(六月) 저녁에 땅의 남방에 더해졌는데, 칠월(七月) 저녁에 이르면 내려와서 서쪽으로 내려간다. 구월(九月)에 서리가 내려 비로소 춥고 잠적(蠶績)의 공효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서 추위를 막게 한 것이다. 일지일(一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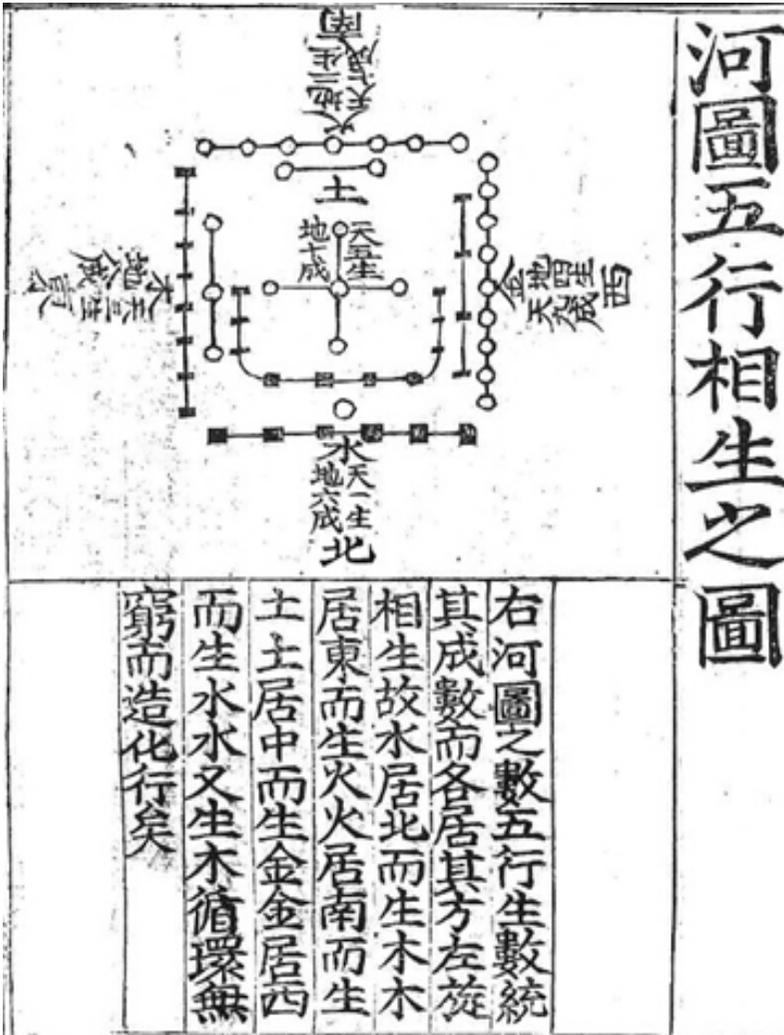
꾼 것이 아니다.

愚按, 聖人作『春秋』, 上敍天時, 下書王月, 其立文, 連書曰“春王正月”, 傳者以爲“以夏時冠周月”, 學者不察, 或疑以冬爲春; 或疑改易正朔, 論說紛紜, 莫之能定, 是蓋豎看合春與王正而言之故也. 橫看, 則上敍天時者, 所以行夏之時, 垂後法也; 下書王月者, 所以紀周之正, 尊時王也. 天時, 非王之所能先, 故可敍於其上也; 王月, 非己所能改, 故必書於其下也. 一以天時而定王制, 以立萬世之法; 一以王月而正人倫, 以示一統之大, 二義竝行而不相悖者也. 若夫書王月而易數者, 《幽風》之詩, 已有“一之日”·“二之日”之說, 亦非夫子始易之也.

日)은 북두성의 자루가 자방(子方)을 가리킴을 이른 것이니 일양(一陽)의 달이요, 이지일(二之日)은 북두성의 자루가 축방(丑方)을 가리킴을 이른 것이니, 이양(二陽)의 달이다. 달을 바꾸어서 일(日)을 말한 것은 이 달의 날을 말한 것이니, 뒤에 일(日)만을 말한 것은 이를 따른 것이다. 대개 주나라의 선공(先公)이 이미 이것을 써서 기후(紀候)를 삼았다. 그러므로 주나라가 천하를 소유함에 드디어 한 세대의 정삭(正朔)으로 삼았다.

13. 하도오행상생지도(河圖五行相生之圖)

해제 「하도오행상생지도」는 「하도」의 수 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행인 목화토금수 상생의 원리와 동서남북 사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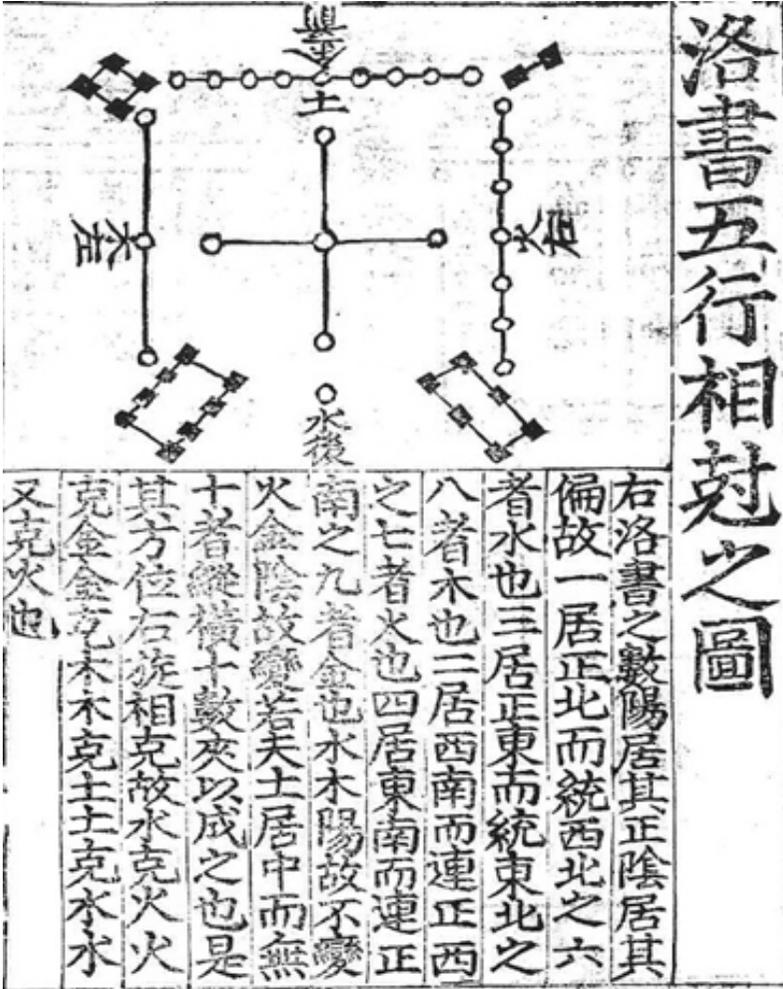
위의 「하도」¹⁵⁵의 수는 오행의 생수(生數)가 그 성수(成數)를 통괄하여 각각 그 방위에 자리하고 왼쪽으로 돌아 상생한다. 그러므로 수가 북쪽에 자리하여 목을 생하고, 목은 동쪽에 자리하여 화를 생하고, 화는 남쪽에 자리하여 토를 생하고, 토는 중앙에 자리하여 금을 생하고, 금은 서쪽에 자리하여 수를 생한다. 수는 다시 목을 생하니 순환이 무궁하고 조화가 행해진다.

右「河圖」之數，五行生數統其成數，而各居其方，左旋相生。故水居北而生木，木居東而生火，火居南而生土，土居中而生金，金居西而生水，水又生木，循環無窮而造化行矣。

155 「하도」: 복희가 천하를 다스릴 때 황하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새겨진 그림으로 『주역』의 기원이 된다. 용마라는 신비스러운 동물은 머리가 용이고 몸이 말의 형상하고 있다. 용은 형이상학적인 하늘을 상징하고 말은 형이하학적인 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용마는 천지의 이치를 담도 있다. 하도의 수에서 1·2·3·4·5는 선천의 수이고, 생수로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의 수이다. 6·7·8·9·10은 후천으로 수이고, 성수로 사물을 완성하는 수이다. 하도는 동서남북 사방과 춘하추동 사시를 그려낸 것이다. 1·6은 수(水)이고 북(北)이며 동(冬)이다. 2·7은 화(火)이고 남(南)이며 하(夏)이다. 3·8은 목(木)이고 동(東)이며 춘(春)이다. 4와 9는 금(金)이고 서(西)이며 추(秋)이다. 하도는 서로 낳는 무궁하게 순환하는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의 이치가 있다. 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고, 불에 타서 재가 쌓여 흙이 되고, 흙이 굳어져서 쇠가 되며, 열매가 맺히면 물이 생기는 이치이다.

14. 낙서오행상극지도(洛書五行相剋之圖)

해제 「낙서오행상극지도」는 「낙서」의 수 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행인 수화금목토 상극의 원리와 팔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낙서」¹⁵⁶의 수는 양이 그 정방에 자리하고 음이 그 편방에 자리하기 때문에 1이 정북에 자리하면서 서북의 6을 거느리는 것은 수이고, 3이 정동에 자리하면서 동북의 8을 거느리는 것은 목이고, 2가 서남에 자리하여 정남의 7을 잇는 것은 화이고, 4가 동남에 자리하여 정남의 9를 잇는 것은 금이다. 수와 목은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화와 금은 음이기 때문에 변한다. 토가 중앙에 자리하면서 10이 없는 것은 종횡으로 10을 끼고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방위인데 오른쪽으로 돌면서 상극이기 때문에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한다. 수 또한 화를 극한다.

右「洛書」之數，陽居其正，陰居其偏，故一居正北而統西北之六者，水也；三居正東而統東北之八者，木也；二居西南而連正西之七者，火也；四居東南而連正南之九者，金也。水木陽，故不變；火金陰，故變。若夫土居中而無十者，縱橫十數，夾以成之也。是其方位右旋相克，故水克火，火克金，金克木，木克土，土克水，水又克火也。

156 「낙서」: 중국 하나라 우임금이 황하의 범람을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있었다는 45개의 점이다. 낙서는 홍범구주의 근원이 된다. 낙서는 거북의 위치로 살펴보면, 가운데 5를 중심으로 아래 꼬리 부분의 1이고, 머리 부분의 9이고, 좌측 3 우측 7 좌우로 마주하고, 어깨 부분의 좌우 4와 2이고 발 부분의 8과 6을 모두 합하여 45이다. 양은 정방(正方)에 위치하고 음은 간방(間方)에 위치한다. 마주하는 방위의 수를 합하면 10이 된다. 낙서는 종으로 횡으로 합하면 모두 15가 되는 마방진의 근거가 된다. 낙서는 하도와 반대로 오행상극설(五行相剋說)이다. 상극설이 된 이유는 하도의 4·9의 금(金)과 2·7의 화(火)가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것을 바로 금화교역(金火交易)이라고 한다.

15. 태극생양의사상팔괘지도(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해제 「태극생양의사상팔괘지도」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여 태극(太極)-음양(陰陽)-사상(四象)-8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나아가 16괘-32괘-64괘가 완성되면 대성괘 64괘 완성된다. 또 64괘를 만드는 다른 방법은 3획괘에 해당하는 8괘를 겹쳐서 완성된다. 첫 번째는 실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3획괘를 겹쳐서 만드는 방법이다.



위에서 팔괘의 위에 각각 하나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를 더해 생성된 4획괘는 모두 16개이다. 16개의 4획괘 위에 각각 하나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를 더해 생성된 5획괘는 32개이다. 32개의 5획괘 위에 하나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를 더해 생성된 6획괘는 64개이니 외괘(外卦)¹⁵⁷가 완성된 것이다.¹⁵⁸ 그러므로 8괘의 위에 8괘를 올려놓는데 3획괘인 건(乾)괘 위에 건·태·이·진·손·감·간·곤을 더하여 6획괘인 건괘·괘괘·대유괘·대장괘·소축괘·수괘·대축괘·태괘 등의 괘가 완성된다. 3획괘 태괘 이하도 모두 이와 같으니 하나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를 섞지 않는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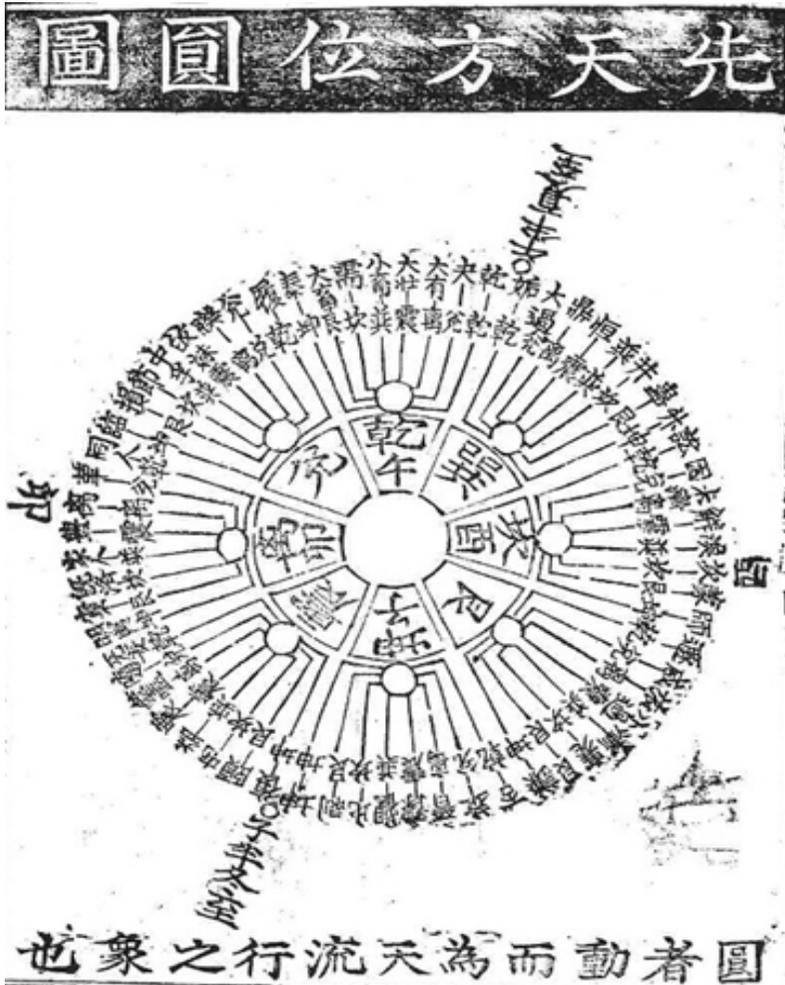
右於八卦之上，各加一陽一陰而生四畫者，凡十六；十六之上，各加一陽一陰而生五畫者，凡三十二；三十二之上，各加一陽一陰而生六畫者，凡六十四而成外卦也。故八卦之上，各加八卦，乾之上加乾·兌·離·震·巽·坎·艮·坤，而成「乾」·「夬」·「大有」·「大壯」·「小畜」·「需」·「大畜」·「泰」等卦，自兌以下皆倣此，無非以一陽一陰而交錯也。

157 외괘(外卦): 상괘(上卦) 또는 회괘(悔卦)라고 한다. 반대로 내괘(內卦)는 하괘(下卦) 또는 정괘(貞卦)라고 한다.

158 위에서...것이다: 邵康節, 『皇極經世書』, 『四部備要』 418(臺灣: 中華書局, 1981), 33쪽. “1번하여 2가 되고, 2번하여 4가 되며, 3번하여 8괘가 이루어지고, 4번하여 16이 되며, 5번하여 32가 되고, 6번하여 64괘가 갖추어진다.” 朱熹, 『晦庵先生朱文公文集』 권45, 『朱子全書』 제22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答虞士朋(太中)」, 2057~2058쪽. “『역』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理)를 나누어 처음 일기일우(一奇一偶)를 생하니 1획한 것이 2개이다. ‘양의를 사상을 낳는다’라는 것은 양의 위에 각각 일기일우(一奇一偶)를 생하니 2획한 것이 4개이다.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라는 것은 4상의 위에 각각 일기일우(一奇一偶)를 생하니 3획한 것이 8개이다. ... 팔괘의 위에 또 이것을 놓아 생함이 6획괘에 이르면 팔괘가 서로 거듭하여 64괘를 이룬다.”

16.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

해제 「선천방위원도」는 끝이 없는 하늘의 모습을 그린 원도로 방위를 함께 설명한 것이며, 태극을 중심으로 팔괘를 겹쳐서 64괘를 둥근 하늘에 펼친 그림이다. 초학자들을 위해서 괄획을 그린 것으로 괄명을 적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원(圓)은 움직여 하늘이 되니 유행하는 상이다.

圓者, 動而爲天, 流行之象也.

17.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

해제 「선천방위방도」는 땅의 모습을 네모로 그려 설명한 것이며, 팔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초학자들을 위해서 괘획을 그린 것으로 괘명을 적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방(方)은 고요하여 땅이 되니 대대(待對)의 상이다.

方者, 靜而爲地, 待對之象也.

위의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와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¹⁵⁹에 원은 움직여 하늘이고, 방은 고요하여 땅이다. 원도는 양이 자시 반의 복괘(復卦)에서 생겨 오시의 건괘(乾卦)에서 다하고, 음이 오시 반의 구괘(姤卦)에서 싹터 자시의 곤괘에서 끝난다. 이괘는 묘시의 가운데에서 끝나고 감괘(坎卦)는 유시의 가운데에서 끝나니 양이 동과 남에 있고 음이 서와 북에 있다. 방도는 건괘가 서북에서 시작하고 곤괘가 동남에서 다하니 그 양이 서북에 있고 그 음이 동남에 있다. 땅의 형세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다.

右先天圓·方二「圖」, 圓者, 動而天也; 方者, 靜而地也. 圓者, 陽生於子, 半之復而極午之乾, 陰萌於午, 半之姤而盡於子之坤, 離盡卯中, 坎盡酉中, 陽在東南, 陰在西北. 方者, 乾始於西北, 坤盡於東南, 其陽在西北, 其陰在東南, 地之勢, 西北高·東南下也.

위의 그림은 괘획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이 보고도 알 수 없었다. 지금 괘명을 써서 그림을 그리니 8괘의 위에 각각 8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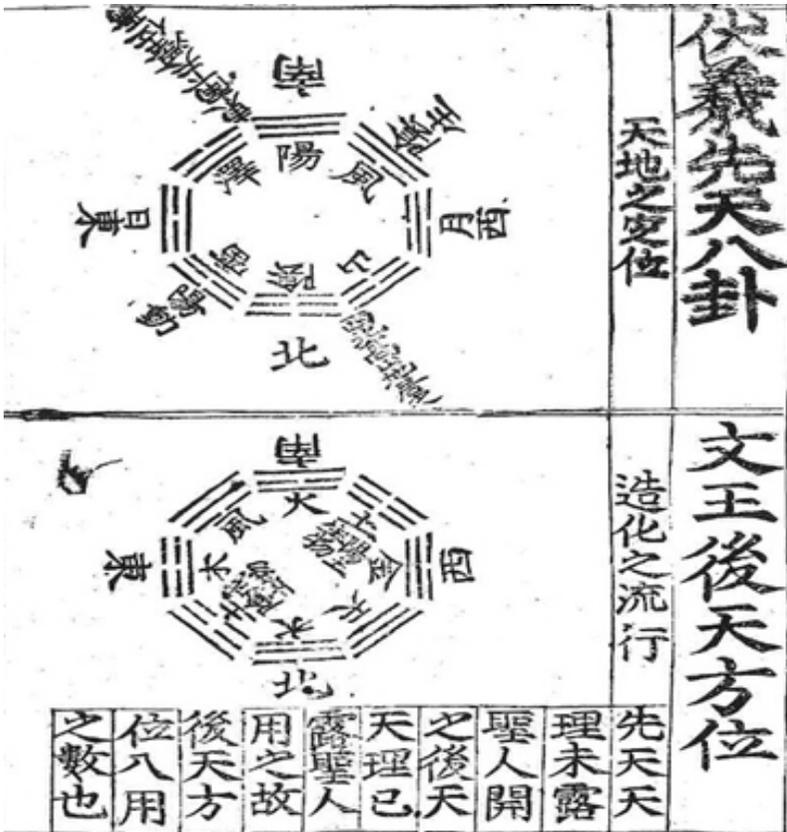
159 「선천방위원도(先天方位圓圖)」와 「선천방위방도(先天方位方圖)」: 朱熹, 『周易本義』, 「易圖」, 『朱子全書』 제1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易圖」, 20~21쪽. “이 그림에 등글게 분포된 것은 건괘(乾卦)가 오시(午時)의 가운데에서 다하고, 곤괘(坤卦)가 자시(子時)의 가운데에서 다한다. 이괘(離卦)가 묘시(卯時)의 가운데에서 다하고, 감괘(坎卦)가 유시(酉時)의 가운데에서 다한다. 양이 자시(子時)의 가운데에서 생겨 오시(午時)의 가운데에서 지극하고, 음이 오시(午時)의 가운데에서 생겨 자시(子時)의 가운데에서 지극하다. 그 양은 남쪽에 있고, 그 음은 북쪽에 있다. 네모나게 분포된 것은 건괘(乾卦)가 서북에서 시작되고 곤괘(坤卦)가 동남에서 다한다. 그 양이 북쪽에 있고 그 음이 남쪽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음양이 대대(對待)한 수이다. 밖에 둥근 것은 양이 되고 가운데에 네모난 것은 음이 된다. 둥근 것은 움직여 하늘이 되고, 네모난 것은 고요하여 땅이 된다.”

더하는 것을 한 번 보면 알 수 있다.

右「圖」以卦畫爲圖，學者見之不能知也。今以卦名書而爲圖，則八卦之上各加八卦者，一見可知矣。

18. 복희선천팔괘·문왕후천방위도 (伏羲先天八卦·文王後天方位圖)

해제 「복희선천팔괘·문왕후천방위도」는 방위와 8괘의 배열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복희선천팔괘도」는 복희가 하도에 근거하여 창조한 것으로 천지자연의 모형도인데 「설괘전」 3장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선천방위도」라고도 한다. 「문왕후천방위도」는 문왕이 낙서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설괘전」 5장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후천방위도」라고도 한다.



선천은 천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성인이 후천을 여니 천리가 이미 드러난 것이다.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므로 후천 방위는 쓰이는 수이다.

先天天理未露，聖人開之後天，天理已露。聖人用之，故後天方位，入用之數也。

「선천방위도」는 건이 남쪽, 곤이 북쪽, 리가 동쪽, 감이 서쪽이니 하늘은 남쪽, 땅은 북쪽, 해는 동쪽, 달은 북쪽이다. 태는 동남쪽에 자리하여 연못이 되고, 진은 동북쪽에 자리하여 우레가 되고, 손은 서남쪽에 자리하여 바람이 되고, 간은 서북쪽에 자리하여 산이 된다. 지나간 것을 헤아림은 따르는 것이고 올 것을 앎은 거스르는 것이다.¹⁶⁰ 진으로부터 리와 태를 지나 건에 이르는데 그 수는 4, 3, 2, 1이므로 이 수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미 지나간 뒤에 그를 따르는 것과 같으므로 따르는 것이 된다. 손으로부터 감과 간을 지나 곤에 이르는데 그 수가 5, 6, 7, 8이므로 이것은 장차 올 것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와서 이르면 맞이하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 된다. 『역』이 괘를 낳는 것은 건1, 태2, 이3, 진4, 손5, 감6, 간7, 곤8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역』은 모두 거슬러서 헤아리는 것이다.

「先天方位」: 乾南·坤北·離東·坎西，則天南·地北·日東·月西也。兌居東南，澤也；震居東北，雷也；巽居西南，爲風；艮居西北，爲山。數往者順，

160 지나간...것이다: 朱熹, 『易學啟蒙』 권2, 『朱子全書』 제1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原卦畫第二」, 238쪽. 소옹의 말을 인용하여 “‘지나간 것을 헤아림은 순(順)이다’라는 것은 만약 하늘을 따라서 운행하면 이는 왼쪽으로 도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이미 생긴 괘이므로 ‘지나간 것을 헤아린다’라고 하였다. ‘올 것을 앎은 역(逆)이다’라는 것은 만약 하늘을 거슬러 운행하면 이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모두 아직 생기지 않은 괘이므로 ‘올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역의 수는 역(逆)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知來者逆. 自震歷離·兌而至乾, 其數四三二一, 是數已往者也. 如人已往從後追之, 故爲順. 自巽歷坎·艮而至坤, 其數五六七八, 是知將來者也. 如人來至而迎之, 故爲逆. 『易』之生卦, 乾一·兌二·離三·震四·巽五·坎六·艮七·坤八爲次, 故『易』皆逆數也.

「후천방위도」는 감이 북쪽에 자리하여 수가 되고, 진이 동쪽에 자리하여 목이 되고, 리가 남쪽에 자리하여 화가 되고, 태가 서쪽에 자리하여 금이 되고, 간은 토인데 동북의 수와 목을 끼고 있고, 곤은 토인데 남서의 화와 금을 끼고 있어서 가장 왕성하다. 건은 서북에 자리하여 시작과 끝을 거느리고,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니 건은 행하는 것이다. 손은 동남쪽에 자리하여 고동치니 만물을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선천은 하늘과 땅의 정해진 자리이고, 후천은 조화의 유행이다.

「後天方位」: 坎居北爲水, 震居東爲木, 離居南爲火, 兌居西爲金, 艮土夾東北之水木, 坤土夾南西之火金, 而寄旺焉. 乾居西北而統終始, 終而復始, 乾行也. 巽居東南而鼓動焉, 所以長之也. 故先天, 天地之定位; 後天, 造化之流行也.

그러나 선천은 양이 동북에서 움직여 남에서 성대하고 음이 남서에서 생겨나 북에서 없어지니 유행의 상이다. 후천은 수가 북이고, 화가 남이며, 목이 동이고, 금이 서이니 서로 마주하는 자리이다.

然先天, 陽動東北而盛於南, 陰生西南而盡於北, 亦流行之象也; 後天, 水北·火南·木東·金西, 亦待對之位也.

어떤 사람이 물었다. “「설괘전」에서 ‘간방에서 말이 이루어진다.’¹⁶¹ 라는 것은 만물이 끝을 맺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건괘가 시작과 끝을 통솔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성인의 말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或曰：“「說卦」以爲成言乎艮者，萬物所成終而成始也。今子以爲乾統終始，無乃戾於聖言歟？”

대답했다. “「설괘전」의 말은 만물을 낳은 방위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간방을 양 가운데 토로 여기고 만물을 낳는 것을 주로 함은 이것 때문이다. 건은 하늘이니 진실로 통괄하지 않음이 없고, 오행을 낳는 순서는 수가 먼저 자리하고 그 뒤에 목을 낳고, 화를 낳고, 토를 낳고, 금을 낳고 끝난다. 건이 서북에 자리하는 것은 금에서 끝나고 다시 수를 낳기 때문이니 하늘이 수를 낳지 않는다면 천지 만물의 조화가 그칠 것이다. 저의 망령된 뜻이 이와 같으며, 그 나머지도 또한 건 강부회한 것이 많으니 살펴보는 사람이 양해해 주면 좋겠다.”

曰：“「說卦」之言，主生物之方位而言也。故今以艮爲陽中之土而主生物者，此也。若夫乾，天也，固無所不統，而五行生序，水爲居其先，而後生木生火生土生金而終焉。乾居西北者，所以終金而復生水也，天不生水，造化息矣。區區妄意如此，其餘亦多附會，觀者幸恕之。”

161 간방에서...이루어진다: 『周易』, 「說卦傳」 5장.

19. 음양육구위노지도(陰陽六九爲老之圖)

해제 「음양육구위노지도」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통해서 기수에 해당하는 양과 우수의 해당하는 음을 설명하여 변화하는 노음과 노양의 수가 6과 9임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원리에 따라 하늘을 셋으로 하여 3이 되면 $3*3=9$ 가 되어 노양(老陽)의 수가 되며, 땅을 둘로 하여 2가 되니 $3*2=6$ 이 되어 노음(老陰)의 수가 된다. 설시(揲著)하는 과정에서 책(策)을 3번 뽑은 이후 나머지가 3번 모두 기수(奇數)이면 $3*3=9$ 이고 노양(老陽)이 되고, 나머지가 3번 모두 우수(偶數)이면 $3*2=6$ 이고 노음(老陰)이 된다.



천원을 셋으로 나눈다. 양은 홀수이므로 각각 하나의 홀수를 모두 사용한다. 지방(地方)은 넷으로 나눈다. 음은 짝수이므로 2개를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의 짝수는 반을 사용한다. 「설계전」에서 “하늘을 셋으로 하고 땅을 둘로 하여 수가 의지한다.”¹⁶²라고 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말이다. 원은 지름이 1이면서 둘레가 3이고, 3은 각각 1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사용한다. 하늘을 셋으로 하여 3이 되면 $3*3=9$ 가 되어 노양의 수이다. 네모는 지름이 1이면서 둘레가 4이며 4를 합하여 2우가 되기 때문에 4는 그 반을 사용한다. 그 땅을 둘로 하여 2가 되니 $3*2=6$ 이 되어 노음의 수이다. 수는 모두 여기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설시(揲蓍)¹⁶³하는 책을 3번 뽑은 이후 나머지가 3번 모두 기수이면 $3*3=9$ 이고 노양이 된다. 나머지가 3번 모두 우수이면 $3*2=6$ 이고 노음이 된다. 2가 두 번 3이 1번이면 7이고 소양이 된다. 3이 두 번 2가 1번이면 8이고 소음이다.

天圓分三. 陽奇, 故各一奇而用全. 地方分四. 陰偶, 故合二爲一, 則爲一隅而用半. 「說卦傳」曰: “參天兩地而倚數”, 言天圓而地方. 圓者, 徑一而圍三, 三各一奇, 故三用其全, 參其天而爲三, 三三爲九, 老陽數也. 方者, 徑一而圍四, 四合爲一偶, 故四用其半, 兩其地而爲二, 三二爲六, 老陰數也. 數皆倚此而起, 故揲蓍之策, 三變之末, 餘三奇, 則三三而九爲老陽; 餘三偶, 則三二而六爲老陰; 兩二·一三則七而爲小¹⁶⁴陽; 兩三·一二則八而爲小¹⁶⁵陰.

162 하늘을…의지한다: 朱熹, 『周易說卦傳』 제8, 『朱子全書』 제1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53쪽.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원은 직경이 1이면 둘레가 3이니, 3은 각각 하나의 홀수이다. 하늘에서 셋을 취하여 3이 된다. 네모는 지름이 1이면 둘레가 4이다. 4는 두 짝수를 합했기 때문에 땅에서 둘을 취하여 2가 된다. 수는 모두 이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설시하여 3번 한 뒤에 그 나머지가 홀수가 셋이면 $3*3=9$ 이고, 짝수가 셋이면 $3*2=6$ 이며, $2*2$ 이고 $3*1$ 이면 7이고, $3*2$ 이고 $2*1$ 이면 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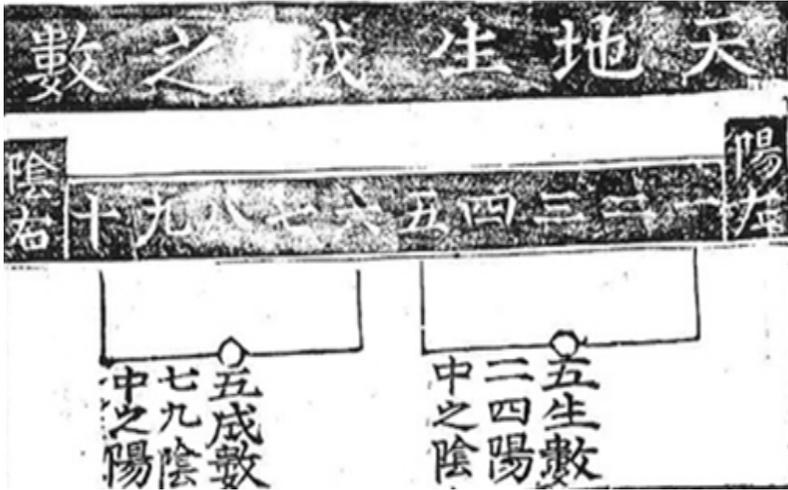
163 설시(揲蓍): 손가락 사이에 산가지를 끼워 괘를 빼는 시초점(蓍草占), 또는 시초점을 치기 위하여 산가지를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

164 小: ‘少’자의 오류이다.

165 小: ‘少’자의 오류이다.

20. 천지생성지수(天地生成之數)

해제 「천지생성지수」는 생성의 수로 노양(老陽)·소음(少陰)·소양(少陽)·노음(老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생수 1, 2, 3, 4, 5 가운데 양수 1, 3, 5를 합하면 9가 되어 노양(老陽)이고, 음수 2, 4를 합하면 6이 되어 노음(老陰)이다. 다음은 음양의 변화 과정에서 겨울에 양이 자라기 시작하여 봄은 양수 7이고, 여름은 양수 9이며, 다시 음이 자라나 가을에 음수 8이고, 음이 극에 이르러 6이 된다. 여기에서 음양이 변화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하는 양수 9이고 겨울에 해당하는 음수 6이다.



생수 가운데 양수 1, 3, 5를 합하면 9가 되고 노양이다. 생수 가운데 음수 2와 4를 합하면 6이 되고 노음이다. 1, 3, 4를 합하면 8이 되니 양이 많고 음이 적어 소음이 된다. 1, 2, 4를 합하면 7이 되니 음이 많고 양이 적어 소양이 된다.¹⁶⁶ 양이 왼쪽에 자리하여 음을 겸하기 때문에 1부터 7에 이르러 소양이 되고 9에 이르러 노양이 되는데, 양은 넉넉하므로 왼쪽으로부터 나아가 9에서 다한다. 음은 오른쪽에 자리하여 양을 겸할 수 없으므로 10으로부터 8에 이르러 소음이 되고 6에 이르러 노음이 되는데, 음은 부족하므로 오른쪽으로부터 물러나 6에서 다한다. 양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음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것은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積生數之陽一三五爲九, 老陽. 積生數之陰二四爲六, 老陰. 積一三四爲八, 陽多陰少, 爲少陰. 積一二四爲七, 陰多陽少, 爲少陽. 陽居左而兼陰, 故自一至七爲少陽, 至九爲老陽, 陽饒, 故自左進而極於九. 陰居右而不得兼陽, 故自十至八爲少陰, 至六爲老陰, 陰乏, 故自右退而窮於六. 陽自左而右, 陰自右而左者, 觀朝夕之影, 亦可見矣.

166 생성의...된다: 『周易』, 『繫辭傳下』,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다.” 『주역』의 괘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괘효가 개수가 적은 것이 주효가 된다.

21. 하도중궁지수(河圖中宮之數)

해제 「하도중궁지수」는 음양이 수에 있어서 9와 6이 노양(老陽)과 노음(老陰)이 되는 것을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원리로 밝히고, 또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머지의 수를 통해 노양과 노음을 설명하였다. 이 그림은 5와 10을 나누어 음양(陰陽)으로 삼는다. 9를 얻은 것은 노양이 되고, 나머지 6은 노음이 된다. 7을 얻은 것은 소양(少陽)이 되고, 나머지 8은 소음(少陰)이 된다.



살펴보건대, 음양의 수에 있어서 6과 9를 노음과 노양으로 삼는 것은 하늘에서 셋을 취하고 땅에서 둘을 취하여 수를 세웠다. 그러므로 설시한 수에서 3번 한 뒤에 나머지 수가 3번 기수이면 $3*3=9$ 가 되고 나머지 수가 3번 우수이면 $3*2=6$ 이 되는데 이것이 그 근본이다. 그 수의 변화는 어디를 가든지 맞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앞선 유학자들의 설에서 생수(生數)와 성수(成數)¹⁶⁷로 말하자면 1, 3, 5를 합해서 9가 되고 2, 4를 합해서 6이 된다고 했고, 「하도」의 중궁(中宮)의 수¹⁶⁸로써 말하면 9가 노양이 되고 나머지 6이 노음이 된다고 했다. 그 변화는 비록 많지만, 그 수 됨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맞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조화의 오묘함이다. 지금 또한 생각해 보건대 하늘을 셋으로 하여 3을 얻고 땅을 둘로 하여 2를 얻은 것은 기수에 근본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을 곱한 것은 삼재(三才)¹⁶⁹의 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3*3=9$ 이고 $3*2=6$ 이 된다. 또 양은 음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양은 3을 온전히 써서 $2*3=6$ 이 되고 $3*3=9$ 가 된다. 음은 양을 결합할 수 없으므로 음은 반으로 2를 써서 $2*2=4$ 가 되고 $3*2=6$ 이 된다. 양은 왼쪽에 자리하여 생수와 성수를 통괄하며 음이 없으므로 생수 1로부터 성수 7에 이르러 소양이 되고 성수 9에 이르러 노양이 되니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치아가 생기는데 치아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과 같다. 음은 오른쪽에 자리하여 성수에 속하는데 양을 결합할 수 없으므로 10으로부터 8에 이

167 생수(生數)와 성수(成數): 하도의 그림을 바탕으로 보면 안에 있는 1, 2, 3, 4, 5의 수를 생수라고 하고, 성수는 생수에 5를 더한 6, 7, 8, 9, 10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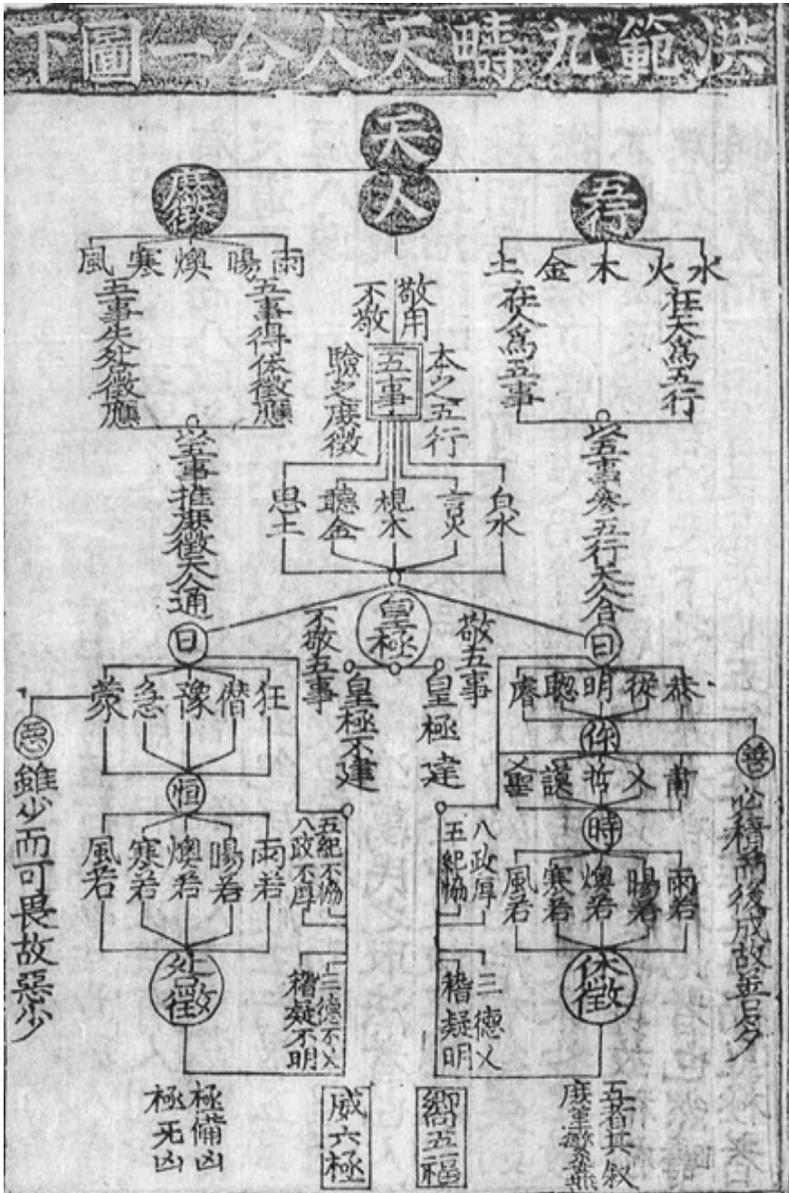
168 중궁(中宮)의 수: 하도의 가운데 수는 생수 5와 성수 10을 합하면 15인데 여기에서 9가 노양 나머지 6이 노음이 된다.

169 삼재(三才): 우주와 인간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면서 그 변화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천·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역』 「계사전」에 괘에 6개의 효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천도(天道)가 있고, 지도(地道)가 있고, 인도(人道)가 있으며, 삼재를 결합하여 이를 둘로 한다. 그래서 6이다.”라고 했다.

르러 소음이 되고 6에 이르러 노음이 되니 마치 사람의 순서는 치아에서 생기는데 치아가 많은 사람이 먼저 자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10을 우선으로 하여 헤아린다. 6을 노음이라 하는 것은 먼저 생겨난 것이 노인데 6이 8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이다.

愚按，陰陽之數六·九爲老者，參天兩地而倚數，故揲蓍之數，三變之後，餘三奇，則三三而九；餘三偶，則三二而六者，此其本也。其數之變，無所往而不合，故先儒之說，有以生成之數言者，則積一三五爲九，積二四爲六也；有以「河圖」中宮之數言，則得九爲老陽，而餘六爲老陰也。其變雖多，而其爲數則一，故無所往而不合，是其造化之妙也。今亦妄謂參其天而得三，兩其地而得二者，倚數之本也。然必疊三者，備三才之道，故三三而九，三二而六也。又陽得以兼陰，故陽全用三，而二三爲六，三三爲九；陰不得兼陽，故陰半用二，而二二爲四，三二爲六。陽居左統生成而無陰，故自生數之一至成數之七爲小陽，至成數之九爲老陽，猶人之數生齒，齒多者爲老也。陰居右屬乎成而不得兼陽，故自十至八爲少陰，至六爲老陰，猶人之序生齒，齒多者居先，故以十爲首，而數之也。然又謂六爲老者，先生爲老，六之生先於八也。

23. 흥범구주천인합일도하(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홍범구주(洪範九疇)¹⁷⁰는 천도와 인도가 다 갖추어져 있다. ‘오행(五行)’¹⁷¹은 하늘이 만물을 낳는 시작으로 하늘의 도에 있어서 이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첫 번째에 두어 머리로 삼았다. 이미 오행이 있고 만물이 생기면 사람은 만물 가운데 영장인데, ‘오사(五事)’¹⁷²는 인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두어 다음으로 삼았다. 이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삼을 것이 있는데, ‘팔정(八政)’¹⁷³은 일 가운데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두었다. 사람의 일을 닦고자 하면 또한 천도에서 징험해야 할 것인데, 천체의 운행을 살피는 것과 사계절을 살피는 것은 늦출 수 없으므로 ‘오기(五紀)’¹⁷⁴가 네 번째에 자리한다. ‘오행을 따르고’, ‘오사를 공경스럽게 하고’, ‘팔정을 돈독하게 하고’, ‘오기에 딱 맞으면’ 인군의 도는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황극(皇極)’¹⁷⁵이 다섯 번째에 자리하여 중앙에 해당한다. ‘황극’은 천도를 계승하여 인도를 세우는 것으로 사방의 표준이 되고 모든 백성이 취할 법도가 된다. 인군의 다스림은 수작이 만 가지로 변하여 그 쓰임이 다르지만 모두 중정으로 귀착하기 때문에 ‘삼덕(三德)’¹⁷⁶을 ‘황극’ 다음으로 하여 여섯 번째에 두었다. 일 가운

170 홍범구주(洪範九疇): 홍범은 큰 법을 말하고 구주는 9개 조목을 말한다.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 거북 등에 그려진 낙서(洛書)를 보고 만들었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정치론을 물었을 때 기자가 이 홍범구주로써 가르쳐주었다. 9조목은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 및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이다. 이것은 『서경』 「홍범」편에 있다.

171 오행(五行): 오행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말하고, 수는 윤하(潤下), 화는 염상(炎上), 목은 곡직(曲直), 금은 중혁(從革), 토는 가색(稼穡)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172 오사(五事): 오사는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를 말한다.

173 팔정(八政): 팔정은 식(食: 음식), 화(貨: 재화), 사(祀: 제사), 사공(司空: 농사), 사도(司徒: 교육), 사구(司寇: 치안), 빈(賓: 외교), 사(師: 국방)를 말한다.

174 오기(五紀): 오기는 세(歲), 월(月), 일(日), 성신(星辰), 역수(曆數)를 말한다.

175 황극(皇極): 『서경』 「홍범」에서는 황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오복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백성들이 너의 기준에 대해 너에게 기준을 보존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皇建其有極, 斂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 于汝極, 錫汝保極.]”

데 의심스러운 것은 천명에 따라야 하므로 ‘계의(稽疑)’¹⁷⁷가 일곱 번째에 자리한다. 다스림에 득실이 있게 되면 증험함에 휴구(休咎)¹⁷⁸가 있게 되니 하늘에 미루어 자신을 성찰해야 하므로 ‘서징(庶徵)’¹⁷⁹이 여덟 번째에 자리한다. 득실과 화복의 증험은 천상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길흉의 조짐은 끝내 나의 몸에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복극(福極)’¹⁸⁰이 아홉 번째에 자리하여 끝난다. 인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으로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러나 흥범에 비록 9조목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은 오직 ‘오행’일 뿐이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사’일 뿐이고, ‘황극’은 하늘과 사람을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사’가 이루어져 ‘황극’이 서면 ‘오행’이 따라서 비·햇빛·더위·추위·바람이 좋은 징조로 호응하고, ‘오사’가 잘못되어 ‘황극’이 서지 못하면 ‘오행’이 어긋나 비·햇빛·더위·추위·바람이 나쁜 징조로 호응하니 이것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유통하고 호응하는 도리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팔정’·‘오기’·‘삼덕’·‘계의’·‘복극’의 작용은 모두 ‘황극’이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오사’를 닦아 ‘황극’을 세우는 것은 그 도리가 어디에서 말미암아 있는가? ‘경’이라는 한 글자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구주를 기술한 성인이 ‘경’으로서 ‘오사’의 위에 더한 것은 만세의 임금에게 심법을 보이기 위한 것이니 임금이 된 자가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76 삼덕(三德): 삼덕은 정직(正直), 강극(剛克: 강함으로 이기는 것), 유극(柔克: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것)을 말한다.

177 계의(稽疑): 계의는 우(雨), 제(霽), 몽(蒙), 역(驛), 극(克), 정(貞), 회(悔)를 말한다.

178 휴구(休咎): 휴구는 길흉(吉凶), 화복(禍福), 득실(得失), 선악(善惡)을 말한다.

179 서징(庶徵): 서징은 우(雨), 양(陽), 옥(燠), 한(寒), 풍(風), 시(時)를 말한다.

180 복극(福極): 복극은 수(壽), 복(富), 강녕(康寧), 유후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洪範九疇，天人之道備矣。‘五行’者，天之所以生物之始，在天道莫大焉，故居一而爲首。既有‘五行’，萬物生焉，則人者萬物之靈，而‘五事’，人道之本，故居二而爲次。既有人則必有所事，而‘八政’者，事之最急，故居三。欲修人事，又當驗於天道，而曆象授時不可緩也，故‘五紀’居四。‘順五行’·‘敬五事’·‘厚八政’·‘協五紀’，人君之道備焉，故‘皇極’居五而當中。‘皇極’者，繼天道而立人極，爲四方之標準，萬民之取法者也。人君之治，酬酢萬變，其用不同，而皆歸於中正，故‘三德’次‘皇極’而居六。事之可疑，當聽於天，故‘稽疑’居七。治有得失，則徵有休咎，所當推天而省己，故‘庶徵’居八。得失休咎之徵，不惟現於天像而善惡吉凶之應，終必及於吾身，故‘福極’居九而終焉。人君治天下之大典，未有加於此者也，然疇雖有九，而樞要有三，在天惟‘五行’，在人惟‘五事’，而‘皇極’者，合天人而一之者也。‘五事’得而‘皇極’立，則‘五行’順而雨暘燠寒風之休徵應，‘五事’失而‘皇極’不立，則‘五行’汨而雨暘燠寒風之咎徵應焉，是其天人相爲流通感應之道，可謂明矣。至於‘八政’·‘五紀’·‘三德’·‘稽疑’·‘福極’之用，亦皆在乎極之立不立爾，然則修‘五事’而立‘皇極’者，其道何由在乎？‘敬’之一字而已。敍疇聖人以‘敬’加於‘五事’之上，所以示萬世人主以心法也，爲人主者，可不念哉？

「무일」이라는 책은 임금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경계한 것이다. 옛날부터 천하에서 국가를 소유한 자들은 조종의 부지런함과 검소함으로 말미암아 흥기하고 번성하였고, 자손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멸망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나라 성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자 주공은 왕이 안일하고 나태할까 두려워 이 책을 지어서 경계하였다. 처음에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먼저 알도록 말한 것은 주나라 후직(后稷)¹⁸¹이 농사짓는 일로서 나라를 연 이래로 천여 년을 대대로 전하여 문왕이 전공(田功)¹⁸²하도록 했던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지런함과 검소함과 나태하지 않음을 집안의 법도로 삼았기 때문에 흥기하고 성대하였고, 무왕(武王)¹⁸³에 이르러서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왕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먹고사는 근본인저! 백성은 밭이랑과 논도랑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일 년 내내 노고로써 임금을 받드는데 임금이 깊은 궁중에서 성장하여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백성을 구휼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안일하여 오만하게 스스로 방자하면 작게는 목숨을 잃고 몸을 망치고 크게는 나라를 잃고 제사가 끊기게 되는 것은 대대로 공통된 우환이다. 이것은 만세의 임금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이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먼저 말한 뒤에 은나라 삼종(三宗)¹⁸⁴이 하늘을 경외하고 백성을 보호함으로써 오래도록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일을 들어 말한 것은 권장하고 흠모하도록 한 것이요, 다음에 훗날 왕들이 즐거움에 빠지고 즐거움을

181 후직(后稷): 주나라 왕조의 시조이며, 농경의 신이다.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해 낳았다는 이유로 3번이나 버려졌는데 모두 구조되었다. 뒤에 요나라에서 농관(農官)이 되고, 태(郃)에 책봉되어 후직이 되었다.

182 전공(田功): 백성을 기르고 토지를 개간하는 공업을 말한다.

183 무왕(武王): 주나라 문왕(文王) 창(昌)의 둘째 아들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였다.

184 삼종(三宗): 중종(中宗)·고종(高宗)·조갑(祖甲)을 말한다.

탐하여 혹 장수한 임금의 없음을 말한 것은 삼가하고 경계하도록 한 것이요, 또 태왕(太王)¹⁸⁵과 왕계(王季)¹⁸⁶와 문왕(文王)¹⁸⁷의 일을 말한 것은 조종의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위로는 천명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호하며, 멀리는 지나간 옛날의 흥망을 거울 삼고, 가까이는 조종의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본받는 것은 왕위를 잇는 임금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공(周公)¹⁸⁸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하고도 절실하므로 임금에게 고하는 말이 상세하고 다 갖추어져 있어 ‘황자경덕(皇自敬德)’¹⁸⁹이라는 한마디 말로 끝을 맺었다. 경(敬)이라는 것은 하늘을 경외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옛날 것을 거울 삼고 조종을 본받는 요체이니 안일함이 없는 참된 마음이다. 은나라 삼종이 장엄하고 공경하며 흠모하고 경외하여 감히 편안함을 깨뜨리지 않은 것, 태왕과 왕계가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 문왕이 아름답게 공경하는 것은 모두 이 경을 의미한다. 공경하면 안일함이 없어서 장수하지만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과 반대이다. 그 뒤 성왕이 주나라의 정사를 잘하는 왕이 되어 37년간 나라를 누렸으니 이것은 주공의 가르침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후세의 임금이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無逸」一書，所以戒人主逸怠也。自古有天下國家者，莫不由祖宗勤儉以興盛，由子孫逸怠以覆亡。故周之成王幼沖即位，周公恐其逸怠而作是

185 태왕(太王):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인 고공단보(古公亶父)를 말한다. 기산(岐山) 기슭에서 덕을 닦아 주나라의 기반을 이루었다.

186 왕계(王季): 주나라 태왕 고공단보의 셋째 아들이며 문왕의 아버지이다.

187 문왕(文王): 계왕(季王)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버지이며, 서백(西伯)이라고도 부른다.

188 주공(周公): 주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아우이다.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왕(成王)을 도와 주나라의 기틀을 세워 제도와 예악을 정비하였다.

189 황자경덕(皇自敬德): 임금이 스스로 덕을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즉 임금 자신의 덕이 부족한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書」以戒之。首以先知稼穡之艱難爲言者，周自后稷以農事開國，歷世相傳千有餘年，至文王之卽田功，皆以勤儉不怠爲家法，故能興盛，及武王而有天下，是卽成王之所當先知者也，又况稼穡，人食之本！小民勤於畎畝，終歲勞苦以奉君上，而人君生長深宮，不知其艱，不恤其民，驕侈淫逸，傲然自肆，小則損壽以喪身，大則亡國而絕祀者，世世公患。是則萬世人主之所當先知者也。故周公首言稼穡之艱難，然後舉殷三宗畏天保民而享國之久者，所以勤而慕之也；次言後王逸豫耽樂而罔或克壽者，所以戒而警之也；又言大王·王季·文王者所以法祖宗之勤儉也。上畏天命，下保小民，遠鑑前古之興亡，近法祖宗之勤儉，以嗣王之所當體念也。周公愛君之心誠且切，故告君之言詳且備，終之以‘皇自敬德’之一言。敬者，畏天保民·鑑古法祖之要，而無逸之實心也。三宗之嚴恭寅畏不敢荒寧，大王·王季之抑畏，文王之懿恭，皆此敬也。敬則無逸而壽，不敬則反是，厥後成王爲周令王享國三十有七年，其有得於周公之訓歟？後世人主可不敬哉！

제 2 부

후집(後集)

후집의 내용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자연관을 이루는 역학(易學)과 역법(曆法)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5.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해제 「십이월괘지도」¹⁹⁰는 1년 24절기의 변화를 십이벽괘(十二辟卦)와 음양의 소장(消長)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190 십이월괘지도(十二月卦之圖): 12월괘는 맹희(孟喜)의 역학 이론이다. 64괘 중에서 12개의 괘를 골라서 12월에 배당한 것이다. 12월괘에는 복괘(復卦), 임괘(臨卦), 태괘(泰卦), 괘괘(夬卦), 건괘(乾卦), 구괘(姤卦), 둔괘(遯卦), 비괘(否卦), 관괘(觀卦), 박괘(剝卦), 곤괘(坤卦)가 있으며, 음양의 소식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박괘(剝卦) 상구(上九) 효의 양은 비록 9월에 극단에 이르지만, 나머지 효는 10월 소설(양력 11월 22일)에 이르러 없어진다. 또 하나의 양이 이 날(양력 11월 22일) 비로소 아래에서 생겨나 점점 자라서 12월의 복괘(復卦)가 된다. 그러므로 곤괘(坤卦)는 비록 순음이지만 양이 없었던 적이 없으니¹⁹¹ 10월을 양월(陽月)이라고 말한 것¹⁹²은 이것 때문이다. 오른쪽의 복괘(復卦)와 구괘(姤卦)는 음양이 나가고 들어오고 소멸하고 자라는 기미이다. 삼봉 정도전은 일찍이 이 그림을 그려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였다. 다만 박괘 상구에 남아있는 양이 위로부터 내려와 순음(純陰)의 곤괘 아래를 관통하여 복괘의 초구 양효에 연결시켰으니

191 곤괘(坤卦)는…없으니: 朱熹, 『朱子語類』 권36, 『朱子全書』 제16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42조목, 2047쪽. “보광이 물었다. ‘『혹문』 가운데 ‘곤괘는 순전히 음이지만 양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희가 대답했다. ‘비록 10월이 곤괘(坤卦)가 되고 11월이 복괘(復卦)가 되지만, 소설(小雪) 뒤로부터 그 아래에 한 획을 그으면 곧 3분의 1에서 양이 생기게 되고 동지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1효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10월을 양월(陽月)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양이 없다고 의심한다. 구괘(姤卦)로부터 곤괘(坤卦)에 이르는 것도 그와 같다.’ 보광이 물었다. ‘그렇다면 양은 결국에는 다하는 때가 있습니까?’ 주희가 대답했다. ‘박괘(剝卦)가 위에서 다하면 복괘(復卦)가 아래에서 생겨나니, 그 사이에 섬을 허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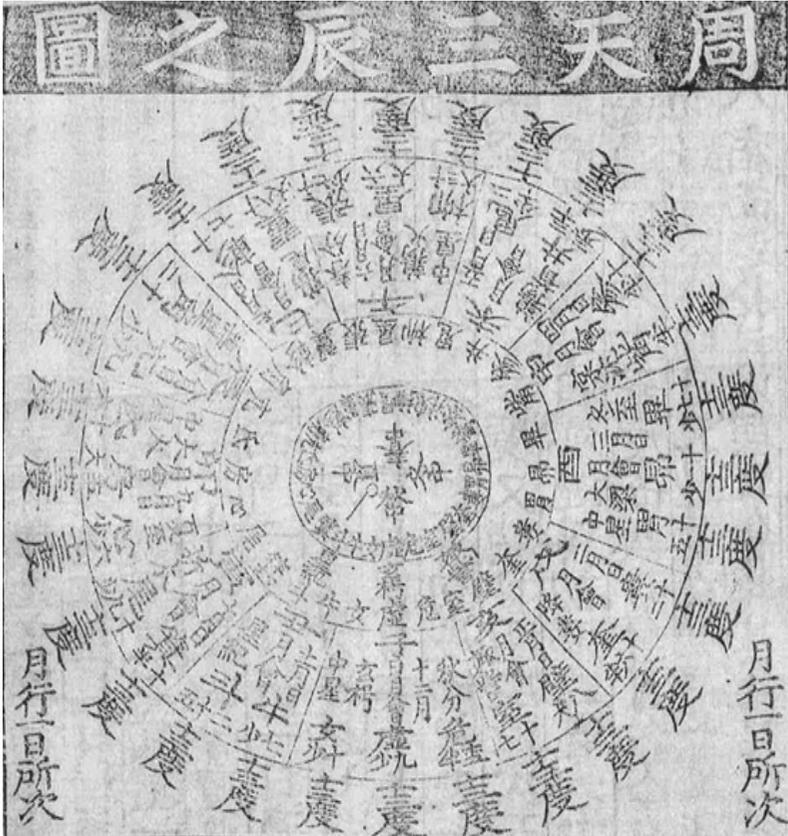
192 10월을…것: 朱熹, 『晦庵先生文公文集』 권36, 『朱子全書』 제21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答袁機仲別幅」, 1672쪽. “보내신 편지에서 곤괘(坤卦)의 상육 효에 양기가 이미 생겨나고, (그 위치는 해(亥)에 있다.) 건괘(乾卦)의 상구 효에는 음의 기운이 이미 생겨났다. (그 위치는 사(巳)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박괘(剝卦) 상구효의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와 10월을 양월이라고 하는 뜻을 추론해보면, 박괘 상구의 양이 소멸되어 순음의 곤괘(坤卦)로 변화할 때이고, 곤괘의 아래 효는 이미 양의 기운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만 하루 안에, 한 획 가운데에서 30분의 1이 자라고 반드시 이것이 쌓여 한 달이 된 뒤에 비로소 한 획을 가득 채워 복괘(復卦)가 되어 하나의 양이 생기게 된다. 췌괘(夬卦)의 하나의 음은 건괘(乾卦)가 되기도 하고 구괘(姤卦)가 되기도 하니, 의미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보내신 편지에 비록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상세하거나 치밀하지 못해서 이렇게 유추했습니다.) 대개 처음에 생겨날 때의 미약함을 논하면 본래 이미 음양으로 명칭을 붙일 수 있으나, 곧 이것으로 음양의 한계를 삼으면, 성대한 것이 교체되지도 못하여 점유의 비율이 괘 안에서 6분의 5일 뿐이 아니고, 생성된 것이 매우 미약하여 점유의 비율이 괘 안에서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끊어 음양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는 곧 12괘 중의 하나의 의미이니, 복괘(復卦)·구괘(姤卦)의 설명과 이치가 본래 다르지 않습니다.”

10월이 비록 순음이지만 일찍이 하루도 양이 없는 날이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은 정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은 잘 살피지 못하여 양이 처음 생겨나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니, 또 순수한 곤괘(坤卦)의 음이 구괘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그려 박괘의 나머지 부분이 곤괘의 위에서 다하여 복괘의 일분(一分)이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양이 위에서 다하면 곧바로 아래에서 생겨나니 일찍이 하루도 한 시간도 양이 없는 적이 없다는 것을 보였다. 보는 사람이 상세히 살피야 한다.

「剝」之上九一爻之陽，雖極於九月，而其餘分至十月小雪而盡。又有一分之陽，即於此日，始生於下，浸長而爲十一月之復，故坤雖純陰，未嘗無陽，謂十月爲陽月者，此也。右「復」·「姤」，陰陽出入消長之幾也。三峰鄭公嘗作此「圖」以示學者，但以「剝」之上九餘分之陽，自上而下，貫穿純坤之下，接於「復」卦初九之陽，以示十月雖純陰而未嘗一日無陽之意，可謂精矣。然學者不察，以爲陽之初生，自上而下，又疑純坤之陰，非自「姤」而長者。故今爲此「圖」，將「剝」之餘分，極於坤上，而「復」之一分，即生於下，以示陽之方極於上，而即生於下，亦未嘗一日一刻之無陽也。觀者詳之！

26. 주천삼신지도(周天三辰之圖)

해제 「주천삼신지도」는 별자리 28수(宿)와 12진(辰), 해와 달의 운행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28수와 12진이 중요한 것은 한 해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8수¹⁹³가 밖에서 원운동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본체이며, 12진¹⁹⁴이 안에서 뒤따르는 것은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이고 땅의 네모남이다. 안에 하나의 원으로 회전하는 것은 천체의 운동을 본뜬 것이고, 또 그 안의 원은 해와 달의 운동을 본뜬 것이다. 이 두 개의 원이 28수를 중심으로 돌게 한 것은 그 위치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천체의 28수를 원주의 밖에 각각 13도씩 28차로 나눈 것은 달이 하루 동안 운행한 위치이다. 천체의 운행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1도 나아가며, 해의 운행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달의 하루 운행은 하늘에 13도 남짓 미치지 못한다.¹⁹⁵ 28일에 28수를 지나고 또 그다음 날 이후 바로 해와 만나기 때문에 29일 남짓에 해와 달이 만난다.

二十八宿環於外者，天之體也。十二辰次於內者，日月所會及地之方也。內一輪旋轉者，象天之行也；又其內一輪，象日月之行也，此二輪，皆以二十八宿環之者，使易知其舍次也。天體二十八宿，圓周之外，各以十三度，分爲二十八次者，月行一日之所次也。天行一日一周而進一度，日行一日一周而還舊次，月行一日不及天十三度有奇。二十八日，歷二十八宿，又其明日而後與日會，故二十九日有奇而月與日會。

옛날 성인이 남면하고 다스릴 때 천문을 우러러 살펴보고, 해 질 녘에 오(午)의 별자리를 중성(中星)¹⁹⁶으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 중춘(仲春)의

193 28수: 하늘의 적도를 따라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을 수(宿)라고 한다.

194 12진: 『禮記』, 「月令」, “해는 견우성(牽牛星)을 지나 끝에 이르고, 달도 해와 마지막 만나는 기(紀)에 도달한다. 별들도 한 바퀴를 돌아 운동을 마치고, 한 해는 다시 시작한다.”

195 달의…못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8조목, 134쪽. “물었다. ‘해가 1도 운행하고, 달은 13도 남짓 운행합니까?’ 대답했다. ‘역학자들은 그것이 뒤로 물러나는 도수를 나아가는 도수로 간주했다. 천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는 항상 천체보다 1도 미치지 못한다. 달은 더 느려서 천체보다 13도 남짓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달이 서쪽에서 떠올라서 매일 밤 점점 동쪽으로 향하는 것을 통해 달이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조(星鳥)¹⁹⁷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그 별은 점차 서쪽으로 가고 365 일을 지난 후에 늦게 오(五)의 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그 별이 하루에 도달한 별자리를 1도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에 365도 4분의 1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더불어 모두 왼쪽으로 도는데 하늘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도를 초과하고, 해의 운행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 뿐이고, 달의 하루 운행은 하늘에 13도 19분의 7을 미치지 못한다.¹⁹⁸ 그러므로 해와 하늘은 365일 남짓 지나서 한 번 만나고, 달과 해는 29일 남짓 되어서 한 번 만난다. 가령 해와 달이 하늘과 더불어 성기(星紀)¹⁹⁹ 두성(斗星)²⁰⁰의 초도일(初度日)을 따라 일어나면 하늘의 운행은 오늘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 2도에 이르고, 다음날 3도가 되고 또 다음날 4도가 되는 순서대로 나아간다. 해의 운행은 오늘 한 바퀴 돌아 두성의 처음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또한 두성의 처음으로 돌아와 365일이 지난 후에 하늘의 운행은 365도를 두루 지나 해와 더불어 만난다. 달

196 중성(中星):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중(中)은 해가 질 때와 뜰 때 하늘 정남(正南)쪽에 보이는 별이다.

197 성조(星鳥): 24수 중에 하나로 음력 2월을 이르는 말이다.

198 하늘은…못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9조목, 139쪽.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왼쪽으로 도는데, 다만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늘의 운행은 비교적 빨라서 하루 동안 땅의 둘레를 365도 4분의 1도만큼 돌고 다시 1도 초과한다. 해의 운행은 조금 느려서 하루 동안 땅의 둘레를 정확히 한 바퀴 회전하지만, 하늘보다 1도 뒤처진다. 1년이 지나면 비로소 하늘과 서로 일치하는 곳에서 만나는데, 이것이 1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달의 운행은 더 느려서 하루 동안 땅의 둘레를 다 돌 수 없으니, 하늘보다 항상 13과 19분의 7도 뒤처진다. 29.5일 남짓이 되면 바로 하늘과 서로 일치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니, 이것이 한 달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고 말하는 것이다.”

199 성기(星紀): 해, 달, 별의 운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늘을 12개 나눈 것이다. 12개는 수성(壽星), 대화(大火), 석목(析木), 성기(星紀), 현효(玄枵), 추자(娵訾), 강루(降婁), 대량(大梁), 실침(實沈), 순수(鶡首), 순화(鶡火), 순미(鶡尾)라고 부른다.

200 두성(斗星): 북방의 첫 번째 별의 이름이다. 28수(宿) 가운데 북방에 있는 별은 두성(斗星), 우성(牛星), 여성(女星), 허성(虛星), 위성(危星), 실성(室星), 벽성(壁星)이다.

의 운행은 오늘 하늘의 13도에 미치지 못하고, 우성(牛星)의 자리에 물러나 있고, 다음날 또 여성(女星)의 자리에 물러나 있고, 29일이 지난 후에 28수를 두루 지나서 두성의 자리에 돌아와 해와 만나니 이것이 그 대략이다. 이 그림을 돌려가면서 보면 알 수 있으니, 중성(中星)과 윤여(閏餘)²⁰¹에 대해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하늘에는 형체가 없고 단지 (달이 머무는) 28수가 체가 된다.²⁰² 이미 ‘하늘이 하루에 1도를 지나간다.’라고 말한다면 두성의 자리 또한 하늘을 따라 나아간다. 또 ‘해가 두성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는데 두성이 비록 나아갈지라도 두의 방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그림 안의 바퀴가 회전할지라도 밖의 방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해가 두성의 처음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방위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昔者聖人南面而理，仰觀天文，以初昏加午之宿，定爲中星，如仲春星鳥之類是也。其星日日漸差而西，歷三百六十五日差晚，然後又加於午。故以其星一日所次之辰爲一度，以爲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天與日月皆左旋，天一日一周而過一度，日行一日適一周而已，月行一日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故日與天歷三百六十五日有奇而一會，月與日，二十九日有奇而一會。假如日·月與天皆從星紀斗初度而起，天行今日左旋一周而至二度，明日三度，又明日四度，以次而進；日行今日一周而還斗初，明日亦還斗初，歷三百六十五日，然後天行遍過三百六十五度，

201 윤여(閏餘): 실제의 한 해가 달력상의 한 해보다 많아서 생기는 나머지 부분을 말한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365.2564일이 걸리는 데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

202 하늘에는…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4조목, 132쪽. “하늘은 형체가 없으며, 다만 28수의 별자리가 바로 천체이다. 태양과 달은 모두 각(角)의 별자리로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하늘도 각의 별자리로부터 시작한다. 태양은 하루 동안 일주 운행하고, 예전과 같이 그 각의 별자리에 도착한다. 하늘은 일주한 후에 다시 각의 자리를 약간 지나친다. (초과한 부분이) 날마다 쌓이게 되면 1년 후에 바로 태양과 만난다.”

而與日會；月行今日不及天十三度而退在於牛，明日又退於女，歷二十九日，然後遍過二十八宿，而還於斗，以與日會，此其大略也。就此「圖」，輪轉而觀可見，至於中星間餘，亦可推矣。但天無體，只二十八宿爲體。既謂天一日過一度，則斗亦隨天而進。又謂日還斗初者，斗星雖進，而斗之方位不移，如此「圖」內輪雖轉，而外之方位不動也。所謂日還斗初者，指方位而言也。

또한 역학자들은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해와 달은 모두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말한다.²⁰³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 안의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 한 바퀴 돈 이후에 우(牛)의 자리에 이르고 또 한 바퀴 돈 이후에 여(女)의 자리에 이르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 우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수(數)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물러나는 수를 따랐다. 그러나 하늘이 해와 달과 더불어 모두 왼쪽으로 돌면서 진퇴가 갖추어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又曆家謂天左旋，日·月皆右轉。蓋將此「圖」內輪左旋，一周而後至牛，又一周而後至女，不若由右一轉至牛之爲易，故不計進數，但從退數。然未若天與日·月皆左旋，而有進退之爲備爾。

203 또한…말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6조목, 133쪽. “물었다. ‘경성(經星)은 왼쪽으로 돌고, 위성(緯星)과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답했다. ‘지금의 역학가[曆家]들은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황거 선생은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태양과 달도 왼쪽으로 돈다’라고 말했다. 보아하니 황거 선생의 설(說)을 따라 살펴보면 매우 옳다. 다만, (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시집전』에 옛날의 설명을 실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것 역시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바퀴가 밖에 있고 작은 바퀴가 해와 달을 싣고 안에 있는데, 큰 바퀴는 빨리 돌고 작은 바퀴는 늦게 도는 것과 같다. 비록 모두 왼쪽으로 회전하지만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어서 해와 달이 마치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대답했다. ‘그렇다. 다만, 그와 같다면 역학자들은 ‘역(逆)’이란 글자를 모두 ‘순(順)’으로 고치고 ‘퇴(退)’라는 글자를 모두 ‘진(進)’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추근인(鄒近仁)²⁰⁴의 『서전음석』에 모아 놓은 그림에 ‘해와 달은 정월에 인석목(寅析木)²⁰⁵에서 만나고, 2월에는 묘대화(卯大火)²⁰⁶에서 만나고, 4월에는 진수성(辰壽星)²⁰⁷에서 만나며 이러한 순서대로 나아가 해와 달이 대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이 그림에는 정월에 해추자(亥媿誓)²⁰⁸에서 만나고, 2월에 술강루(戌降婁)²⁰⁹에서 만나며 이러한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는데 어째서입니까?”

或曰：“鄒氏『書傳音釋纂圖』，‘日月，正月會寅析木，二月會卯大火，三月會辰壽星，以次而進，是與月立合矣’。今子此「圖」，以爲正月會亥媿誓，二月會戌降婁，以次而右，何也?”

대답했다. “이것은 본래 당나라 공영달의 설이다. 하늘이 자(子)에서 열리고 땅이 축(丑)에서 열린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²¹⁰ 이 축

204 추근인(鄒近仁): 송나라 학자로 자는 계우(季友)이고, 호는 귀헌(歸軒)이다.

205 인석목(寅析木): 별자리 이름이다. 12지 상으로는 인(寅)이고, 28수 상으로는 미(尾)와 기(箕)의 자리이다.

206 묘대화(卯大火): 별자리 이름이다. 12지 상으로는 묘(卯)이고, 28수 상으로는 저(氏)와 방(房)과 심(心)의 자리이다.

207 진수성(辰壽星): 별자리 이름이다. 12지 상으로는 진(辰)이고, 28수 상으로는 각(角)과 항(亢)의 자리이다.

208 해추자(亥媿誓): 별자리 이름이다. 12지 상으로는 해(亥)이고, 28수 상으로는 실(室)과 벽(璧)의 자리이다.

209 술강루(戌降婁): 별자리 이름이다. 12지 상으로는 술(戌)이고, 28수 상으로는 규(奎)와 루(婁)의 자리이다.

210 하늘이…움직인다: 朱熹, 『朱子語類』 권45, 『朱子全書』 제18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8조목, 1592쪽. “양윤숙이 물었다. ‘하늘은 자(子)에서 열리고, 땅은 축(丑)에서 개벽하며, 사람은 인(寅)에서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답했다. ‘소강절이 1원(元)은 12회를 통괄하는데, 앞면의 빈 곳은 도리어 자(子)와 축(丑) 두 개가 자리하고, 인(寅)의 자리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생성되니, 사람은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시(寅時)에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의미로 추론해보면 반드시 먼저 하늘이 있고, 곧 땅이 있으며, 천지가 교감해야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생겨나는

(丑의) 성기(星紀)²¹¹는 동지의 자정[子半]²¹²이 된 뒤에 하늘이 해와 달과 더불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여 차례대로 30일이 지나면 하늘의 운행은 점차 나아가 축의 성기가 인(寅)으로 나아가고 자(子)의 현효(玄杓)²¹³는 축(丑)으로 나아가 해와 달이 여기에서 모이는 것이니 건축(建丑) 12월이다. 또 30일을 지나면 성기는 묘(卯)로 나아가고, 현효는 인(寅)으로 나아가고 해(亥)의 추자(誡訢)는 축(丑)에 나아가 달이 또 해를 만나는 것이니 건인(建寅) 정월이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9월에 이르게 되면 묘대화(卯大火)의 방(房)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서경』은 ‘계추(季秋)의 월삭에 진(辰)은 방(房)에 모이지 않는다.’²¹⁴라고 말했다. 만약 『서전음석』과 같다면 2월에 방(房)에서 만나니 『서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다면 천도(天度)가 오른쪽으로 돌아 정월에 인석목(寅析木)을 만난 뒤에 2월에 묘(卯)의 대화(大火)가 인(寅)으로 물러난다. 만약 ‘해와 달이 하늘을 따라 나아가 정월에 인에서 만나고 2월에 묘에서 만난다.’라고 말하면 해의 운행이 하늘과 더불어 느리거나 빠르게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데 원칙이 없고 해가 또 서쪽에서 생겨날 것이니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曰：“此本唐孔氏之說也。天開於子，地闢於丑，然後日月星辰行焉。是丑之星紀，爲子半冬至後，天與日·月初起之次歷三十日，則天行漸差而進，丑之星紀進於寅，子之玄杓進於丑，而日·月會於此者，建丑十二月也。又歷三十日，則星紀進卯，玄杓進寅，而亥之誡訢進於丑，月又會日者，建寅

것이다.”

211 성기(星紀):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의 별자리를 가리킨다.

212 동지의 자정[子半]: 음력 11월 중간의 자정을 가리킨다.

213 현효(玄杓): 현효는 허성(虛星)과 위성(危星)의 별자리를 가리킨다.

214 계추(季秋)의...않는다: 계추(季秋)는 음력 9월이고, 월삭(月朔)은 초하루이다. 진(辰)은 해와 달이 교차하여 만나는 방위이고 방(房)은 28수의 하나로 대화(大火)인 묘(卯)에 해당한다.

正月也. 餘皆倣此, 以至九月, 則會于卯大火之房矣. 故經云: ‘季秋月朔, 辰不集于房.’ 若如『纂圖』, 則二月會房與經不合. 又況如是, 則天度右旋, 正月會寅析木之後, 二月會卯之大火退於寅矣. 若曰: ‘日·月隨天而進, 正月會寅, 二月會卯’, 則日行與天, 無遲速進退之度, 日又將生於西矣, 其不然審矣.”

물었다. “주자가 일찍이 배우는 사람들과 이것을 논의하면서, ‘또한 하늘이 해와 달과 더불어 모두 각을 따라서 일어난다면 해와 달의 만남은 각수성(角壽星)²¹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두를 쫓아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째서입니까?”

曰: “朱子嘗與學者論此, 以爲‘且如天與日·月, 皆從角起, 則日·月之會當在角壽星之次’. 今子以爲從斗而起, 何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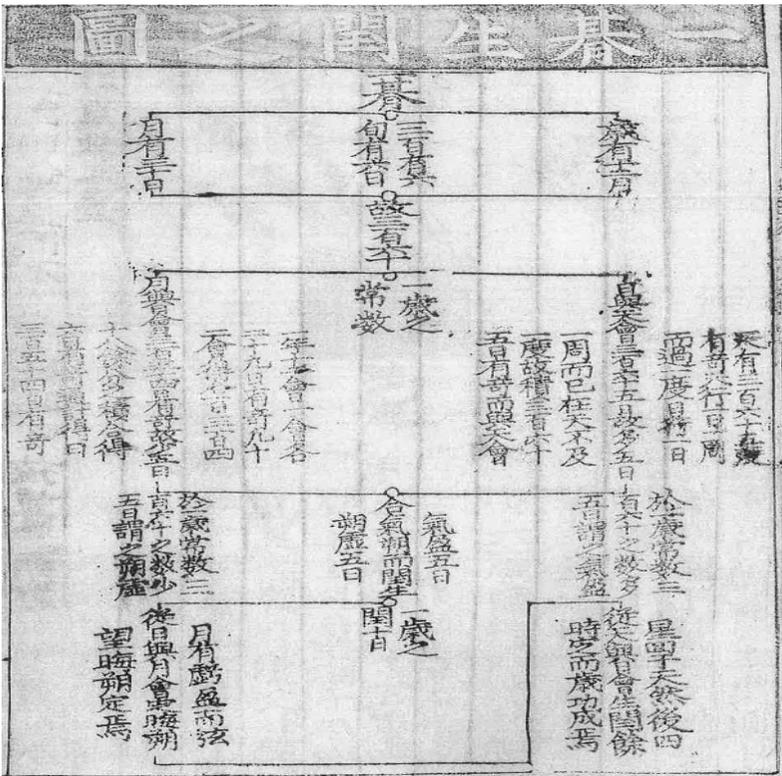
대답했다. “각은 28수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자는 우선 이것을 빌려서 말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정론은 아니다. ‘차여’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曰: “角者二十八宿之首, 故朱子姑借此爲說, 使學者易知爾, 非其定論也. 觀其‘且如’二字之意, 可見矣.”

215 각수성(角壽星): 별자리 이름이다. 12지(支) 상(象)으로는 진(辰)이고, 28수(宿) 상(象)으로는 각(角)과 항(亢)의 자리이다.

27. 일기생윤지도(一基生閏之圖)

해제 「일기생윤지도」에 의하면 천체의 일주(日周)는 365도와 4분의 1도로 1년의 운행이 365일과 4분의 1일이며, 해의 1년 운행은 365일 940분의 235일이고, 달의 1년 운행은 354일과 940분의 348이다. 천체의 일주와 해의 운행과 달 운행의 차이를 계산하여 19년 동안 윤달을 총 7번 둔다. 윤달을 두는 해는 3년째, 5년째, 8년째, 10년째, 13년째, 16년째, 19년째이다.²¹⁶



216 「일기생윤지도」...19년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침(蔡沉)의 『書經集傳』, 「虞書·堯典」 7, 8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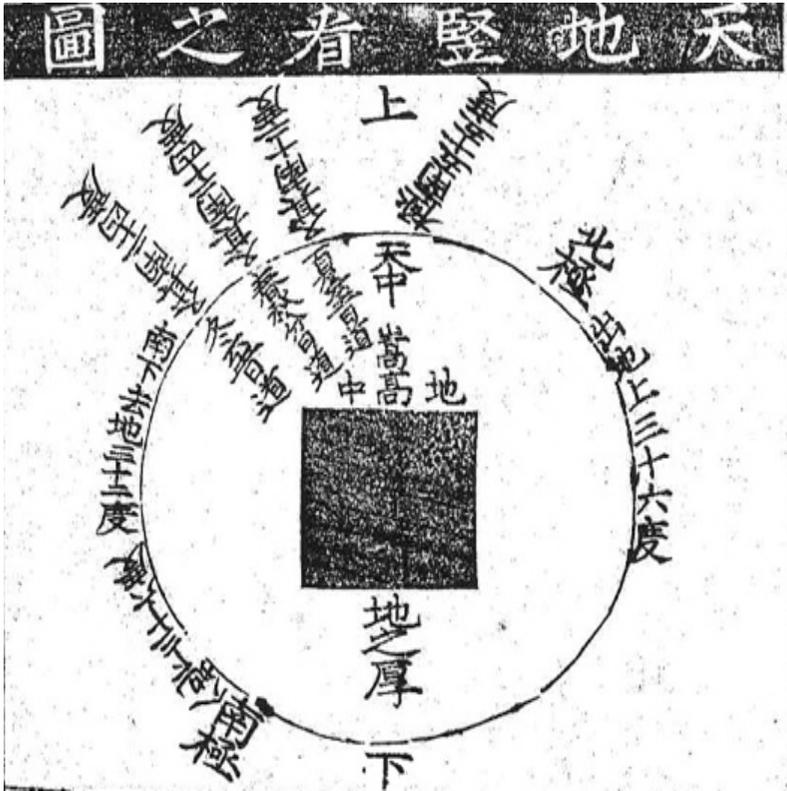
김씨가 말했다. “기영(氣盈)인데도 윤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믐, 초하루, 상현, 보름이 차이가 난다. 삭허(朔虛)인데도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이가 난다.”²¹⁷

金氏曰: “氣盈而不置閏, 則晦朔弦望差. 朔虛而不置閏, 則春夏秋冬差.”

217 기영(氣盈)인데도 … 난다: 蔡沈, 『書傳集傳』 「虞書堯典」. “해가 하늘을 만날 때에는 5일과 940분의 235일이 더 많은데 이것을 기영(氣盈)이라 하고, 달이 해와 만날 때에는 5일과 940분의 592일이 적은데 이것을 삭허(朔虛)라 하며, 기영과 삭허를 합쳐 윤달이 생긴다.”

28. 천지수간지도(天地攄看之圖)

해제 「천지수간지도」는 인간 삶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계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권근은 『주역』 중부괘(中孚卦)의 괘상을 통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해하였다.



채침(蔡沈)의 『서경집전』에서 말했다. “하늘의 반은 땅 위로 나와 있고, 반은 땅 아래로 들어가 있다. 그 땅 위로 드러난 것은 182도 반 남짓이 되는데, 땅 아래 또한 그러하다. 북극은 땅 위로 나온 것이 36도이고, 남극은 땅 아래로 들어간 것이 또한 36도며 높이 솟은 곳이 하늘의 중앙에 해당한다. 극남(極南)의 55도는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하고, 또 그 남쪽 12도는 하지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고, 또 남극 24도는 춘분과 추분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고, 또 그 남쪽 24도는 동지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니 남쪽 아래로 땅과의 거리가 32도이다.”²¹⁸

『書』蔡傳云：“天半出地上，半入地下。其地上現者，一百八十二度半強，地下亦然。北極出地上三十六度，南極入地下亦三十六度，崇高正當天之中。極南五十五度當嵩之上，又其南十二度，爲夏至之日道，又其南二十四度，爲春·秋分之日道，又其南二十四度，爲冬至之日道，南下去地，三十二度而已。”

하늘은 땅 밖을 감싸고 있고 땅은 하늘 가운데 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저절로 여섯 층²¹⁹이 있다. 그러므로 『주역』은 6획으로 괘를 이루고, 복괘(復卦)와 구괘(姤卦)는 음양의 소장이 모두 6위에 이르러 다한다. 나는 일찍이 땅 위에 있는 3층은 하늘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3층은 땅이 되니 마땅히 내괘(內卦)는 땅이 되고 외괘(外卦)는 하늘이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늘의 반이 땅 위로 나

218 채침(蔡沈)의…32도이다: 인용한 『서경집전』의 구절은 「우서·순전」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다만 마지막 부분의 ‘남쪽 아래로 땅과의 거리가 32도이다’라는 부분에서 ‘32도’가 『서경집전』에는 ‘31도’로 되어 있다. 우주론과 혼천설에 관한 내용은 『서경집전』 「우서·순전」 5장 주석 부분을 참조하거나 “야마다 케이지 지음, 김석근 옮김, 『주자의 자연학』, 통나무, 1991”을 참고 바란다.

219 여섯 층: 이것은 음양의 소장(消長)이 점진적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여섯 개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와 있고 반이 땅 아래로 들어가 있다면 땅 위로 나와 드러난 것이 2층이고 땅 아래로 들어간 것이 2층이고 땅 가운데에 거처하는 것이 또한 2층을 점유하니, 마치 중부괘 상하가 모두 2개의 양효이고 가운데 2개의 음효를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간도」를 만들어 상하 4층이 하늘이고 가운데 2층이 땅이 됨을 보인 것이다.

天包地外，地居天中，天地之間，自有六層。故易六畫而成卦，復·姤陰陽消長，皆至六位而極。愚嘗以爲地之上有三層爲天，其下有三層爲地，當以內卦爲地，外卦爲天。今而思之，蓋不然也。天半出地上，半入地下，則出地上見者有二層，入地下者，又有二層，而地之居中者，亦占二層，當如中孚卦，上下皆二陽爻，而中含二爻之陰也。故作「豎看圖」，以示上下四層爲天，而中二層爲地也。

어떤 사람이 물었다. “땅 아래에 또 하늘이 있다면 이른바 가볍고 맑은 것이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이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된다는 그 말은 틀린 것입니까?”

或曰：“地之下又有天，則所謂輕清者上而爲天，重濁者下而爲地，其說非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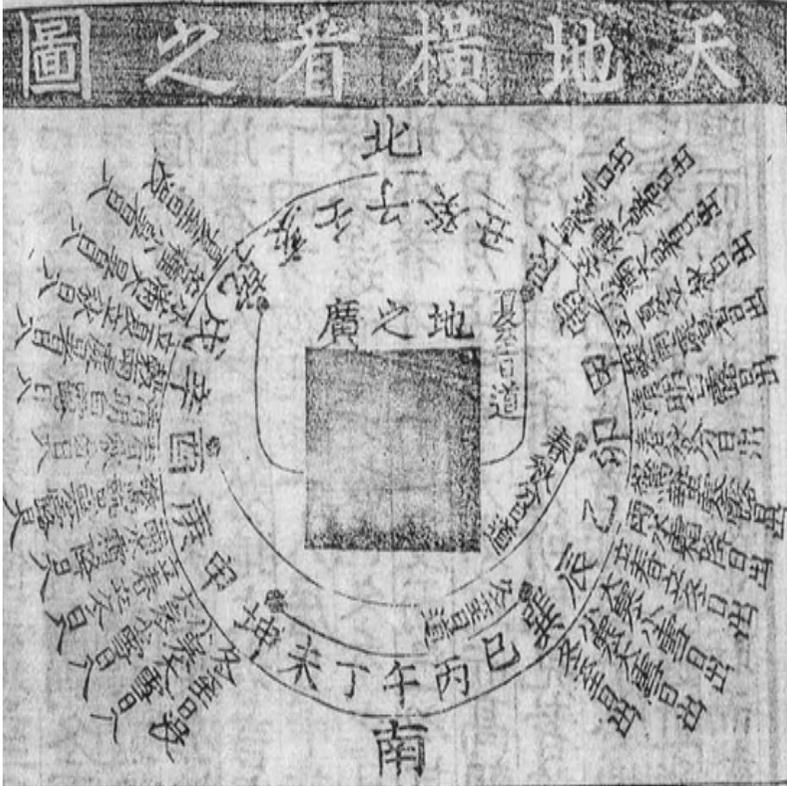
대답했다. “무겁고 탁한 것이 아래로 내려갈 때, 만약 기가 없다면 이 무겁고 탁한 것을 무슨 물건으로 받쳐줄 수 있겠는가? 해와 달과 별들은 장차 어떻게 아래에서 운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무겁고 탁한 3층 아래에 또 기가 있다면 하늘과 땅은 6층이 아닐 따름이다. 다만 위아래 사방은 모두 양의 움직임이지만 유독 그 중간은 고요하다. 그러므로 무겁고 탁한 것은 가운데에서 모여서 형체를 이룰 따름이니, 주자가 ‘그 형체에는 끝이 있고 그 기에는 끝이 없다’²²⁰라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²²¹

曰：“重濁之下，若無氣，則是其重濁者，有何物以承載之乎？日月星辰，又將何以行於下乎？若曰重濁三層之下又有氣焉，則天地非但六層而已。但上下四方，皆陽之動，而獨其中間爲靜，故重濁者，得以凝聚於中而成形爾，朱子曰：‘其形有涯，其氣無窮’，旨哉言乎！”

-
- 220 그 형체에는…없다: 이 인용문은 주자가 소옹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구절은 “邵雍, 『漁樵問對』, 『邵雍集』(北京: 中華書局, 2010), 555쪽”에 보인다. “나무꾼이 어부에게 물었다. ‘하늘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했다. ‘땅에 의지한다.’ 물었다. ‘땅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했다. ‘하늘에 의지한다.’ 물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대답했다. ‘저절로 서로 의지한다. 하늘은 형에 의지하고 땅은 기에 의지한다. 그 형에는 끝이 있고, 그 기에는 끝이 없다.”
- 221 무겁고…의미심장하다: 朱熹, 『朱子語類』 권45, 『朱子全書』 제18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7조목, 1592쪽. “물었다. 하늘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했다. 땅에 의지한다. (다시 물었다.) 땅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했다. 하늘에 의지한다. (물었다.) 하늘과 땅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대답했다. 자연히 서로 의지한다. 하늘은 형(形)에 의지하고 땅은 기에 의지한다. 중복했지만 말이 이 뜻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오직 사람만이 천지의 밖에서 갈 곳을 별도로 찾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에는 밖이 없으니 이른바 ‘그 형(形)에 끝이 있지만 그 기에는 끝이 없다’라고 했다. 그 기 됴은 지극히 견고하기 때문에 능히 땅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떨어질 것이다. 기 이외에도 (땅은) 모름지기 껍질이 매우 두꺼워서 그 기를 견고하게 한다. 지금 땅이 움직이더라도 단지 한 곳에서 움직일 뿐이며, 움직임 또한 멀리 이르지 못한다.”

29. 천지횡간지도(天地橫看之圖)

해제 「천지횡간지도」는 하지와 동지에 해 그림자의 길이와 밤낮의 길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의 해는 간방(동북쪽)에서 나와 건방(서북쪽)으로 들어가는데, 북쪽은 하늘의 중앙과 가깝고 바로 땅(그림의 검은색 네모 부분)의 위쪽이다. 하늘의 중앙은 높고 멀기 때문에 해가 길고, 땅과 가까우므로 기운이 뜨겁다. 동지의 해는 손방(동남쪽)에서 나와 곤방(남서쪽)으로 들어가는데, 남쪽으로 하늘의 변방과 가깝고, 기울어져 땅과 거리가 멀다. 하늘의 변방에 가까우므로 해가 짧고, 기울어져 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운이 차다. 춘분과 추분은 남북의 중앙이므로 해의 길고 짧음·기의 차가움과 뜨거움이 또한 중간 정도이다. 하늘에 대해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에게서 증험할 수 있다.²²² 예로부터 성인이 하늘을 나누어 365도로 하고, 1년을 366일로 정한 뒤에 윤달을 두었으며, 시(時)는 성신(星辰)의 나아감과 물러남·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에 이르러 정하여, 천년이라는 긴 시간과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정할 수 있으니 어찌 잘 말하는 자가 아니라면 증명할 수 있겠는가? 후세에 하늘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자는 천문 현상만을 고찰하여 징험하였으니 하나도 부합하는 것이 없어 그 망령됨이 심하다!

夏至之日，出艮入乾，北近天中，正當地上，天中高遠，故日長，當地而近，故氣熱。冬至之日，出巽入坤，南近天陲，斜而遠地，天陲近，故日短，斜遠於地，故氣寒。春·秋分，南北中，故日之長短·氣之涼燠，亦適中焉。夫善言天者，必有徵於人。自昔聖人分天爲三百六十五度，定晷爲三百六旬六日之後置閏，定時至於星辰進退·日月交蝕，千歲一日可坐而定，豈非善言而有徵乎？後世言天，不本於此者，考驗天象，無一可合，其妄甚矣！

222 하늘에...있다: 『荀子』, 「性惡」. “옛날 일을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에 맞는 절도가 있다. 하늘에 대해 잘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인간에게서 증험할 수 있다.”(王先謙 撰, 『荀子集解』(北京: 中華書局, 2010), 440쪽.)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채침의 『서경집전』에 ‘동지의 일도는 남쪽 아래로 땅과 32도 떨어져 있다.’²²³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것에 근거하여 「천지수간도」를 그렸으니 동지에 해가 지나가는 길이 땅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천지횡간도」에서는 동지의 일도가 기울어져 땅에서 멍니다. 말이 서로 모순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學者問曰：“『書』蔡氏傳云：‘冬至日道，南下去地，三十二度而已。’今子本之，作「豎看圖」，則冬至日道，去地最近。今於「橫看之圖」，以爲冬至日道，斜而遠地。其說相爲矛盾，何也?”

대답했다. “『서경집전』에서 ‘거지(去地)’라고 말한 것은 하늘이 땅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 지금 내가 ‘원지(遠地)’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땅 위에 거주하는 것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 하늘은 땅 밖을 감싸니 그 공간이 넓고 멀어 상하와 사방이 피차간에 하나같다. 사람은 그 가운데 거처하여 그 끝을 볼 수 없는데, 하늘의 상이 아래로 드리워 땅과 더불어 접하는 것과 같은 것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동지의 해는 지극히 멀어서 남쪽에 있으며 땅 밖으로 드러난 하늘과의 거리가 겨우 32도일 따름인데 그 지극히 먼 곳에서 보기 때문에 경사져서 낮다. 이런 까닭에 해와 달이 하늘의 정중앙에서 있으면 가깝고 높으며, 아침과 저녁에 기울어져 있으면 멀고 낮으니 떠 있는 구름이나 우뚝 솟은 산과 같다. 무릇 바라보는 것은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가까우면 높게 보이고 멀면 낮게 보인다. 동지의 해가 기울어져 낮은 것은 땅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다.”

曰：“蔡傳所謂‘去地’者，主天之現於地外者言之也。今吾所謂‘遠地’者，

223 蔡沈, 『書經集傳』, 「虞書·舜典」 5장. 채침의 『서경집전』에는 ‘삼십일도(三十一度)’라고 되어 있다.

主人之居於地上者言之也。天包地外，其空闊遠，上下四方，彼此如一。人居其中，莫見涯渚，天象下垂，若與地接者，遠而望之故也。冬至之日極遠而南，其去天之現於地外者，才三十二度而已，以其極遠而視，故斜而低也。是故日·月正中當天，則近而高；朝夕斜，則遠而低，至如雲氣之浮山嶽之秀，凡所望見者，莫不皆然，近則高，遠則低。冬至之日斜而低者，非其近於地也。”

어떤 사람이 물었다. “여름에 더운 것은 화가 왕성하기 때문이고, 겨울에 추운 것은 수가 왕성하기 때문인데 해의 멀고 가까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或曰: “夏之熱以火旺, 冬之寒以水旺, 豈係日之遠近乎?”

(대답했다.) “무릇 해는 양의 정기인데²²⁴ 여름에 양이 왕성하면 해가 나아가 북쪽으로 천중과 가깝기 때문에 화가 왕성하여 덥고, 겨울에 음이 왕성하면 해가 물러나 남쪽으로 지상과 멀기 때문에 수가 왕성하여 춥다. 이른바 ‘화가 왕성하다’와 ‘수가 왕성하다’라는 것은 음양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으로 말한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夫日，陽精也，夏陽盛，則日進而北近於天中，故火旺而熱；冬陰盛，則日退而南遠於地上，故水旺而寒。所謂‘火旺’·‘水旺’者，卽以陰陽進退而言，非有二也。”

224 무릇...정기인데: 朱熹, 『晦庵先生文公文集』 권65, 『朱子全書』 제23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堯典」, 3155쪽. “해는 양의 정기(精氣)이니, 하루에 땅을 한 바퀴 돌고, 달은 음의 정기(精氣)이니 한 달에 한 번 해와 만난다.”

30. 망전생명지도(望前生明之圖)

해제 「망전생명지도」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달의 크기 변화를 설명하고, 해가 질 때 달의 위치와 달이 지는 시간을 설명하고 있다.



밝음은 양이다. 초삼일에 양이 생겨 점점 자라서 밝음이 처음 생겨나니 이른바 ‘처음으로 밝음이 생겨났다.’²²⁵라고 했다.²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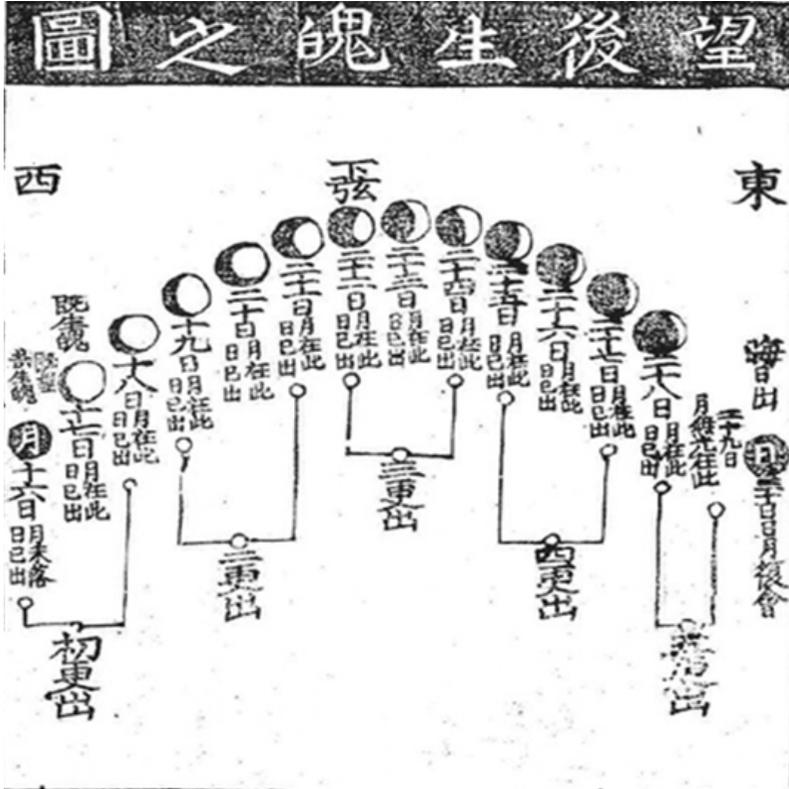
明, 陽也. 初三日陽生浸長, 而明始生, 所謂‘哉生明也’.

225 『書經』, 『周書·武成』.

226 초삼일에…했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32조목, 139쪽. “해와 달이 만나기 때문에 초하루와 초이튿에는 달은 전혀 빛이 없다. 초삼일에 점차 열려서 비로소 미약하게 활시위 모양의 빛이 생기니, 이것이 ‘처음으로 빛이 생겨났다.’라는 것이다. 열린 후 점차 빛나서 보름이 되면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둥글게 된다. 이후에는 다시 점차 서로 가까워지고, 그믐이 되면 다시 합하기 때문에 어두워진다. 달이 차고 기우는 까닭이 이것 때문이다.”

31. 망후생백지도(望後生魄之圖)

해제 「망후생백지도」는 보름 이후 16일부터 30일까지 달의 크기 변화와 해가 뜰 무렵의 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음력 초하루에 양이 비로소 생겨나므로 ‘백이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16일은 보름이 지나서 음이 다시 생겨나므로 ‘백이 생겨난다.’라고 말한다.²²⁷

陰消, 故朔日陽始生, 而謂之死魄. 十六日既望, 而陰又生, 謂之生魄.

해는 양의 정기이니 그 빛은 불과 같고, 달은 음의 정기이니 그 깨끗함은 물과 같다.²²⁸ 그러므로 달은 희고 깨끗하나 비어서 빛이 없고 스스로 비출 수 없어서 반드시 빛을 받은 이후에 빛이 생겨난다.²²⁹ 그 햇빛을 받아 밝음에 차거나 기울어짐이 있는 것은 양이 줄거나 길어지는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해와 달은 매번 30일에 한 번씩 만나니 초하루와 보름 뒤가 모두 15일이다. 이미 만나서 초하루가 되면 해와 달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양이 이제 막 생겨나서 미미한 것을 초하루라고 말하는 것은 소생하여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다. 초삼일에 이른 후에 양이 점점 자라서 밝음이 처음 생겨난다.²³⁰ 1일에 1분씩 자라나면 음이 점점

227 음이…말한다: 朱熹, 『朱子語類』 권3,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4조목, 163쪽. “백(魄)이 생기는 것과 백이 없어지는 것에 관해 물었다. 대답했다. ‘옛사람들은 단지 ‘15일 동안 차오르고, 15일 동안 기울어간다.’라고만 말했다. 근래의 어떤 사람이 달이 차고 기우는 까닭은 바로 백이 빛을 받기 때문이며, 백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람 가운데 백이 먼저 쇠하는 때도 있고, 혼(魂)이 먼저 쇠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래에 여러 번登高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백이 먼저 쇠하는 경우이다.”

228 해는…같다: 朱熹, 『晦庵先生文公文集』 권65, 『朱子全書』 제23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堯典」, 3155쪽. “해는 양(陽)의 정기(精氣)이니, 하루에 땅을 한 바퀴 돌고, 달은 음(陰)의 정기이니 한 달에 한 번 해와 만난다.”

229 그러므로…생겨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19조목, 134쪽. “달은 다만 태양 빛을 받을 뿐이다. 달의 형질은 항상 둥글고 이지러진 적이 없고, 마치 둥근 공과 같아서 한쪽 면만 태양 빛을 받을 뿐이다.”

230 초삼일에…생겨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59조목, 134쪽. “물었다. ‘역법에서는 어떻게 한 달의 크고 작

물러나서 달이 해와 멀어지고 밝음이 점점 많이 생겨나 초 7~8일에 이르러 그 밝음이 정확히 반달이 되어 활을 펼친 것과 같으니 상현이라 한다. 15일에 이르면 양의 자람이 이미 극에 이르러 그 빛이 가득하며, 해와 달이 동과 서로 정반대에 위치하여 서로 바라보니 보름이라고 한다. 16일이 되면 음이 또 생겨나고 또한 1분씩 자라나면 음이 점점 나아가 달이 해와 가까워져서 그 밝음이 점점 줄어든다. 23~24에 이르면 겨우 반 정도의 밝음이 있으며 이지러짐으로 나아가니 활이 풀어진 것과 같아서 하현이라 말한다.²³¹ 30일에 이르면 음의 생겨남이 이미 극에 이르러 해와 달이 다시 만나고 달빛은 모두 사라진다. 이것은 달에 본래 빛이 없지만, 해의 빛을 받으니 양의 줄어듦과 늘어남에 따라 가득함과 이지러짐이 있는 것이다.²³² 그러므로 초하루 이후에 해가 서쪽에 있으

음을 추산합니까?’ 대답했다. ‘단지 매월 29 $\frac{1}{2}$ 일과 $\frac{29}{640}$ 일로 계산하여 그 초하루 때 어떠한지를 본다. 만약 전달이 컸다면[30일] 그다음 달에는 초이튿에 달이 밝아진다. 전 달이 작았다면[29일] 그다음 달에는 초삼일에 달이 밝아진다.’”

231 1일에…말한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1조목, 135쪽.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된다. 달이 보름일 때는 바로 태양이 땅의 한가운데에 있고, 달은 하늘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기 때문에 태양 빛이 달에 이르러서 사면은 다시 이지러짐이 없다. 오로지 가운데만 약간 가려 그늘진 곳이 있으니, 이것은 땅의 그림자가 가린 것일 뿐이다. 태양과 달이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일 때, 태양 빛은 단지 달의 반쪽에만 미치기 때문에 상현(上弦)이 된다. 다시 그 다른 반쪽이 줄어들면 하현(下弦)이 된다. 매일 밤마다 차고 이지러지는 것은 모두 이로써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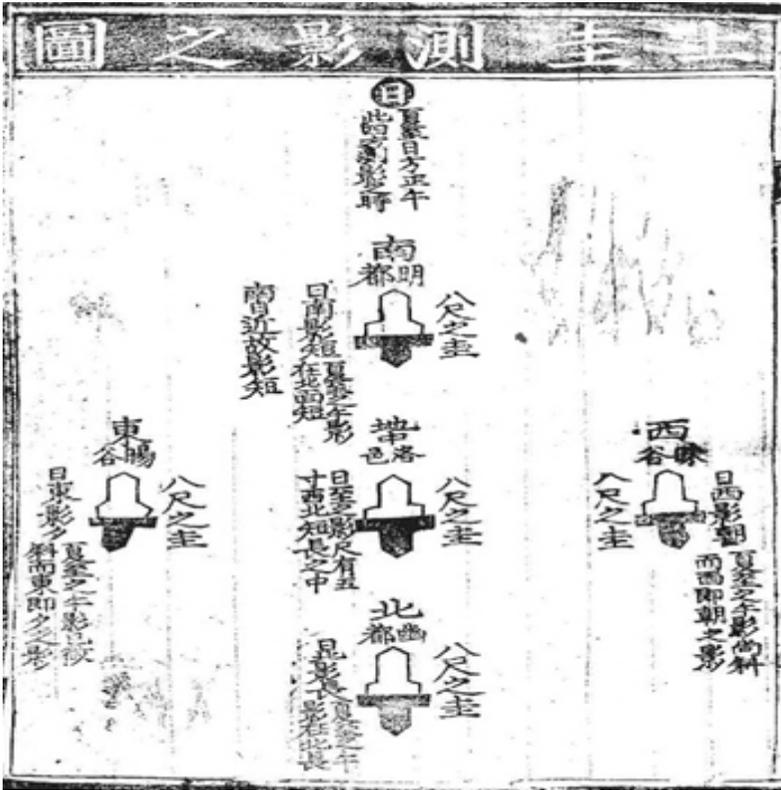
232 이것은…것이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29조목, 139쪽. “물었다. ‘달은 본디 빛이 없는데 태양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됩니다. 체계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태양은 땅의 가운데 있고 달은 하늘 위에서 운행한다고 하자. 빛나는 까닭은, 태양의 기(氣)가 땅의 사방주위의 빈 곳으로부터 솟아 나오므로 달이 그 빛을 받는 것이다.’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달이 어떻게 태양 빛을 받겠는가? 그믐에 태양이 위에 있고 달이 아래에 있다면 달의 표면에서 하늘을 향한 면은 빛이 있고 땅을 향한 면은 빛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볼 수 없다. 보름이 되면 달에서 사람들을 향해 있는 면은 빛이 있고, 하늘을 향한 면은 빛이 없게 되므로 달이 둥글게 보인다.’”

면 밝음이 서쪽에서 생겨나고 보름 이후에 해가 동쪽에 있으면 밝음이 동쪽에 있다. 혹자가 말하기를 “달에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해와 가까우면 빛이 미미하므로 어둡고, 해와 멀면 그 빛이 성대하기 때문에 밝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말이다. 이와 같다면 초하루 후에 해가 서쪽에 있을 경우 밝음이 동쪽에서 마땅히 생겨나야 하고, 보름 후에 해가 동쪽에 있을 경우 밝음이 서쪽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日, 陽精, 其光如火; 月, 陰精, 其潔如水. 故月雖皎潔, 虛而無光, 不能自照, 必受日光, 而後明生焉. 其受日光, 而明有圓缺者, 隨其陽之消長也. 日月每三十日一會, 朔望之後, 皆十五日, 既會而朔, 則日月始離. 陽方生而微, 謂之朔者, 蘇而復生也. 至初三日, 然後陽浸長, 而明始生. 每一日長一分, 則陰漸退, 月遠於日, 而明生浸多, 至初七八日, 其明正半如弓之張, 謂之上弦. 至十五日, 陽長已極, 其明正滿, 日月正對於東西而相望, 謂之望. 既望則陰又生, 亦長一分, 則陰漸進, 月近於日, 而其明漸減. 至二十三, 僅存半明, 以就於缺, 如弓之弛, 謂之下弦. 至三十日, 陰生已極, 日月復會, 月光都盡. 是則月本無光, 受日之光, 隨陽消長, 以有盈缺也. 故朔後日在西, 則明生於西; 望後日在東, 則明存於東也. 或曰: “月非無光, 但近日則其光微故晦, 遠日則其光盛故明”, 非也. 如此, 則朔後日在西, 明當生於東, 望後日在東, 明當存於西矣, 其不然審矣!

32. 토규측영지도(土圭測影之圖)

해제 「토규측영지도」는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나오는 해의 그림자 측정법²³³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의 그림자의 측정은 왕이 직접 다스리는 기내(畿內)의 범위를 정하고 공작(公爵), 제후(諸侯),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 등에게 봉토를 나눠주는 기준이 된다.



233 해의…측정법: 토규측영(土圭測影)은 해의 그림자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례』 「대사도」에서는 “토규법으로 땅의 깊이를 헤아리고, 해의 그림자를 바르게 하여 땅의 중앙을 구한다. 해가 남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짧아 매우 덥고, 해가 북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길어 매우 춥고, 해가 동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치우쳐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서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길어져서 음지가 많다.”라고 했다.

『주례』 「대사도」의 그림자 측정법을 살펴보자.²³⁴ 주공이 다섯 곳에 표식을 설치하고 해의 그림자를 측정했으며, 중심이 되는 표식은 영천(潁川) 양성(陽城) 땅 가운데에 두었는데 낙양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중심이 되는 표식에서 1,000리 밖의 사방에 각각 하나의 표식을 설치했는데 길이가 모두 8척이다. 해의 그림자를 바로잡는 방법은 반드시 하릿날 물시계[晝漏]²³⁵가 중앙에 있을 때 측정해야 한다. 중심이 되는 표식의 그림자는 정북 방향에 있고 그 길이는 1척 5촌이다. 동쪽에 있는 표식의 그림자는 물시계가 중앙에 있을 때, 해는 정오인데 해의 그림자는 이미 기울어져 동쪽에 있어서 이미 석양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영석(影夕)²³⁶이라고 말한다. 서쪽에 있는 표식의 그림자는 아침나절의 해 그림자가 그때까지 표식의 서쪽에 있으므로 영조(影朝)²³⁷라고 말한다. 남쪽에 있는 표식의 그림자는 1척 4촌이고, 북쪽에 있는 표식의 그림자는 1척 6촌이다. 해의 그림자가 1,000리마다 1촌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쪽의 표식은 해가 중앙에 있을 때 그림자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의 표식은 해가 중앙에 있을 때 그림자는 동쪽으로 간다. 북쪽의 그림자는 길고 남쪽의 그림자는 짧는데,²³⁸ 오직 중심이

234 『주례』…살펴보자: 8척(尺)의 막대인 표식을 천하의 중앙에 꽂아 놓고 하지(夏至) 정오에 그림자의 길이를 재면 1척 5촌 되는 토규(土圭)의 길이에 맞는 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이 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천하의 중앙에서 1,000리를 벗어날 때마다 표의 그림자 길이에 1촌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 일동(日東)이란, 중앙에서 동쪽을 치우친 지역 즉 낙양에서 동쪽으로 1,000리 떨어진 곳을 가리킨다. 일서(日西), 일남(日南), 일북(日北)도 같은 뜻이다.

235 물시계[晝漏]: ‘루(漏)’는 누각(漏刻), 즉 물시계를 말한다. 고대에는 누각으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낮에는 ‘주루(晝漏)’라고 하고, 밤에는 ‘야루(夜漏)’라고 했다.

236 영석(景夕): 정오에는 표식의 그림자가 토규의 길이에 맞지 않고 오후가 되어야 그림자의 길이가 토규에 맞는다는 뜻이다.

237 영조(景朝): 정오가 되기 전에 표의 그림자가 이미 토규의 길이에 맞는다는 뜻이다.

238 북쪽의…짧은데: ‘그림자가 짧다[影短]’는 것은 정오(正午)에 표식의 그림자가 토규(土圭)보다 짧다는 뜻이고, ‘그림자가 길다[影長]’는 것은 정오에 표식의 그림자가 토규보

되는 표식의 그림자가 그 증정을 얻었기 때문에 천지의 중앙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동쪽은 양이 많고 서쪽은 음이 많으며, 남쪽은 많이 덥고 북쪽은 많이 추운데, 낙양은 비바람이 모이는 곳이며 음양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²³⁹ 사방의 도리(道里)와 원근이 균등하니 그곳이 땅의 중앙임을 믿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서남 변방 밖이 땅의 중앙이 되다.’라고 말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按『周禮·大司徒』測影之法。周公置五表，測日影，中表在潁川陽城地中，近洛之地也，去中表千里外，四方各置一表，長皆八尺。凡正日影，必以夏至日晝漏中而測之。中表之影，正在北，而其長一尺五寸。東表之影，晝漏方中，日方正午，影已斜而在東，已得夕影，故曰影夕。西表之影，仍得朝時之影，尙在表西，故曰影朝。南表之影，只得一尺四寸，北表之影，一尺六寸。蓋日影，每千里差一寸，故東表，日方中而影已夕；西表，日方中而影尙朝。北長而南短，唯中表之影，得其中正，故謂之天地之中，而況東多陽，西多陰，南多暑，北多寒，洛邑風雨之所會，陰陽之所和也。四方道里·遠近均焉，其爲地中，信矣。或者乃謂西南塞外，爲地中者，何所據乎？

다 길다는 뜻이다.

239 더욱이...곳이다: 朱熹, 『晦庵先生文公文集』 권65, 『朱子全書』 제23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大禹謨」, 3183쪽. “왕안석(王安石)이 말하기를 성왕이 낙읍에 거처하고자 한 것은 하늘의 일로써 말한다면, 해가 동쪽에 있으면 아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양이 많고, 해가 서쪽에 있으면 저녁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음이 많으며, 해가 남쪽에 있을 때 그림자는 짧아서 더위가 많고[하지], 해가 북쪽에 있을 때 그림자는 길어서 추위가 많다[동지]. 낙읍은 천지 가운데 바람과 비가 모이는 곳이며, 음양이 화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33. 토왕사계지도(土旺四季之圖)

해제 「토왕사계지도」는 사계절의 변화와 목화토금수 오행(五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 년 사계절과 오행의 상관성은 봄/목 72일, 환절기/토 18일, 여름/화 72일, 환절기/토 18일, 가을/금 72일, 환절기/토 18일, 겨울/수 72일, 환절기 토 18일, 이렇게 1년 360일로 구성된다.



오행의 기운이 사계절에 퍼진다. 봄에는 목의 기운이 왕성하여 기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화의 기운이 왕성하여 기가 덥고, 가을에는 금의 기운이 왕성하여 기가 서늘하고, 겨울에는 수의 기운이 왕성하여 기가 차고, 토의 기운은 사계절에 내내 왕성하여 기가 부드럽고 온화하다.²⁴⁰ 목·화·금·수는 각각 72일간 왕성하고 토는 사계절에서 각각 18일간 왕성하니 그것을 합하면 또한 72일이다.²⁴¹ 오행이 운행하는 순서로써 말하면 목·화·토·금·수이니 「고요모」의 오신(五辰)²⁴²이 이것이다. 상극의 순서로써 말하면 수·화·금·목·토이니 「우모」의 육부(六府)²⁴³가 이것이다. 생성의 순서로써 말하면 수·화·목·금·토이니 「홍범」의 초일(初一)²⁴⁴이 이것이다.

240 봄에는…온화하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53조목, 123쪽. “하늘의 일(一)은 수(水)를 낳고, 땅의 이(二)는 화(火)를 낳는다. 수를 낳는다는 것은 본래 습한 것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목(木)의 기운은 곧 부드러운 성질을 타고난 것이고, 금(金)의 기운은 곧 딱딱한 성질을 타고난 것이다. 오행(五行)에 대한 설은 『정몽(正蒙)』에서 말한 것이 좋다.”

241 목·화·금·수는…72일이다: 朱熹, 『朱子語類』 권2, 『朱子全書』 제14책(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安徽教育出版社, 2002), 53조목, 123쪽·57조목, 124쪽. “토(土)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의 역학가들은 사계절의 달에서 각기 18일씩을 토로 삼아서 모두 72일을 배당한다. 만약 사계절에 오행을 배당할 경우, 십간(十干)으로 추론하더라도 역시 (토는) 72일이 된다.”

242 오신(五辰): 『書經』, 「皋陶謨」. “사계절에 따라 할 일을 모두 제대로 함으로써 모든 일이 바랍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撫于五辰, 庶績其凝.]”

243 육부(六府): 『書經』, 「大禹謨」. “덕은 정사를 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사는 백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니, 수·화·금·목·토와 곡식이 잘 닦여지며, 정덕과 이용과 후생이 화하여, 아홉 가지 공이 퍼져서 아홉 가지 퍼진 것을 노래한다.[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惟修, 正德利用厚生惟和, 九功惟敘, 九敘惟歌.]」 『춘추좌전』, 「문공」 7년. “육부(六府)와 삼사(三事)를 아홉 가지 공이라고 한다. 수·화·금·목·토·곡은 육부라고 말하고,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은 삼사라고 말한다.[六府三事, 謂之九功. 水火金木土穀, 謂之六府; 正德利用厚生, 謂之三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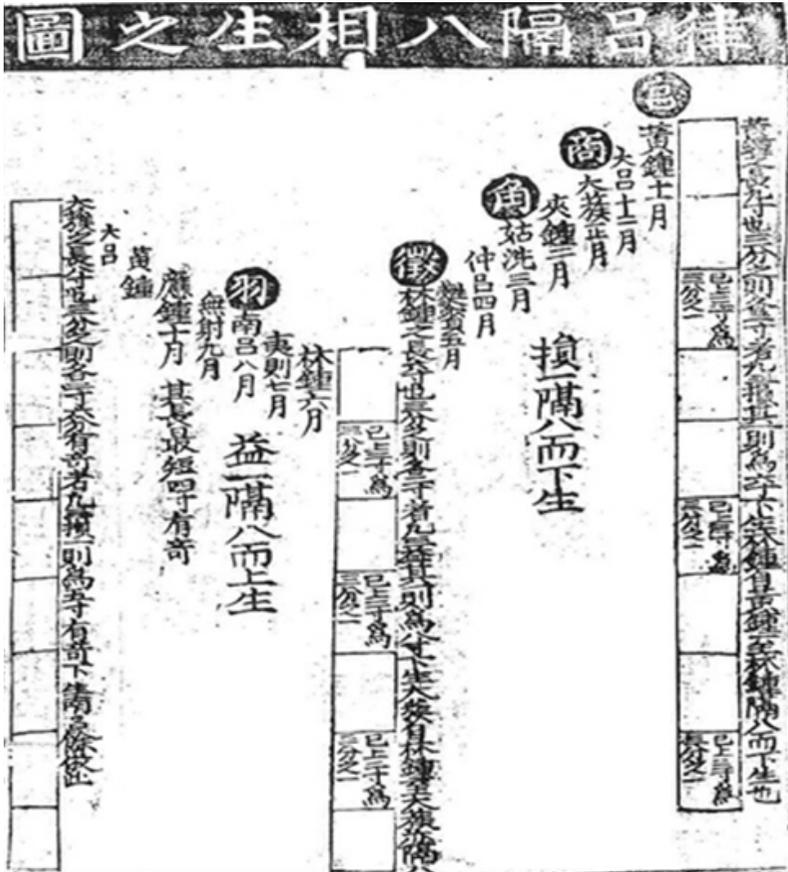
244 초일(初一): 『書經』, 「洪範」. “홍범구주의 첫 번째는 오행이고, 다음 두 번째는 공경하되 오사로써 함이요, 다음 세 번째는 농사에 팔정을 씀이요, 다음 네 번째는 합함을 오기로써 함이요, 다음 다섯 번째는 세움을 황극으로써 함이요, 다음 여섯 번째는 다스림을 삼덕으로써 함이요, 다음 일곱 번째는 밝힘을 계의로써 함이요, 다음 여덟 번째는 상고함

五行之氣播於四時. 春, 木旺而氣燠. 夏, 火旺而氣熱. 秋, 金旺而氣涼. 冬, 水旺而氣寒. 土, 寄旺於四季而其氣沖和. 木·火·金·水各旺七十二日, 而土於四季, 各旺十八日, 合之亦爲七十二日也. 五行有以流行之序言者, 則曰木·火·土·金·水, 「皐陶謨」之五辰, 是也. 有以相克之序言者, 則曰水·火·金·木·土, 「禹謨」之六府, 是也. 有以生成之序言者, 則曰水·火·木·金·土, 『洪範』之初一, 是也.

을 서징으로써 함이요, 다음 아홉 번째는 향함을 오복으로써 하고 위업을 보임을 육극으로써 한다.[初一日五行, 次二日敬用五事, 次三日農用八政, 次四日協用五紀, 次五日建用皇極, 次六日乂用三德, 次七日明用稽疑, 次八日念用庶徵, 次九日嚮用五福威用六極.]”

34. 율려격팔상생지도(律呂隔八相生之圖)

해제 「율려격팔상생지도」²⁴⁵는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을 통해 12울(十二律)을 얻는 방법과 5성(五聲)과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황중울관(黃鍾律管)을 셋으로 나누어 떨어내고[損] 보태[益]는 과정을 통해 12울을 얻는다.



245 성현 지음, 럽정권 역, 『악학궤범(북역)』(아름출판공사(영인본), 1956), 45~52쪽 참조. 「율려의 격팔상생법과 응기설의 도표와 해설」 부분을 참조.

양율(陽律)은 그 길이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덜어내면 음려(陰呂)가 생겨나므로 ‘아래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한다. 음려는 그 길이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보태면 양율이 생겨나므로 ‘위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한다. 모두 왼쪽으로 8위를 가서 율이 서로 생겨난다. 황종은 첫 번째 궁이 되고 그 길이는 9촌이다. 8위를 가서 아래에서 임종을 생하니 치가 되고, 그 길이는 6촌이다. 임종은 8위를 가서 위에서 태주를 생하니 상이 되며 그 길이는 8촌이다. 오직 이 3개의 율의 길이는 모두 온전한 촌으로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 9개의 율은 나머지가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다. 태주는 아래에서 남려를 생하니 우가 된다. 남려는 위에서 고선을 생하니 각이 된다. 임종은 두 번째 궁이고, 궁은 치를 생하고, 치는 상을 생하고, 상은 우를 생하고, 우는 각을 생하고, 중려에 이르러 열두 번째 궁이 된다. 위로 황종을 생하여 치가 되고, 아래로 임종을 생하여 상이 되고, 위로 태주를 생하여 우가 되고, 아래로 남려를 생하여 각이 된다. 12궁은 각기 5성(五聲)이 있고, 그 변화는 모두 60개의 성이다. 궁, 치, 상, 우, 각은 8위를 가서 서로 생하는 순서이다. 궁, 상, 각, 치, 우는 성의 청탁과 장단의 순서이다. 5성과 6율과 12관은 서로 선회하여 궁이 되고, 전체를 두루 선회하고 다시 시작하여 그 변화를 다한다.

陽律三分其長，損一分而生陰呂曰下生；陰呂三分其長，益一分而生陽律曰上生，皆左旋隔八律而相生。黃鍾爲第一宮，其長九寸。隔八下生林鍾爲徵，其長六寸。林鍾隔八上生大簇爲商，其長八寸。惟此三律長，皆全寸而無餘分。其餘九律，餘分參差而不齊。大簇下生南呂爲羽，南呂上生姑洗爲角。林鍾爲第二宮，宮生徵，徵生商，商生羽，羽生角，以至仲呂爲第十二宮。上生黃鍾爲徵，下生林鍾爲商，上生大簇爲羽，下生南呂爲角。十二宮，各有五聲，其變凡六十聲。宮·徵·商·羽·角者，隔八相生之序也；宮·商·角·徵·羽者，聲之清濁·長短之序也。五聲·六律·十二管，旋相爲

宮，周而復始，以盡其變也.

배우는 사람이 물었다. “황종의 길이는 9촌이며, 대려 이하 올려는 서로 간여해 응종에 이르러 극에 이르게 됩니다. 응종의 길이는 겨우 4촌 반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올려격팔상생지도」는 임종에 이르러 극에 이릅니다. 이칙으로부터 아래에서 다시 점점 차이가 나서 위로 황종을 지나 태주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임종이 가장 짧은 것 같고, 대려와 태주는 도리어 황종 위에 있게 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學者問曰：“黃鍾之長九寸。大呂以下，律呂相間，至應鍾而極焉。應鍾之長，才四寸半而已。今子之「圖」，至林鍾而極。自夷則而下又漸差而上歷黃鍾，而至大簇，則是若林鍾最短，而大呂·大簇，反在黃鍾之上，何也?”

대답했다. “옛날의 원도는 종횡으로 어지러워, 배우는 자가 그 손익과 장단이 위아래에서 생겨남을 살피지 못했다. 지금 이 「도」를 만들어, 다만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를 덜어내어 8위를 가서 아래에서 생겨나고, 하나를 더해 8위를 가서 위에서 생겨남을 명확히 알게 했다. 그러므로 임종으로부터 점점 차이가 나서 위로 태주에 이르게 된다. 임종이 가장 짧은 것이 아니라 이칙 이하는 또한 점차 길어진다.”

曰：“古之圓圖，縱橫旁午，學者不能察其損益長短，而上下之生也。今爲此『圖』，但使學者，曉然知其損一隔八而下生，益一隔八而上生也。故自林鍾漸差，而上以至大簇。非以林鍾最短，而夷則以下，又漸次而長也。”

35.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

해제 「오성팔음지도」는 5성(五聲)과 8음(八音) 및 5기(五氣)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궁(宮)은 중앙을 의미한다. 중앙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퍼져 앞서 선창하고 생성되게 하니, 네 가지 성[상·각·치·우]의 버리가 되고, 군자를 상징한다. 그 성질은 둥글고 그 소리는 소가 움막에서 우는 것 같아 화합을 위주로 한다. ○상(商)은 꾸밈을 의미한다. 사물이 성숙하여 의장과 법도가 있을 수 있다. 그 성질은 모가 지고 그 소리는 양이 무리에서 흩어지는 것 같아 퍼지는 소리를 주로 하며, 신하를 상징한다. ○각(角)은 저축을 의미한다. 사물이 땅을 뚫고 나와 까끄라기를 이고 있다. 그 성질은 곧고 그 소리는 닭이 나무 위에서 우는 것과 같아 솟아나는 소리를 위주로 하며, 백성을 상징한다. ○치(徵)는 복을 의미한다. 사물이 성대하게 되어 복을 번성하게 한다. 그 성질은 명쾌하여 분별할 수 있고 그 소리는 놀란 돼지 소리같이 분별 되는 소리를 위주로 하며, 일을 상징한다. ○우(羽)는 집을 의미한다. 물건을 모으고 저장하여 집에 쌓아 둔다. 그 성질은 축축하여 사물을 적셔주고 그 소리는 말이 들에서 우는 것과 같아 토해내는 소리를 위주로 하며, 사물을 상징한다.²⁴⁶ ○

246 궁(宮)은…상징한다: 「오성팔음지도(五聲八音之圖)」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성현 지음, 럽정권 역, 『악학궤범(북역)』(아름출판공사(영인본), 1956), 60~68쪽 참조. 『악서』에 이르기를 “대체 생명이 있는 물건은 감정이 있고 감정이 움직이면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수(天數) ‘오(五)’가 지수(地數) ‘십(十)’과 합하여 토(土)를 중앙에 생하니 그 소리 궁(宮)이 되고, 지수 ‘사(四)’가 천수 ‘구(九)’와 합하여 금(金)을 사방에 생하니 그 소리 상(商)이 되고, 천수 ‘삼’이 지수 ‘팔’과 합하여 목을 동방에 생하니 그 소리가 각(角)이 되고, 지수 ‘이’가 천수 ‘칠’과 합하여 화(火)를 남방에 생하니 그 소리 치(徵)가 되고, 천수 ‘일’이 지수 ‘육’과 합하여 수를 북방에 생하니 그 소리 우(羽)가 된다.” 하였다. 궁은 중이란 뜻이니 중앙에 있어서 사방에 통해 미치며 악의 시초를 창도하며 생명을 베풀어 사성(四聲: 상·각·치·우)의 버리가 된다. 그 성질은 원만하고 그 소리는 소가 굴 안에서 우는 것 같아 화합을 위주로 하므로 궁은 무위(無爲)하여 만물을 덮어 주니 군상(君上)의 형상이다. 신민(臣民)을 능히 통여할 수 있으며 그 소리 웅혼하여 조화하면 정사가 화합하며 나라가 편안하고 어지러우면 나라가 위태롭다. 그 사수(絲數)는 ‘81’이며 3분하여 1분을 덜어 아래로 치(徵)를 낳는다. 치는 지(祉)의 뜻이니 사물이 성하고 장대하여 번영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이룸이다. 그 성질은 명쾌하여 사물을 변별하며 그 소리는 지고 가는 돼지 소리 같이 분별함을 위주로 한다. 치는 사물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이니 일의 형상이다. 물(物)을 능히 성취시킬 수 있으며 그 소리

금(金)은 그 괘가 태(兌)이고, 그 방위는 서쪽이고, 그 바람은 가을바람
 이고, 그 성은 봄의 경치 같고, 그 음은 옥소리 같고, 추분의 기이다.²⁴⁷
 ○석(石)은 그 괘가 건(乾)이고, 그 방위는 서북쪽이고, 그 바람은 주밀

는 감탄적이다. 조화되면 온갖 일이 정리되며 어지러우면 모든 업적이 무너진다. 그 사수(絲數)는 '54'이며, 3분하여 그 1을 더하여 위로 상(商)을 낳는다. 상(商)은 장(章)의 뜻이니 물(物)이 성숙하면 문채를 이루며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성질은 모가 지고 그 소리는 양(羊)의 무리가 흠어지는 것 같아 벌여 퍼지는 것을 주로 한다. 상(商)은 포부가 있고 사물에 통달하기 때문에 신하의 형상이다. 백성을 능히 다스릴 수 있으며 그 소리는 쨍쨍하여 조화되면 형법을 쓰지 아니하여도 위령이 행하여지고 어지러우면 그 관기(官紀)가 훼손한다. 그 사수(絲數)는 '72'이며 3분하여 1을 떨어 아래로 우(羽)를 낳는다. 우(羽)는 우(宇)의 뜻이니 물건이 모이면 간직하고 덮어야 하는 것을 이름이다. 그 성질은 축축하여 사물을 적시며 그 소리는 말(馬)이 들에서 우는 것과 같이 토설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우는 때에 따라 견고 베푸니 물건의 형상이므로 능히 활용할 수 있다. 그 소리 후후(誦誦: 소리가 푹이 넓고 큰 것을 형용하는 말)하여 조화되면 창릉(倉廩)이 차며 백물이 구비하고 어지러우면 재용이 결핍한다. 그 사수는 '48'이며 3분의 1을 더하여 위로 각(角)을 낳는다. 각(角)은 저축의 뜻이니 풀이 흙을 떠받고 나와 까락과 뿔을 이고 있는 것을 이름이다. 그 성질은 직(直)하고 그 소리는 닭이 나무에서 우는 것과 같아 솟아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각은 반기를 잘하여 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성의 형상이다. 능히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 그 소리는 악악(囁囁: 닭 울음소리를 형용하는 말로 소리가 높고 큼을 말한 것)하여 조화되면 사민(四民)이 편안하며 어지러우면 백성이 원망한다. 그 사수는 '64'이며 번궁 변치를 낳는다.”

247 금(金)은…기이다: 『欽定四庫全書』, 『樂書』, 「八音從風圖」 참조. “지극히 잘 다스러지는 세상과 천지의 기가 합하여 풍(風)을 생성한다. 하지와 동지에는 곧 달이 그 바람을 모아서 십이율을 생하므로 양음이 말하기를 ‘포(匏)·죽(竹)·혁(革)·목(木)·토(土)·금(金)을 갈라서 새기고 석(石)을 치고 사(絲)를 연주하여 천하와 견줄 수 있는 여덟 개의 바람을 조화시킨다’라고 하였으며, 좌씨(左氏)가 팔음을 논하여 말하기를 ‘여덟 개의 바람을 이룬다’라고 하고, 무(舞)를 논하기를 ‘팔음을 마디로 나누어 팔풍이 행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추론해 보건대, 팔풍은 팔괘는 본뜬 것이다. 그 본떠서 만든 소이는 팔음의 절목이 행해지는 것은 팔일의 무(舞)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개 사역(朔易)을 주관하는 것은 감(坎)이므로 그 음은 혁(革)이고, 그 바람은 광막풍이다. 과일이 되는 것은 간(艮)이므로, 그 음은 포(匏)이고, 그 바람은 융풍이다. 진(震)은 죽(竹)이 되므로 그 음은 죽(竹)이고 그 바람은 명서풍이다. 손(巽)은 목(木)이 되므로, 그 음은 목(木)이고, 그 바람은 청명풍이다. 태(兌)는 금(金)이므로, 그 음은 금(金)이고, 그 바람은 창합풍이다. 건(乾)은 옥(玉)이 되므로, 그 음은 석(石)이 되고, 그 바람은 불주풍이 된다. 질그릇 만드는 흙은 그릇이 되므로, 곤(坤)의 음은 토(土)이고, 그 바람은 양풍이다. 잡화(蠶火)는 정(精)이므로, 리(離)의 음은 사(絲)이고, 바람은 경풍이다. 이 정북(正北)의 바람은 황종의 울을 따르니, 황종은 동지의 기이다.” 이에 대해서 “『악학궤범』, 「팔음의 도표와 해설』, 70쪽” 참조.

하지 않고, 그 성은 온화하고 윤택하며, 그 음은 분명하고, 입동의 기이다. ○사(絲)는 그 괘가 리(離)이고, 그 방위는 남쪽이고, 그 바람은 온화한 남풍이고, 그 성은 섬세하고, 그 음은 슬프고, 하지의 기이다. ○죽(竹)은 그 괘가 진(震)이고, 그 방위는 동쪽이고, 그 바람은 셋바람이고, 그 성은 소리가 맑고 가락이 높고, 그 음은 넘쳐나고, 춘분의 기이다. ○포(匏)는 그 괘가 간(艮)이고, 그 방위는 동북쪽이고, 그 바람은 온화하고, 그 소리는 여러 음이 동시에 모여 울리고, 그 음은 요란스럽고, 입춘의 기이다. ○토(土)는 그 괘가 곤(坤)이고, 그 방위는 서남쪽이고, 그 바람은 서늘하고, 그 소리는 감싸는 듯하고 낮고, 그 음은 탁하고, 입추의 기이다. ○혁(革)은 그 괘가 감(坎)이고, 그 바람은 넓고, 그 소리는 풍부하고 크며, 그 음은 시끄럽고, 동지의 기이다. ○목(木)은 그 괘가 손(巽)이고, 그 방위는 동남쪽이고, 그 바람은 청명하고, 그 소리는 여음이 없고, 그 음은 곧고, 입하의 기이다.²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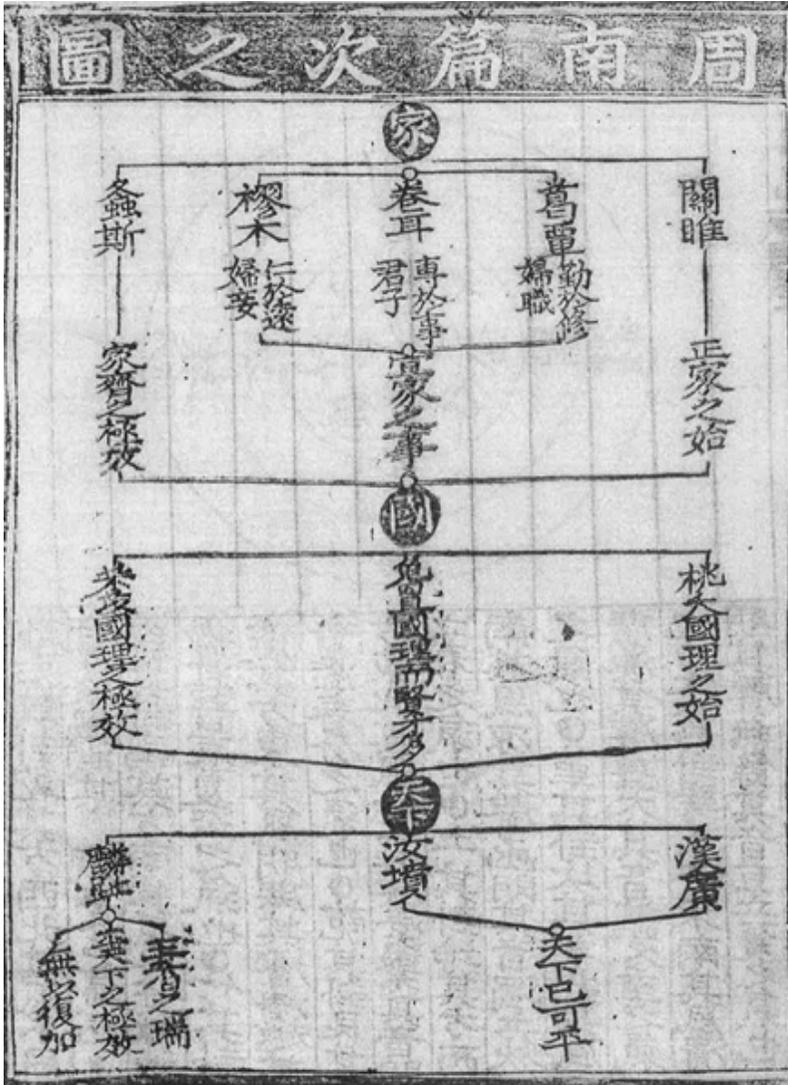
宮, 中也. 居中央暢四方, 唱始施生, 爲四聲之綱, 君之象也. 其性圓, 其聲若牛之鳴窮而主合. ○商, 章也. 物成熟可章度也. 其性方, 其聲若羊離群而主張, 臣之象也. ○角, 觸也. 物觸而出, 戴芒角也. 其性直, 其聲若

248 석(石)은…기이다: 성현 지음, 럽정권 역, 『악학궤범(북역)』(아름출판공사(영인본), 1956), 69~73쪽에 있는 「팔음의 도표와 해설」 참조. “『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팔음을 팔괘와 팔풍에 배열하면 금음(金音)은 태괘(兌卦)와 창함풍(闡闡風)에, 석음(石音)은 건괘(乾卦)와 부주풍(不周風)에, 사음(絲音)은 리괘(離卦)와 경풍(京風)에, 죽음(竹音)은 진괘(震卦)와 명서풍(明庶風)에, 포음(匏音)은 간괘(艮卦)와 융풍(融風)에, 토음(土音)은 곤괘(坤卦)와 양풍(涼風)에, 혁음(革音)은 감괘(坎卦)와 광막풍(廣漠風)에, 목음(木音)은 손괘(巽卦)와 청명풍(清明風)에 각각 해당한다.” 또 “팔음의 소리와 악기를 팔절(八節: 여덟 절기)에 분속하면 금성(金聲)은 용용(容容)하여 추분 절후의 음이니, 종(鐘)이 대표적이며, 석성(石聲)은 온윤(溫潤)하여 입동 절후의 음이니 경(磬)이 대표적이며, 사성(絲聲)은 섬미(纖微)하여 하지의 음이니 금(琴)과 슬(瑟)이 대표적이며, 죽성(竹聲)은 승취(崇聚)하여 입춘 절후의 음이니 생(笙)과 우(竽)가 그에 속하며, 토성(土聲)은 함호(函胡)하여 입추 절후의 음이니 훈(壎)과 부(缶)가 그에 속하며, 혁성(革聲)은 융대(融大)하여 동지 절후의 음이니 도(鼗)와 고(鼓)가 그에 속하며 목성(木聲)은 여음이 없으므로 입하의 절후의 음이니 축(柷)과 어(敔)가 그에 속한다.”

雞木而主湧, 民之象也. ○徵, 祉也. 物盛大而繁祉也. 其性明而辨, 其聲若豕駭而主分, 事之象也. ○羽, 宇也. 物聚藏而覆宇也. 其性潤而澤, 其聲若鳥野而主吐, 物之象也. ○金, 其卦兌, 其方西, 其風闐闐, 其聲春容, 其音鏗, 秋分之氣也. ○石, 其卦乾, 其方西北, 其風不周, 其聲溫潤, 其音辨, 立冬之氣也. ○絲, 其卦離, 其方南, 其風景, 其聲纖微, 其音哀, 夏至之氣也. ○竹, 其卦震, 其方東, 其風明庶, 其聲清越, 其音濫, 春分之氣也. ○匏, 其卦艮, 其方東北, 其風融, 其聲崇聚, 其音啾, 立春之氣也. ○土, 其卦坤, 其方西南, 其風涼, 其聲函胡, 其音濁, 立秋之氣也. ○革, 其卦坎, 其方北, 其風廣漠, 其聲豐大, 其音謹, 冬至之氣也. ○木, 其卦巽, 其方東南, 其風清明, 其聲無餘, 其音直, 立夏之氣也.

36. 주남편차지도(周南篇次之圖)

해제 「주남편차지도」는 『시경』 「주남」편의 시 11편을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의 연관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시경』 「주남」 1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관저」는 집안을 바르게 하는 시작이다. 「갈담」·「권이」·「규목」편은 집안을 마땅하게 하는 일이다. 부인의 직분 닦는 것을 삼가고, 군자 섬기는 것을 오로지 하고, 첩들에게 인하게 하니, 부인의 덕이 갖추어져 집안의 도가 바라진다. 「종사」편은 곧 자손의 무리가 많아지고 복과 경사가 후세에 미쳐서 집안이 잘 다스려진 지극한 효험이다. 「도요」는 국가가 다스려지는 시작이다. 「토저」는 국가가 이미 다스려져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관저」편의 숙녀는 다만 “군자의 좋은 배필이다.”²⁴⁹라고 말할 뿐이며, 「증립」·「무부」편에서는 이미 “공후의 좋은 배필이다.”²⁵⁰라고 말하고, 또 “공후의 심복이다.”²⁵¹라고 말하니, 문왕의 덕을 좋아하고 색(色)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자는 문왕의 마음을 아는구나! 「부이」편의 시는 부인이 그 일한 것을 읊어서 노래하니, 다만 스스로 그 마음속의 즐거움을 형용했을 따름이다. 한 글자도 찬미하는 말이 없지만, 또한 문왕의 교화가 하늘의 큼과 같아서 온 세상이 봄바람과 온화한 기운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음을 볼 수 있으니, 이른바 『맹자』 「진심상」의 “왕업을 이룬 자의 백성은 만족”²⁵²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잘 다스려진 지극한 효험이다. 「한광」과 「여분」편은 천하가 이미 평화롭게 다스려진 것이고, 「인지지」는 왕업을 이룬 자의 상서로운 조짐이며, 성스럽고 신묘한 공과 조화의 지극함²⁵³으로 다시 더할 것이 없다.

249 군자의…배필이다: 朱熹, 成百曉 역주,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關雎」, 26쪽. “관관히 우는 물수리, 하수의 모래섬에 있다. 요조한 숙녀, 군자의 좋은 짝이로구나!”

250 공후…배필이다: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兔置」, 40쪽. “정돈된 토끼 그물이며, 길 가운데 쳤도다. 군세고 군센 무부여, 공후의 좋은 짝이로다.”

251 공후의 심복이다: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兔置」, 41쪽. “정돈된 토끼 그물이며, 숲 가운데 쳤도다. 군세고 군센 무부여, 공후의 복심이로다.”

252 왕업을…만족: 『孟子』, 「盡心上」.

그 백성을 보면 곧 왕업을 이룬 자의 백성이고, 그 상서로운 조짐을 보면 왕업을 이룬 자의 상서로운 조짐이다. 하늘이 그에게 주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오는데도,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²⁵⁴ 은나라를 섬겨서 복종하니, 이것이 지극한 덕이 있는 이유이다. 『대학』에서 집안·국가·천하를 말하면서 명덕을 머리로 삼았으니, 「주남」편을 보는 자는 마땅히 문왕의 지극한 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소남」편의 차례도 이와 더불어 서로 유사하다. 다만 땅에 멀과 가까움이 있고 교화에 얕음과 깊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주남」의 지극한 선함만 같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함에 교화되었으니 이는 모두 문왕의 풍속과 교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周南」十一篇，當分三節而看。「關雎」，正家之始。「葛覃」·「卷耳」·「樛木」，宜家之事。勤於修婦職，專於事君子，仁於逮衆妾，婦德備而家道正矣。「螽斯」則子孫衆多，而福慶及於後世，家齊之極效也。「桃夭」，國理之始。「兔置」，國已理而賢才多也。然「關雎」淑女，但曰“君子好逑”而已，「中林」·「武夫」既曰“公侯好逑”，又曰“公侯腹心”，可見文王好德不好色之心，爲此詩者，其知文王之心乎？「采芣」之詩，婦人賦其所事以歌之，但自形容其胸中之樂而已，無一字贊美之詞。然亦可見文王之化，如天之德，舉一世在春風和氣之中，所謂王者之民皞皞而不知爲之者，是則國理之極效也。「漢廣」·「汝墳」，天下已可平理，而「麟之趾」則王者之瑞應焉，聖神功化之極，無以復加矣。觀其民，則王者之民；觀其瑞，則王者之瑞。天與之，人歸之，而猶三分天下，以服事殷，此其所以爲至德也。『大學』言家·國·天下，而以明德爲首，觀「周南」者，要當以文王至德爲本也。「召南」篇次，大概與此相類。但地有遠近，而化有淺深，故雖不若「周南」之盡善，然

253 성스럽고…지극함: 『中庸章句』 1장 참조.

254 천하를…나누어: 『論語』, 「太伯」 참조.

昔不美而今化於善，是皆文王風化之所及也.

삼가 생각해 보건대, 주희 『시경집전』의 「주남」편 설명에 “그 국중(國中)에서 얻은 것은 남쪽 국가의 시를 섞어 「주남」이라고 말했다.”²⁵⁵ 라는 것과 “그 남쪽 국가에서 모은 것은 다만 ‘소남’이라 일컫는다.”²⁵⁶ 라고 여기는 것은 대개 「한광」·「여분」편의 시를 말한 것이니, 비록 남쪽 국가에서 지은 것이지만 남쪽 국가가 바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국중에서 모은 것이므로 「주남」에 붙인 것이다. 유근(劉瑾)²⁵⁷의 『시전통석』은 “국중에서 모은 것은 대부분 문왕의 후비(后妃)가 지은 것이므로 「한광」·「여분」 두 시를 섞어 넣은 것”²⁵⁸이라고 하니, 이것은 『시』를 편집한 자가 남쪽 국가에서 바치는 시를 취하여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주희의 『시경집전』이 ‘국중에서 얻은 것’에서 말한 것은 마땅하지만, 그 아래의 ‘기(其)’자는 마땅하지 않다.

謹按，朱傳「周南」之說，以爲“其得之國中者，雜以南國之詩，而謂之「周南」”，“其得之南國者，直謂之「召南」”者，蓋謂「漢廣」·「汝墳」之詩，雖作於南國，不待南國之貢而先得之國中，故附於「周南」也。劉氏「通釋」以爲：“得於國中者，多爲文王后妃而作，故雜以「漢廣」·「汝墳」二詩”，則是似編『詩』者，取南國所貢之詩而附之也。然則朱傳當曰於‘得之國中’者，

255 그 국중(國中)에서...말했다: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 “국중(國中)에서 얻은 것은 남쪽 국가의 시(詩)를 섞어 「주남(周南)」이라 말하였다. 천자의 나라로부터 제후국에 미쳤으니 단지 국중(國中)뿐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256 그 남쪽...일컫는다.: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 “남쪽 국가에서 얻은 것은 다만 「소남(召南)」이라고 말하였다. 방백(方伯)의 나라로부터 남방(南方)에 미쳐서 감히 천자국에 달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257 유근(劉瑾): 유근(1451~1510)은 원(元)나라 학자로, 자는 공근(公瑾), 호는 안성(安成)이다. 평생 벼슬하지 않았고, 저서에 『시전통석(詩傳通釋)』이 있다.

258 국중에서...것: 『四庫全書』, 『詩傳通釋』 권1 참조. “得于國中者，多爲文王后妃而作，故雜以「南國」·「漢廣」·「汝墳」二詩而謂之周南.”

不應下‘其’字也.

어떤 사람이 물었다. “주자가 「주남」의 끝에 또한 「한광」·「여분」을 말함으로써 남국의 시를 붙였다.’²⁵⁹라고 한 것은 또한 『시』의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或曰：“朱子於「周南」之終，又謂「漢廣」·「汝墳」，以南國之詩附焉，似亦以爲編『詩』者附之也。是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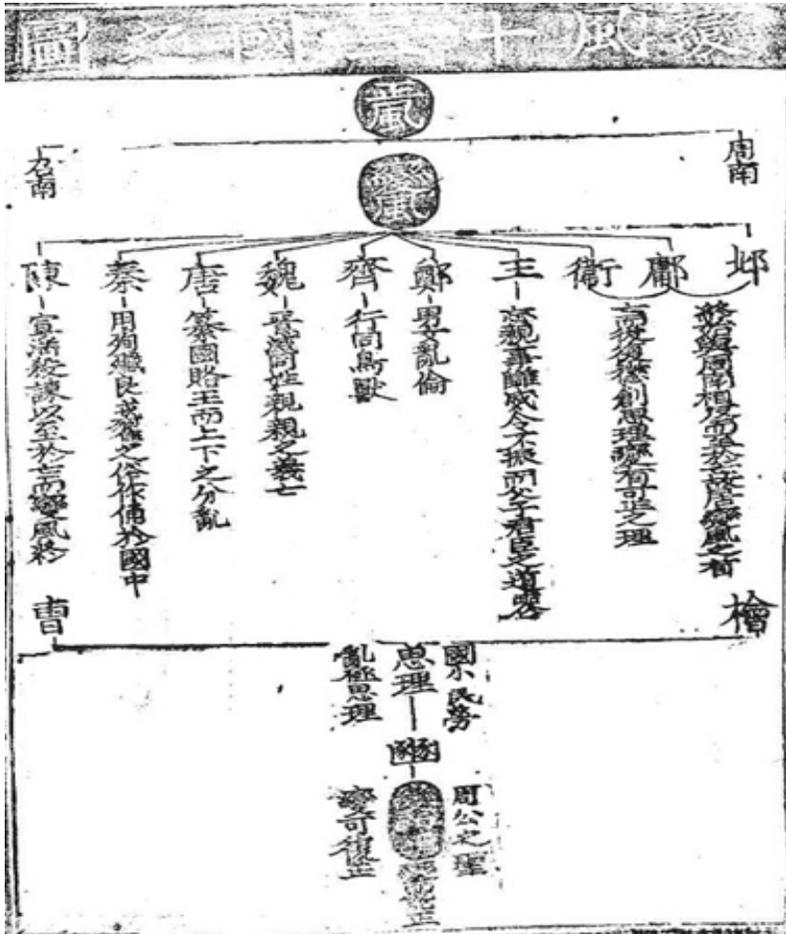
대답했다. “두 개의 시는 비록 국중(國中)에서 얻은 것이지만 또한 남쪽 국가의 작품 또한 마땅히 남쪽 국가가 바친 것 가운데서 붙여야 한다. 그러나 그 얻은 곳을 따라서 국중에서 얻은 것에 붙인 것이니, 이 또한 『시』를 편집한 자가 붙인 것이다. 다만 남쪽 국가에서 바친 것 중에서 취한 것만은 아닐 따름이다. 이와 같이 바친 것 중에서만 취하였다면 어찌 유독 이 두 개의 시만을 취했겠는가? 그 설은 또한 통하지 않는다.”

曰：“二詩雖得國中，亦南國之作當附之南國所貢之中，然隨其所得而附之國中者，是亦編『詩』者附之也，但非取南國所貢之中爾。若是取於所貢，何獨取此二詩乎? 其說亦不通矣。”

259 「한광」·「여분」을…붙였다: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

37. 변풍십삼국지도(變風十三國之圖)

해제 「변풍십삼국지도」는 『시경』의 정풍(正風)은 인도(人道)의 바
 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변풍(變風)은 인도(人道)가 바름을 잃은 것이
 라 보았다. 인도의 바름과 혼란함은 모두 한 집안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그 영향은 한 국가 전체에 미친다. 인도의 혼란함을 바로잡기 위해 권근
 은 이 부분의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정풍은 인도가 그 바름을 얻은 것이다. 변풍은 인도가 그 바름을 잃은 것이다. 인도의 바름은 집에서 시작하여 그 교화가 천하에 미친다. 인도의 변고는 또한 집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그 국가를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정풍에서 「관저」를 첫머리에 둔 것은 「주남」과 「소남」편의 아름다운 교화에 터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변풍에서 「패풍」의 「백주」를 첫머리에 둔 것 역시 그 집안의 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으나 「관저」로 돌아간 것을 들어서 끝에 가서는 돌아가지 않는 바가 없음을 보인 것이다.

正風, 人道之得其正也; 變風, 人道之失其正也. 人道之正始於家, 而其化被於天下; 人道之變亦始於家, 而終不能保其國家. 故正風首「關雎」者, 所以基二南之美化也; 變風首「邶」之「柏舟」者, 亦舉其家道始變, 而反於「關雎」者, 以見其終之無所不反也.

그러므로 「백주」·「녹의」 등 여러 편을 읽어보면, 현명한 부인이 집안을 화순하게 할 수 없어서 「관저」와 「갈담」의 바름과 비로소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연연」²⁶⁰을 읽으면, 총애하는 사람의 서자가 맏아들 죽었으니, 그것(「연연」)은 「종사」²⁶¹가 자손이 많으면서 잘 어울려 지내는 것과 더불어 서로 반대된다. 「개풍」·「포엽」의 시를 보면 국가에 드러나는 것은 「도요」편과 더불어 서로 반대된다. 「간혜」·「북문」의 시를 보면, 현자가 뜻을 얻지 못했음을 읊은 시인데, 정사를 남겨주더라도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²⁶², 그것(「간혜」·「북

260 「연연」: 장강(莊姜)이 아들이 없어서 진(陳)나라에서 시집은 대규(戴媯)의 아들 완(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는데, 장공(莊公)이 죽고 완(完)이 즉위하자, 폐인(嬖人)의 아들인 주우(州吁)가 그를 시해하였다. 그러므로 대규(戴媯)가 진(陳)나라로 영영 돌아가게 되자 그녀를 전송하면서 지은 시이다.

261 「종사」: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 “「종사」는 후비의 자손이 많음을 읊은 것이니, 메뚜기[螽斯]와 같이 시기하지 않으면 자손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문)은 (토끼 그물을 치는) 야인조차 공후의 복심이었던 「토저」와 서로 반대된다.

故讀「柏舟」·「綠衣」諸篇，則知賢婦不得宜家，而與「關雎」·「葛覃」之正，始相反矣。讀「燕燕」，則嬖擊殺嫡，其與「螽斯」之子孫衆多和集而處者，相反矣。觀「凱風」·「匏葉」之詩，則形於國者，與「桃夭」相反矣。觀「簡兮」·「北門」之詩，則賢者不得志，至有以政事投遺，而莫知其艱，則其與「兔置」野人公侯腹心者相反矣。

「격고」와 「복풍」 등의 편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일로 분위기가 처참하여 그 「부이」 편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서로 반대된다. 「식미」와 「모구」의 시는 곧 방백(方伯)²⁶³과 연수(連帥)²⁶⁴의 직분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 하물며 천하에 미치기를 바라겠는가라는 것이다. 그것은 교화의 은혜를 노래한 「한광」·「여분」과 더불어 서로 반대된다. 「이자승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자식과 형제가 서로 해치는 데 이르러 천리가 사라지고 인도가 멀하게 되어 금수의 상태에 이르고 결국에는 오랑캐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니,²⁶⁵ 그 인한 기린의 덕은 왕이 되는 실마리가 되는 것과 서로 반대된다.²⁶⁶ 그러므로 이것으로 끝난다.

262 「개풍」…이르렀으니: 朱熹, 『詩經集傳』 권2, 「國風·邶」 참조.

263 방백(方伯): 방백(邦伯)이다. 『예기』 「왕제(王制)」편에는 “천자는 백 리 이내의 땅은 관용(官用)에 충당하고, 천 리 이내의 땅은 어용(御用)에 충당하며, 천 리 밖에는 방백을 둔다.”라고 하였다. 곧 제후, 혹은 한 지역에서 제후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말한다.

264 연수(連帥): 태수(太守)나 안찰사(按察使) 등 지방관의 다른 명칭이다.

265 천리가…되니: 朱熹, 『詩經集傳』 권3, 「國風·鄘風·定之方中」. “위나라 문공을 찬미한 시이다. 위나라가 오랑캐에게 멸망을 당하고 동쪽으로 옮겨 황하를 건너 조읍에 임시로 여막을 치고 들에 거주하였는데, 제나라 환공이 용적을 물리치고 다시 위나라를 봉해 주었다. 이에 문공이 초구로 옮겨와 비로소 성시를 세우고 궁실을 경영하였는데, 때와 제도에 맞게 하니, 백성들이 기뻐하여 국가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성백효 번역본, 131쪽.)

266 그 인한…반대된다: 朱熹, 『詩經集傳』 권1, 「國風·周南·麟之趾」. “문왕의 후비가 덕을

「擊鼓」·「北風」等篇，則人民怨事，氣象愁慘，其與「采芣苢」之和樂相反矣。「式微」·「旄丘」之詩，則不能修方伯·連帥之職，況望及於天下乎？其與化被「漢廣」·「汝墳」相反矣。及觀「二子乘舟」，則父子兄弟至於相殘，天理泯·人道滅，而至於禽獸，終爲狄所滅，其與振振麟趾爲王者之瑞者相反矣。故以是終焉。

바르지 않음에서 시작하여 그 끝은 이와 같은 참혹함에 이르니, 성인은 이러한 깊은 상심을 변풍의 앞부분에 드러내어 정풍과 반대됨을 보인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을 알게 한 것이니 교훈을 주려는 뜻이 깊다. 그러나 성인의 마음은 반드시 망한 자들을 다시 흥하게 하고 변절자들을 다시 바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오히려 다행인 것은 위(衛) 나라의 문공(文公)이 부지런함과 검소함으로 그 나라를 되찾은 것이니 백성들이 뉘우쳐 선한 마음을 일으켰다. 음란함을 비판하여 「체동」을 짓고, 그 무례함을 싫어하여 「상서」부를 짓고, 현인을 좋아하고 선을 즐겨 「간모」를 읊은 것이니, 사람 마음에 있는 천리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이 다음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크게 아름다운 군자가 있어서 능히 간하는 말을 받아들여 예로써 스스로 방비하여²⁶⁷ 그 나라의 선왕 무공(武公)과 같아진 후에 거의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 「위」

자기 몸에 닳아서 자손과 종족이 모두 선에 교화되었다. 그러므로 시인이 기린의 발로써 공자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기린의 본성이 인하기 때문에 그 발 또한 인하고, 문왕의 후비가 인하기 때문에 그 자손 또한 인하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말로는 부족하므로 또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들이 바로 기린이니, 어찌 반드시 고라니의 몸에 소의 꼬리를 하고 말의 발굽을 한 뒤에야 왕자의 상서로움이 되겠는가!'라고 한 것이다."(성백효 번역본, 47쪽.)

267 능히...방비하여: 朱熹, 『詩經集傳』 권3, 「國風·衛風·淇奥」 참조. "그 문장력이 있고 능히 간언하는 말을 받아들여 예로써 스스로 방비했음을 알 수 있다."(성백효 번역본, 143쪽.)

의 「기옥」편을 다음으로 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회풍」·「조풍」의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것 뒤에 「유풍」의 뜻으로 계승하니, 대개 요행히 그 망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변고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始之不正，而其終至於如是之慘，聖人於是傷之甚，著於變風之首，以示正風之反，使後世知戒焉，垂訓之意深矣。然聖人之心，必欲使亡者復興，變者復正也。猶幸其國文公勤儉，以復其國，人民懲創，興起善端，刺其淫奔，而「蟋蟀」作，惡其無禮，而「相鼠」賦，好賢樂善，而「干旄」詠焉，則天理之在人心者猶未泯，而變有可正之幾矣。故以「鄘」次之。然猶未也，必有大雅君子，能聽規諫，以禮自防，如其國之先君武公，然後庶可正也。故又以「衛」之「淇奥」²⁶⁸次之。是猶「檜」·「曹」思理之後，繼以「豳風」之意，蓋幸其亡之能復，而言其變之可正也。

여러 나라의 풍은 그 변화가 비록 심하지만, 시종일관 이처럼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풍」의 앞에 있는 것이고 변풍의 첫 부분이 된 것이다. 「패풍」·「용풍」 같은 경우는 그 시가 모두 위나라의 일이니, 옛 나라의 호칭을 쓴 것이며, 그 얻은 땅으로 구별한 것이다. 또 「광한」·「여분」이 「주남」에 속해 있는 것은 그 망함을 슬퍼하기 때문이다. 「왕풍」은 열국에서 내려온 것이니 호령이 천하에 행해지면 천자가 되고, 한 나라에서 시행되면 이것은 또한 열국의 군주이다. 평왕(平王)²⁶⁹은 뜻이 없고, 위엄 있는 명령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잊고 원수를 섬겼으며, 신(申)나라를 지키고 허(許)나라를 지키는 조치를 하는데 이르게 되었다.²⁷⁰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신하 중에는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는

268 淇奥: 저본의 '淇澳'를 『詩經』 「國風·衛風」에 근거하여 '淇奥'로 바꾸었다.

269 평왕(平王): 중국 주(周)나라의 제13대 왕이다. 서방의 이민족이 주나라 영토를 침공하자 도읍인 호경(鎬京)을 버리고서 동쪽의 낙양(洛陽)으로 수도를 옮겼다.

의리²⁷¹와 죄를 토벌하는 군대를 일으키자고 진언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 모친 신후(申侯)가 집에서 “견용(犬戎)²⁷²을 토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하늘의 토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평왕이 (왕의) 시해에 참여한 것과 같다.²⁷³ 부모와 자식 그리고 군주와 신하 사이의 윤리가 이에 사라진 것이니, 어찌 천하의 군주가 될 수 있겠는가? 공자가 『춘추』를 지을 적에 은공(隱公)에 의탁해 시작했고, 『시』를 산삭할 때 「서리」를 「국풍」으로 내렸으니 그 뜻이 은미하고 슬퍼함이 깊다. 그러므로 “왕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실천하는 자는 추존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정풍」은 남녀 간의 윤리가 없고, 「제풍」은 짐승 같

270 평왕(平王)은…되었다: 蔡沈, 『書經集傳』 권10, 「周書·文侯之命」. 채침은 “평왕은 신후가 자신을 임금으로 세워준 것을 은덕으로 여기고서 아버지를 시해한 자는 마땅히 처벌해야 함을 잊고, 장차 복수하여 역적을 토벌해야 할 군대를 거느리고 신나라를 지키고 허나라를 지키는 조치를 하는데 이르렀으니, 아버지를 잊고 의를 저버려 하늘에 죄를 얻음이 너무 심하다.[平王以申侯立己爲有德, 而忘其弑父爲當誅, 方將以復讐討賊之衆, 而爲成申成許之舉, 其忘親背義, 得罪於天, 已甚矣.]”라고 하였다. 원문에서 ‘술(戍)’은 『서경집전』에 의거하여 ‘수(戍)’로 수정함.

271 창을…의리: 『禮記』, 「檀弓」 참조.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부모의 원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거적에 잠자고 방패를 베개로 하여 베틀하지 않으며, 더불어 천하를 함께 하지 않는다. 시장이나 조정에서 만나면 병기를 돌리지 않고 싸워야 한다.’ 다시 물었다. ‘청컨대 문습니다. 형제의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베틀하는데 그와 더불어 나라를 함께 하지 않고, 임금의 명령을 받고 사신으로 갔을 때는 만나도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하가 다시 물었다. ‘청컨대 문습니다. 종부나 종형제의 원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괴수가 되지 않는다. 주인이 원수를 갚았다면 병기를 가지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했다.[子夏問於孔子曰, ‘居父母之仇如之何?’ 夫子曰, ‘寢苦枕干, 不仕, 弗與共天下也. 遇諸市朝, 不反兵而鬪.’ 曰, ‘請問居昆弟之仇如之何?’ 曰, ‘仕弗與共國. 銜君命而使, 雖遇之不鬪.’ 曰, ‘請問居從父昆弟之仇如之何?’ 曰, ‘不為魁, 主人能, 則執兵而陪其後。’”

272 견용(犬戎): 고대 중국의 서방에 있던 이민족의 이름이다.

273 이것이…같다: 『四庫全書』, 『春秋穀梁傳註疏』 권3 참조. “선군이 정당한 도리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면 자식들은 차마 즉위하지 못한다. [주] 애통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차마 즉위의 예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왕의 변고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때, ‘즉위’라는 용어를 쓰면 이는 시해에 참여한 것이다. [先君不以其道終, 則子弟不忍即位也. [注] 哀痛之至, 故不忍行即位之禮, 繼故而言即位, 則是與聞乎弑也.]” 원문의 ‘문호고(聞乎故)’에서 ‘고(故)’는 『춘추곡량전주소』에 의거하여 ‘시(弑)’로 풀이한다.

은 행동을 말함이 있다. 「위풍」을 살펴보면 진(晉)나라가 같은 동족을 섬멸하니 친친(親親)의 의가 사라진 것이고, 신하와 백성들이 흩어지고 배반하니 곡옥(曲沃)²⁷⁴이 진나라를 멸할 단서가 드러난 것이다.

諸國之風，其變雖甚，終始未有若是之備，故居「王風」之前，而爲變風之首也。若夫「邶」·「鄘」，其詩皆爲衛事，猶繫以舊國之號者，蓋亦因其所得之地而別之，亦猶「漢廣」·「汝墳」之附「周南」，又所以傷其亡也。「王風」降於列國者，號令行於天下，則爲天子，施於一國，則是亦列國之君爾。平王無志，威令不振，忘親事讎，至爲戍申·戍許之舉。具位之臣，又未有陳枕戈之義，興討罪之師者，申侯母家舍曰不誅犬戎，安得逃天討乎？是則平王聞乎故矣。父子君臣之倫，於是喪焉，安能爲天下之共主乎？孔子作『春秋』，託始於隱，刪「詩」降「黍離」於「國風」，其志微矣，其痛深矣。然曰王而先諸國者尊之也。「鄭」則無男女之倫，「齊」則有鳥獸之行。觀「魏風」，則晉滅同姓，親親之義亡，而臣民離叛，曲沃滅晉之端現矣。

「당풍」을 살펴보면, 나라를 찬탈하고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거만하고 무례하여 상하의 구분이 문란하게 된 것은 위사(魏斯)·조직(趙籍)·한건(韓虔)²⁷⁵의 악행의 조짐이다. 「진풍」은 제후가 제멋대로 명령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꺼리지 않고, 순장하고 선량한 사람을 죽이며, 오랑캐의 풍속으로 중국에서 나무로 만든 사람을 순장했다.²⁷⁶ 히물며 평왕은

274 곡옥(曲沃): 당시에 진나라는 분열되었는데, 무공은 곡옥백(曲沃伯)으로 봉해졌으므로 '곡옥무공(曲沃武公)'이라고 불렀다.

275 위사(魏斯)·조직(趙籍)·한건(韓虔): 춘추 시대의 진(晉) 나라 대부 위사(魏斯)·조직(趙籍)·한건(韓虔)을 말하는데, 이들이 뒤에 진 나라를 멸하고 진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차지하였으므로 이른 말이다. 『사기』 「천관서(天官書)」의 "삼가(三家)가 진을 나누어 차지하여 모두 전국(戰國)이 되었다."라는 주에 "주 안왕(周安王) 20년에 위 무후(魏武侯)·한 문후(韓文侯)·조 경후(趙敬侯)가 함께 진 나라를 멸하고 그 땅을 셋으로 나누었다."라고 하였다.

276 오랑캐의...순장했다: 나무로 만든 사람[俑]을 장사지내면서 함께 묻었는데 이것이 후세

뜻이 없고, 진목공²⁷⁷은 잘못을 뉘우쳤지만 어찌하겠는가.²⁷⁸ 평왕은 원수를 섬겼으나 진(秦)나라 사람은 원수에게 복수했다. 주나라가 날로 쇠미해지고, 진나라는 무용(武勇)을 숭상하였다. 주나라와 진나라의 형세가 이미 나누어지니, 상앙이 변법하고, 백기가 병졸들을 매장하고²⁷⁹, 여정[진시황]²⁸⁰이 천자가 되고, 이사(李斯)가 분서갱유를 하여 선대 왕들의 전적을 제거한 것은 그 재앙의 씨앗이었다. 「진풍」은 군주와 신하가 음란함을 드러내고, 간언하는 신하를 죽이니, 몸은 시해되고 국가는 망했으며, 오랑캐가 중국으로 들어왔으니, 변풍으로 끝난다. 아!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고, 조정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다.

觀「唐風」，則篡國賂王，倨慢無禮，而上下之分紊，魏斯·趙籍·韓處之惡兆矣。「秦風」則諸侯擅命，殺人不忌，用殉殲良，而戎狄之俗，作俑於中國。又況平王無志，而秦穆侮過。平王事讎，而秦人復讎。周日衰微，而秦尚武勇。周·秦之勢既分，而商鞅變法，白起坑卒，呂政稱制，李斯焚坑，而掃滅先主之典籍，其禍萌矣。「陳風」則君臣宣淫，賊殺諫臣，身弑國亡，夷狄入中國，而變風終矣。嗚呼！夫婦，人倫之本。朝廷，風化之源。

에 순장(殉葬)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여, 『맹자』 「양혜왕상」에 “중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용을 만든 자는 아마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하였다.

277 진목공: 진나라 목공 영임호(秦穆公 嬴任好)이다.

278 진목공...어찌하겠는가: 『春秋左氏傳』, 「魯文公上」 2년. “겨울에 진인·송인·진인·정인이 진나라를 토벌하였다. 네 사람은 모두 경이다. 진목공이 잘못을 뉘우치고서 끝내 명명을 등용하였기 때문에 네 나라의 대부를 폄하하여 진나라를 높인 것이다.[冬，晉人宋人陳人鄭人伐秦。四人皆卿，秦穆侮過，終用孟明，故貶四國大夫以尊秦.]”

279 백기가...매장하고: 구덩이에 파묻어 죽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장평(長平)의 갱졸”로 중국 전국(戰國) 시대 진(秦)나라 장수 백기(白起)가 조괄(趙括)의 군사를 장평에서 격파하고, 항복한 군사 40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인 일을 들 수 있다.

280 여정[진시황]: 여정(呂政)은 진(秦) 시황(始皇)을 가리키고, 이욱(李昱)은 진(晉) 간문제(簡文帝)를 가리키며, 시영(柴榮)은 후주(後周) 세종(世宗)을 가리키는데, 모두 국성(國姓)이 아닌 이성(異姓)으로 왕위를 이었다는 설이 있다.

「백주」편이 변풍이 된 것은 위나라의 패망 때문이고, 「서리」편이 (풍으로) 강등된 것은 왕실의 힘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열국의 변풍에 이르러서 인도가 크게 어긋나고, 천하에 큰 변고가 일어났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니 성인의 상심이 깊고, 두려워함이 심하여, 「회」·「조」 작은 나라의 혼란이 극에 달해 다스림을 생각하는 시로써 이었다. 또 주공의 「빈풍」으로 끝난 것은 변한 자들이 바름을 회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주공과 같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면 누가 능히 바름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패」편·「용」편을 앞으로 하고, 「위」편으로 계승한 것은 무공과 같이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길) 희망한 것이고, 이것이 열국에서 「빈」편으로 끝난 것은 주공과 같이 천하를 (다스리길) 희망한다는 뜻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풍」이 주공으로써 끝나고, 「아」가 소공으로 끝나는 것은 옛 주나라 초기에 주공이 나라 가운데서 정치를 하고, 소공은 제후에게 선포하니, 이에 덕과 교화가 안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남방의 제후 국가도 교화를 따르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공과 같이 정치를 하게 한다면 조정의 기풍과 교화가 아름답게 되어, 변풍이 바름을 회복할 것이다. 만약 소공처럼 선포하면 제후가 복종하고, 나라가 날로 줄어들던 것이 개척될 수 있어서, 「대아」의 바름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성인이 주공과 소공으로써 풍과 아의 변함을 바로잡은 것이다. 우리 공자님이 『시』를 산삭한 뜻에서 천하와 후세를 걱정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柏舟」變, 而衛國以滅. 「黍離」降, 而王室以微. 至於列國之風變, 則人道之大壞, 天下之大變, 至於此極, 聖人傷之甚, 懼之深, 繼以「檜」·「曹」小國亂極思理之詩, 又以周公之「豳風」終焉, 欲使變者復正也, 非如周公之元聖, 孰能復正乎? 前於「邶」·「鄘」, 繼之「衛」者, 以武公望一國也, 此於列國終之「豳」者, 以周公望天下也. 不唯此也, 「風」以周公終, 而「雅」

以召公終之者，昔周之初，周公爲政於國中，而召公宣布於諸侯，於是德化大成於內，而南方諸侯之國莫不從化。若使如周公者爲政，則朝廷之風化美，而變風復正矣。如召公者宣布，則諸侯服從，國之日蹙者可闢，而「大雅」復正矣。此又聖人以周·召正風·雅之變也。吾夫子刪『詩』之意，憂天下與後世之心，可想見矣。

별자(제후의 아들)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사람이 종(宗)이 된다. 제후의 큰아들은 제후가 되고, 서자는 제후에게 조제(租第)를 지내지 못하는데, 스스로 시조(始祖)라 말한다면, 이는 별자의 조가 된다. 별자의 적자·적손은 제사를 주관하는 태종이 되고, 서자·서손은 소종이 된다.

別子爲祖，繼別爲宗者。諸侯之嫡子爲諸侯，庶子不得祖諸侯，而自謂始祖，是爲別子爲祖。別子之嫡子·嫡孫，主祭爲太宗，庶子·庶孫爲小宗。

『입학도설』 끝.

『入學圖說』終²⁸¹

281 『入學圖說』終은 목록에 의하면 「패륜과설지법(掛扞過揲之法)」의 뒤에 있어야 한다.

부록

괘륵과설지법
(掛扐過揲之法)

以五十之蒼虛一分二掛一揲四

50개의 시초에서 하나를 덜어내고, 둘로 나누고, 오른손에 있는 하나를 왼쪽 손에 끼우고, 네 개씩 덜어낸다.

삼변 중에 앞의 첫 번째 변(變)은 홀수(양)가 되며 그 나머지는 5·9(5 또는 9)이며, 5·9라는 것은 5가 되는 것이 세 가지 경우이고 9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이다(5가 되는 것이 3이고, 9가 되는 것이 1이다).

뒤의 두 번째 변은 짝수(음)가 되며, 그 나머지는 4·8(4 또는 8)이며, 4·8은 모두 두 가지이다(4가 되는 것이 2이고, 8이 되는 것이 2이다).

앞의 첫 번째 변의 괘는 괘수가 1 설수가 4이며, 그 나머지는 늑수(왼쪽은 1 혹은 2 혹은 3 혹은 4, 오른쪽은 혹은 3 혹은 2 혹은 1 혹은 4)이며, 그 덜어내는 법은 4개씩 덜어내므로, 4로써 (하나의 홀수) 괘륙으로 삼으니, 4·5는 홀수가 되고(5에서 1을 덜어내면 4가 된다), 8·9는 짝수가 된다(9에서 1을 덜어내면 8이 된다).

양의(兩儀)

설3	양	좌1우3과 괘1을 합하여 5가 되고, 1을 제거하면 4가 되는데 하나의 기가 된다.	이것은 5가 되는 것이 3가지이고, 또한 기가 되는 것이 3가지이다.
		좌3우1은 괘1을 합하여 5가 되고, 1을 제거하면 4가 되는데 하나의 기가 된다.	
		좌2우2와 괘1을 합하여 5가 되고, 1을 제거하면 4가 되는데 하나의 기가 된다.	
늑1	음	좌우 각각의 4와 괘1을 합하여 9가 되고, 1을 제거하면 하나의 우가 된다.	이것은 9가 되는 것이 1가지이고, 또한 우가 되는 것이 1가지이다.

三變之中, 前一變爲奇, 其餘五·九(或五或九), 五·九者, 五三而九一(爲五者三, 爲九者一).

後二變爲偶, 其餘四·八(或四或八). 四·八皆二(爲四者二, 爲八者二).

前一變卦, 掛一揲四, 其餘扚數(左或一或二或三或四, 右或三或二或一或四), 凡揲法, 以四除之, 故以四爲(一奇)掛扚, 四·五爲奇(五去一爲四), 八·九爲偶(九去一爲八).

兩儀

揲三	陽	左一右三與掛一合爲五, 去一則爲四以爲一奇.	此爲五者三, 亦爲奇者三
		左三右一與掛一合爲五, 去一則爲四以爲一奇.	
		左二右二與掛一合爲五, 去一則爲四以爲一奇.	
扚一	陰	左右各四與掛一合爲九, 去一則爲八以爲一偶.	此爲九者一, 亦爲偶者一

서산 채씨의 이른바 “‘홀수가 되게 하는 것은 3’과 ‘짝수가 되게 하는 것은 2’, 이것은 ‘하늘은 셋 땅은 둘’이라는 자연의 수이다.”²⁸²라는 것

282 홀수가...수이다: 주희, 김진근 옮김, 『역학계몽』(청계, 2008), 282~283쪽. “채원정은 이렇게 말한다. “50개의 시책에서 ‘1개를 비움’, ‘(그 나머지 49책을) 둘로 나눔’, ‘1개를 짝’, ‘네 개씩 헤아림’, ‘홀수가 되게 하는 것은 3’, ‘짝수가 되게 하는 것은 2’ 등은 ‘하늘은 셋, 땅은 둘’이라는 저절로 그러함의 수 그대로다. 세 번의 헤아림을 거쳐 얻은 번(變)에서 노양·노음이 되는 경우의 수는 본래 각기 8로서 합하면 16이 된다. 그런데 음·양 가운데 ‘높은 것’은 움직이지만 (늘더라도) 음(陰)의 성(性)은 본래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음은 자신의 경우의 수 3을 노양으로 몰아주니, 이것이 바로 노음의 경우의 수는 4요, 노양의 경우의 수는 12인 까닭이다. 소양과 소음이 되는 경우의 수는 본래 각기 24로서 합하면 48이 된다. 아울러 음·양 가운데 ‘짧은 것’은 공하지만 (줄더라도) 양(陽)의 성(性)은 본래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은 자신의 경우의 수 4를 소음으로 몰아주니, 이것이 바로 소양의 경우의 수는 20이요, 소음의 경우의 수는 28일 까닭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역』은 높은 것을 쓰지 짧은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 64번에서 쓰이는 것은 16번이다. 그것을 또 4개씩 묶는다고 할 경우 양(陽)은 그 가운데 셋을 쓰고 음(陰)은 그 가운데 1을 쓴다. 생각건대 하나는 홀, 하나는 짝으로 서로 대대(待對)함은 음·양의 체(體)요, 양은 셋 음은 하나로서 하나는 넉넉하고 하나는 모자람은 음·양의 용

은 짝수가 되는 것이 2이니, 이것과 더불어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두 개의 짝수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2·4의 홀수로 합하면 1·8의 짝수가 되니, 이것이 하나의 짝수이니, 곧 두 개의 홀수의 합이다.

뒤의 2변(좌 혹1 혹2 혹3 혹4, 우 혹2 혹1 혹4 혹3) 제2·제3변 두 변(變)은 모두 같다.

양	좌1우2, 괄1과 합하여 4가 되니, 1기이다.	이것은 4가 되는 것이 두 개다.
	좌2우1, 괄1과 합하면 4가 되니, 1기이다.	또한 양이 되는 것이 두 개다.
3·4는 절반을 쓴다		
음	좌4우3, 괄1과 합하여 8이 되니, 1우이다.	이것은 8이 되는 것이 두 개다.
	좌3우4, 괄1과 합하여 8이 되니, 1우이다.	또한 음이 되는 것이 두 개다.

西山蔡氏所謂爲奇者三，爲偶者二，是天三地二，自然之數者，其以偶爲二，與此不同何也？非謂有二偶也，以二四之奇，合爲一八之偶，是一偶，卽二奇之合也。

後二變(左或一或二或三或四右或二或一或四或三)第二，第三兩變皆同。

(用)이다. 그러므로 사계절에서 봄·여름·가을은 만물을 생하지만 겨울은 생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동·서·남쪽은 볼 수 있으나 북쪽은 볼 수 없으며, 사람의 시야에서도 또한 앞·왼쪽·오른쪽은 볼 수 있으나 뒤쪽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49개의 시책을 갖고 하나를 비우고 둘로 나누며, 하나를 걸고 4개씩 헤아린다고 해보자. 그러면 홀수가 되는 것도 둘일 테요, 짝수가 되는 것도 둘일 테며, 노양의 경우의 수도 8을 얻고 노음의 경우의 수도 8을 얻을 것이며, 소양의 경우의 수도 24를 얻고, 소음의 경우의 수도 24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또한 좋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렇게 지혜로우신 성인께서 어찌 이러한 점에 미치지 못하셨겠는가! 성인들께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취하지 않은 까닭은 진실로 음·양의 체(體)의 수는 늘 고르지만 용(用)의 수는 양 셋에 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陽	左一右二, 與掛一合爲四, 爲一奇.	此爲四者二.
	左二右一, 與掛一合爲四, 爲一奇.	亦爲陽者二.
三四用半		
陰	左四右三, 與掛一合爲八, 爲一偶.	此爲八者二
	左三右四, 與掛一合爲八, 爲一偶	亦爲陰者二

사상(四象)

노양	첫 번째 변은 5를 얻는다(1을 빼면 4가 된다). 두 번째 변과 세 번째 변은 모두 4를 얻고, 3개의 홀수가 노양이 된다.	늑이 12
		설이 36

늑수는 4가 되는 것이 3개이고, 합하면 12가 되니, 곧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이 3개이고, 그 12가 1개인 것을 말한다.²⁸³ 총 49괘 가운데 괘 륵수 13괘를 뺀 과설수 36, 즉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이 9개이고, 그 12가 3개인 것을 말한다.

老陽	初變得五(去一爲四), 二變三變皆得四, 爲三奇爲老陽.	扚十二
		揲三十六

扚數爲四者三, 合得十二, 卽所謂三其四, 一其十二者也. 過揲三十六, 卽所謂九其四, 三其十二者也.

283 늑수는...말한다: 주희, 백은기 역, 『周易本義』(여강출판사, 1998), 759쪽 참조. “삼소(三少:4, 4, 4)하면 늑(扚)한 것이 12개이니, 괘(掛)한 1을 합하여 13에 그 남은 36(49-13=36)이 노양(老陽)이다.”

소음	처음 변하여 5를 얻어 1을 제거하고, 2변하여 4를 얻고 3변하여 8을 얻으니, 2개의 홀수와 1개의 짝수가 되는 것은 소음이다.	늑이 16
	처음 변하여 5를 얻어 1을 제거하고, 2변하여 8을 얻고, 3변하여 4를 얻으니, 2개의 홀수와 1개의 짝수가 되는 것은 소음이다.	
	처음 변하여 9를 얻고, 1을 제거하고, 2변과 3변 모두 4를 얻으니, 1개의 짝수와 2개의 홀수가 되는 것은 소음이다.	설이 32

늑수는 4가 되는 것이 2개, 8이 되는 것이 1개이며, 또한 4가 되는 것이 4개이고, 노양에서 그 12가 되는 것 1개에서 또 4가 되는 것 1개에 나아간 것이니, 합하면 16이 되니, 곧 이른바 그 4를 4번 한다는 것이니, 그 12가 되는 것 1개에서 4가 되는 것 1개에 나아갔다고 말하는 것이다.²⁸⁴

과설지수 32는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을 8번 하고, 그 12가 되는 것 3

284 늑수는…것이다: 주희, 김진근 옮김, 『역학계몽』(청계, 2008), 294~295쪽 참조. “음·양, 노·소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를 다시 한 번 통론해보겠다. 49개의 시책에서 맨 처음에 건 한 개를 제외하면 48개가 되는데, 그것을 4개씩 묶으면 12개가 되고, 12개씩 묶으면 4개가 된다. 그러므로 4개씩 헤아린 1변(變)에서의 패륙지수(掛扐之數)는 그 4개짜리가 1뭉음이면 홀수가 되고 2뭉음이면 짝수가 된다. 그래서 세 번을 거치는 동안 패륙지수가 그 4개짜리로 3뭉음인 것은 그 12개짜리가 1뭉음인 셈이 된다. 이때의 과설지수(過揲之數)는 4개짜리 9뭉음으로서 12개짜리로는 3뭉음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노양이 된다. 패륙지수든 과설지수든 모두 그 4개짜리가 6뭉음으로서 그 12개짜리로는 2뭉음인 것은 노음이 된다. 노양의 패륙지수(12)에서 4개짜리 1뭉음을 더하면 그 4개짜리가 4뭉음이 되는데, 이는 또 그 12개짜리 1뭉음에서 4개짜리 1뭉음만큼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과설지수(36)에서 4개짜리 1뭉음을 덜어내면 그 4개짜리가 8뭉음이 되는데, 이는 그 12개짜리 3뭉음에서 4개짜리 1뭉음을 덜어낸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소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노음의 패륙지수(24)에서 4개짜리 1뭉음을 덜어내면 그 4개짜리가 5뭉음이 되는데, 이는 그 12개짜리 2뭉음에서 4개짜리 1뭉음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다. 또 그 과설지수(24)에서 4개짜리 1뭉음을 더하면 그 4개짜리가 7뭉음이 되는데, 이는 그 12개짜리 2뭉음으로부터 4개짜리 1뭉음만큼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소양’이라 불리는 것이다. ‘두 늑은 것들’이 음양의 극으로서 이들 양극 사이 거리의 수는 무릇 12다. 이를 3등분 해보자. 그리고 양의 극으로부터 그 패륙지수로는 나아가고 그 과설지수로는 물러나서 각기 1/3에 이르면 소음이 된다. 이에 비해 음의 극으로부터 그 패륙지수로는 물러나고 그 과설지수로는 나아가 각기 1/3에 이르면 소양이 된다.”

개에서 4가 되는 것 1개를 덜어낸 것이다.

少陰	初變得五, 去一, 二變得四, 三變得八, 爲二奇一偶, 少陰.	扚十六
	初變得五, 去一, 二變得八, 三變得四, 爲二奇一偶, 少陰.	
	初變得九, 去一, 二變三變皆得四, 爲一偶二奇, 少陰.	揲三十二

扚數爲四者二, 爲八者一. 亦爲四者四, 於老陽一其十二而又進一四, 合得十六, 卽所謂四其四, 一十二而進一四也.

過揲三十二, 卽所謂八其四, 三其十二而損一四者也.

소양 (少陽)	처음 변하여 5를 얻어 1을 제거하고, 2번과 3번에서 모두 8을 얻으니 1개의 홀수와 2개의 짝수가 되어, 소양이 된다.	늑이 20
	처음 변하여 5를 얻어 1을 제거하고, 2번에서 8을 얻고, 3번에서 4를 얻으니, 2개의 짝수와 1개의 홀수가 되어 소양이 된다.	
	처음 변하여 9를 얻어 1을 제거하고, 2번에서 4를 얻고, 3번에서 8을 얻으니, 2개의 짝수와 1개의 홀수가 되어 소양이 된다.	설이 28

늑수는 4가 되는 것이 1개, 8이 되는 것이 2개, 또한 4가 되는 것이 5이며, 노음에서 그 12개 되는 것 2개에서 4가 되는 것 1개를 제거하면, 합하면 20이 되니, 즉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이 5이니, 그 12가 되는 것 2개에서 4개 되는 것 1개를 제거한다.

과설지수 28은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이 7개이며, 그 12가 되는 것 2개에서 4가 되는 것 1개에 나아간 것이다.

少陽	初變得五, 去一, 二變三變皆得八, 爲一奇二偶, 爲少陽.	扚二十
	初變得五, 去一, 二變得八, 三變得四, 爲二偶一奇, 爲少陽.	
	初變得九, 去一, 二變得四, 三變得八, 爲二偶一奇, 爲少陽.	揲二十八

扚數爲四者一，爲八者二，亦爲四者五，於老陰兩其十二而去一四，合得二十，卽所謂五其四，兩其十二而去一四也。

過揲二十八，卽所謂七其四，兩其十二而進一四也。

노음	처음 변하여 9를 얻는다(1을 제거). 두 번째 변과 세 번째 변은 모두 8을 얻고, 3개의 짝수가 되어 노음이 된다.	늑이 24
		설이 24

늑수는 8이 되는 것이 3이고, 4가 되는 것이 6, 합하면 24를 얻는다. 그 4가 되는 것이 9개이고 그 12개 되는 것이 3개이다.

과설지수 또한 같으니, 즉 이른바 그 4가 되는 것이 6이고, 그 12가 되는 것이 2개이다.

老陰	初變得(去一). 二變三變皆得八，爲三偶爲老陰.	扚二十四
		揲二十四

扚數爲八者三，爲四者六，合得二十四。九其四三其十二者也。

過揲亦同，卽所謂六其四，兩其十二者也。

오른쪽(앞에 나온) 노양 과설지수는 그 4가 되는 것이 9개이므로, 그 수가 9가 된다.

소음 과설지수는 그 4가 되는 것이 8개이므로, 그 수가 8이 된다.

소양 과설지수는 그 4가 되는 것이 7개이므로, 그 수가 7이 된다.

노음 과설지수는 그 4가 되는 것이 6개이므로, 그 수가 6이 된다.

右老陽過揲，九其四，故其數爲九。

少陰過揲，八其四，故其數爲八。

少陽過揲，七其四，故其數爲七.

老陰過揲，六其四，故其數爲六.

사상의 수는 늑수를 제거하고 과설지수를 취하므로, 소용은 3·4·5·6을 제거하여 6·7·8·9가 된다고 생각했다.

四象之數，去扚取揲，故邵子以爲去三·四·五·六，以成六·七·八·九也.

늑수는 노양의 그 4가 되는 것이 3개이고, 소음은 그 4가 되는 것이 4개이고, 소양은 그 4가 되는 것이 5개이고, 노음은 그 4가 되는 것이 6개이니, 이것이 제거한 것이다.

扚數，老陽三其四，少陰四其四，少陽五其四，老陰六其四，是所去者也.

채원정의 이른바 노양·노음의 수는 본래 모두 8이고 합하면 16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체수가 항상 균일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²⁸⁵
소양·소음의 수는 모두 24이며 합하면 48을 얻는다.	

4로써 노양으로 돌아가므로 노양의 수 12는 곧 노양의 늑수 4가 되는 것이 3개인 것이다. 나머지 4는 노음의 수가 된다.

4로써 소음으로 돌아가므로 소양의 수 20은 곧 소양의 늑수 4가 되는 것이 5개인 것이다. 나머지 28은 소음의 수가 된다.

蔡氏所謂老陽老陰之數，本皆八，合之得十六.	此以體數常均者言.
少陽少陰之數，本皆二十四，合之得四十八.	

285 이것은...것이다: 주희, 김진근 옮김, 『역학계몽』(청계, 2008), 281쪽 참조.

以四歸于老陽，故老陽之數十二，卽老陽扞數，爲四者三也。餘四爲老陰數。

以四歸于少陰，故少陽之數二十，卽少陽扞數，爲四者五也。餘二十八爲少陰之數。

이것은 수를 사용한 것이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노양과 소양의 수가 늑수와 더불어 같고, 노음과 소음의 수가 같지 않은 것은 도서 방위에서 양수가 불변하고 음수가 변한다는 것과 같다. 또 양은 존귀하므로 정수를 얻고, 음은 낮으므로 나머지 수를 얻는 것이겠는가?

此以用數不同者言。老少二陽之數，與扞數同，而二陰之數不同者，猶圖書方位，陽數不變而陰數變。且陽尊，故得正數，而陰卑，故得餘數也歟?

『역』은 노를 쓰고 소를 쓰지 않으므로 64변에서 쓰는 것은 16변이다. 16변은 또 4개씩 덜어내니, 양은 그 3개를 사용하고, 음은 그 하나를 사용한다.

『易』用老而不用少，故六十四變，所用者十六變。十六變，又以四約之，陽用其三，陰用其一。

2개의 노 수는 모두 8이니 합하면 18이 된다.	쓴다	이것이 곧 64변이다.
2개의 소 수는 모두 24이니 합하면 48이 된다.	쓰지 않는다	

16은 4가 되는 것이 4개이고, 양은 그 중 3개를 사용하므로, 노양은 12를 얻고, 음은 그 중 1개를 사용하므로 노음은 4를 얻는다.

체수가 항상 균등하다는 것은 곧 춘·하는 양이 되고, 추·동은 음이 된다는 류이다. 사용하는 수는 같지 않으니 양이 그 3개를 사용하고 음이

그 1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춘·하·추는 모두 생하고 오직 동만이 생하지 않는다는 류이다.

二老之數, 皆八合之十六.	用	此卽六十四變也.
二少之數, 皆二十四合之四十八.	不用	

十六是爲四者四, 陽用其三, 故老陽得十二. 陰用其一, 故老陰得四.

體數常均者, 卽春·夏爲陽, 秋·冬爲陰之類. 用數不同, 陽用其三, 陰用其一者, 卽春·夏·秋皆生, 唯冬不生之類.

『전집』 발(跋)

『입학도설』은 양촌 선생이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 『도(圖)』는 주렴계의 「태극도」에서 비롯하고, 그 의의는 정자와 주자의 격언을 근본으로 하였으며, 천인심성의 가르침을 점과 획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니, 진실로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지침서가 된다. 사서의 절차와 요강·오경의 전체와 대용을 논의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각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궁벽한 시골의 후학들 가운데 밝은 스승이나 좋은 벗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진실로 이 도설을 가지고 마음으로 깊이 완미한다면 그 성명의 학문에 대해 ‘생각이 반을 넘었다’²⁸⁶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병자년 가을 진양(晉陽)²⁸⁷에 태수로 왔는데 배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필사본을 보고는 그 정밀함에 감탄하고, 공인에게 명하여 간행하도록 하였으니 학문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를 바란다. 오호라! 처음 배우는 선비들이 선생의 계시해주신 뜻을 알아 그것에서 터득한 바가 있다면 지금 이 간행이 어찌 작은 보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홍무 30년 정축년(1397) 2월 초하루에 가선대부·진양대도호부사·겸관내권농병마단련사 김이음(金爾音)²⁸⁸이 삼가 쓴다.

『前集』跋

『入學圖說』, 陽村先生爲初學而作也. 其「圖」祖濂溪「太極圖」, 其義意

286 생각이…넘었다: 『周易』, 「繫辭傳下」 9장.

287 진양(晉陽): 경상남도 진주(晉州)의 옛 이름이다. 초간본은 태조 6년(1397)에 진양에서 간행한 전집(前集) 단간본(單刊本)인 진양본(晉陽本)이다.

288 김이음(金爾音): 김이음(?~1409)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창(咸昌), 자는 백옥(伯玉), 호는 삼로(三路)이다.

則本程·朱格言，而天人心性之訓，點畫分釋之精，誠初學之指南也。至論四書之節次綱要·五經之全體大用，亦可班班易曉。寒鄉後進，無明師良友以先後之者，誠得此而玩心焉，其於性命之學，可謂思過半矣。予於丙子秋，來守晉陽，因學者見寫本，嘆其精到，命工繡梓，思與諸承學共之。於戲！初學之士，知先生開示之旨，而有得焉，則今此刊行，豈無小補云？

時洪武三十年丁丑二月初吉，嘉善大夫·晉陽大都護府使·兼管內勸農兵馬團練使金爾音敬跋。

앞의 『입학도설·전집』 발은 바로 관찰사 김이음이 저술한 것이다. 홍희을사년((1425)에 모두 『후집』에 붙였는데, 변춘정(卞春亭[季良])²⁸⁹의 발문이 있었다. 그런데 김이음의 발문은 빠졌다. 지금 영군에서 『도설』을 간행하는데 김이음은 영군에서 이름난 효자이니, 그가 ‘석류(錫類)’²⁹⁰라는 말을 발문에 적는다. 그 사람의 말을 사모하고 그 말이 없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김이, 어찌 다만 동향인의 마음으로 치우친 바일뿐이겠는가? 진실로 또한 심성을 갖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바일 것이다. 이에 함께 그것을 수록해두었다.

정미년(1427)에 다시 교정한다.

右『入學圖說·前集』跋，乃觀察金公爾音所著也。洪熙乙巳，通附『後集』，有卞春亭之跋，而公之跋脫焉。今刊『圖說』于滎郡，公乃滎之名孝，

289 변춘정(卞春亭[季良]): 변춘정(1369~1430)은 본관이 밀양이고, 자는 거경(巨卿)이며, 이름은 계량(季良)이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이색(李穡)과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290 석류(錫類): 훌륭한 자손이 있음을 말한다. 『시경』 「대아」 기취(既醉)에 “효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길이 너와 같은 종음을 줄 것이다.[孝子不匱，永錫爾類.]”라고 하였다. 또는 석류는 길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효자를 가리키는데, 『시경』 「대아」 기취(既醉)에 “효자의 효도 다함이 없는지라,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孝子不匱，永錫爾類.]”라고 하였다.

而跋其錫類之言也. 慕其人而惜其言之逸, 豈但鄉情之所獨偏? 諒亦心性之所同共之也. 因并錄之.

丁未重校

지(識)

나[정도전]는 어느 날 괘극과설의 법을 얻고서 반복하여 연구했으나 그 설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원 권근에게 보여서 강학해 줄 것을 청하였다. 권근이 그것을 풀어서 하나의 작은 그림으로 만들고 조목별로 분류해 해석하니, 마치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과 같아서 비록 나의 어리석음으로도 한번 보고 이해되었다. 오호라! 친구 간의 강론은 그 배움에 유익함이 이와 같구나!

홍무 무인년(1398) 여름 5월 16일 삼봉도인 정도전(鄭道傳)²⁹¹은 쓴다. 앞에 있는 것은 『입학도설전·후집』이다.

識

道傳一日得掛扞過揲之法，反復參究，莫知其說，示可遠請講焉。可遠解之，爲一小圖，條分類釋，如指諸掌，雖以余之昏蒙，一覽了然。噫！朋友講論，其有益於學也，如此夫！

洪武戊寅夏五既望，三峰道人鄭道傳識。

右『入學圖說前·後集』

291 정도전(鄭道傳): 정도전(1342~1398)은 자가 종지(宗之)이고, 호는 삼봉(三峯)이며, 시호는 문헌(文憲)이고, 본관은 봉화(奉化)이다.

『입학도설』 발(跋)

『입학도설전·후집』은 양촌 선생의 저작이다. 그 『전집』은 일찍이 선생이 손수 교정하여 진양에서 간행했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이미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후집』은 선생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 그 판본이 비로소 출간되고 글자가 또한 잘못된 것이 많으니 애석하다! 선생의 아들인 좌대언 권도(權蹈)²⁹²가 경상도 경력 박용(朴融)²⁹³에게 간행을 부탁했다. 이전 감사 이숙무(李叔畝)²⁹⁴와 현재 감사 하연(河演)²⁹⁵이 모두 힘을 쏟았다. 이전 봉사 주부인 정척(鄭陟)²⁹⁶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고, 다시 진양에서 판각을 하고, 목사 이수(李穗)와 판관 반무량(潘茂良)이 감독하여 일을 완수했다. 좌대언 권도가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발문을 써달라고 했다. 나는 일찍이 하늘이 양촌 선생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학자들의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매우 오랫동안 배웠으니, 진실로 이 「도」가 후학들에게 절실함이 깊다는 것을 안다. 감히 책의 끝에 발문을 쓰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흥희 을사년(1425) 가을 7월 임신에 문인 정현대부·예문관 대제학·집현전 대제학·지경연·동부춘추관사·겸 성균관 대사성 밀산 변계량

292 권도(權蹈): 권도(1387~1445)는 권근의 아들이며, 자는 중의(仲義)이고, 호는 지재(止齋)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293 박용(朴融): 박용(?~1428)은 자가 유명(惟明)이고, 호는 우당(憂堂)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294 이숙무(李叔畝): 이숙무(?~1439)는 이색의 손자이며, 시호는 양도(良度)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295 하연(河演): 하연(1376~1453)은 자가 연량(淵亮)이고, 호는 경재(敬齋)이며, 시호는 문효(文孝)이고,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296 정척(鄭陟): 정척(1390~1475)은 자가 명지(明之)이고, 호는 정암(整菴)·창재(暢齋)이며, 시호는 공대(恭戴)이고,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卞季良)은 삼가 쓴다.

『入學圖說』跋

右『入學圖說前·後集』陽村先生之所著也. 其『前集』曾經先生手校而刊之晉陽, 顧其歲久, 而字已剝矣. 『後集』則先生既歿, 而其本始出, 字又多缺, 惜哉! 先生之子代言蹈囑慶尙道朴經歷融刊行. 其監司李公叔畝及今監司河公演, 皆爲致力焉. 俾前奉常注簿鄭陟書之, 復鋟梓于晉陽, 牧使李公穗·判官潘茂良監督功訖. 代言携以示予, 蘄識其後. 予嘗謂天生陽村於吾東方, 學者之大幸也. 予之學於先生甚久, 固知是圖之切於後學也, 深矣. 敢不欣然書諸卷末也耶?

洪熙乙巳秋七月壬申, 門人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集賢殿大提學·知經筵·同知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 密山 卞季良 敬跋.

가정 정미년(1547) 봄 감사 상공 안현(安瑗)²⁹⁷이 순시하다 고향 영천군에 도착했다. 나는 벼슬을 그만두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찾아뵙고 안부를 묻게 했다. 상공 안현이 말했다. “어릴 적에 양촌 선생이 지은 『입학도설전·후집』을 보았다. 그 책에는 천인심성의 설, 『중용』·『대학』·『논어』·『맹자』의 핵심, 육경의 체용 구분, 「하도」·「낙서」·『주역』·「홍범」의 이치로부터 5성·12울의 원리와 설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것은 모두 초학자들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것을 찾아내고 정리하여 탐색하고 연구한 것으로 이 도(圖)와 설(說)은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설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옛사람들이 이미 이루어놓은 규범을 답습하거나 엿매이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297 안현(安瑗): 안현(1501~1560)은 자가 중진(仲珍)이고, 호는 설강(雪江)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있게 하여 후학을 개발함이 있다.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도와 설을 살피고 상고하는 것에 달려 있다. 조리를 차례대로 비교하면 마음과 눈에 명확해져서 친히 대면하고 말해주는 것과 같고, 귀에 대고 가르쳐 주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성리를 배우는 기준이다. 이 책을 백운동 서원에 보관하여 강습에 사용하고자 하여도 진양의 옛 판본은 남아 희미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어 찍어낼 수 없고, 낭주 새 판본은 『후집』이 빠져 있으니 애석하구나!” 나는 집에 진양 인쇄본 한 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상공을 알현하니 후학에게 은택을 주고자 하는 성의를 감히 거부하지 못하고 마침내 꺼내서 보여드리니 상공이 말했다. “세상의 학자들이 성리의 근원을 강학하여 밝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이 도(圖)의 전승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지금 서원에 이것을 보관하여 한 서원의 모든 유생이 토론하고 익히게 하고자 한다. 누판(鑿板: 활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되던 조판 인쇄술)만 같지 못하지만, 이 판목을 나라에 유포하면 널리 퍼질 것이다.” 바로 고을의 원님 금후의(琴侯倚)²⁹⁸에게 목판에 글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금후의는 이 고을 사문의 으뜸으로, 듣고서 기뻐하였다. 생원 금축(琴軸)²⁹⁹으로 하여금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고, 아울러 책의 목록을 권 끝에 부치게 하니 몇 개월 만에 일을 완수하여 마쳤다. 금후의가 말하기를 “감사께서 발문을 그대에게 부탁하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라고 했다. 마침내 책 간행의 전말을 쓰게 되었다.

보열 대부 승문원 참교 회산 후학 황효공(黃孝恭)³⁰⁰은 재배하고 삼가

298 금후의(琴侯倚): 금후의(1498~1550)는 본관이 봉화(奉化)이고 자는 숙재(叔材)이다.

299 금축(琴軸): 금축(1496~1561)은 조선 중종(中宗)과 명종(明宗)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봉화(奉化)이며, 동래 현령(東萊縣令)을 지낸 금휘(琴徽)의 손자이다.

300 황효공(黃孝恭): 황효공(1496~1533)은 본관이 창원(昌原)이며, 자는 경보(敬甫), 호는 구암(龜巖)이다.

쓴다.

嘉靖丁未春，監司安相公玠巡到弊鄉榮川郡。余以散人謁見敘寒暄。相公曰“少時見陽村先生所著『入學圖說前·後集』，其天人心性之說，『庸』·『學』·『語』·『孟』之旨，六經體用之分，『河』·『洛』·『易』·『範』之理，以至聲律之度，揲著之變。凡初學疑礙而難通者，悉皆爬梳剔撥，探蹟鉤深，若圖若說，如指諸掌，不一而足。無規規蹈襲古人已成之規範，有了了開發後學。未達之關鍵，按圖考說，比次條理，瞭然心目，如親面而命之，如提耳而教之，誠學性理者之指南也。思欲藏之于白雲洞書院以資講習，而晉陽舊板浸滅已久不堪印出，浪州新本缺『後集』爲可惜也。”余有家藏晉陽印本一帙，見相公欲嘉惠後學之盛意不敢靳，遂出而見之，則相公曰世之學者，不喜講明性理之原，故此圖之傳幾乎失墜。今欲藏此于院，以討習一院諸儒。不若鏤，此于板以流布一國之爲廣也。乃屬主倅琴侯椅，繡之于梓。侯乃斯文老擊也，聞而喜之。俾生員琴君軸考証訛僞，並書目錄以附卷端，閱數月而功，斷手。侯曰“監司以跋語屬君，君不可辭。”遂書其刊之之顛末云。

奉列大夫承文院參校，檜山後學，黃孝恭再拜謹書。

『입학도설』 중간(重刊) 발(跋)

나(권태협)는 젊은 시절에 선조 양촌 선생의 『입학도설』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은 후학들을 성리의 근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뗏목과 같은 것이라고 대략 들었다. 돌아보건대 이 책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두루 학문의 기준이 되어 다시 간행하였다. 이미 마멸되어 읽을 수 없게 되었음을 한스럽게 여긴 지 오래되었다. 나는 책을 중간하고자 했지만, 힘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다. 올 봄 친족들과 상의하여, 권오철(權五喆)이 경비 마련에 힘을 쓰고 아들 권영휴(權寧庠)로 하여금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필사하여 출간하는 일을 맡겼다. 이로 인해 끝에 한마디 쓰고자 한다. “우리 동방의 못 현인과 학자들의 책이 어찌 경전의 이치를 밝게 드러내지 않음이 있겠는가? 후학들에게 보여서 육경의 큰 뜻을 이해하게 하고, 핵심을 반복하게 하고, 그림을 나열하여 설명을 붙이고, 강령을 제시하여 이끌어주었다. 천고의 학계에 밝게 내걸더라도(육경의 도를 전한) 정법안장(正法眼藏)³⁰¹이 온갖 것 중에 누가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기사(1929)년 늦여름에 후손 권태협(權泰夾)은 삼가 쓴다.

『入學圖說』重刊跋

泰夾少日受讀先祖陽村先生『入學圖說』於家大人，略聞是書之爲爲學津筏性理淵藪矣。顧是書自國初以來，大爲學問丈尺，再登繡梓。又已漫滅不可讀識者恨之，厥惟久矣。泰夾竊欲重刊，力絀未就。乃於今春謀諸族人，五喆協力鳩財，俾家兒寧庠繕寫付之手民。因識一言于其後曰“夫我東群賢百家之書，何莫非發明經傳。開示後學能撮六經大旨，而反之約，

301 정법안장(正法眼藏):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서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을 말한다.

列之圖而附之說，提之綱而挈之領。昭揭千古學界正法眼藏於來萬者，孰有過於此者乎。”

己巳季夏之月 後孫 泰夾謹書。

양촌 선생 『입학도설』 후제(後題)

오호라! 나의 선조 양촌 선생은 빗장을 뚫고 자물쇠를 연 듯한 학문과 폭포수와 우뚝 솟은 산과 같은 문장이 어찌 사문의 도를 호위하여 지켜 나가고 후학을 일깨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육경의 큰 뜻을 통괄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쉽게 보여주는 것은 『입학도설』만한 것이 없다. 이 책은 이미 유럽에 널리 퍼져 조선 초기부터 진양 판본이 있었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학자들은 그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논산의 친족인 권태협 어른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미 교감하여 정리하고, 다시 그의 아들 권영휴에게 잘 필사하여 중간하도록 명했으며, 나에게도 동참하기를 원했다. 나는 권근 선생의 이 책이야말로 우리 집안에서 사사로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내의 유생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날로 어지럽고 경전의 책과 성현의 학문을 경시하게 되어 다시 세상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 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공적인 것을 위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함께 자금을 모아 협력하고 책 끝에 한마디 말을 하니, “무릇 우리 후손들과 후학들이 만약 이 책에서 깊이 완미하고 체득에 힘쓴다면, 선조의 뜻을 잇고 현인을 사모하고 덕을 세워 세상을 구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것은 선생이 오늘날에 바라는 것이고 족장(族丈)께서 이 출판에 고심한 이유이다.”

선생 사후 522년 기사(1929)년 늦여름에 하순에 후손 권오철(權五喆)은 삼가 쓴다.

陽村先生『入學圖說』後題

嗚乎！我先祖陽村先生，抽關啓鍵之學，懸河峙岳之文，何莫非輿衛斯道，開牖後學而語。其撮六經之大旨，示之如指掌，未有如『入學圖說』者也。是書也，已公於儒林，國初有晉陽鍍板，歲久字泮。學者病之，乃者論山族丈泰夾慨然于斯，既加校勘而釐正之，復命其胤寧麻繕寫而重刊之，要余同之。余惟先生是書，不但吾家私之，當公於國內章甫。顧今天下日就淆薄漓經傳之書聖賢之學，無復可聞於世間，安得不自吾家權輿以爲天下之公也。不覺蹶然而起，因與出貲協贊，後識一言曰，“凡我雲仍與後學者，苟於此書玩之深體之力，其於紹先慕賢立德需世何有。此先生之所以望於今日，族丈之所以苦心於是役者也。

先生沒後五百二十二年 己巳 季夏 下瀚 後孫 五喆謹識。

양촌 권근 연보(年譜)

1352년 고려 공민왕 원년

11월 6일에 태어나다.

1368년 고려 공민왕 17년 17세

8월,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다.

1369년 고려 공민왕 18년 18세

3월, 관시(館試)에 2등으로 합격하다. 5월, 초은(焦隱) 이인복(李仁復)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함께 관장한 예조의 시험에서 3등으로 합격하다. 6월, 전시(殿試) 병과(丙科)에 2등으로 합격하다. 7월, 춘추검열(春秋檢閱)에 제수되다.

1370년 고려 공민왕 19년 19세

과학향시(科學鄉試)에 3등으로 합격하다. 정월, 예문관 수찬에 제수되어 공봉(供奉: 정7품 벼슬)으로 옮기다. 12월, 수직랑 밀직당후(修職郎密直堂後)로 제수되다.

1371년 고려 공민왕 20년 20세

9월, 선덕랑 장흥고사(宣德郎長興庫使)에 제수되어 진덕박사(進德博士)를 겸임하다. 12월, 조청랑 태상박사(朝請郎太常博士)로 제수되어 진덕박사를 겸임하다.

1372년 고려 공민왕 21년 21세

6월, 승봉랑 전의주부(承奉郎典儀注簿)에 제수되다. 12월, 승봉랑 예

의좌랑(承奉郎禮儀佐郎)에 제수되어 진덕박사를 겸임하다. 배어대(緋魚袋: 금 또는 은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관복 띠에 맨 다음 뒤로 드리우게 하여 귀천을 표시)를 하사받다.

1373년 고려 공민왕 22년 22세

과학향시에 3등으로 합격하다. 12월, 승봉랑 군부좌랑(承奉郎軍簿佐郎)에 제수되어 진덕박사 지제교(進德博士知製教)를 겸직하다.

1374년 고려 공민왕 23년 23세

12월, 조봉랑 시성균직강 예문응교 지제교(朝奉郎試成均直講藝文應教知製教)에 제수되다.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다.

1375년 고려 우왕 원년 24세

4월, 통직랑 삼사판관 예문응교 지제교(通直郎三司判官藝文應教知製教)에 제수되다. 7월, 예의정랑(禮儀正郎)에 제수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를 맡았으며 나머지도 전과 같았다.

1376년 고려 우왕 2년 25세

정월, 군부정랑(軍簿正郎)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를 맡았으며, 나머지도 아울러 전과 같았다. 7월, 봉선대부 시전교부령 예문응교(奉善大夫試典校副令藝文應教)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를 맡다.

1377년 고려 우왕 3년 26세

5월, 봉상대부 전의부령 예문응교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奉常大夫典儀副令藝文應教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에 임명되다.

1379년 고려 우왕 5년 28세

4월, 중현대부 시소부윤(中顯大夫試小府尹)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을 맡다. 7월, 중정대부 전교령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中正大夫典校令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에 제수되다

1380년 고려 우왕 6년 29세

성균시(成均試)를 관장하여 홍상빈(洪尙賓) 등 110명을 뽑다. 3월, 중정대부 성균궐주(中正大夫成均祭酒)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을 맡다.

1381년 고려 우왕 7년 30세

2월, 중정대부(中正大夫) 전교령(典校令)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을 맡다.

1382년 고려 우왕 8년 31세

2월, 중정대부 전객령(中正大夫典客令)에 임명되어 전과 같이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을 맡다. 11월, 중정대부 좌사의대부 우문관 직제학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中正大夫左司議大夫右文館直提學知製教兼春秋館編修官)에 제수되다.

1384년 고려 우왕 10년 33세

7월, 봉순대부 판전교시사 진현관직제학(奉順大夫判典校侍事進賢館直提學)에 제수되다. 9월, 정순대부 판위위시사 지제교(正順大夫判尉衛寺事知製教)에 제수되다.

1385년 고려 우왕 11년 34세

성군시를 관장하여 윤봉(尹逢) 등 61명을 뽑다. 12월, 봉익대부 성군 대사성 진현관제학 지제교(奉翊大夫成均大司成進賢館提學知製敎)에 제수되다.

1387년 고려 우왕 13년 36세

4월, 서북면(西北面)에서 말을 점고(點考)하다. 8월, 봉익대부 예의 판서(奉翊大夫禮儀判書)에 제수되다.

1388년 고려 우왕 14년 37세

봄, 서도(西都)에 종군(從軍)하다. 6월, 정순대부 밀직사 좌대언 예문 관제학 지제교(正順大夫密直司左代言藝文館提學知製敎)에 임명되었으며, 춘추관수찬관 지군부시사(春秋館修撰官 知軍簿寺事)에 충임(充任)되다. 8월, 정순대부 밀직사좌대언 서연시강 예문관제학 지제교(正順大夫密直司左代言書筵侍講藝文館提學知製敎)에 임명되었으며, 춘추관수찬관 지전리사사(春秋館修撰官知典理司事)에 충임되다. 16일, 정순대부 밀직사지신사 서연시강 겸 판전의시사 우문관제학 지제교(正順大夫密直司知申事書筵侍講兼判典儀寺事右文館提學知製敎)에 임명되었으며, 춘추관수찬관 지전리사 내시다방사(春秋館修撰官知典理司內侍茶房事)에 충임되다. 9월,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이은(李垕) 등 33명을 선발하다. 10월, 봉익대부 밀직부사 서연시강 보문각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奉翊大夫密直副使書筵侍講寶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에 제수되다.

1389년 고려 공양왕 원년 38세

3월, 봉익대부 후덕윤 상의밀직사사 서연시독 보문각제학 동지춘추

관사 상호군(奉翊大夫厚德尹商議密直司事書筵侍講寶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에 제수되다. 5월, 봉익대부 첨서밀직사사 동관회의도감사 서연시독 진현관제학동지춘추관사 상호군(奉翊大夫簽書密直司事同判會議都監事書筵侍讀進賢館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에 제수되다. 6월,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에 조알(朝謁)하다. 9월,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다. 10월, 언사(言事)로써 우봉(牛峯)으로 귀양 가다. 12월 다시 영해(寧海)로 귀양 가다.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 39세

2월, 계림옥(鷄林獄)에 투옥되다. 흥해(興海)로 옮겨 귀양 가다. 4월, 김해(金海)로 옮기다. 5월, 청주옥(淸州獄)에 이송되다. 6월, 홍수(洪水)의 재이(災異)로 사면되어 한양(漢陽)으로 돌아오다. 7월, 다시 익주(益州)로 귀양 가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하다. 11월 귀양에서 풀려나다.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 40세

정월,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하다. 3월, 충주(忠州) 양촌(陽村)으로 돌아와서 『예경(禮經)』의 절차(節次)를 바로잡고, 『주역(周易)』·『시경(詩經)』·『상서(尙書)』·『춘추(春秋)』에 대하여 『천견록(淺見錄)』을 저술하다.

1393년 조선 태조 2년 42세

2월, 태조(太祖)가 계룡산(鷄龍山)에 행차하여 부르므로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니 명령이 내려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정충(鄭摠)과 함께 환왕(桓王)의 정릉(定陵) 묘비문(墓碑文)을 지었다. 3월, 어가(御駕)를 따라 서울로 돌아오다. 9월, 자헌대부 검교예문춘추관태학사 겸 성균대사성(資憲大夫檢校藝文春秋館太學士兼成均大司成)에 제수되다.

1394년 조선 태조 3년 43세

9월, 가정대부 첨서중추원사 도평의사사 보문각학사 겸 성균대사성(嘉靖大夫簽書中樞院事都評議司事實文閣學士兼成均大司成)에 제수되다.

1395년 조선 태조 4년 44세

4월, 가정대부 예문관춘추관학사 도평의사사 보문각학사 겸 예조전서 성균관대사성(嘉靖大夫藝文館春秋館學士都評議司事實文閣學士兼禮曹典書成均館大司成)에 제수되다.

1396년 조선 태조 5년 45세

7월 19일, 표(表)를 짓는 일 때문에 사절(使節)을 따라 중국에 가서 9월 11일에 입조(入朝)하니, 황제는 칙령을 내려 문연각(文淵閣)에 머물러 있게 하고, 명하여 3일 동안 구경하게 하는 동시에 잔치를 베풀어 주며, 명제(命題)하여 24편의 시(詩)를 짓게 하고, 어제시(御製詩) 3편을 하사하다.

1397년 조선 태조 6년 46세

정월, 자헌대부 화산군(資憲大夫花山君)에 제수되다. 본국 왕비(王妃)가 승하하여 부고(訃告)가 오자 3월 황제의 위문(慰文)을 받들고 돌아오다.

1398년 조선 태조 7년 47세

3월, 원종공신(原從功臣) 녹권(錄券: 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을 받는다. 7월, 자헌대부 화산군 수문전학사(資憲大夫花山君修文殿學士)에 제수되다. 부친상을 당하다. 명하여 기복(起復)하게 하므로 전(箋)을 올려 상기(喪期)를 마칠 것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는다는 비답(批

答)을 받는다.

1399년 조선 정종 원년 48세

정월, 가정대부 첨서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수문전학사(嘉靖大夫簽書中樞院事都評議使司事修文殿學士)에 제수되다. 상(喪)을 마치기를 청하는 글월을 올렸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12월, 자헌대부 정당문학동판도평의사사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資憲大夫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事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1400년 조선 정종 2년 49세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받는다. 3월, 자헌대부 정당문학 동판도평의사사사 겸 사헌부대사헌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資憲大夫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事兼司憲府大司憲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4월, 자헌대부 정당문학 지의정부사 겸 사헌부대사헌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資憲大夫政堂文學知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7월, 정헌대부 참찬문하부 지의정부사 겸 사헌부대사헌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正憲大夫參贊門下府知議政府事兼司憲府大司憲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8월, 정헌대부 참찬문하부사 지의정부사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正憲大夫參贊門下府事知議政府事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11월, 정헌대부 참찬문하부사 지의정부사 판공조사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正憲大夫參贊門下府事知議政府事判工曹事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에 제수되다.

1401년 조선 태종 원년 50세

정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정헌대부 참찬문하부사 지의정부사 판공조사 수문전학사 지경연예문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推忠翊戴佐命功臣正憲大夫參贊門下府事知議政府事判工曹事修文殿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다. 7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정헌대부 예문관대제학 지경연 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推忠翊戴佐命功臣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다. 12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 판형조사 보문각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推忠翊戴佐命功臣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判刑曹事實文閣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다.

1402년 조선 태종 2년 51세

지공거(知貢舉)로서 신효(申曉) 등 33명을 선발하다. 9월, 정헌대부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正憲大夫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고 공신(功臣)의 칭호는 전과 같다. 12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 판형조사 지경연 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推忠翊戴佐命功臣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判刑曹事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다.

1403년 조선 태종 3년 52세

교명(敎命)을 받들어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 대제학(大提學) 이첨(李詹)과 함께 『삼국사략(三國史略)』을 편수하다. 4월, 정헌대부 판예조사 집현전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길창군(正憲大夫判禮曹事集賢殿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

되고 공신의 칭호는 전과 같다. 6월,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 판예조사 보문각대제학 지경연춘추성균관사 길창군(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判禮曹事實文閣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吉昌君)에 제수되고 공신의 칭호는 전과 같다.

1404년 조선 태종 4년 53세

소장(疏狀)을 올려 한가한 곳에서 『예경(禮經)』 절차에 대한 교정을 끝마칠 것을 청했으나 윤택 받지 못하다. 7월, 순충익대좌명공신 정헌대부 참찬의정부사 판형조사 보문각대제학 지경연춘추성균관사 세자좌빈객 길창군(純忠翊戴佐命功臣正憲大夫參贊議政府事判刑曹事實文閣大提學知經筵春秋成均館事世子左賓客吉昌君)에 제수되다.

1405년 조선 태종 5년 54세

정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찬성사 보문각대제학 지경연춘추성균관사 세자좌빈객 길창군(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議政府贊成事實文閣大提學知經筵春秋成均館事世子左賓客吉昌君)에 제수되다. 여름, 『효행록(孝行錄)』에 주(註)를 달다. 12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길창군 보문각대제학 지경연춘추성균관사 세자좌빈객(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寶文閣大提學知經筵春秋成均館事世子左賓客)에 제수되다. 모친상을 당하다.

1406년 조선 태종 6년 55세

두 번이나 전문(箋文)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4월, 승정대부 예문관대제학 겸 판예빈시사 보문각대제학 지경연춘추성균관사 세자좌빈객 길창군(崇政大夫藝文館大提學兼判禮賓寺事實文閣大提學知經筵春秋成均館事世子左賓客吉昌君)에 제수되고 공신의 칭호는 전

과 같다. 5월, 기복(起復)하다. 8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길창군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 겸 판내자시사(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兼判內資寺事)에 제수되어 직무에 나아가다. 12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길창군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판내자시사 세자이사(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判內資寺事世子貳師)에 제수되다.

1407년 조선 태종 7년 56세

4월, 왕이 문신(文臣)을 중시(重試)하면서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과 선생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아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변계량(卞季良) 등 10명을 선발하다. 6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찬성사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세자이사 길창군에 제수되다. 가을, 소장(疏章)을 올려 한가한 곳에 나아가갈 것을 청하자 다시 봉군(封君)되다. 12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길창군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세자이사(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世子貳師)에 제수되다.

1408년 조선 태종 8년 57세

4월, 추충익대좌명공신 승정대부 길창군 집현전대제학 겸 판내섬시사 지경연춘추관사 세자이사(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君集賢殿大提學兼判內贍寺事知經筵春秋館事世子貳師)에 제수되다.

1409년 조선 태종 9년 58세

2월 14일(정해), 사제(私第)에서 졸(卒)하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조선왕조실록』 권근 관련 기사(記事)

『조선왕조실록』 권근 관련 기사 목록 정리표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394년 9월 8일	태조 3년	【원전】 1집 70면	권근·한이·이천우·황성·강계권·이서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1395년 6월 6일	태조 4년	【원전】 1집 79면	중추원 사 권근에게 관혼 상제의 예를 상정하게 하다.
1396년 7월 19일	태조 5년	【원전】 1집 94면	표문과 전문 지은 권근·정탁 등을 남경으로 보내며 시문을 짓다.
1396년 11월 20일	태조 5년	【원전】 1집 97면	정충·권근·김약항·노인도의 가솔을 호송하여 남경에 보내다.
1397년 3월 8일	태조 6년	【원전】 1집 101면	안익·김희선·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 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1397년 4월 20일	태조 6년	【원전】 1집 105면	정도전이 무고하여 양천식·설장수·권근을 탄핵하였으나 임금의 불문에 붙이다.
1397년 12월 24일	태조 6년	【원전】 1집 112면	권근이 원종 공신에 참여되기를 빈 상서문. 설장수와 함께 공신에 추록되다.
1398년 4월 4일	태조 7년	【원전】 1집 119면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이 지은 종의 명(銘)과 그 서문을 쓰다.
1398년 4월 20일	태조 7년	【원전】 1집 120면	정도전과 권근을 성균관 제조로 삼아 3관 유생 등을 모아 경사를 강습하게 하다.
1399년 10월 8일	정종 1년	【원전】 1집 157면	첨서중추원사 권근이 상서하여 시정의 여섯 가지 일을 말하다.
1399년 12월 1일	정종 1년	【원전】 1집 160면	이화·조준·김사형·심덕부·성석린·이거이·민제·권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400년 1월 1일	정종 2년	【원전】 1집 161면	경연에서 권근이 『통감촬요』를 진강하다
1400년 3월 15일	정종 2년	【원전】 1집 167면	조준·성석린·민제·권근에게 관직을 주다.
1400년 3월 18일	정종 2년	【원전】 1집 167면	권근이 사헌부의 직을 겸임하고, 전백영이 여묘살이 중에 상의중추의 직을 맡다.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400년 4월 1일	정종 2년	【원전】 1집 168면	대사헌 권근이 풍문공사가 불가피하게 있음을 논하고 관직을 함부로 주지 말기를 건의하다.
1400년 4월 18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1면	대사헌 권근이 재능이 없다고 하여 사면하기를 비니 윤허하지 않다.
1400년 5월 1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1면	권근·김약채 등의 상소로 종친과 부마로 하여금 직사를 맡지 못하도록 명하다.
1400년 5월 8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3면	정당 문학 겸 대사헌 권근이 전을 올려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다.
1400년 5월 17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4면	경연에서 『통감촬요』를 강론하다가 권근과 요동의 정세를 논하다.
1400년 6월 2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6면	권근의 건의로 다시 노비 변경 도감을 설치하다.
1400년 7월 2일	정종 2년	【원전】 1집 178면	대사헌 권근 등에게 일을 보도록 명하다.
1400년 7월 2일	정종 2년	【원전】 1집 180면	권근·정탁·최유경 등의 관직을 바꾸고 문무관 3품 이상에게 관교를 주다.
1400년 11월 13일	정종 2년	【원전】 1집 187면	경연에서 『대학연의』를 잘 강의한 권근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1401년 1월 14일	태종 1년	【원전】 1집 191면	참찬문하부사 권근이 치도 6조목을 임금에게 권고하다.
1401년 윤3월 18일	태종 1년	【원전】 1집 200면	지경연사 권근이 고금의 천지 재변에 대해 진강하다.
1401년 5월 1일	태종 1년	【원전】 1집 203면	권희·권근 부자를 무고한 권식을 사형하다.
1401년 6월 16일	태종 1년	【원전】 1집 206면	하윤·권근·이첨에게 관제를 개정하게 하다.
1401년 11월 7일	태종 1년	【원전】 1집 216면	권근의 건의에 따라 정몽주·김약항 등에게 증직하다.
1401년 12월 9일	태종 1년	【원전】 1집 219면	이직·권근·최유경·노한 등에게 새로이 관직을 주다.
1401년 12월 12일	태종 1년	【원전】 1집 219면	의정부 참찬 권근에게 사신 축명헌의 시를 속운(續韻)하게 하다.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402년 3월 16일	태종 2년	【원전】 1집 228면	지공거 권근·동지공거 이침이 정환 등 33명을 뽑다.
1402년 5월 10일	태종 2년	【원전】 1집 234면	권근에게 『상서』에 구두점을 찍어 올리게 하다.
1402년 5월 17일	태종 2년	【원전】 1집 234면	축맹헌 등 사신이 전별시를 청하니 권근이 시축을 만들어 주다.
1402년 6월 8일	태종 2년	【원전】 1집 236면	하윤·권근·이침에게 『삼국사』를 수찬하게 하다
1402년 9월 20일	태종 2년	【원전】 1집 246면	이직·권근·이문화·윤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403년 8월 21일	태종 3년	【원전】 1집 273면	구언에 답하여 참찬의정부사 권근이 상언하다.
1403년 8월 30일	태종 3년	【원전】 1집 275면	하윤·권근·이침이 새로 편수한 『동국사략』을 바치다.
1403년 10월 20일	태종 3년	【원전】 1집 281면	권근이 제릉의 비문을 올리다.
1403년 윤11월 1일	태종 3년	【원전】 1집 284면	참찬 권근과 대제학 이침이 문신을 복시하는 절차를 상정하다.
1403년 12월 18일	태종 3년	【원전】 1집 287면	셋째 딸 경안 공주를 권근의 아들 규에게 하가(下嫁)시키다.
1404년 3월 16일	태종 4년	【원전】 1집 292면	제릉의 비를 세우는 데 공헌한 성석린·권근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다.
1404년 9월 11일	태종 4년	【원전】 1집 305면	성석린·조준·이무·조영무·이직·권근 등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1404년 9월 26일	태종 4년	【원전】 1집 308면	무악에 도읍할 땅을 살피러 가다. 조준·하윤·남재·권근 등이 수행하다.
1404년 10월 2일	태종 4년	【원전】 1집 309면	조준·하윤·권근 및 여러 종친과 함께 무악에 가서 도읍할 땅을 보다.
1404년 11월 28일	태종 4년	【원전】 1집 315면	권근이 『예경전견록』을 찬집하기 위해 사직을 청하는 전문을 올리다.
1404년 12월 19일	태종 4년	【원전】 1집 316면	권근에게 고려시대 관제를 『고려사』에서 상고케 하다.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405년 8월 11일	태종 5년	【원전】 1집 333면	권근이 한양 환도의 불가함을 상소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
1405년 10월 2일	태종 5년	【원전】 1집 339면	지춘추관사 권근·유양이 국사를 경복궁 근정전에 보관하다.
1405년 10월 17일	태종 5년	【원전】 1집 340면	길창군 권근이 김반과 김종리를 천거하니, 관직을 제수하다.
1405년 10월 20일	태종 5년	【원전】 1집 340면	이궁의 완성 축하연에서 권근이 화악시(華嶽詩)를 지어 바치다.
1405년 10월 21일	태종 5년	【원전】 1집 341면	세자사 성석린, 빈객 권근 등이 세자에게 근면하도록 조언하다.
1406년 4월 28일	태종 6년	【원전】 1집 355면	권근을 기복시커 예문관 대제학에, 신극례를 참찬의정부사에 임명하다.
1406년 5월 1일	태종 6년	【원전】 1집 355면	권근이 사직을 청하는 전문을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1406년 5월 13일	태종 6년	【원전】 1집 357면	권근이 기복(起復)을 사양하는 글을 올렸으나, 윤택하지 않다.
1406년 8월 20일	태종 6년	【원전】 1집 371면	남재·권근 등이 전위 불가 상소. 결국 환관 노희봉을 시켜 옥새를 세자궁에 보내다.
1406년 8월 22일	태종 6년	【원전】 1집 373면	권근에게 공운과 노루 고기 등을 하사하다.
1406년 8월 24일	태종 6년	【원전】 1집 373면	길창군 권근이 전위의 불가함을 상서하다.
1406년 9월 29일	태종 6년	【원전】 1집 376면	길창군 권근에게 노루와 기러기를 하사하다.
1406년 11월 17일	태종 6년	【원전】 1집 379면	길창군 권근이 『예기천견록』을 찬하여 올린다.
1406년 12월 8일	태종 6년	【원전】 1집 380면	이서·하윤·권근·이원·이화영·민무질·조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407년 3월 24일	태종 7년	【원전】 1집 388면	길창군 권근이 권학에 대한 조목을 아뢴 상서문.
1407년 3월 25일	태종 7년	【원전】 1집 389면	중시(重試)를 실시하기 위해 권근을 예문관 대제학으로 삼다.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407년 6월 22일	태종 7년	【원전】 1집 400면	세자의 혼인 문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의정부 찬성사 권근의 상서.
1407년 6월 28일	태종 7년	【원전】 1집 400면	의정부사 성석린이 원단에 기우제를 지내다. 권근이 제문을 쓰다.
1407년 6월 28일	태종 7년	【원전】 1집 402면	권근 등이 잘못을 지적했다하여 대간이 모두 사직하다.
1407년 9월 19일	태종 7년	【원전】 1집 416면	의정부 찬성사 권근이 병으로 사직하다.
1408년 5월 19일	태종 8년	【원전】 1집 440면	길창군 권근에게 『예기』에 실린 상제를 베풀어서 바치게 하다.
1408년 8월 5일	태종 8년	【원전】 1집 447면	길창군 권근과 안성군 이숙번을 국장 도감의 추가로 정한 제조로 삼다.
1408년 11월 9일	태종 8년	【원전】 1집 462면	권근이 대간의 직책에 대한 사목을 상언.
1408년 12월 10일	태종 8년	【원전】 1집 468면	와병 중인 길창군 권근이 대간들을 용서하기를 청하는 상소문.
1408년 12월 16일	태종 8년	【원전】 1집 469면	대간의 탄핵 문안에 발론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자라는 권근의 상소문. 의정부에 내리다.
1409년 2월 14일	태종 9년	【원전】 1집 474면	길창군 권근의 즐기.
1409년 2월 23일	태종 9년	【원전】 1집 476면	세자가 친히 권근의 빈소에 전을 올린다.
1409년 윤4월 13일	태종 9년	【원전】 1집 483면	건원릉에 비석을 세우다. 비문은 권근의 찬.
1411년 7월 1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1면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1411년 7월 1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1면	다시 대간에서 하윤과 권근의 죄를 청하다.
1411년 7월 2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1면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1411년 7월 2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2면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연월일	연간	출처	제목 내용
1411년 7월 2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3면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1411년 7월 2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4면	하윤·권근을 논죄하지 말도록 하다.
1411년 7월 2일	태종 11년	【원전】 1집 594면	대간에서 하윤·권근을 논죄하니 임금이 노하다.
1419년 8월 6일	세종 1년	【원전】 2집 330면	좌사간 대부 정수홍 등이 권근의 문묘 배향을 건의하다.
1419년 9월 21일	세종 1년	【원전】 2집 338면	원숙이 권근의 문묘 종사 문제를 문신들에게 의논시킬 것을 청하다.
1419년 10월 24일	세종 1년	【원전】 2집 343면	권근의 문묘 종사 가부를 논할 때 최충과 하윤도 같이 의논하게 하다.
1431년 3월 8일	세종 13년	【원전】 3집 299면	이색·정몽주·권근 등의 문(文)·이재(吏才)를 논하다.
1436년 5월 12일	세종 18년	【원전】 3집 675면	김일자 등이 이제현·이색·권근을 문묘에 배향하기를 청하다.
1465년 10월 9일	세조 11년	【원전】 7집 707면	겸예문 관리들에게 『주역구결』과 권근의 구결에 표를 붙이고 논하게 하다.
1744년 11월 4일	영조 20년	【원전】 43집 161면	제릉의 신도비를 증건함에 권근이 찬한 비문을 쓰고 이의현에게 음기를 짓게 하다.

찾아보기

	[1]	공효(功效)	56
12궁	172	과설지수	202
12율(十二律)	171	권근	3
12진	141, 142	권덕주	4
	[2]	권도(權蹈)	215
28수	141, 142	권부	6
	[5]	권영휴(權寧庠)	219
5기(五氣)	174	권오철(權五喆)	219, 221
5성(五聲)	171, 174	권태협(權泰夾)	219
	[8]	금마군	5, 21
8음(八音)	174	금축(琴軸)	217
	[7]	금후의(琴侯椅)	217
각수성(角壽星)	148	기대승	3
건인(建寅)	147	기영(氣盈)	150
건축(建丑)	147	기질	30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	171	김이음	7
경(敬)	14	김이음(金爾音)	209
경안본	8		
계구(戒懼)	72	[ㄴ]	
고자	35	낙서	108
공민왕	5	낭주본	8
공영달	146	내괘(內卦)	152
		노양(老陽)	121
		노음(老陰)	121
		『논어』	11

	[ㄷ]			[ㅅ]	
대순(大舜)		93	사단칠정		3
『대학』		10	사서장구(四書章句)		7
동중서		57	사손		49
두성(斗星)		143	사시백물(四時百物)		40
			삭허(朔虛)		150
	[ㄹ]		삼덕(三德)		130
『맹자』		11	삼재(三才)		126
명(命)		71	삼종(三宗)		134
명명덕		58	생수(生數)		107
묘대화(卯大火)		146, 147	서(愆)		55
무극		37	『서경』		12
무왕		93	선악(善惡)		10
무왕(武王)		134	선진유학		7
문왕(文王)		135	선천		118
			설시법		12
	[ㅂ]		성(誠)		14
박옹(朴融)		215	성기(星紀)		143, 147
반무량(潘茂良)		215	성리(性理)		7, 33
백운동 서원		217	성리학		3
백이정		6	성수(成數)		107
변계량		8	성조(星鳥)		143
변계량(卞季良)		216	성탕(成湯)		38
변풍(變風)		184	소장(消長)		138
복희		117	수오		49
본말(本末)		56	순임금		46
부안		8	술강루(戊降婁)		146
부처		35	시(揲蓍)		121
			『시경』		12
			시비		49

신(信)	38	왕월(王月)	103
신독(慎獨)	72	요로	10
신민	58	욕(欲)	14
심광언	23	우봉(牛峯)	5
심성론	4	우성(牛星)	144
십이벽괘	138	우왕	46
		우탁	6
		원(元)	40
		유근(劉瑾)	182
		유자(劉子)	38
		육부(六府)	169
		윤여(閏餘)	144
		음려(陰呂)	172
		음의(陰儀)	41
		의(意)	33
		이(利)	34, 40
		이곡	6
		이기(理氣)	10
		이기오행(二氣五行)	40
		이색	6
		이수(李穗)	215
		이숙무(李叔畝)	215
		이승인	5
		이윤	38
		이정옹	78
		이제현	6
		이황	3
		익주	5
		인(人)	4
		인(仁)	30

[〇]

안향	6		
안현(安玼)	216		
양옹	41		
양율(陽律)	172		
양의(陽儀)	41		
양혜왕	98		
여성(女星)	144		
역학	4		
연경	6		
영가	21		
영석(影夕)	166		
영조(影朝)	166		
영주	8		
영천본	8		
『예기』	48		
오(午)	44		
오기(五紀)	130		
오사(五事)	130		
오상(五常)	37		
오신(五辰)	169		
오행(五行)	130, 168		
왕계(王季)	135		

	[ㅍ]		홍범구주(洪範九疇)	130
팔정(八政)		130	화(和)	73
			화육(化育)	34
	[ㅎ]		황간	57
「하도」		106	황극(皇極)	130
하연(河演)		215	황중율관(黃鍾律管)	171
한유		35	황효공(黃孝恭)	217
해(害)		34	『혹문』	72
해추자(亥媿訾)		146	효(孝)	64
현효(玄杻)		147	후직(后稷)	134
형(亨)		40	후집(後集)	4
형상		45	후천	118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8

국역 입학도설

入學圖說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양촌 권근

공역자 조우진·정영수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97-8 (94910)

979-11-90608-28-2 (세트)

이 책은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입학도설』을 번역한 것이다. 『입학도설』은 성리학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을 위해 성리학의 핵심 개념과 자연관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교재로 사용될 것이다.



값 18,000원

ISBN 979-11-90608-97-8
ISBN 979-11-90608-28-2 (세트)